책을 내면서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을 쓴 유리 본다레브는 이전 쏘련의 이름있는 작가로서 쏘련최고쏘베트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이며 레닌 및 국가상 수상자이다.

그의 대표적작품으로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출판된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을 비롯하여 지식인을 취급한 3부작 장편소설 《기슭》, 《선택》, 《놀음》등이 있다.

유리 본다레브는 포병군관으로서 쏘도전쟁에 참가하여 싸웠기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일관하게 전쟁과 포병생활로 관통되여있다.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은 그의 초기작품이다.

소설은 1944년도 저물어가는 제2차세계대전의 마감시기 체스꼬슬로벤스꼬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이전쏘련병사들의 높은 국제주의정신과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준다.

도이췰란드파시스트침략자들은 슬로벤스꼬의 마리쎄시로동자들의 폭동을 탄압말살함으로써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 최후수단을 다한다. 슬로벤스꼬의 마리쎄시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뾜스까―체스꼬슬로벤스꼬의 국경도시 까스노시를 거쳐야 한다.

놈들은 까스노시를 일격에 돌파할 목적밑에 수백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발악적인 공격을 해온다.

광산대학 학생으로서 전쟁이 일자 용약 전선에 달려 나온 노비꼬브중대장을 비롯한 포병중대원들은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을 상대로 하여 피어린 전투를 벌린다.

가렬처절한 이 전투에서 그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랑도 청춘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놈들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기여한다.

독자들은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을 통하여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청년군인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무비의 용감성을 뜨겁게 느낄것이다.

편집부

제 1 장

노비꼬브대위는 밤 12시에 초소들을 검열하였다.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가을밤의 어둠을 헤가르며 고지로 오르는 그의 머리우에서는 소나무 우듬지들이 솨솨 소리내며 설레이고있었다.

까르빠트에서 맵짠 북풍이 불어왔다. 고지는 마치 련속 들이치는 바람에 몸부림치듯 온통 울부짖고있었다. 눈냄새가 풍겼다.

적측 상공에서는 이따금 바람에 신호탄들이 꿈틀거리다가 옆고지의 어두운 산너머에서 스러지군 했다. 국경도시인 까스노가 자리잡고있는 오른쪽 평야에서는 딱히 알수 없는 불빛들이 소리없이 확 피여났다가 입으로 불어끄듯 단번에 꺼지군 했다. 기관총은 숨을 죽이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어둠속에서 대포도 보초도 가려볼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향방없이 걸어갔다. 바람이 외투자락을 사정없이 잡아흔들었다. 그는 음침하고 차거운 이 까르빠트에서 어쩐지 애수와 이름할수 없는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요즈음은 때없이, 그것도 밤마다 잠간씩 정적이 깃들 때면 쓸쓸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한것은 나흘전 까스노시를 점령할 때 그의 중대에서 처음으로 관리소대장을 비롯한 아홉명의 대원을 단번에 잃었었다. 노비꼬브는 그 슬픔을 도저히 잊을수 없었다.

《보초!》고지막바지 토굴앞에 이른 노비꼬브는 목소리로 보아 1소대원들이라고 짐작하고 큰소리로 찾았다.

대답이 없었다.

《보초!》 그는 재차 더 크게 소리쳤다.

뭔가 거밋거밋한것이 토굴입구에서 부스럭거리더니 방수포문가리우개를 걷어올리며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예! 거 누구요?》

《〈예〉는 무슨 예! 제길할!》 노비꼬브는 욕설했다.

《숨박곡질이라도 하려는거요?》

《섯! 누구요?》 보초는 어마어마하게 소리지르고나서 기관단총의 격발기를 절컥거렸다.

《깨여들 났소? 토굴속에선 웬 소동이요?》 노비꼬브는 불만스런 어조로 물었다. 《왜 대답이 없소?》

《큰소리로 말하는건 오브친니꼬브소대장입니다. 대위동지.》 보초는 겁을 먹은듯 헛기침을 하더니 《왜 저리들 고아대?》 하고 웅얼거렸다.

노비꼬브는 토굴문을 밀어제꼈다.

나지막한 토굴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고 뽀얗게 연기가 서린 방 한복판에서 도이췰란드제 남포등이 너울거리며 타올랐다. 책상과 침상들에 둘러앉은 병사들의 벌거우리해진 얼굴들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저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며 지독하게 담배를 피워대고있었다. 곱게 생긴 입이 도고한 인상을 주는 1소대장 오브친니꼬브중위가 주먹으로 책상을 땅 치더니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허벅다리에 드리운 무거운 권총집을 아무렇게나 뒤로 밀어제끼고 우쭐하여 호통을 쳤다.

《그만 떠들고 축배를 듭시다! 레나를 위하여! 다같이 마십시다!》

그에 호응하여 와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순간에 잦아들었다. 말없이 문가에 서있는 노비꼬브중대장을 발견했던것이다. 그는 병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위생지도원도 여기에 있소?》

그가 놀란것은 도이췰란드전선과 팔백메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이런 놀음판이 벌어졌다거나 병사들이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거기에 휘말려든것때문이 아니였다. 마라초담배연기가 코를 찌르고 사내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속에 처녀위생지도원 레나 꼴로쓰니꼬바가 섞여 앉아있는것이 전혀 리해되지 않았던것이다. 두손으로 무릎을 싸쥐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레나는 본래 붙임성없는 처녀였으나 지금은 제법 들떠서 싱글벙글대는 병사 랴갈로브와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함박꽃같은 웃음을 짓는군.) 노비꼬브는 일종의 질투심을 이길수 없었다. (저 녀자는 취했거나 오브친니꼬브중위의 마음에 들고싶어하고있어. 무엇때문에 저럴 필요가 있을가?) 그는 레나의 경솔한 웃음에 대한 자기의 반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며 레나와 오브친니꼬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기서 뭣들을 하고있소? 결혼식이요?》

그가 이 말을 어떻게나 거칠게 내쏘았던지 엄페호는 삽시에 조용해졌다. 레나만이 그에게 묻는듯한 눈길을 던지더니 돌연히 침상에서 발딱 일어나 영채도는 눈을 쪼프리고 웃으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래요, 여기선 결혼식을 해요.》 처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달려들었다. 《나와 오브친니꼬브를 축하해주세요. 오브친니꼬브중위!》 레나가 명령조로 불렀다. 《대위동지에게 술을 부어드리세요!》

레나는 도전적으로 당돌하게 쳐다보고있었다. 옷깃에 둘러싸인 가늘고 부드러운 목이며 좁은 어깨며 넓은 혁띠로 허리를 졸라매여 팽팽히 당겨진 군복저고리에 가리워

진 작고 탄탄한 가슴, 이것은 그의 당돌함을 더해주는듯 싶었다.

노비꼬브는 위생지도원의 당돌한 행동때문에 난처한 경우를 한두번만 당하지 않았었다. 순간 잠잠해진 병사들의 면전에서 얼굴이 붉어진 자신을 발견한 노비꼬브는 부아가 치밀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위생지도원동무, 동무는 언제나 격에 맞지 않는 롱담을 즐기누만.》그리고는 오브친니꼬브에게 돌아서서 명령조로 말했다. 《당장 걷어치우시오! 이게 무슨 놀음판이요. 무엇이 기뻐서 그러오. 모두 휴식하시오!》

오브친니꼬브중위는 채 마시지 못한 술잔에 또렷해진 맑은 눈을 모아박더니 물었다.

《대위동지, 어째 그러십니까? 저의 생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전 스물여섯살을 먹었습니다. 랴갈로브, 중대장에게 한잔 부어드리오! 중대장동지, 맺혔던걸 우리 말끔히 풉시다.》

강마르고 작달만한 키에 누르끼레한 털이 볼에 한벌 덮이운 중년의 병사 랴갈로브는 난처한듯 오브친니꼬브와 중대장을 번갈아 곁눈질해보더니 머뭇거리며 군용물통에서 술을 한잔 가득히 부어가지고 중대장에게 내밀었다.

《대위동지, 드십시오. 저 거시기… 깨끗한겁니다.》

술을 안마시던 랴갈로브가 지금 술을 마시고 권하는걸 목격하게 된 노비꼬브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랴갈로브가 내여민 술잔을 물리치고 침울하게 웃었다.

《축하하오.》이 말을 남긴 그는 구부정하고 문께로 걸어갔다.

문턱을 넘어서려는데 등뒤의 거북한 침묵이 느껴졌다.

그는 자기가 그렇듯 사랑하는 오브친니꼬브소대원들이

모여있는 이 토굴에 금방 랭기와 불만을 날라다준것으로 하여 마음이 언짢았다. 그는 항상 남자들의 관심속에 사는 레나의 버릇이 그르쳐졌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다. 그것은 물론 레나가 이전에 련대정찰소대에서 생활한것과 관계될것이였다. 레나는 비밀이 없는 참모서기들의 입을 통해 밖으로 새여나오게 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두달전에 자기 중대에 배속되여왔었다. 레나가 결김에 련대장부관에게 총질할번 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노비꼬브는 그 말을 그리 믿지 않았다. 정찰병들과의 사이가 특별히 가까왔다는 다른 소문이 보다 가까운것일것이다. 노비꼬브는 그 녀자의 자그마한 자태와 군복상의에 팽팽하게 가리운 단정한 앞가슴, 웃을 때 눈에서 내뿜는 따뜻한 광채를 볼 때마다 그리고 암암리에 남자들을 꼬이려드는듯한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병적으로 신경이 자극되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모든 남자들에게 호락호락 넘어갈것 같아보이는 그 녀자가 그에겐 범접하기 힘든 존재로 느껴졌다. 위생지도원이 중대에 도착한 초시기에는 그 처녀로 하여 그는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어느정도 비웃는 태도로 대하였다. 때로는 그 처녀의 면전에서 지나친 언사조차 삼가치 않았었다. 후에 자기 토굴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서야 자신을 돌이켜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 못해했다. 그 처녀의 존재는 그를 구속하고 방해했다. 그 처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줄곧 처녀가 곁에 있는것처럼 느껴졌으며 처녀의 대담한 행동이나 목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무근거한 신경자극을 설명해낼길이 없었다.

토굴에서 나온 노비꼬브는 차거운 가을밤의 어둠속에 혼자 서있었다. 금방 자기 병사들을 란폭하게 모욕했다는것, 더우기 자기 중대성원중에 스무명밖에 살아남지 않은것으로 해서도 사람들과 더 친숙하고 리해력이 있어

야 할 자신이 그들을 모욕했다는 생각으로 하여 괴로왔다.
바람이 귀전에서 윙윙거렸다. 괴롭게 찌그덕거리는 소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그에게는 술취한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로 들리였다. 어제 파묻은 전우들을 벌써 잊은듯 흥탕망탕 술을 마시며 웃어대는 그들을 목격하자 노비꼬브는 아픈 가슴을 누를길이 없었던것이다.
손더듬으로 나무그루터기를 찾아(낮에 보아두었었다.) 걸터앉은 그는 꺼칠한 볼을 아프게 문지르며 자기가 남달리 아끼는 2소대장 알레쉰소위의 포 두문이 있을 한키로반 떨어진 고지너머의 까스노시의 서쪽방향을 지켜보고있었다. 그곳엔 암흑이 펼쳐지고 신호탄조차 날아오르지 않았다.
《전 가겠습니다.》 노비꼬브의 몇발자국앞에서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굴안에서 어렴풋한 말소리가 새여나오더니 노란색불광이 줄띠처럼 나무숲을 비쳤다. 네발자국쯤 되는 곳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와 희미한 륜곽으로 보아 레나임을 알수 있었다.
레나는 노비꼬브를 보지 못한채 그의 바로 곁에 멈춰서서 고지에서 신호탄이 불타는 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설레는 나무사이로 뭔가 결심한듯한 레나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소나무의 울부짖음을 뚫고 토굴문 열리는 소리가 삐걱—하더니 솜저고리의 앞섶을 열어젖힌 오브친니꼬브중위가 뛰여나와 석쉼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레나, 어디로 가오? 좀 서오!》
《전 가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레나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 가겠어요!》
오브친니꼬브가 엄하게 따졌다.
《어디로 가는거요?》

《정찰병들한테로요. 그사람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레나는 비양조로 대꾸했다. 《전 여기 소대에 익숙되지 못했어요. 중위동지, 여기 동무들은 정찰병들과 다르더군요.》

오브친니꼬브는 레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고통스럽게 하소연했다.

《다르다구요? 바란다면 난 동무를 위해 저기 탄우속에라도 뛰여들겠소. 그렇게 하랍니까? 동문 아직 날 잘 모르오.》

《아니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레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미련한짓이예요.》

그러자 그는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그렇다? 아무랬든 난 동무를 못보내겠소. 동무는 우리들을 잘 모르오.》

그가 레나에게 바투 다가서자 두사람이 합쳐진듯하더니 인차 레나가 피곤한듯 말끝을 길게 뽑으며 명령조로 쏴붙였다.

《저리 비켜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동무의 입술은 젖었군요. 중위…》

레나는 그를 뿌리치고 멀찍이 물러섰다. 오브친니꼬브는 한발자국 뒤걸음질치더니 큰소리로 《레나, 서오!》 하며 뒤쫓아갔다. 씨근덕거리는 그의 숨소리와 결단성이 부족한 짧은 웨침소리에는 무엇인가 남자의 존엄을 떨구고 구걸하는듯한 불쾌한것이 슴배여있었다.

노비꼬브는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켜 자기 참호를 향해 걸어갔다.

조는듯 껌벅거리는 누런 등잔불빛이 참호안을 반쯤 비치고있었다. 덥고 탁한 공기때문에 외투와 밀짚냄새가 났다. 얼굴이 둥그스름한 젊은 당직통신병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있었다. 눈섭은 피곤한듯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고 불꺼진 담배꽁초는 삐죽이 내여민 그의 입술에, 또 다른 한대의 마라초는 귀에 꽂혀있었다. 그의 앞 포탄상자우에는 나무숟가락이 꽂인채 작은 밀죽남비가 놓여있었다. 남비옆에는 질근질근 깨물어서 끝이 몽드라진 연필과 학습장에서 뜯어낸 구겨진 종이장이 놓여있었고 또박또박 박아쓴 글줄우에는 빵부스레기들이 떨어져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편지를 쓴것 같았다. 노비꼬브는 소학교학생의 필체로 꼭꼭 박아쓴 《동무는 나를 질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한텐 녀자들이 없기때문이요. 간호원 한명이 있긴한데 아주 박색이요.…》라고 쓴 편지내용을 읽고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통신병에게 대대장의 전화가 오지 않았던가 묻고 싶었으나 잠을 깨우기가 애처로왔다. 주변에서는 병사들이 불안하게 신음소리를 내거나 웅얼웅얼 잠꼬대를 하면서 자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옷을 입은채로 평시의 자기 자리인 침상 한끝에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았다. 눈앞에 불꽃이 한가득 떠다니며 병사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던 토굴속의 탁한 공기속에 자신이 혼곤히 빠져드는듯한 환각에 빠져들었다. 그들속에 레나와 오브친니꼬브의 얼굴도 얼른얼른 춤을 추며 나타났다. 흔히 있는 토끼잠의 개꿈이였다.

그는 머리를 짓누르는 요란한 소리에 소스라쳐 깨여나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뭐요? 호출신호요?》하고 얼떠름하여 물었다. 《전화요?》

《원거리포가 고지를 쏘아댑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토굴속은 온통 화약냄새와 누런 연기로 차고넘쳤다. 그속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병사들이 흔들거리는 그림자로 되여 오락가락했다. 한사람같이 잠에 취한 무거운 눈길로

마구 뒤흔들리는 토굴천정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움씰움씰 움직이는 통나무의 틈사리로 천정의 흙이 푸실푸실 떨어졌다. 머리꼭대기에서는 숨이 막히게 하는 무엇인가 굉장히 크고 육중한것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지를 파헤치고 마구 흔들어놓고있었다. 포탄파편 날아가는 소리에 울부짖는 바람소리마저 짓눌려 들리지 않았다.
《원거리포가… 명중됐습니다.》 통신병 구쎄브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속삭였다. 《포탄구뎅이들이… 집과 함께…》
포장인 상등병 라지야는 한쪽다리를 승마바지가랭이에 성급히 꿰느라 한발로 뛰면서 구쎄브에게 소리질렀다.
《잠을 자드랬어? 느렁뱅이같은게. 일선 형편이나 알아봐.》 그는 단추를 채우면서 노비꼬브를 힐끗 쳐다보고 어조를 바꾸어 말했다. 《시작된것 같습니다. 대위동지, 들리지요? 보통 포사격같지는 않습니다. 저것 보지, 개판인데!》
뒤미처 쟁쟁한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위치롯! 포를 향해 구보롯!》
《가만!》 노비꼬브는 수화기에 대고 왝왝 호출신호를 불러대는 구쎄브를 멈춰세우고 띠염띠염 물었다. 《〈쐐기풀〉한테서 명령이 있었소?》
《전혀 없습니다.》 구쎄브는 두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눌러대면서 중얼거리더니 전화기에 몸을 수그렸다. 천정에서 흙덩이들이 전화기와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전혀 없습니다.》 그는 바투 깎은 둥그런 머리를 뻑뻑 긁으며 중얼거렸다.
《수화기를 주오. 동문 통신병이요 아니면 뭐요? 동무는 모든걸 알고있어야 한단말이요.》 노비꼬브는 이렇게 말하고 구쎄브의 손에서 땀에 축축히 젖고 따스해진 수화기를 잡아챘다. 《쐐기풀! 쐐기풀! 어째 이렇소? 어떻게 된 일이요? 쐐기풀! 왜 이러오?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이러오?》

그는 구쎄브를 흘겨보며 《선로상태는 검열했소?》하고 따져물었다.
《나는 쐐기풀, 나는 쐐기풀》돌연히 수화기에서 모기소리만한 말소리가 튀여나오더니 련이어《전화받는게 누구요? 6번 전화받으시오. 6번 전화받으시오! 6번, 지체없이 쐐기풀한테 오시오! 당장!》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6번》노비꼬브는 포탄상자우에 놓인 남비와 거기에 담긴 갈색액체를 들여다보며 불만스레 응대하였다.
《무슨 일이요? 가겠소.》
그는 수화기를 놓자 나무랄데없이 지은 옷이였지만 지금은 어지간히 낡은 외투를 떨쳐입고 권총집이 달린 혁띠를 띠였다. 그리고 섬세하게 생긴 짙은 두눈섭을 쫑긋하며 권총집에서 떼떼권총을 꺼내여 손바닥으로 탁 쳐서 탄창을 뽑은 다음 검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대위는 이 모든 동작을 덤비지 않고 말없이 해나갔고 병사들 또한 그처럼 말없이 차츰 커가는 포사격소리에 귀를 강구며 한번은 대위를, 한번은 마구 떨리는 토굴천정을 올려다보았다. 노비꼬브는 왜서인지 줄곧 시무룩해가지고 한번도 우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소년티를 아직 벗지 못한 해말쑥한 얼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상시의 그 투박한 말투로 명령했다.
《레메슈꼬브, 나와 함께 갑시다!》
스물여섯살의 총각인 말수더구가 적고 사귐성이 없는 장탄수 레메슈꼬브는 고향 랴잔에 가서 여섯달동안 부상치료를 마치고 금방 돌아온 복받은 병사였다. 침상에 앉아있던 그는 눈섭이 희고 건강미가 흐르는 얼굴을 아

《난 다리가… 다리가…》 그는 가련하게 입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무릎을 썩썩 문질렀다. 《이 다리를 가지고는 산으로 오르기가… 대위동지, 다리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구?》노비꼬브는 틀에 박힌 동작으로 권총을 총집에 밀어넣으면서 되물었다. 《뭐, 다른 사람이라구?》

그는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는바 아니였다. 허나 레메슈꼬브를 선정한것은 자기 중대병사들이 휴식없이 전투를 하면서 까르빠트까지 오는동안 레메슈꼬브는 여섯달동안 집에 누워있은것 때문이기도 했으며 또한 그가 중대의 신입병사였기때문에 다르게는 할수 없는 엄격한 요구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지?》

레메슈꼬브는 대꾸하지 않았다. 병사들도 침묵하고있었다.

참호는 바르르 몸을 떨고 발밑의 땅바닥은 흔들리였다. 폭발이 멎은 짧은 시간에는 먼 기관총소리가 끼여들군 했다. 인제는 병사들이 이건 보통 사격이 아니라는것, 체스꼬슬로벤스꼬 국경도시 까스노를 점령한 엊그제의 가렬한 전투후에 있을수 있는 직일포와 기관총의 시험사격따위가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노비꼬브대위는 다름아닌 레메슈꼬브가, 중대가 한주동안에 아홉명의 로병사를 잃은 어려운 시기에 고향집에서 빵과 비게로 영양을 보충하여 몸이 실해지고 얼굴이 우유빛으로 되여 엊그제야 돌아온 바로 그 레메슈꼬브가 일선으로 가기를 거절한것이 특히 불쾌했다.

《우리 중대에서는 명령을 두번다시 흥정하지 않소.》

그는 딱 잘라 말하고 레메슈꼬브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께로 걸어갔다.

《대위동지!…》

레메슈끄브는 사정하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벌깃하고 밋밋한 목덜미가 드러날 정도로 고개를 수그린 그는 신음하듯 고통스럽게 내뱉았다.

《대위동지, 저에게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는가요, 예?》

《안가오!》 노비꼬브는 내뱉고 나가버렸다.

짜르릉 폭음을 몰아들이며 문이 열렸다가 도로 닫기였다.

레메슈끄브는 아첨기어린 눈길로 전우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무릎을 문지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다리가 이래도… 동정심이 안간단말이지.…》

《동정심? 얼뜨기같은게! 임잔 촌뜨기가 무슨 궁냥을 해냈는지 봐.》상등병 라지야는 툭 삐여져나온 이마에 군모를 고쳐쓰면서 장난기어린 챙챙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후방에 배겨있더니 세상물정을 통 모르는군. 저 사람에게 명령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게. 싸우러 왔나, 아니면 비게를 처먹으러 왔나?》

라지야는 인제 스무살이였다. 머리칼이 연하고 탄탄하게 생긴 그는 늘 군모를 삐딱하게 이마에 올려놓고 멋을 부리며 다니였다.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도이칠란드제 군화와 도이칠란드제 장도칼을 차고 몸에 꼭맞게 옷을 지어입은 그는 마치 전리품군복과 무기를 휴대한 장난군소년같았다.

《어서.》 그는 소리질렀다. 《생각일랑 두었다 하게!》

《사나와들졌구만. 어쩌면 저리도 사나와들졌는지…》

공격을 받고 주눅이 든 레메슈끄브가 코를 훌쩍거리며 웅얼거렸다.

몸이 지내나서 둔해보이는 중년나이의 2포장 상사 싸뽀르낀은 어울리지 않게 가로 퍼진 모난 어깨를 팽팽히 가리운 군복저고리속에서 움씰거리고 줄곧 끙끙거리며 발싸

개를 감고있었다. 레메슈끄브에게 그는 정겨운 눈길을 한번 주었다가 친절하게 말했다.

《여, 고향친구, 기관총을 가지고 부지런히 따라잡는게 좋지 않을가. 그렇게 하는게 옳을걸세. 자넨 전혀 싸움을 못해본 사람같군그래. 접수되나 안되나? 자, 빨리 기관총을 잡게.》 그는 라지야쪽을 향하여 언짢은 어조로 덧붙였다.《뜨뜻한 방에서 색시와 함께 지내다 왔으니 엎어져 죽기가 싫을수밖에. 자네도 모름지기 그랬을걸, 라지야.》

《휴가를 준대도 난 가지 않아요. 어째서 날 거드는거요.》

라지야는 큰소리를 치고나서 짐이 빈틈없이 들어찬 레메슈끄브의 배낭을 침상에서 들어올려 메워주며 표독스런 웃음을 지었다. 《어서, 썩 물러가라구, 얼뜨기같은게!》

그리고는 레메슈끄브의 잔등을 콱 떠밀었다.

× ×

고지에서 터지는 포탄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노비끄브와 레메슈끄브는 얼마간 교통호에 서있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어둠에 묻힌 소나무가지들을 언뜻언뜻 비쳐주는가 하면 파편이 여기저기서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공기를 헤가르다가 흉장의 흙무지를 썩둑 잘라내군 했다.

먼지가 노비끄브의 모자에 내려앉았다. 그는 입안에 씹히는 흙덩이를 뱉고나서 포에서 일선쪽으로 뻗어나간 차거운 전화선을 손더듬하여 찾았다. 전화선을 손에 쥔 그는 까스노시가 있는쪽을 바라보았다. 고지너머의 두키로메터 구간은 대낮처럼 밝았다. 신호탄들은 서둘러 그쪽으로 떵이 지어 날아오르면서 낮게 떠있는 구름들을 현란

하게 장식하였는데 그속으로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각선을 그으면서 쏜살같이 날아올랐다. 줄곧 색갈을 변화시키는 고지너머의 하늘은 진한 적자색으로 물들어있었다. 시가지에서 무엇인가 불타고있었던것이다.

《전화선을 따라가시오! 난 동무의 뒤로 가겠소!》 노비꼬브가 레메슈꼬브에게 명령했다. 《전화선을 잡으시오. 자, 이거요.》

《전화선을 말입니까?》 레메슈꼬브가 어물어물 물었다.

노비꼬브는 손에 땀이난 다른 사람의 손이 와닿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머리우에서는 폭음이 일고 등그런 불덩이가 눈을 부시게 하며 터졌다. 뒤이어 뜨거운 공기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덮이며 두사람을 땅에 쓰러뜨렸다.

포탄이 소나무줄기에 맞고 터진것이였다.

(포가 상하지 않았을가.) 하고 걱정하는데 불현듯 레메슈꼬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맞았어요.… 머리를 맞았어요.… 대위동지.》

《제길할!》 노비꼬브는 몸을 일으키며 화가 나서 말했다.

《부상당했소? 어디 있소?》

신호탄에 울긋불긋해진 하늘의 희미한 반사광을 통해 대위는 참호벽옆에 쭈그리고있는 레메슈꼬브의 자태를 보았다.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레메슈꼬브는 초점잃은 멍청한 눈길로 노비꼬브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러한 눈표정은 노비꼬브를 안심시켰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런 눈길로 보지 않는것이다.

《피가 나지 않소?》 대위는 이렇게 묻고 비양조로 덧붙였다. 《아직 일선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동무는…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소? 자, 갑시다. 전선줄을 붙드시오.》

레메슈꼬브는 이상한 흐느낌소리를 내며 손바닥으로 눈주위를 문질러보더니 안심이 되는듯 중얼거렸다.

《폭풍이 그만 나를…》

《폭풍이 아니라 공포요.》

이렇게 뇌까린 노비꼬브는 포좌지로 가는 교통호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오브친니꼬브소대장의 토굴 서너발자국 못미친 곳에서 그는 뻣뻣이 서있는 키큰 사람과 부딪칠번 했다.

《누구요?》 그 사람은 노비꼬브의 가슴에 기관단총을 바투 가져다대며 위협했다. 목소리를 듣고 제1포의 쁘로혼꼬임을 알아본 노비꼬브는 총신을 손으로 밀어제끼며 《자기편이요. 지내 가까이 접근시키누만!》라고 말했다.

그때 바로 옆에서 희미한 화광에 비쳐진 레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아보았다. (레나는 참호에 등을 기대고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는 별생각없이 묻는다는게 실수를 했다. 《동무가 어떻게? 동무야 정찰병들한테 가려고 하지 않았소?》

《그랬댔지요.》 레나는 마지못해 대꾸하더니 도전적으로 반문했다. 《어디서 그걸 아셨는가요?》

예견하지 못했던 불의의 질문에 노비꼬브는 당황했다. 따지고들듯 크게 뜬 레나의 눈에 비쳐진 신호탄의 뜨거운 반사광을 바라본 그는 시무룩해있는 쁘로혼꼬에게로 돌아섰다.

《포는 다 무사하오?》

쁘로혼꼬는 모든것을 깨달았다는듯 검실검실 수염이 돋기 시작한 뾰족한 턱을 썩썩 문지르며 히물히물 웃었다.

《포축은 연방 돌아가며 포탄들을 앞으로 섬겨주고있습니다. 썩어질놈의 도이췰란드놈들이 쉴새없이 쏘아보내누만요. 포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대위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노비꼬브는 대답하지 않고 참호로 걸어갔고 레메슈꼬브

는 등에 진 배낭을 고쳐메며 목메인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도이칠란드놈의 턱밑으로 가지 어딜 가긴 어딜 가.》

포탄이 튀면서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연기가 화광을 가리웠다.

레메슈꼬브는 곱사등이처럼 하고 참호에 머리를 틀어박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대위동지!》 레나가 랭담하게 불렀다. 《좀 기다려줘요.》

그는 멈춰섰다.

《저도 대위동지와 함께 가겠어요.》레나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전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저기 일선이 어떤지 보셨지요? 전 정찰병들과 있을 때 일선생활에 습관되였댔어요.》

《습관되였다구?》

레나가 련대직속 정찰소대에 있을 때의 생활을 상기시키자 노비꼬브는 다시금 질투심으로 하여 무례하게 행동하고싶은 충격을 받았다.

《여기선 무엇이 방해되오? 위생지도원동무, 녀자의 잡동사니때문이요?》 그자신도 《녀자의 잡동사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말해버렸다.

《여기서 내가 동무의 그 잡동사니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소?》

레나는 몸을 바르르 떠는듯하더니 입을 실룩거리고나서 조용하나 여달진 소리로 쏘아붙였다.

《대위동지, 물론 병사들은 대위동지를 따를수 있겠지만 전 대위동지가 질색이예요. 참기 힘들군요. 다른것도 더 말할수 있겠지만 레메슈꼬브동무가 있어서 참습니다.》

《고맙소.》 그는 점잖게 말하려고 애쓰며 이렇게 뇌까렸다. 《난 지금 참을수 없는건 도이췰란드놈들뿐이라고 생각했댔소.》

노비꼬브는 레나가 자기에게 무례한 언사를 던졌고 자신도 일그러진 레나의 미운 얼굴을 목격한만큼 자기들 두 사람사이에는 규정을 벗어난 그 어떤 다른 관계도 있을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서서히 물러가는 동통과도 비슷한 쓰거운 안도감이 온몸을 휩쓰는것이였다.

제 2 장

포석을 깐 광장 한복판에는 침침한 꼬지크식교회당 고층건물이 우뚝 솟아있고 그 변두리를 둘러친 철망울타리 곁에는 시꺼멓게 불에 그슬린 도이췰란드땅크들이 보이는 이 뽈스까의 도시중심지는 서쪽 변두리에서 불타는 화광때문에 온통 붉게 물들어있었다. 붉은 기와지붕들과 억척같이 내리드리운 쇠창가림들, 그림자를 던지고있는 울타리너머의 앙상한 마가을의 정원 그리고 돌다리들이 언뜻언뜻 비치군 하는 텅빈 거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련발로 날아가는 탄환은 화광속으로 박히며 불꽃을 일으켜 지붕우로 흩어져내렸고 기관총소리는 뚜루룩 뚜루룩 잦게 울부짖었건만 촘촘히 누벼대는 기관단총소리와 컹컹 짖어대는 박격포소리를 압도하지 못할 지경이였다. 중포탄들이 돌다리에 맞아 터지면서 둔탁한 굉음을 일으키자 뜨거운 열풍이 마른 나무잎사귀들을 날려 달아오른 금강사로 내려치듯 얼굴을 후려갈겼다.

무시무시한 불길로 울긋불긋 단장한 도시는 메아리를

일으키며 떨고있었고 지붕들에서는 기와들이 유보도로 쏟아져내렸다. 이 소리에 다른 소리들이 합세하여 날카로운 음향으로 번져지며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파렬되군 했다. 굽인돌이에 세웠던 전차가 째는듯한 새된 소리를 지르며 터져나갔다.

노비꼬브와 레메슈꼬브는 끊어진 통로곁에 엎드렸다. 폭풍이 두차례나 그들을 땅에 둘러메쳐 노비꼬브는 휘뿌려지면서 돌처럼 굳어진 레메슈꼬브의 어깨를 깔고 넘어지게 되였다. 질겁한 목소리가 그의 얼굴에 대고 속삭였다.

《면도를… 어째서 내가 면도를 했을가…》

《뭐라구?》 노비꼬브는 알아듣지 못했다. 《뭐라고 웅얼거렸소?》

레메슈꼬브는 노비꼬브를 보지 않으려는듯 머리를 가슴에 틀어박고 얼음물에서 뛰여나왔을 때처럼 덜덜 떨며 속삭였다.

《전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어요. 드네쁘르강에서부터 뒤따르는 흉조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면도를 하든가 내의를 갈아입든가 목욕을 하면…내 친구 하나가 그렇게 해서 끼예브근방에서 그만…》

《입을 닥치시오!》 성이 난 노비꼬브가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난 중대에 가서 면도를 하겠소. 그리고 목욕탕에도 가겠소.》 롱담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조로 그는 덧붙였다. 《면도한채로 죽으면 뭐라오. 죽은 사람에게서도 수염은 자란단말이요. 그래 못보았소?》 그리고는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일어서시오! 앞으롯!》

레메슈꼬브는 아낙네들처럼 엉거주춤 다리를 벌려짚고 허리를 구부정한채 독립가옥돌담곁에 서서 박격포탄이 무수히 날아다니며 귀청을 찢는 하늘을 눈이 휘둥그래져서

쳐다보고있었다. 그러고나서 중얼거렸다.
《우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는 일선까지 가닿지 못할텐데요. 대위동지! 사방에서 족치고있지 않습니까. 포위하는게 아닐가요?》
컴컴한 거리안쪽에서 원추형의 폭발연기가 솟구쳐올랐다. 다리에서 타버린 도이췰란드땅크들곁의 철망울타리를 따라 지독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피여올랐다. 적의 원거리포중대들이 서쪽과 남쪽에서 도시를 족쳐대고있었다. 포탄이 날아들었다. 까스노시가 포위되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노비꼬브는 아직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뿐더러 전체 까르빠트전선 형편으로서는 흔히 있을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도이췰란드군은 골짜기들과 익측고지들에 그냥 남아서 도로에 사격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우회 차단하고 포위하고있소. 놈들이 1941년도를 흉내내는건지…》 노비꼬브가 말했다.
《앞으로! 다리를 굽히지 말고 최대속력으로 달리시오!》
대위는 거리복판으로 달려나갔다.
도시의 서쪽변두리에 이르자 주변을 휩싼 화재가 그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고 작열된 사나운 열풍이 두사람의 숨을 콱 막히게 했다. 바람은 깔때기에 부어넣은 액체가 그릇속에서 소용돌이치듯이 불길과 불띠, 재가루가 뒤엉키며 눈보라를 일으켜 온통 그 지대를 휘몰아치고있었다.
앞쪽에서는 호수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별장들이 불타고있었고 대기는 뻘건 반사광에 물들어있었다. 호수를 뒤덮은 포연속으로는 기관총련발사격의 불줄기들이 엇갈리며 날아갔고 산중에서는 포탄들이 번쩍번쩍 섬광을 일으켰다. 땅크에서 내뿜는 불줄기들과 호수가에서 딸기알처럼 둥글게 피여나는 박격포탄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관단총소리들이 서로 부딪치고 엇갈리면서 피끗피끗 지나

갔다. 목이 타들 정도로 단 열풍이 이 모든것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기도 했다.

《나를 따라 구보롯!》

노비꼬브는 호수우로 줄달음쳐가는 안개속으로 선참 뛰여들었다. 보병참호로 뻗어있는 거밋한 첫 교통호를 발견한 그는 달리던 걸음으로 훌쩍 교통호바닥에 뛰여내렸다. 발밑에서 탄피들이 쟁그렁거렸다. 병사 두명이 탄약상자옆에 까딱않고 앉아 팔소매로 가리우고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노비꼬브가 뛰여들었는데도 병사들은 머리를 들지 않고 행전을 친 다리를 힘겹게 가드라뜨릴뿐이였다.

《포련대동무들을 보지 못했소? 왜 여기 앉아있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병사가 눈물고인 눈으로 대위를 자세히 뜯어보더니 기침을 깇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떨며 팔굽으로 가리켰을뿐 한마디 설명도 하지 못했다. 참호까지 탄약상자를 날라오면서 재가루와 내굴을 들이킨 모양이였다. 더 젊어보이는 다른 병사가 앉아 담배질하던 자기들의 잘못을 변명이나 하듯 노비꼬브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우린 보병입니다. 대위동지! 저걸 보십시오! 탄약을 날라왔습니다. 탄약공급소에서… 포병동무들은 저기 저 고지에…》

고지까지 백메터구간은 힘에 겨울 정도로 몸을 썩 굽히고 참호를 따라갔다. 머리우에서는 불줄기들이 죽음의 빛을 뿜으며 울부짖었고 흉장은 포탄터지는 소리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병사들은 목갈린 소리로 욕설을 해대며 외투에서 흙을 턴 다음 참호에서 불쑥 목을 내밀고 가슴을 흉장에 기댄채 호수쪽을 향해 사격하군 했다. 누군가 목이 몹시 갈린 소리로 구령을 쳤다.

《독립가옥을 향해 쏴! 독립가옥! 놈들이 저기 울타리곁

에 엎드려있지 않나.》

앞에 보이는 고지에서는 련발로 쏘아대는 불꽃이 미친듯 떨며 튕겨나고있었다. 기관총을 잡은 사람이 옆으로 비칠거리며 물러나더니 《탄띠!》하고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는 팔소매로 땀을 문지르며 아침노을에 장미빛으로 물든 전호바닥에 주저앉아 물통뚜껑을 벗기고 물을 게걸스레 마시기 시작했다.

노비꼬브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 사람은 쭉 째진 타는듯한 검은 눈을 그에게로 돌렸다. 노비꼬브는 곱실곱실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땀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찰소대장 고르바쵸브였다.

《동무가 어떻게 여기 있소? 경기사수가 모자라오?》 노비꼬브는 놀랐다. 《대대장이 어디에 있소? 여기 있소?》

고르바쵸브는 눈을 쪼프리더니 빈 물통을 멀리로 던졌다.

《제때에 오셨습니다. 중대장동지! 지휘부가 당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알레쉰소위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게 된건 경기사수들이 다 전사하고 없어서지요. 법은 멀리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허락해주십시오. 도이췰란드놈들과 단단히 계산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물었다. 《허락하시지요. 예? 법은 멀리 있지만 코앞의 불은 꺼야 하거든요.》

대대장의 넓다란 토굴속에 놓인 화려한 책상우에서는 깨끗이 청소해낸 세심짜리 남포등이 활활 타오르며 낮은 천정과 지휘관들의 얼굴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그 책상은 시내에서 끌어온것이였다. 구석에 깐 짚단우에서는 통신병 두명이 외투깃을 올리고 자고있었다.

대대장 굴꼬소좌는 군복웃저고리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혁띠를 매지 않은채 허리를 구부정하고 앉아서 담배를 피

우고있었다. 그는 책상우에 펼쳐놓은 지도우에 마치 우정 그러듯 담배재를 뚝뚝 떨구고있었다. 눈은 아르메니야형으로 생기고 수심이 비껴있는 그의 파리한 얼굴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신랄한 표정을 띄고있었고 량미간에 바투 다가붙은 숱진 눈섭은 무엇인가 꺼리는듯 우로 치켜올려져있었다. 그는 뭐라고 재빨리 말을 섬겨대는 알레쉰소대장쪽을 불만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알레쉰은 언제보나 쾌활하고 목소리가 박새처럼 쟁쟁한 젊은이였다. 알레쉰소위는 지도우에 떨어뜨린 담배재를 한사코 불어버리군 했다. 체조선수처럼 생긴 매끈한 이마와 날씬한 목으로 흥분한 반점들이 스쳐지나갔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자고있는 통신병들과 토굴벽을 련속 번갈아보다가는 생기발랄한 시선을 남포등쪽으로 옮기군 했다. 하지만 대대장쪽만은 쳐다보지 않았다. 때아닌때에 대대장이 폭소를 터뜨려 망신을 줄가봐 두려워서인지도 모른다.

대대장의 뒤에는 그의 련락병 삐찐이 서있었다. 특별히 키가 크고 우람찬 삐찐은 금발머리였는데 팔소매는 팔굽까지 걷어올려있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표정을 짓고 물통에서 도이췰란드술을 넙적한 손바닥에 따라서는 소좌의 웃저고리를 걷어올리고 그의 잔등과 허리를 문질러주군 했다. 굴꼬소좌는 척수염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련락병이 주물러주는대로 몸을 맡긴채 구부정하고 앉아있었지만 정신만은 고스란히 알레쉰에게 바친다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노비꼬브와 그의 뒤를 따라 레메슈꼬브가 토굴에 들어섰을 때 대대장은 흥분하여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등허리를 펴더니 남포등웃쪽을 바라보며 뇌까렸다.

《아, 노비꼬븐가?》그는 씩 웃었다. 대대장과 만났을 때 간혹 목격하는 그 호의마저 일순간이였고 벗어지기 시작

한 그의 이마에 야유적인 주름살이 잡히였다.
팔뚝에 돋은 털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었던 대대장이 말했다.
《일선에 찾아오기를 힘들어하누만. 대위, 후방의 기분상태는 어떻소? 프랑스제 샴팡술을 마시겠지. 전리품이요? 그럼 소설에 등장하는 아릿다운 귀부인들과 춤을 추고 돌아가는가? 기타반주에 맞추어서… 음? 위생지도원동무가 동무네한테 가있지 않소?》
대대장은 전쟁이 일기 훨씬전에 안해와 리혼한이래 녀성들에 대해서는 진담을 하는 때가 없었다. 자신을 청렴한 독신자라고 자처하고있는 그는 그것때문인지 휘하의 군관들이 방종하고 경박하게 생활하지 않는가, 그의 생각대로 청춘을 마구 탕진하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가 늘 의심하고있었다.
《당신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노비꼬브는 간단하게 보고했다.
《흥미있는 일이군.》 대대장은 노비꼬브가 아니라 대진이 배인 가느다란 손가락사이에 끼우고 혐오스럽게 뱅뱅돌리고있는 자기 담배를 내려다보며 이야기했다. 그는 돌연히 힝 코소리를 내며 뒤를 돌아보더니 련락병에게 욕설했다.
《제 정신이요? 못이 박힌 손바닥으로 내 살가죽을 벗기자고 그러나? 줄칼질을 하는것 같군. 됐어. 그만해. 술을 아끼라구.》
책상모서리에 가슴을 기대고 주먹을 턱에 고인 알레쉰소위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개져서 노비꼬브를 쳐다보며 벙싯거리고있었다. 너무 우스워 허리가 끊어질지경이였다.
대대장은 잔등을 긁적거린 다음 끙끙거리며 군복저고리를 입다가 맞갖잖게 알레쉰을 흘겨보았다.

《알레쉰, 무슨 일인가. 무슨 웃음거리라도 생겼나? 신중히 행동하라구.》그리고는 노비꼬브에게 머리를 끄덕였다. 《어디든 앉게. 책상으로 오라구. 뭘 보나? 워드까를? 아니, 동무를 술마시라고 부르진 않았네.》
《전 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소좌동지.》 노비꼬브가 알레쉰의 곁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럼 좋소.》굴꼬대대장은 혁띠를 두르며 건성 대답했다. 《포크로 통졸임을 입에 떠넣게. 단마르크제야. 돼지고기통졸임. 이상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도 소용된단말이네.》
지도를 들여다보던 노비꼬브는 참을수 없어 눈섭을 찡그렸다. 그는 대대장의 괴벽한 성미를 알고있었다. 대대장은 조건이 불리해질수록 회의적으로 말이 많아졌고 중대한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서는 만사에 무관심한척 했다. 전투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대장은 감시소 포대경곁에 있는데 그때면 잔뜩 찡그린 얼굴에 입에는 담배대를 연송 꼬나물고 웃통을 벗어던지고 구령을 주군 했다. 련락병은 후에 의례히 떨어져나간 단추를 다시 달아야 했다. 그대신 방어전을 할 때에는 가벼운 실내화를 신고 찰싹거리며 참호를 걸어다녔고 늘 침상에 누워 너덜너덜해진 피테의 저서를 읽으며 리해안된다는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의심을 강조하기나 하려는듯 양말속의 발가락을 옴지락거리군 했다. 그는 째인 군사근무규정을 회의적으로 경원시하면서 홀아비답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려했으며 자기 관하군관들에게는 크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정적분위기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고싶어했다.
노비꼬브는 그를 현실에 맞게 살지 못하는 괴벽한 인간으로 치부했으며 그와는 언제나 딱딱하게 대했다.
《들었습니다, 소좌동지.》 노비꼬브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어디서 이따위야!》대대장은 코구멍으로 연기를 연방 내뿜으며 줄담배를 피워대다가 표독하게 뇌까렸다. 《에이, 더러워! 담배가 아니라 잡풀이라니까.》그는 담배가치로 지도우에 동그라미를 긋다가 까스노시지점에 가서 마무리를 지었다. 《대위, 여기를 보오. 우린 도이췰란드군을 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쪽으로 조이고있소. 지금 도이췰란드군은 서쪽에서 있는 힘을 다해 이 도시를 족쳐대고있소. 철저하게 족쳐대고있단말이요. 도시를 되찾으려 하고있지. 왜 그렇겠소? 여길 보오. 땅크를 타고 산으로 기여오르지는 못할테거든. 이 도시는 도로분기점이요. 노비꼬브동무, 이 북쪽대도로에 특별히 주의를 돌리오. 호수주변에… 도깨비는 바로 여기에 있소. 이건 리브늬시로 들어가는 도로요. 그런데 그 도시는 까스노시와 이십키로메터 떨어져있단말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오? 린접한 아군사단들이 리브늬시의 도이췰란드군집단을 봉쇄하고있소. 아주 강한 군집단이요. 땅크도 많고 힘이 센 도깨비요. 리해되오? 놈들은 땅크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도로로 해서 포위환을 뚫으려고 할게란말이요. 그 도로는 계곡과 까스노시를 거쳐 체스꼬슬로벤스꼬로 뻗어있소. 그런데 강조해둘것은 지금 그곳에서는 거대한 사변이 벌어지고있단말이요. 슬로벤스꼬에서 찌쏘정부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소.》 대대장은 생각에 잠긴채 털이 푸시시한 손을 지도우에 올려놓더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슬로벤스꼬빨찌산들은 이틀동안이나 마리쩨시를 봉쇄하고있소. 그러니 리브늬시부근의 도이췰란드군집단이 까스노시를 거쳐 마리쩨시로 돌파해들어가 도이췰란드수비대와 련합하여 폭동을 진압하려 한다고 타산해야 할것 같소. 리해되오? 도이췰란드놈들은 서쪽에서 조여들면서 도로분기점인 까스노시를 탈취하여 북쪽의 군집

단이 돌파해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하오. 정황은 바로 이렇소. 일인즉 이렇게 되여가고있단말이요.》 대대장은 담배연기를 후— 내보냈다. 《한마디로 노비끄브동무, 위대한 나날이 시작된다고 생각되지 않소? 벌가리아와 로므니아가 해방되고 지금 전투는 유고슬라비아와 마쟈르에서 진행되고있소. 서쪽의 음악소리가 들리지? 응?》

굴끄대대장은 몸을 옹송그리며 포탄에 맞아 흔들리는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짜르릉 무너질듯 울리며 흙덩이들이 툭탁툭탁 책상우에 떨어지고 센 전류가 흘렀을 때마냥 남포등의 유리갓이 쟁그렁거렸다. 노비끄브는 왜서인지 유리갓을 손으로 붙들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소하는듯 바르르 떨리는것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던것이다.

긴장하여 지도에 열중해있던 알레쉰소위는 후다닥 몸을 일으켜 모자를 털고 목을 문지르며 장화신은 발을 굴러 흙먼지를 털어냈다.

《제길할.》 소위가 말했다. 《옷깃속으로 들어갔군! 목욕이나 좀 했으면…》

누구도 그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담배를 끝까지 빤 대대장은 쓰겁다는듯 퀙 꽁초를 뱉아버리고 여전히 게으른 목소리로 계속했다.

《노비끄브동무, 오늘밤에 동무네 포를 종전 좌지에서 끌어내려 여기에 직접조준으로 설치하시오. 경치좋은 호수가에. 사격방향은 골짜기와 대도로, 리브늬시. 동무네 린접은 오른쪽엔 5군단 땅크와 그리고 입따뽑스끼련대 곡사포중대가 합세하오. 왼쪽에는 체스끄슬로벤스끄의 스워보다장군의 부대요.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되오. 알레쉰소위는 벌써 포좌지를 돌아보았소. 내가 말할것은 이게 다요. 알레쉰소위!》 대대장은 약간 목청을 돋구었다.

《동무네 중대장에게 중대가 위치할 장소를 알려주

시오.》
《알았습니다!》 알레쉰소위는 활달하게 대답했다.
《뻬찐! 뜨거운 물, 면도를 하겠소.》대대장이 털이 푸시시한 코구멍으로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웨치더니 이렇게 투덜거렸다. 《나는 반시간후에 현지로 가겠소. 우리 공병들이 고지접근로에 지뢰를 매설할테니 조심들하오.》
(저따위 정결성은 귀신이나 콱 물어가라. 살림집처럼 꾸려놓았군.) 노비꼬브는 몸을 일으키며 향수내와 술냄새가 연하게 풍기고 조그마한 탁상우에는 도이췰란드제의 둥근 화장거울과 손칼, 손톱다스리개, 머리빗이 들어있는 전리품세면도구주머니가 번쩍거리는 정결한 토굴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녀자처럼 섬세하게 갖춘 생활도구와 생활에 대한 대대장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 로골적인 경멸감을 표시하면서 이번에도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선참 토굴에서 참호로 나섰다.
참호우를 불어치는 씁쓸한 탄내가 슴배인 눅눅한 바람이 보총사격소리와 기관총의 따르륵소리, 무겁고도 둔하게 울리는 지뢰폭발소리를 갈가리 찢어놓고 뒤흔들어놓아 굉장한 메아리를 일으키군 했다. 시뻘건 안개는 침울하게 호수우를 감돌았고 참호속병사들의 얼굴은 연보라빛으로 보이였다. 기관총들이 도이췰란드놈들이 들어있던 불타는 두집사이로 호수를 향해 련발로 쏘아대고있었다. 노비꼬브는 높은데 서서 둔덕을 따라 아득히 뻗은 불타는 호수를 굽어보았다.
탄환이 뽕뽕 흉장에 날아와 박히며 흙을 파헤쳤다. 그러자 노비꼬브는 바람에 벗겨질가 두렵기나 한듯 모자를 붙

들었다. 모자창을 눈있는데까지 푹 눌러쓰고 몸을 수그린 노비끄브가 욕설을 해댔다.
《뭐라구요?》등뒤에서 레메슈끄브가 소리쳤다.
《흙이란말이요.》노비끄브가 대답했다.
《예…》
레메슈끄브는 발뒤축을 고이고 꿇어앉아 피로한 표정으로 중대장을 올려다보며 그의 동정을 살피였다. 그는 한순간 중대장이 경상이라도 당하면 자기들은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 호수의 저쪽 끝까지 가지 않게 될것이며 자기는 부득히 중대장을 후방의 위생중대로 후송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났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자기는 필연코 저 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는 가슴이 섬찍해오고 다리가 매시시해옴을 느꼈다.
그때 그와 등지고섰던 노비끄브가 레메슈끄브의 심장을 때리듯 큰소리로 불렀다.
《거기가 아직 머오, 알레쉰?》
《예, 갑시다. 중대장동지, 갑시다!》소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굴문이 열리면서 한순간 남포등불빛이 새여나왔다.
제 집처럼 아늑한 포근한 온기, 레메슈끄브가 그렇듯 버리고싶지 않았던 그 온기가 새여나왔다.
(에이, 대대장이 나를 련락병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정말이지 삐찐같은 일이라도 할수 있다면…)
레메슈끄브는 부러워하며 절망적으로 한탄했다. 알레쉰의 유쾌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악에 받쳐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거짓으로 저러는거야. 유쾌한체 연극을 놀아. 저건 모두 진심이 아니야. 누가 전쟁을 좋아할라구.)
《에크, 이게 누구요? 네발로 기는게 누구요?》레메슈

끄브의 발에 걸채인 알레쉰이 이렇게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노비끄브가 엄하게 소리쳤다.
《레메슈끄브동무, 어디 있소?》
레메슈끄브는 납덩이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고통스럽게 땅에서 일으켜세우더니 절뚝거리며 노비끄브에게 다가갔다. 노비끄브는 마뜩잖은 눈길로 찬찬히 그를 쏘아보다가 물었다.
《왜 그러오?》
《다리가…》 레메슈끄브는 무릎을 문지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꽁꽁 다져넣은 배낭이 그의 등뒤에 보기 흉한 혹처럼 매달려있었다.
《동무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중대에 굴러들었는지…》 노비끄브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 동무는 싸우러 왔소, 아니면 뻬치까곁에서 궁둥이나 쪼이려왔소? 여섯달이나 집에 엎드려있고도 다릴 치료못하다니, 채 완치안됐으면 참소. 그보다 더한것도 견디여내고들 있소. 난 동무가 병사라는것밖에는 아무것도 알고싶지 않다는걸 기억해두길 바라오. 제발 얼굴을 그만 찡그리오. 신음소리도 그만 지르고. 동무같은 짐을 끌고 다니기보다는 홀몸이 도리여 낫겠소.》
노비끄브는 자기 말이 가혹하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억제할수 없었다. 그자신도 부상을 당한 후에 세차례나 병원에 누워있었지만 거기서도, 그후에 부대에서도 사람들이 보는데서는 자기 고통을 나타내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했다. 노비끄브는 다시 곱씹어 말했다.
《신음소리를 그만 내오!》
레메슈끄브는 신음소리를 그쳤다. 이가 떡떡 마주쳤다. 그러나 배낭은 벗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배낭끈을 고

쳐놓았을뿐이였다.

《대위동지, 저 동무를 여기에 남겨둡시다.》 알레쉰이 고통스러워 이그러진 레메슈끄브의 얼굴을 놀랍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우리한테 뭣하러 가겠습니까? 다리도 그런데 앉아있으라지요.》

《함께 갈거요.》

노비끄브는 수류탄을 쌓아두는 벽호에 군화앞코숭이를 의지하고 훌쩍 참호를 뛰여넘었다.

레메슈끄브는 참호에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는 노비끄브와 알레쉰의 머리우로 탄환들이 점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모양을 보았다. 당장에 손바닥에 땀이 내배여 총탁에 끈적끈적 달라붙었다. 그는 마치 산소가 부족한듯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련속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가 처음에 오른쪽을 바라보고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 난 무사히 살아남을게고 그렇게 안되면…)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처음에는 오른쪽, 다음에는 왼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화광에 온통 장미빛으로 물든 참호속 병사들의 얼굴이 장막속에서처럼 뿌옇게 나타나보였다. 그는 괴상한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칼바람이 불어치는 흉장으로 뛰여올랐다. 그는 금방 패인 포탄구뎅이에 발을 걸채여 자주 넘어지면서 주위에 널린 날이 센 파편들을 감각하며 앞선 사람들을 뒤따라 달렸다. 잔등에 무엇이든 얻어맞기만 하면 소리를 지를 태세로 내달렸다.

(잔등에 배낭을 메고있으니 총알이 뚫지 못해.) 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다, 아니야, 단번에 죽지는 않고 부상만 당할게다.)

그는 살림집들이 있는 근방에 가서야 지휘관들을 따라잡았다.

배낭을 울바자에 기대고 선 그는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고 숨을 내쉴수도 없었다.

제 3 장

새벽 2시, 지형정찰을 끝낸 후에 노비꼬브중대장은 레메슈꼬브를 종전의 포진지로 보냈다. 오브친니꼬브의 포들을 즉시 끌어내여 밤사이에 도시 북쪽구역인 호수 오른쪽 고지의 좌지를 차지하라는 명령이였다.

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노비꼬브는 중대포진지와 댓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다. 삽날이 땅에 부딪치는 소리, 병사들이 소곤소곤 주고받는 소리, 어둠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똑똑히 가려보였다.

알레쉰의 포성원들이 진지를 굴설하고있었다. 주위에는 쥐죽은듯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호수는 빨간빛 반사광을 받아 조용히 얼른거리였다. 저쪽의 도이췰란드진지는 침묵하고있었다. 거기는 체스꼬슬로벤스꼬땅이였다.

기본전투장소에서 북쪽으로 4키로메터 떨어지고 적군과는 이백메터 떨어진 곳에 와있는 노비꼬브는 엄습해오는 어렴풋한 불안감을 막을길이 없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수습할수 없는 오유를 범한듯한 느낌이 사로잡혔건만 등뒤에 쏠린 집요한 시선처럼 자기를 불안케 하는 정확한 원인을 딱히 알아맞출수 없었다.

호수는 어슴푸레 연기에 싸여 앞으로 자꾸만 멀어져갔고 그 북쪽기슭은 까르바트산줄기에 닿아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호수 오른쪽은 화살모양을 지으면서 까스노시에서 리브늬행 대도로방향으로 뻗었다가 계곡쪽으로 꼬리를 사리였다. 계곡에는 검푸른 안개가 뭉게뭉게 피여오르고

있었다.
《대위동지, 고급담배를 피워보지 않겠습니까? 뽈스까제입니다. 〈모노뽈〉. 원 저런, 도시가 어떤가 좀 보십시오!》
알레쉰이 다가왔다.
노비꼬브는 권하는 담배를 말없이 물리치고나서 린광을 뿜는 시계수자판을 들여다본다음 화광에 물든 도시의 뒤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서는 혜성같은 불끄리들이 련이어 잇달리고 땅크에서 내쏘는 포탄들은 마치 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주변을 따라 다섯키로메터 늘어선 호수우에서 마주치는듯했다. 북풍이 불어와 노비꼬브가 앉아있는 고지우에서 울부짖으며 전투의 음향을 짓눌러버리군 했다.
《여긴 조용하구만.》 노비꼬브는 말하다가 좌지우에 약한 불빛이 비치는것을 알아보고 물었다. 《누가 담배를 피우오? 불을 끄시오! 보가쩬꼬브, 왜 못참겠소?》
전호우에 비치던 약한 불빛은 사라지고 누군가 거기서 사레가 들려 안깐힘을 쓰며 기침을 깇었다. 알레쉰소위가 외투주머니에서 커다란 전리품담배갑을 꺼내더니 장한듯이 그것으로 모자창을 툭 쳐서 모자를 뒤덜미쪽으로 밀어제꼈다. 그러자 애젊은 얼굴이 아예 천진한 어린애 얼굴처럼 돼버린 알레쉰이 말했다.
《이제말입니다.》 알레쉰은 례의를 차리노라 얼마간 입을 다물고있더니 유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중대장동지, 여기서 우리 정찰병들이 멋들어진 별장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련못, 목욕탕, 주단…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얼마나 사치하다구요. 갑시다. 바로 옆입니다. 저기 아래에…》
《빈 별장이요?》
《물론이지요.》
2층으로 지은 너렁청한 그 별장은 고지에서 백오십메터쯤 되는 곳인 잎이 반나마 떨어진 보리수공원속에 자리잡

고있었다. 묵직한 철대문과 쇠울타리가 둘러쳐있고 울타리우에서는 동으로 제조한 사자대가리가 번뜩이였다.

그들은 어둠침침하고 넓다란 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공원소로길에 떨어진 나무잎사귀가 와삭거리는 침울한 소리와 반벌거숭이의 보리수가 고르롭게 흔들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어둠속에서 마른 잎사귀들이 날아올라 외투에 달라붙었다. 노비꼬브는 장화가 빠드득거리며 딴딴하고 메마른 바닥으로 어떻게 옮겨지는가에 귀를 기울였다. 잎사귀가 무수히 떨어진 소로길은 인적없는 구슬픔과 늦가을의 체취를 한껏 풍기게 했다.

공원 깊숙이 들어가 우중충한 별장앞에 이르자 무성한 관목숲에 둘러싸인 련못수면이 나타났다. 검디검은 수면우에는 나무잎사귀들이 떼목인양 평화스럽게 떠다니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최근 여러날동안에 처음으로 잎사귀 떠다니는 물우에 비껴있는 예리한 별빛을 목격했다. 발자국소리에 놀란 개구리 한마리가 물속으로 첨벙 뛰여들었다. 그러자 못에 비꼈던 별들은 흔들리며 흘러가버렸다.

노비꼬브는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여름만을 좋아했다. 전쟁시기 가을이란 길이 질척거려 습관적으로 가을을 싫어하게 되였다. 그는 문득 자기가 다시 돌아올수 없는 전쟁전 평화시절때문에 가을과 도이췰란드놈들, 나아가서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자기자신까지도 증오했음을 여적 못깨닫고있었다는것을 그제서야 상기했다. 알레쉰의 목소리가 울려서야 노비꼬브는 뒤를 돌아보았다.

《에이, 빌어먹을, 이게 뭐야? 무슨놈의 벌레야?》

알레쉰소위는 아이들처럼 장난기어린 미소를 머금고 손전지로 물속을 비쳐보았다. 노비꼬브는 자기로서도 뜻밖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만두오. 보통 개구리요!》

《에이, 바보!》 알레쉰은 유쾌하게 소리질렀다.
《전지를 이리주오.》
노비꼬브는 유리를 놓은 테라스의 계단을 따라 우로 올라가며 전지를 켰다.
별장의 1층은 비여있었다. 거기서는 며칠째 사람이 살지 않은듯 먼지낀 주단냄새와 남의 살림, 낯설은 사치의 숨 답답한 공기가 느껴졌다. 라크칠을 먹인 가구들과 폭신한 안락의자들에는 손가락자리들이 찍힌 뿌연 먼지가 끼여있었다. 여기저기에 성급히 달아난 흔적이 나있었다. 응접실구석에는 둘둘 말아놓은 주단뭉치가 세워져있고 벽절반을 차지한 넓다란 찬장은 유리와 수정술잔때문에 번쩍번쩍 빛을 뿌리며 활짝 열려있었다. 탁상용 은장식품들을 되는대로 집어넣은 상자들이 들어내가다만채로 놓여있었고 주단우에는 깨진 도자기차잔쪼박들이 여기저기 딩굴고있었다. 가지고가야 할 귀중품을 성급히 꾸리다가 거치장스러운것들을 화김에 집어던져 깨버린것 같았다. 삼면거울은 총탁으로 내려친듯 복판이 깨지고 거울 맞은편 바닥에는 레스가 달린 엷은 녀자용장미색속치마가 놓여있었다.
《미련둥이같은것들!》 알레쉰은 격분하였다. 《미련한 천치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
《거 누구요? 춤이라도 추는게 아니요?》 노비꼬브가 무질서한 발자국소리와 웅성웅성 말소리가 아래층까지 새여나오는 천정을 전지로 가리켰다.
《거기엔 정찰병 고르바쵸브상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알레쉰이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했다.
노비꼬브는 전지로 자기 앞을 비치면서 계단에 깐 폭신폭신한 주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상쾌한 향수냄새가 풍겨왔다. 파르스름한 저녁어스름이 연기인양 천정이 낮은 침실을

감돌고있었다. 창문들에는 무거운 창가림이 꼼꼼히 드리워있었다. 옷장곁에서 낮모를 군관과 병사 두명이 씩씩거리며 남자내의들을 골라 (녀자내의들은 집어던졌다.) 부산스레 배낭에 처넣고 주먹으로 다지고있었다. 키가 크고 허리가 늘씬한 정찰병 고르바쵸브는 안락의자를 가로타고 앉아 입귀에 권연을 꼬나문채 경멸에 찬 욕설을 연기와 함께 내뱉고있었다.

《넝마장사군같은 후방일군나부랭이들, 그것들을 그저 모조리 일선으로…》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군관들을 본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일어나 건성 경례를 붙인 다음 너그러운체 말을 이었다. 《군의소 후방병들입니다. 병사들의 속바지를 마련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레스뿐이군요. 하하…》

《누구의 명령이요?》노비꼬브가 후방병들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보았다. 그는 땀이 나서 벌겋게 상기되여있었고 목단추는 헤쳐져있었다. 다리는 짧고 두볼은 면도하여 번들거렸으며 관자노리는 희슥희슥하였다. 그는 후방부 대위였다. 열이 오른 대위는 눈을 흡뜨고 담배내배인 낮은 중음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어쩌자는거요? 왜 그러오?》

《누가 여기서 들추라고 했소?》노비꼬브는 침착하게 뇌이며 분노에 찬 눈초리로 후방부 대위를 쏴보았다. 《배낭속의것을 실오리 하나 빼여놓지 말고 모조리 꺼내놓으시오! 그리고 여기서 물러가시오! 썩 사라지란말이요!》

후방부 대위는 모나게 생긴 넙적한 얼굴에서 땀을 훔치며 노비꼬브의 크지 않은 체구를 훑어본다음 자신만만하게 대들기 시작했다.

《제발 큰소리를 치지 마시오, 대위. 당신이 책임질것이

아니오. 이건 나 개인이 아니라 당신들, 하전사들과 군관들을 위해서, 군의소에 내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중요한건 조용하는거요, 조용하는거… 와쎄츄낀! 걷어가지고 가자구!》대위는 울상이 되여 병사쪽에 대고 소리쳤다.

이름을 불리운 그 병사는 어쩔바를 몰라하며 열려진 옷장결에서 서성거리다가 꽉 들어찬 4개의 배낭을 집어들었다. 살집좋은 후방부 대위가 경고하듯 노비꼬브를 엄하게 쳐다보며 나머지 배낭 두개를 또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노비꼬브는 그에게로 마주 걸어가며 길을 막고 격분하여 말하였다.

《잡동사니를 걷어가지고 문턱을 넘어서는 개자식은 그저… 물러나시오!》

등이 굽은 병사는 마치 가슴을 욱박질리운듯 내동댕이질한 녀자내의무지에 발을 걸채이며 뒤걸음질치더니 배낭들을 슬그머니 발치에 내려놓았다. 후방부 대위는 받으려는 황소처럼 머리를 수긋하고 입귀로 침을 비질비질 내보내며 씨벌였다.

《비켜! 남의 일에 무슨 참견이야! 햇내기같은게…》하고 소리지르며 그는 나간권총갑을 옆구리로 홱 잡아당겼다.

《소위, 저자한테서 저 장난감을 뺏소!》노비꼬브는 매몰스럽게 말했다.

소위와 그 뒤를 따라 고르바쵸브가 후방부 대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구석에서 씨근거리는 그의 웨침소리와 악에 받쳐 헐떡거리는 숨소리, 등굽은 병사의 애원에 찬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십니까, 대위동지… 왜 그러십니까?》

눈에 피발이 선 우람한 후방부 대위는 방에서 끌려나가며 짧은 다리를 벋디디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권총을 이리내라! 그건 개인무기야. 무슨 권리로 빼앗는거야! 이 물건들은 개인이 가지는게 아니야, 군의소를 위해서란말이다! 군의소가 폭격을 당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풋내기, 코흘리개같은게…》
후방부 대위를 끌어내갔다. 소란스럽던 그의 발걸음소리와 웨침소리가 아래층에 가서 잠잠해졌다.
노비꼬브는 책상에 다가가서 물 반고뿌를 부어가지고 선채로 단숨에 마셔버렸다.
《에이, 추물같은게! 얼이 나갔군, 얼이 나갔어!》사기충천한 알레쉰이 혁띠를 바로잡으며 고르바쵸브와 함께 들어섰다.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흥분한 그는 왜서인지 나간권총을 외투에 대고 문지른 다음 노비꼬브앞에 놓인 책상우에 올려놓고 아무일도 없은듯 푸른 전등갓밑의 등불아래 서서 천연스레 눈을 쪼프리는것이였다. 그는 쵸콜레트 판대기들이 차곡이 쌓여있는 상자쪽으로 걸어갔다. 웃고있는 녀자의 얼굴과 반쯤 열린 입술 그리고 그 옆에 쵸콜레트쪼각, 철탑을 배경으로 낯선 글자가 씌여있는 상표를 놀라서 쳐다보던 그는 모자를 목덜미까지 제낀 다음 말마디를 길게 끌면서 읽어내려갔다.
《빠-리-이쓰》그리고는 아이들처럼 호기심어린 시선을 노비꼬브에게 던졌다. 《뭔가요? 〈빠리스〉라는게 뭘가요?》
《그건 프랑스말로 〈빠리〉라는 말이요. 도이췰란드놈들은 아직도 프랑스쵸콜레트를 먹고있소.》노비꼬브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에펠탑, 에펠기사의 설계요. 높이가 삼백메터라던지. 내가 거짓말을 할수도 있소. 잊어버렸으니까.》
노비꼬브는 나간권총을 통졸임통들이 놓여있는 쪽으로

밀어놓고 책상에서 물러나 산지사방 주단우에 흩어진 내의들과 닭털을 넣어 부풀어오른 2인용침대와 폭신한 안락의자들을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그다음에 널다란 쏘파 맞은편 벽에 서있는 먼지낀 책 한권을 뽑아들고 책장을 번지다가 말없이 내동댕이치고 두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었다. 그는 주단우를 소리없이 오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이요.》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뽈스까사람들이 아니라 도이췰란드놈들이 살았소. 도이췰란드장교들이 휴식했소. 틀림없소. 료양소였소.》

《아무랬다면 뭐랍니까, 대위동지.》 고르바쵸브는 이마에 드리운 까만 머리카락아래의 두눈에 한껏 미소를 머금고 안심시키는것이였다. 《앉으십시오. 요기나 합시다. 돌아가서 한탄하지 않게 말입니다. 여기 지하실에 식료품이 있습니다. 1년분은 됩니다. 소위동지에겐 포도주를 드릴가요? 쵸콜레트야 뭐 안주가 됩니까. 그까짓거 버리십시오! 지하실에 무데기로 쌓여있습니다.》

《포도주라고? 그럽시다.》

알레쉰은 종이를 벗긴 쵸콜레트판대기를 내려놓고 중대장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였다. 그는 람술이 찰찰 넘치게 잔을 들고 어쩐지 성급하고 서투르게, 억지로 들이켰다. 그리고는 눈을 슴벅거리며 한참 카카 하더니 말을 했다.

《승리를 위하여! 거참 심술궂은 물건인데! 독하기도하다.》그는 뭔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으려는듯 몸을 숙여 솟아난 눈물을 닦아내였다. 일어섰을 때에는 부러 대담한 사내의 얼굴표정을 지었으나 쵸콜레트판대기의 절반을 먹어치웠다. 그런데 고르바쵸브는 람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도 눈 한번 깜빡 않고 흘레브껍질을 냄새맡더니 돼지고기 통졸임을 포크로 몇번 뚱그쳐 알레쉰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쵸콜레트를 씹으면서 싫다고 머리를 저으며 으시댔다.

《인젠 습관됐소. 뜨람보블랴에서는 알콜을 군용밥통으로 들이키고도 전혀 안주를 들지 않았댔소. 옳지요, 대위동지? 생각나십니까? 막 취했드랬지요.》

노비꼬브는 파란눈의 유쾌한 이 소위가 마음에 들었다. 미숙하고 순진한 생활측면들을 감추고 로련하고 경험이 많은체 하는 그의 소행이 마음에 들었다. 노비꼬브는 알레쉰이 뜨람보블랴에서 군용밥통으로 술을 마신적이 결코 없으며 정찰병들이 전리품술통을 가져왔을 때 소위는 배가 아프다는 핑게로 전혀 마시지 않은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노비꼬브는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나오. 동무는 그때 참 잘 마셨지.》

노비꼬브는 취기가 올라 얼굴이 빨개진 알레쉰이 우쭐하여 두번째 쵸콜레트판대기에서 빨각거리는 은지를 발가내는 모양을 바라보며 싱긋 웃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동문 정말 대담하게 잘 마셨댔어! 자, 갑시다! 중대가 도착했을거요. 고르바쵸브, 동무는 여기 남으시오.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쫓으시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노비꼬브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문께로 향했다.

알레쉰은 난처한 기색으로 쵸콜레트 4개를 주머니마다에 쑤셔넣으며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이마에서 모자를 밀어제끼며 그는 고르바쵸브에게 책임자다운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약방에서처럼 질서정연해야 하오, 알겠소?》하고는 애써 틀을 차리며 노비꼬브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황폐한 정원오솔길에 나섰을 때는 날이 밝아와 하늘높이 치솟은 앙상한 보리수나무우듬지들이 거밋하게 보이였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진 노비꼬브는 바스락거

리는 잎사귀들을 밟으며 흡사 문양처럼 보이는 나무가지들사이로 고지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귀를 기울여 포차의 바퀴돌아가는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구령소리, 마사병들의 욕지거리소리를 가려듣고 포가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오브친니꼬브소대장이 정신나간게 아닌가? 왜들 저럴가?) 걸음을 재촉하며 노비꼬브는 생각에 잠겼다. (도이췰란드놈들 코앞에서 왜 저리 떠드는걸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는가?) 그는 즉시 알레쉰에게 명령했다.

《달려가시오! 장마당에서처럼 떠들어대는구만. 동무네 소대에서 떠드는게 아니요?》

《그럴수 없습니다.》 알레쉰이 대답했다.

그들은 경사가 완연한 고지로 올리달리면서 포와 달구지, 말의 거밋한 륜곽들과 병사들의 움직이는 형체를 분간해보았다. 노비꼬브가 큰소리로 명령했다.

《조용들 하시오! 왜들 이러오? 소대장, 나에게로 오시오!》

욕지거리와 말소리들이 뚝 그치고 어렴풋한 륜곽들이 포결에 멈추어섰다. 오브친니꼬브중위가 땀냄새를 피우며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도착보고를 했다.

《동문 이게 뭐요? 오브친니꼬브?》 노비꼬브는 애써 자제하며 조용히 물었다. 《포 한방 쏘아보지도 못하고 중대를 죽이고싶소? 앞이 중간지대요. 적이 곁에 있단말이요. 동무는 그걸 모르겠소?》

《무슨 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구령치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개판입니다. 어째서 우리 포는 중간지대에 배치하게 하였습니까? 레메슈꼬브가 잘못 안게 아닙니까, 대위동지?》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오?》

《적의 지뢰마당이 이 고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포

는 그곳을 무사히 지나왔는데 수레가 걸려들었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투덜대기 시작했다. 《말은 사지가 다 날아나서 꽁지 하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사병은 중상을 당하고, 레나동무가 부상병을 돌보고있습니다. 그러니 나더러 중간지대에 있으라는거지요? 보병도 없이?》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듯 이렇게 물었다.
《그렇소. 보병이 없이요. 알레쉰의 소대는 이 고지우에 포를 설치하고 고지너머의 중간지대에는 오브친니꼬브동무네 소대가 설치하시오. 어째서 내가 명령을 반복해야 하오?》
《레메슈꼬브가 잘못 알았는가 생각했댔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이상하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대답했다.
《누구도 잘못 생각하지 않았소. 진지를 차지하시오. 소란을 피우지 말고.》 노비꼬브는 재차 말했다. 《부상병은 어디에 있소?》 그는 오브친니꼬브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중간지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어디로 가십니까? 지뢰원으로요?》 오브친니꼬브가 중대장에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죽자고 그럽니까. 대위동지? 레나동무가 거기 있습니다. 중대장동지는 후에… 공병들을 불러야겠습니다.》
《공병들을 불렀소. 하지만 그들은 지뢰를 해제하는것이 아니라 설치할거요.》
노비꼬브는 채 말을 끝내지 못했다. 《엎드리시오!》 하는 오브친니꼬브의 웨침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그러자 즉시에 쉭쉭 다급한 소리가 처음에는 약하게 들려오다가 점차 커지면서 정적을 뚫고 또렷이 들려왔다.
노비꼬브는 뒤쪽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음을 륙감으로 느꼈다. 돌아보니 희끄무레 밝아오는 하늘가에 불타는 별 하나가 빛을 뿌리며 쏜살같이 날아올랐다. 고지너머의 호수깊숙이에서 그런 별 하나가 또 날아올랐다. 먼저 날아

오른 별은 푸른색 불꽃이 되여 호수우로 흩어져내리면서 고지와 포, 수레, 말, 병사들의 형체를 낱낱이 비치였다. 신호탄이 하늘에서 불타고있는 순간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있어야 할 호수끝쪽에서 빨건 불줄기가 고지로 날아들었다. 중간지대너머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기관총이 사납게 짖어댔다. 좀 더 오른쪽에서 또다시 신호탄이 오르고 역시 그쪽에서 고지로 련발사격을 해왔다.

《수레 은페지로!》 노비꼬브는 도이췰란드측 전초대가 아군중대를 발견했음을 알아차리고 명령했다.

전투기재를 만재한 수레쪽으로 다가간 노비꼬브는 병사들이 포탄상자들을 정신없이 끌어내리고 말에 메운 포들이 앞차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고지꼭대기로 치달아오르는것을 보았다.

《못들었소? 은페지로 가시오!》 맨 선두 마사병의 열기띤 시선과 마주친 노비꼬브는 명령을 되풀이했다. 그 마사병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조급히 상자들을 땅에 던지다가 조용히 말했다.

《중대는 손바닥에 놓인것처럼 드러났는걸요! 그걸 아직 모르시겠나요?》

머리우로 련발사격이 지나갔다. 노비꼬브는 몸을 숙이고 마사병은 상자에 배를 깔고 엎어지며 땅에 대고 목갈린 소리를 하였다.

《대위동지… 도이췰란드놈들이 바로 지척에… 엎드리면 코닿을 곳에 있습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시오!》 노비꼬브가 명령했다.

이 마지막 명령이 마사병을 땅에서 뛰쳐일어나게 했다. 그는 옆으로 기우뚱 하면서 수레에 부딪치고 말고삐를 놓쳐버렸다. 수레는 남아있는 포탄상자들을 이쪽저쪽으로 짓쫓으며 가파로운 고지로 내달렸다. 주변에서는 신호탄에 환히 비쳐진 말들이 네굽을 놓

고 노비꼬브의 곁을 지나갔다. 그 뒤로는 기관총련발사격의 불줄기가 따르고있었다. 조명탄이 련속 비쳐대는 고지는 황량하고 모든것이 사멸된듯싶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관총 두정이 교차사격으로 고지를 누벼대고있었다. 가을 풀포기들을 커다란 참빗이 살살이 빗어내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노비꼬브는 총알이 자기쪽으로 점점 가까이 박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풀우에 엎드렸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고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밤새 빗질할것이다. 그렇다면 사태가 2중으로 복잡해질것으로 하여 부아가 났다. 싸움도 시작되기전에 중대를 몰살시킬수 있었다.

기관총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신호탄만이 호수우로 날으면서 우불구불 물우로 흩어져내리였다.

신호탄들도 사그러지고 고지우엔 어둠이 깃들었다.

노비꼬브는 그 정적을 믿기 어려운듯 몸을 일으키고 귀속말로 불렀다.

《알레쉰소위!》

《여기 있습니다.》

곁에서 풀잎이 설레이더니 알레쉰이 재빨리 다가왔다. 어두워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한바탕 쟈즈춤판을 벌려놓았댔군요. 제가 기관총 두대의 위치를 측정해두었습니다. 바로 코밑에 있습니다. 한방 갈길가요? 입을 닥치게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걷어치우시오!》 노비꼬브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중대를 로출시키면 안되겠소. 아주 조용해진 다음에 전호를 파도록 하시오. 알만하오? 부상병은 없소?》

《없습니다. 마사병 쑤쉬꼬브 한명뿐입니다. 지뢰에 맞았습니다. 레나동무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알고있소. 인제 그리로 가겠소. 나의 대리로 남아 주오.》

《알았습니다.》 알례쉰은 섭섭해서 숨을 죽이고있다가 인차 명랑한체 해보이며 말을 잇는것이였다. 《대위동지, 레나동무에게 이것을 가져다주십시오.》 그는 쵸콜레트 두개를 어색하게 내밀었다.

《몸보신을 하려고 간수했드랬는데 그것들이 주머니속에서 자꾸 찔러서…》

노비꼬브는 어색해하는 알례쉰을 못본척하면서 아무말없이 쵸콜레트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전에 그는 소위와 레나사이에는 그 녀자와 오브친니꼬브사이(물론 그의 생각이였다.)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느낀적이 없었다. 알례쉰이 《레나동무》라고 말하며 당황해한것이 노비꼬브에게는 불쾌했다. 그는 어른스러워보이려 애쓰는 알례쉰이 전쟁에서 거칠어진 뭇남자들속에서 살면서 쓴맛단맛을 다 체험한 순결치 못한 그 레나의 마술에 제발 걸려들지 않기를 바랐던것이다.

중간지대쪽의 고지를 내리면서 노비꼬브는 지뢰마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밝히려고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도이췰란드지뢰에 걸려들었댔단말이지?) 그가 이렇게 생각하며 지뢰원으로 들어서는데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예요? 조심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오른쪽 숲가까이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거기로 다가갔다. 검은 그림자는 앞바퀴가 떨어져나간 부서진 수레였고 그옆엔 죽은 말이 누워있었다.

레나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신음하는 쑤쉬꼬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있었다. 그는 붕대를 재빨리 감아나갔다.

《인제 다 돼요, 인제 다 돼요.》레나는 확신성있게 속삭였다. 《자, 몇분만… 인제 수레가 오면 우린 군의소로 가요. 군의소로…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많이 다쳤소?》 노비꼬브가 몸을 숙이면서 간단히 물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을 놀려 붕대를 감아나가던 레나가 머리를 돌렸다.

노비꼬브는 레나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레나는 성난 어조로 말했다.

《중대장동지는 왜 아직 여기 계세요. 한사람만 다친게 적어서 그러세요, 네?》

《쑤쉬꼬브동무!》 노비꼬브는 이렇게 부르며 부상병앞에 쪼그리고앉았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였소? 전쟁도 끝나가는데… 우린 끼예브에서부터 함께 오지 않았소. 나를 알아보겠소?》

드네쁘르강계선에서부터 노비꼬브중대에서 싸운 중년의 병사 쑤쉬꼬브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누워있었다. 긴장하여 크게 뜬 눈은 하늘을 향하고있었고 수염이 푸시시 자란 그의 얼굴은 거무스레하고 홀쭉해진듯싶었다.

힘겹게 눈길을 돌린 그는 노비꼬브를 알아보고 입술을 가볍게 움직였다.

《우연히…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분합니다.》 굵직한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분합니다. 분해요…》가르릉거리며 곱씹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다시 울려나왔다. 《부상 한번 안당하고 전쟁을 겪어왔었는데…》

노비꼬브는 쑤쉬꼬브를 위안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부상병자신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쑤쉬꼬브가 죽음에 대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

만 노비꼬브는 그 병사가 싸울만큼 다 싸우지 못하고 전쟁에서 물러서야 한다는것을 생각하자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안돼요. 쑤쉬꼬브아바이, 그러면 안돼요.》 레나는 수염오리에 매달린 눈물방울을 붕대로 닦아주면서 친절하게 위안했다.

《쑤쉬꼬브아바이… 아바이는 죽지 않아요. 아픔이 멎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노비꼬브는 운명해가는 사람들에게 쓰는 간호원들의 속임수를 참고 듣기가 싫었다. 죽음의 슬픔을 수많이 체험한 노비꼬브는 조폭해져서 자기라면 어차피 죽어야 할 때 자기를 위로하여 친절하게 속여넘기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그 최후의 친절을 받았다고 하여 생명의 위험이 덜어지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 사람을 위안할 필요는 없소. 그는 다 알고있소. 쑤쉬꼬브동무, 잘 가시오. 난 동무를 잊지 않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병사의 메마른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다. 몸을 일으켰을 때 《감사합니다, 대위동지!》 라고 하는 쑤쉬꼬브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인사는 몹시 어색하게 느껴졌다. (또 한사람이 가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10분쯤 지나서 군의소에서 위생차가 도착하여 쑤쉬꼬브를 실어갔다.

노비꼬브와 레나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레나가 걷다가 마주하여 돌아섰을 때 외투밑에 감싸인 그의 불룩한 가슴은 노비꼬브를 스칠듯 가까이에 있었다.

《저 혼자서도 아바이를 후송할수 있겠는데 뭣때문에 오셨습니까? 지뢰에 맞아 영웅적으로 희생되고싶었는가요? 누가 동지를 오라고 했습니까? 이건 제가 할 일인데요.》

《쑤쉬꼬브는 나의 병사요.》 노비꼬브가 대답했다. 《오브친니꼬브한테로 갑시다. 지뢰원이니 마구 가지 말고 조심하시오. 내 옆에서 걸으시오. 아무래도 내가 경험이 더 많을테니까.》 그리고는 덧붙여서 《아, 그리고 알레쉰이 동무에게 쵸콜레트를 보냈소.》라고 했다.

《무슨 쵸콜레트말인가요?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여긴 탁아소가 아닌데요.》

그 녀자의 눈에서 축축한것이 번쩍 하고 빛났다. 경멸감과 증오심에서였던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쑤쉬꼬브처럼 불쌍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던지 알수 없었으나 레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레나는 호수쪽의 지뢰원을 따라 단호히 앞으로 걸어갔다.

노비꼬브는 레나를 따라잡았다.

《서시오!》 그는 성이 나서 처녀를 멈춰세웠다. 《같이 서서 가자고 하지 않았소. 부상자 한명으로는 성차지 않아서 그러오? 못들었소?》

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 4 장

오브친니꼬브소대의 포 두문은 알레쉰의 소대가 있는 고지에서 이백메터 떨어진 중간지대쪽에 배치하였다.

오브친니꼬브의 포성원들은 말 한마디없이 굳은 땅을 한치한치 파고들어갔다. 일체 명령도 속삭임으로 내려지고 정대질과 삽질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작업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획 지나칠 때마다 적

군의 불안한 말소리와 전호속을 밟으며 오가는지 빈 탄피의 쟁그렁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와뜰 놀라며 손에 삽을 쥔채 바닥에 쭈그리고앉아 연빛 호수를 따라 늘어선 캄캄한 숲속을 바라보군하였다.

신호탄이 오르고 지척에서 기관총이 울부짖을 때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었다. 이제 곧 도이췰란드기관총수가 절거덕거리며 탄띠를 푸는 소리가 들려올듯싶었다. 지뢰원을 무작정 돌파하면서 포를 끌고 행군한뒤에 아직 열이 식지 않은 오브친니꼬브중위는 새로 판 흉장에 눕다싶이 기대여 팔소매로 가리우고 게걸스레 담배를 들이빨며 명령을 내렸다.

《자 빨리 다그치시오, 빨리! 랴갈로브, 동무는 뭐요? 삽하고 입이라도 맞추는게 아니요? 기운을 내시오!》

그는 웃통을 벗은 병사들의 허여스레한 잔등이 번들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한 땀냄새가 그에게까지 날아왔다.

《무슨 생각을 하오, 랴갈로브? 색시 생각을 하오?》

오브친니꼬브는 고양이처럼 밝은 눈으로 어둠속을 살피며 묻고나서 흉장에서 부스럭대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무슨 공상을 했소? 살기가 싫증났소?》

입술이 두툼하고 못나게 생긴 소심한 얼굴에 늘 군모를 뒤로 제껴쓰고 다니는 나이 지숙하고 푸접없는 랴갈로브는 탄약주머니의 무게에 내리쳐진 혁띠를 두손으로 붙들고 삽을 옆구리에 낀채 서서 피로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한숨 돌리는중입니다. 소대장동지, 도이췰란드통졸임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심사가 곱지 못한 조준수 쁘로혼꼬가 어둠속에서 털 한오리 나지 않은 가느

다란 몸뚱이를 드러내며 다가와서 히드덕거렸다. 《저 사람은 정부인 뿔스까백작부인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행군도중 어느 한 저택에 물을 마시러 들렸댔는데 글쎄 백옥같은 손에 가락지를 주런이 낀 백작부인이 나타나더니 랴갈로브앞에 무릎을 꿇고 팔싹 주저앉으며 〈전 여사여사한 녀인이고 돈도 넉넉히 있는데 사랑에 주려 죽을 지경이니 안해로 받아주십시오. 심장이 멎어 죽을 지경이예요.〉 하지 않겠습니까.》

《뒤를 봐야겠습니다, 중위동지.》 랴갈로브는 여전히 허리띠를 붙들고 얼이 나간듯 얼버무렸다.

《참지 못하겠습니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안절부절하며 발을 몇차례 구르더니 늙어서인지 군화코숭이로 흉장의 흙을 푸시시 떨어뜨리고 도이췰란드 전초대쪽을 흘끔흘끔 넘겨다보며 우로 기여올라갔다.

《원, 저런, 아주 죽어버리겠는걸.》 쁘로혼꼬가 비양조로 말하며 손벽을 탁 쳤다. 《백작부인이 과부가 되겠는걸!》

씩씩거리며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있던 몸이 실한 싸뽀르낀중사가 그를 꾸짖었다.

《왜 그리 사람을 몰아대나?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못살게 굴면서… 쁘로혼꼬, 동무는 혀바닥은 곧잘 나풀거리지만 머리는 통 돌지를 않아.》 그는 조용히 탄식했다.

《사실입니다. 그 동문 속탈이 났습니다. 중위동지, 통졸임을 지내 많이 먹었지요. 있을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뒤꼬리를 따르는 병사야 싸움을 앞두고 의례히 속탈이 나는 법이지.》 오브친니꼬브는 악의없이 대꾸하고 담배꽁초를 땅에 비벼끄며 외투를 벗어제꼈다. 《새벽까지 다 파지 못하면 우린 끝장이요. 다들 들었소?》

싸뽀르낀은 어둠속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기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 이웃인 체스꼬사람들이 땅을 파고있소. 좋은 동지들이요. 난 얼마전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빨찌산들이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를 기다린다오. 동무들, 기쁜 시각이 다가오고있소! 일을 다그칩시다. 몸을 아끼지 말고,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겁니다!》

《이건 뭐 선동을 하는거요. 당지도원동무? 아니면 그저 사기를 돋궈주자는거요?》 쁘로혼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자네같은것한테 선동할바엔 길바닥에 침이나 뱉겠네.》 싸뽀르낀이 사람좋게 대꾸했다. 《이놈아, 자넨 머리가 없나? 생각을 짜내고 귀를 기울이라구. 그러면 선동을 안해도 헛갈리지 않아.》

《일을 다그치시오!》 오브친니꼬브가 거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잡담을 그만할것!》

군복저고리바람의 오브친니꼬브는 굳은 땅에 삽날을 힘껏 박았다가 흉장우로 흙을 가볍게 내던졌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중위가 손수 일손을 잡게 되자 병사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불안감을 털어낼길이 없었다. 모두는 긴장한 속에서 말 한마디없이 땅을 팠으며 땀에 흠뻑 젖어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였다.

한번은 싸뽀르낀이 육중한 자기 몸에 차고넘치는 힘을 타산 못하고 돌에 힘껏 정을 박자 소리가 나면서 적측에서 당장 사격해왔다. 빨간 피빛 신호탄들이 떠올라 하늘에 퍼지더니 호수의 한끝과 주변 들판을 환하게 비쳤다. 한쪽으로 향해진 병사들의 머리와 그들의 눈동자에 어린 장미빛반사광도 똑똑히 보였다.

《엎드렷!》 오브친니꼬브가 낮은 소리로 구령을 쳤다.

따따따 점선을 그으며 올라가는 불꽃이 호수 저쪽으로 날아가고 불기둥이 돌개바람처럼 흉장을 들이쳤다가 신호

탄으로 환히 비쳐진 하늘로 말려올라가 별이 총총한 공중에 들이박혔다.

사람들은 열이 날대로 난 뜨거운 몸뚱이를 화점의 눅눅한 땅바닥에 붙이고 엎드렸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날아간 련발사격의 불줄기에서 발산된 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바지춤을 움켜쥔채 부산을 피우며 달려오던 랴갈로브가 숨을 헐떡이고 이발을 떡떡 마주치며 오브친니꼬브중위가 엎드려있는 옆에 털썩 하고 떨어져내렸다.

《다친덴 없소?》오브친니꼬브가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주눅이 든 랴갈로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찌나 갈겨대는지… 난 거시기…》

흉장너머에 떨어진 신호탄이 모닥불처럼 연기를 피우며 타올라 눈이 쓰려났다. 오브친니꼬브는 탁탁 튀는 그 불빛에 흙을 한줌 집어 내던지고싶었다. 그들은 마치 흉장이 자기들을 가리워주지 못하여 반반한 곳에 알몸으로 누워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살려두지 않을 기세로군.》싸뽀르낀이 조용히 말했다.

《망할놈의 도이췰란드놈들이 우릴 발견했어. 정확히 맞혔는데.》오브친니꼬브중위가 침울하게 말하는데 신호탄들이 일시에 꺼지고 기관총소리도 뚝 멎었다. 그는 다시 쌍욕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후닥닥 뛰쳐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모두 삽을 잡고 달라붙읍시다! 온 정력을 집중합시다!》

죄나 지은듯 어줍어하는 랴갈로브가 맨 먼저 일어섰다. 그는 부산스레 바지 앞자락을 여미면서 삽을 찾으려고 몸을 뻗쳤다가 솜씨있게 땅에서 몸을 일으킨 포장 싸뽀르낀과 마주쳤다. 싸뽀르낀은 신중히 그를 멈춰세웠다.

《조용히! 어째서 뜨락또르처럼 덜컹거리는거요? 무한궤

도에 머리를 깔리고싶어 그러오?》하고나서 그는 다시 정을 잡았다.
《그 사람은 끌호즈 부기원영웅이요.》 쁘로혼끄가 말참견을 했다. 《속탈을 만나지 않으면 백작부인에게 달려붙지. 그런가 하면 머리를 차에 깔릴려고 덤비지. 하여튼 하나같이 다 날쌔거든. 그러기에 저 사람 성도 그렇잖아. 랴가예트, 돌아가면서 머리를 걸어찬다는 말이거든. 우리를 로출시키자고 방금 숲에도 기여올랐던거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것이라도 있나?》 랴갈로브가 무안해하며 조용히 항거했다. 《자넨 나를 모욕하고있네. 자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나?》
《난 자네의 그 날쌘 기질을 좋아하네.》
《그만두지를 못하겠소!》오브친니꼬브가 낮은 목소리로 저지시켰다. 진지의 모든것이 숨을 죽이였다.
중위는 한참 있다가 어둠속을 노려보며 허리를 폈다.
《누가 오오.》그는 이렇게 말하고 진지의 한끝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오는게 누구요?》
《두 사람이 옵니다.》 싸뽀르낀이 귀속말로 속삭였다.
《체스끄사람들이 아닐가? 지뢰원으로…아 이것 보시오! 가만 있소. 중대장과 위생지도원 같은데…》
시무룩해진 오브친니꼬브가 투덜거렸다. 그는 위생지도원에 대한 자기 호의를 감추지 않았다. 오브친니꼬브의 솔직성과 소탈한 성품을 존경하는 병사들은 누구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레나와 노비꼬브사이가 자기와 레나간의 사이정도까지 깊어지지는 못했으리란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레나가 혼자가 아닌것은 마음에 켕겼다.
레나와 노비꼬브대위가 다가왔다. 그들의 거무스레한 자태가 어둠을 뚫고 흉장우에 불쑥 나타났다.
《레나, 손을 이리 주오. 넘어지겠소.》 오브친니꼬브가

한발을 흉장에 벋디디면서 위신을 차려 말했다. 《어서오우, 레나, 와주어서 고맙소.》

레나는 촉촉히 젖은 가냘픈 손을 내밀었다. 오브친니꼬브는 못이 박힌 투박하고 억센 손으로 레나의 손을 꽉 쥐여 진지안으로 끌어내렸다. 레나의 몸무게와 탄력있는 동작을 손으로 감촉하며 잔뜩 흥분한 오브친니꼬브는 순진하게 잡아준 레나의 손길을 색다른 약속의 의미로 리해했다.

《라지야동무와 통신이 련결됐소?》 노비꼬브가 물었다.

오브친니꼬브는 어깨에 외투를 걸치면서 재빨리 대답했다.

《련결하겠습니다. 대위동지, 토굴안으로 들어갑시다. 레나동무도… 모두 작업을 계속하시오. 랴갈로브, 내 삽을 받으시오.》

노비꼬브는 포성원들과 한데 어울려 진지를 굴설하는 오브친니꼬브를 두고 놀라지 않았다. 그의 강한 자존심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였다. 언제나 선참으로 팠고 진지가 완료되였다는 보고도 선참으로 하군 했다. 습한 냄새가 지독히 풍겨오는, 새로 판 깊숙한 엄페부(입구는 방수포비옷으로 둘러막았었다.)로 들어간 노비꼬브는 짚우에 앉아서 권연을 꺼내들었다. 그는 라이타를 찰칵거리며 오브친니꼬브를 보고 말했다.

《새벽에는 놈들이 땅속에 들어앉은 동무들을 코를 맞대고도 알아내지 못하게 위장해야 하겠소.》

《알고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문 오브친니꼬브가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대대에서는 여기에 지뢰원이 있다는걸 정말 몰랐습니까?》 타들어가는 두점의 담배불을 들여다보며 레나가 성

이 나서 말을 건넸다. 그는 특별히 더 세게 비치는 담배불에서 자기에게 향해진 오브친니꼬브의 집요한 시선을 발견했다.

《담배 한대 주십시오. 잠드셨습니까, 중위동지?》 레나는 오브친니꼬브를 향해서 말했다. 잠에 취한 그의 눈길이 레나를 전률케 했다.

오브친니꼬브는 펄쩍 정신이 들었다. 그러자 담배불빛이 그의 매부리코와 파리한 볼편을 비치고 무거운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정찰병들한테서 배웠소? 동무에겐 담배가 어울리지 않소. 난 담배피우는 처녀들을 존경하지 않소. 향수나 오데꼴론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첫 전투가 끝난 다음에 구해주기로 약속합시다.》

아무말이 없는 노비꼬브를 질투하며 훔쳐본 그는 레나에게 권연을 내여밀고 성냥을 켰다. 레나는 불을 입김으로 불어끄며 도전하듯 비웃었다.

《감사합니다만 저한테는 훌륭한 프랑스향수가 있습니다. 정찰병들이 선물했어요. 그대신 엄페부에 짚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구만요. 제가 명령을 주어도 일없겠습니까, 중위동지?》

레나는 천막휘장을 걷어올리고 나가버렸다.

《레나가 왜 저러오?》 오브친니꼬브는 모욕을 느낀듯 흥하고 코방귀를 뀌였다. 《다루기가 말짼 녀자인데요! 저런 녀자가 색시로 들어오면 공주처럼 폭신한 이불에 모시련만!》 하고 그는 빈정거렸다. 《좋은 처녀지요, 중대장동지!》

그는 이런 대화를 통하여 자기와 레나와의 관계는 이미 깊어졌으며 또 자기가 그 녀자에게 마음대로 명령하거나 명령조로 충고할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보여주려는것 같았다.

그런데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가 기대한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동무네 포들이 첫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걸 기억하시오. 대도로는 동무네 관할구역이요. 원형사격구역임을 명심하시오.》

《압니다.》

《공병들은 지뢰원을 해제하지 않소. 반대로 동무네 포들앞에 지뢰원을 더 조성하게 되오. 동무네 주위에는 우리 지뢰, 도이췰란드지뢰, 온통 지뢰요. 놈들이 동무를 겨누고 들어오는 경우에 그자들은 이 지뢰원에 걸리게 되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꽁초에 새 담배가치를 대고 불을 붙이면서 침울하게 대답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오브친니꼬브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다시 흥 하고 코소리를 냈다.

《덫이 아닐가요?》 그는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는듯 엉뚱하게 쏘아붙였다.

《덫은 무슨 덫?》 노비꼬브는 씩 웃었다. 《그저 중간지대에서 싸울뿐이요. 동무네 통신병들이 공병들과 통화하면 지뢰원으로 해서 고지로 가는 통로를 대줄거요.》

《알겠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또 말을 잘랐다.

《알겠습니다.》라는 시답지 않은 이 대답은 그의 강한 자존심때문에, 년령상 노비꼬브가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생활경험도 적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튀여나온 대답이였다. 오브친니꼬브는 스물여섯살의 중위인 자기가 아니라 지내 어린 노비꼬브가 중대를 지휘하게 된것은 조건이 불리했고 운수가 트이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해왔다.

《뭘 알겠다는거요?》 노비꼬브는 부드럽게 물었다.

오브친니꼬브는 그 어조를 듣고도 그가 자기보다 상급

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자, 활동하시오. 즉시 고지와 통화를 맺으시오. 잘 있소!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오!》

노비꼬브는 일어서서 입구에 쳐놓은 방수포천막을 쳐들었다.

뭇별이 총총하고 유난히도 조용한 밤이였다. 산중의 신선한 공기가 풀포기를 조심히 흔들어놓으며 담배연기 자욱한 엄폐부로 흘러들었다. 눈부신 큰 별 하나가 파란 불길처럼 바르르 떨며 흉장우로 미끄러져내렸다.

《조용히 기다리고들 있구만.》 노비꼬브는 생각에 잠겨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돌리지 않은채 물었다.

《동무는 전쟁이 인차 끝나리라는 예감이 들지 않소? 마쟈르에서는 우크라이나 제2전선군이 찌싸강반으로 돌입했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우리 땅크들이 베오그라드주변까지 갔소. 멀지 않아 끝날거요.》

오브친니꼬브는 엄폐부속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진하게 타는 담배불만이 어둠속에서 그의 얇은 입술을 비칠뿐이였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러나 그 대답은 거짓이였다. 오브친니꼬브도 다른 사람들처럼 전쟁의 종말이 가까와옴을 느끼고있었다.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채하지 못했다는 조바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군 하였다.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자기는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다.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침울하게 되뇌였다.

그러자 노비꼬브가 반롱조로 대답했다.

《에이, 바보! 됐소, 가보겠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교통호에서 그는 조준수 쁘로혼

꼬와 마주쳤다. 몸이 후줄근히 젖은 그는 알몸에 솜저고리만 걸치고 방수포비옷에 싼 짚단을 지고왔다. 그는 버스럭거리는 짚북데기를 삽무지우에 놓으면서 희떱게 물었다.

《대위동지가 명령하셨다지요? 아니면 그 녀자정찰병이?》

노비꼬브는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척했다.

《명령은 내가 했소. 전쟁에서 편리하게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되지 않았소.》 그리고는 롱담비슷이 덧붙였다. 《인제 곧 깨끗한 이불속에서 자게 될거요. 쁘로혼꼬. 약속하오.》

쁘로혼꼬는 토굴로 비집고 들어가 등에서 짚북데기를 둘러메친 다음 의미심장한 눈길로 엄숙하게 중대장의 자태를 삼켜버린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전투가 곧 있을것이라는 첫째 징표는 중대장이 이상하리만큼 은근히 쾌활해진것이였다. 새벽을 앞둔 적막이 사위를 온통 뒤덮고있었다. 도이췰란드측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날밝기 30분전에 오브친니꼬브에게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포좌지굴설이 완료되고 고지에 통신선이 늘여졌으며 보초들도 세웠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사 싸뽀르낀이 깨워준 오브친니꼬브는 거미줄에 꽁꽁 묶이운듯 혼몽한 상태에서 깨여나지 못한채 얼마동안 엄페부의 짚우에 누워있었다. 일어나 앉으니 작업한탓인지 등허리가 뻐근해왔다. 그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제2포는 어떻게 되였소? 결과보고가 왔소?》

《아직 안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된 지친 병사들이 등불에 눈을 쪼프리며

토굴로 들어왔다. 포탄상자우에서는 도이췰란드제 등잔이 까딱 움직이지 않는 자색불길을 포근한 연빛 대기속으로 피워올리고있었다. 상자우에는 또한 김이 무럭무럭 피여오르는 군용밥통과 고기통졸임통들, 커다란 빨간 포도주병이 놓여있었다. 교환수 구쎄브는 입안이 델가봐 짧게 깎은 머리를 수그리고 군용밥통에서 떠낸 뜨거운 밀죽을 후후 불어가며 입으로 가져가고있었다.

중사 싸뽀르낀은 검은 빵을 가슴에 대고 썰고있었다. 그가 어찌나 힘껏 칼을 눌러대는지 자기 몸을 썩뚝 잘라낼것만 같았다. 그는 큼직한 빵덩이들을 포탄상자우에 척척 올려놓으면서 제집 식탁에서처럼 후하게 권하는것이였다.

《중위동지, 저녁식사를 하십시오. 포도주도 있습니다. 노비꼬브대위가 보내왔습니다. 동무들, 둘러앉읍시다.》

《먹고싶지 않소.》

오브친니꼬브는 보기에도 껍진거릴듯 진한 포도주를 한 고뿌 가득히 부어서 게걸스레 들이켰다. 그리고는 오만상을 찡그렸다.

《에이, 어디서 이따위야! 과실짬을 보내주었군! 자, 구쎄브, 2포장 라지야상사를 호출하라구!》

구쎄브는 성급히 입술을 닦더니(그는 어린애처럼 입에 밀죽을 발랐었다.)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벗겨들고 뜨거운 밀죽을 불던것처럼 후후 분 다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라지야, 라지야, 라지야를 대시오. 자오? 우린 동무들의 사업정형을 알자고 그러오.》 믿기 어렵다는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오브친니꼬브에게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그 동무는 무슨 음악을 듣고있습니다. 정신이 나갔군요.》

《라지야, 동무넨 무슨 음악을 듣는거요?》 오브친니꼬브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듯한 2포장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느릿느릿 물었다. 《동무네 잘못이 아니라 전리품 잘못이겠지? 동무네 그쪽은 어떻소? 어째서 제때에 보고를 하지 않소? 모든게 제대로 됐다면 보고해야 할게 아니요. 됐소. 음악이 다 뭐요?》

그는 일어서며 외투의 단추들을 채웠다. 외투를 입었어도 주조한듯 근육이 고르롭게 발달된 그의 탄력있고 약간 구불사한 보기좋은 몸매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레나는 어디에 있소. 진지에 있소?》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엄폐부에서 나갔다.

쥐죽은듯 고요한 밤시간이였다. 파르스레해지는 하늘가에서는 별들이 자리바꿈을 하고있었고 말없는 땅우를 감돌던 대기도 허여스레해지고있었다. 흉장의 검은 풀과 교통호벽 그리고 은폐호에 세워놓은 축축한 삽들에서도 습하고 쌀쌀한 새벽기운이 풍겨왔다.

눅눅한 습기가 몸에 스며들어 몸을 옹송그린 오브친니꼬브는 포들이 있는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거기서는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오고 포가열에는 보초의 형체가 거무스레하게 보였다. 그 자세를 보고 랴갈로브임을 알 수 있었다. 혁띠고리에 기관단총이 비치여 반짝거렸다. 어깨에 비옷을 걸친 레나가 그와 나란히 포탄상자에 앉아 있었다.

랴갈로브는 탄식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잠에 취해있었으나 정겨웁게 울렸다.

《전쟁이란 녀인들이 할 일이 못되오. 그게 어떤 일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쨌든 남자가 할 일이고 녀자에게는 다른 일이 있는것이요. 나에게도 엘리자베따라는 큰 딸애가 있소. 용서하오만 그 애도 투덜

쟁이 대학생이였소. 꾸반인가에서는 총각들이 떼를 지어 그 애를 따라다녔소. 그 애가 동무처럼 이런데 앉아있다고 내가 상상이나 할수 있겠소? 그럴수 없지. 절대로 그럴수 없소. 나는 그 애를 대신해서라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겠소. 동무는 어디서 지원해왔소? 공부를 했소? 중학생이였겠지?》

《전 레닌그라드에서 왔습니다. 의학대학에서 공부했댔지요. 아바이는 방금 투덜쟁이라고 하셨지요?》레나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걸핏하면 투덜대는 녀자란말이요. 그건 지나간 이야기요. 동무를 두고 한 말은 아니요.》

레나는 조용히 웃고있었다. 랴갈로브는 투박한 손으로 애무하듯 기관단총을 썩썩 문다지며 물었다.

《부모님들은 잘 계시오?》

《전 혼자예요.》 레나가 말했다. 《아니예요. 그놈들과는 판가리싸움을 벌려야 해요. 이전에 저는 책을 통해서만 파시즘을 알았댔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제눈으로 보게 되였지요. 아니예요. 그놈들과는 남자들뿐만아니라 녀자들, 아이들까지도 싸워야 해요. 결판을 지어야 해요! 다르게는 절대로 살수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랴갈로브!》오브친니꼬브는 엄하게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가서 휴식하시오. 내가 여기에 있겠소. 레나동무, 동무한테 이야기할게 있소.》

랴갈로브는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성거리다가 까딱않고 있는 레나의 형체를 황황히 넘겨다보며 포에서 뒤걸음질쳐 엄폐호로 사라졌다. 오브친니꼬브는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레나의 어깨를 스치다싶이 하면서 포탄상자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리품인 가죽담배갑을 꺼내여들고 장난기가 어린 웃음을 지으며 권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소. 레노치까? 소매로 가리우고…》

《전 피우지 않아요. 오브친니꼬브동지.》

《그렇다… 그럼 동무가 나를 놀려주었구만? 하여튼 그 일로 해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소.》 그는 여전히 롱담처럼 말했으나 높아지려는 목청을 애써 누르는것 같았다. 《그러니까 중대장앞에서 멋을 부렸소?》

레나는 들은척 않고 앉아있다가 눈섭을 약간 쫑긋하며 《아무 소리도 안들리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호수쪽으로 몸을 돌리였다. 《들어보세요. 저놈들이 왜 저럴가요?》

오브친니꼬브는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연빛호수 한끝이 어둠속에서 어슴푸레 보였다. 가을철의 차거운 호수는 회색안개에 덮이여 높이 뜬 별들을 자기 수면에 비쳐주지 못했다. 밤새 기관총이 짖어댄 강안 풀숲은 비밀을 숨기고 적막속에 잠겨있었다. 새벽정적이 차거운 호수에 조심히 안기고있었다. 불안과 의혹에 싸인 오브친니꼬브는 땅속의 좁다란 틈바구니를 통하여 부드럽고 쟁쟁한 색스폰에 맞추어 부르는 감상적이고 달콤한 녀인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호수곁에 있는 도이췰란드수신기가 다른 유성기에서 보내는 음악(상사 라지야가 포결에서 들은)을 우연히 수신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이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줄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오브친니꼬브는 마음이 불안하고 수상쩍어졌다.

그는 한참이나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었다. 저 멀리 포윈쪽 골짜기너머의 산속에서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이어 기관총의 불줄기들이 화려한 문양을 그리며 엇갈려 날아가고 땅크에서 쏘는 불덩이들이 급경사를 지으며 떨어져내렸다. 저쪽 리브늬구역에서 네주야째 전투가 계속되고있었다. 얼마후 그쪽도 조용해지고 여

기 도이췰란드놈들의 축음기도 숨을 죽이였다. 어디나 정적이 깃들었다.
《레노치까, 왜 그러오?》 오브친니꼬브는 태연한체 물었다. 《흔히 있는 정황이요. 왜 그리 걱정하오? 내가 고급향수를 가져다주겠소. 단단히 약속하오. 맞다들렸댔는데 가지지 않았소. 그래서 이걸 가져왔소. 좋소? 선물하는데 반대가 없겠소?》
그는 외투앞섶을 헤치고 주머니에서 체온에 따뜻해지고 손잡이에 자개를 물리워 장난감처럼 반들거리는 조그마한 권총을 꺼내여 공중으로 올려던졌다가 잡으며 말했다.
《어떤 도이췰란드군계집이 가지고있던거요. 이것으로는 자신을 쏜대도 죽진 않을거요. 부상입히기도 힘든 장난감이지만 동무한텐 무기가 없으니 가지오.》
《좀 보자요.》
레나는 습기를 머금어 벌거덕거리는 비옷을 살짝 제꼈는데 마치 중위의 앞에서 옷이라도 벗은것처럼 느껴졌다.
오브친니꼬브는 연빛호수를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레나의 좁다란 어깨와 가느다란 몸을 보았다. 그에게서는 상긋한 머리칼냄새까지 풍겨왔다.
《녀자용 왈터권총이군요.》 그는 레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건 진짜 장남감인데요.》
오브친니꼬브는 레나의 목소리를 어딘가 물속 깊은곳에서 흘러나오는듯 어렴풋이 듣고있었다. 그의 의식속에 심술궂게 떠오르는 레나는 원래 다른 처녀들이 리해할수 없는것도 잘 리해하는 령리한 녀성이였다. 지금 저처럼 랭랭하고 범접하기 어려운것은 자기의 결단성이 부족한탓이라고 생각한 오브친니꼬브는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백했다.
《동무는 송곳처럼 내 심장에 박혔소. 레노치까, 집게로

도 뽑아내지 못할거요. 난 동무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겠소.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겠단말이요!》 하며 오브친니꼬브는 경험있는 사내답게 힘껏 레나를 포옹했다. 손이 가슴에서부터 오그라뜨린 따뜻한 허벅다리를 쓰다듬어내려갔다. 그는 처녀를 자기쪽으로 와락 잡아채며 가슴을 꽉 눌러붙였다. 레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마구 흔들었다. 그는 반항하는 처녀의 차거운 입에 이발이 서로 마주치도록 정신없이 입맞추기 시작했다.

《레노치까, 레노치까…》

레나는 날렵하게 몸을 빼더니 뛰쳐일어나 그의 볼을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표독하게 내쏘았다.

《머저리, 바보! 썩 없어져요! 전 그렇게밖에는 다르게는 할줄 몰라요!》

오브친니꼬브는 맞아서 뻣뻣해진 볼을 어루만지며 어리둥절해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짓더니 얼굴에서 손을 뗐다. 그의 매부리코의 코구멍이 벌름거렸다.

《또… 때리오. 또… 힘껏 때리오!》

레나는 오브친니꼬브에게 다가갔다.

《네, 때리겠어요!》

《중위동지,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받으십시오!》 랴갈로브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나와 오브친니꼬브는 동시에 음폐호우에 나타난 사람의 머리를 보았다.

《거기에 누가 또 있소, 랴갈로브? 모두가 다 보았소?》 오브친니꼬브는 화가 나서 물었다. 《모두가 보았는가 묻지 않소?》

《아니올시다.》 랴갈로브는 나오는 하품을 참으며 대답했다. 《전 배가 아파서 뒤를 보려고 나왔드랬지요. 중대장이 중위동지를 찾습니다. 제가 보초를 서겠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이상하리만큼 빨리 성이 가라앉았다. 다만 그의 눈에 의혹의 빛이 실려있을뿐이였다. 그는 창백해진 레나의 얼굴을 곁눈질해보더니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말했다.

《정찰병들에게 자러 가도 좋소. 가오. 우린 그 사람들의 발밑에도 못가오. 그들에게 솜씨를 보여주오.》

그는 조심조심 랴갈로브옆을 더듬어지나 잠꼬대소리로 차고넘친 숨답답한 토굴로 들어갔다. 통신병 구쎄브는 잠에 취해 연송 몸을 굽혔다폈다 하면서 힘겹게 눈시울을 우로 치뜨군했다. 수화기는 그의 무릎우에 놓여있었다. 수화기를 쳐든 오브친니꼬브는 방금전의 흥분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입을 열었다.

《2번 전화받습니다.》

《통로개설문제를 왜 보고하지 않소?》 노비꼬브가 물었다. 《공병들과는 통화가 되였소? 왜 대답이 없소?》

《제가 목숨을 잃을가봐 걱정됩니까?》 오브친니꼬브는 노비꼬브의 침착한 목소리에 까닭없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지금 별장에 앉아서 술을 마시겠지 하고 생각했다.) 말했다. 《전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저때문에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저때문에말입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재판에 회부하겠소!》 노비꼬브는 한마디한마디 씹어뱉듯 말했다. 《동무때문에 걱정하는게 아니요.》

《생각대로 하십시오! 재판이면 재판》

얼굴이 기름하고 코가 긴 그가 근육이 불거진 두손을 벌려짚고 가느다란 입술을 감때사납게 꽉 다물고있는 품이 마치 털을 곤두세운 맹금과 흡사했다.

《걱정할게 뭐 있습니까? 제가 공병들한테 갔다오면 다 풀릴겝니다. 중위동지, 누우십시오. 제가 몰래 갔다오겠

습니다.》

그제서야 오브친니꼬브는 곁에 있는 중사 싸뽀르낀을 띄여보았다. 그는 미소어린 얼굴로 포탄상자우에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앉아 구겨진 당증에 부드럽고 사색에 잠긴 커다란 얼굴이 찍혀진 사진을 붙이고있었다. 희미한 등잔불빛에 관자노리의 희슥희슥한 머리칼이 비치였다.

《에이, 빌어먹을거, 못해먹겠군. 왜 자꾸 떨어지는지. 습기때문인지 땀이 배여서인지… 어느 주머니에 건사한다? 화약통에서 명주천을 끄집어냈는데 쓸만하겠는지…》

그는 당증을 명주천에 천천히 싸서 군복저고리안쪽에 기워붙인 주머니속에 꼼꼼히 집어넣더니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전 가겠습니다, 중위동지, 좀 쉬십시오.》

제 5 장

새벽 4시에 노비꼬브의 포좌지에는 굴꼬소좌가 왔다.

그는 끝이 뾰족한 장화를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진지를 한바퀴 돌아본 후 박차를 절거덕거리며 포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고지우에 서서 도이췰란드놈들과 이백메터 상거한 오브친니꼬브포좌지의 중간지대 왼쪽켠의 호수를 바라보고있었다.

《좌지를 잘못잡았군. 포가 빤드름히 드러났소. 하지만 다른 방책이 없었지. 노비꼬브대위, 어떻소?》

《그렇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가까이 있어 소곤소곤 말씀하시라는데 소좌동지는 박차를 절컥거리고 결혼식장에나 간듯 큰소리로 말씀하시니.》 하

고 노비꼬브는 꺼리낌없이 직통으로 말했다. 《벌써 기관총사격을 한차례 받았습니다.》

참호 엄폐부에서라면 그가 군관들이 보건말건 속내의바람으로 앉아있을수 있었지만 중대로 올 때에는 대체로 규정대로 단정히 했고 면도도 매끈히 했으며 박차를 달고 새 혁띠도 제식대로 띠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인테리층의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명령조로 큰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굴끄는 노비꼬브의 지적에 성을 내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장화목을 힘껏 내리치면서 말했다.

《알레쉰의 소대에 푹 쉬라는 명령을 주시오. 잠잠할 때 이 흠할데없이 훌륭한 별장에서 말이요. 수고를 했으니 폭신폭신한 이불에 깨끗한 내의를 입고 자라고 하오.》

《제가 벌써 명령을 주었습니다.》 노비꼬브가 대답했다. 《별장으로 가십시다.》

…그들에게는 아직 몇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게 몇시간이 될지는 그들도 알지 못했다.

군관들은 자지 않았다. 별장 2층에 창가림천을 촘촘히 늘이고 맑은 수정잔에 향긋한 프랑스꼬냐크를 부어마시며 담배도 많이 피웠다. 안주는 조금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취하지는 않았다.

푸른 석유등잔갓우에서는 연기가 층을 이루며 떠돌고 있었다. 방안이 더워났다. 폭신한 쏘파들과 바닥전체에 깔린 주단우에서 밤새 피로한 병사들이 코를 골고있었고 안락의자에서는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가 전화기를 사랑스럽게 그러안고 앞상에 기댄채 굳잠이 들었다. 그는 쩝쩝 입맛을 다시다가는 수화기에 볼을 비벼대며 잠꼬대를 하기도 했다.

《동문, 우물에 가오. 우물에…》

포보초를 금방 교대하고 들어온 장탄수 보가쩬꼬브는 군복저고리를 벗은채 주단우에 앉아서 곧똑히 외투단추를 달고있다가 이따금 잠꼬대를 하는 꼴로꼴리치꼬브를 대견스레 바라보는것이였다. 보가쩬꼬브는 키가 크고 머리칼이 까맣고 체격이 쭉 빠졌다. 로동에 단련된 그의 억센 손동작은 확신성이 있었고 울퉁불퉁 삐여져나온 근육들은 젊음을 과시하며 속내의를 팽팽하게 채웠다. 거무스레한 그의 얼굴은 아름다왔다.

《저럴수 있습니다, 중대장동지.》 그는 노비꼬브를 향해 말했다. 《두달동안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는 폭격장면이 꿈에 보였는데 여기 일선에서는 쑥대와 노을비낀 초원, 버럭산, 막장안에서의 전등이 꿈에 보이지요. 깨여나면 광산에서 싸이렌소리가 들리는듯합니다. 꼴로꼴리치꼬브는 저… 우물에 애착을 가진듯합니다.》

《눕소.》 노비꼬브가 말했다. 《시간을 아끼시오.》

굴꼬소좌는 권연을 입에 꼬나물고 연기에 오만상을 찡그리며 담배진이 밴 손가락으로 책상우에 놓인 두꺼운 책을 뒤져나갔다. 그리고 혐오스럽게 말했다.

《엔 쁠류스 하나의 루승으로의 케니스주의의 번성, 피, 죽음, 묘지옆에서의 미소, 파괴, 〈로씨야 사진들〉… 도이췰란드장교들을 위한 책이군. 삐찐!》 그는 찾았다. 《이따위 책은 변소간이나 쓰레기통에 버리오. 쓰레기통에 가져가오!》 그는 성이 나서 소리치고 기진맥진하여 쏘파에 앉아있는 련락병의 무릎을 향해 책을 던졌다.

삐찐은 몸을 부르르 떨어 검질기게 달라붙는 졸음을 쫓고나서 책을 만져보며 빙그레 웃었다.

《이걸 어디에 버리랍니까, 소좌동지? 진짭니까?》

굴꼬는 털이 삐죽삐죽 내민 코를 흥 내불며 코방귀를 뀌였다.

《기사인 나는 일생 건설장으로 떠돌아다녔기때문에 로

씨야가 어떤 곳인가를 아오.》 그는 찍어서 말했다. 《그리고 파시즘이 어떤것인지도 똑똑히 아오. 페허로 된 세계와 나무에 매달린 시체들, 재더미로 화한 도시들, 파괴의 광증에 사로잡힌 두발가진 짐승들… 노비꼬브, 동무는 왜 그렇게 쳐다보오?》

《그건 모두가 아는 자명한 리치라고 말하고싶었습니다.》

노비꼬브가 대답했다.

《아, 세상사람들이 자명한 이 리치를 다 알고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굴꼬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내뱉았다.

《소좌동지,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문제를 소리내여 말하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노비꼬브는 말했다. 《너무 자주 쓰면 의의가 상실됩니다. 말없이 증오해야 하지요.》

《저런! 아주 흥미있는데…》 굴꼬는 책상맞은편에서 조용해진 알레쉰을 곁눈질해보며 말했다. 《소위동무,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응?》

노비꼬브는 술잔을 밀어놓고 담배케스를 꺼내여 뚜껑을 잘칵—하고 열었다.

《그 동무는 저의 직속부하이기때문에 저의 의견에 동의할겁니다.》

지금껏 모른체하고있던 알레쉰은 대위의 말을 듣자 어쩔바를 몰라 얼굴을 붉혔다. 그는 돌연히 노비꼬브가 레나를 보고 그렇게 놀랐던 그 천연스럽고 유쾌한 웃음을 지어보이는것이였다.

《로씨야…》 노비꼬브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난 로씨야가 무엇인가를 전쟁에서 비로소 보고 리해했습니다. 위쨔, 동무는 로씨야가 무엇인가를 알겠소?》

소위는 대위가 자기를 위쨔라고 불러준것으로 하여 왼쪽눈섭옆에 곰보자욱이 있는 노비꼬브의 얼굴을 홀린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대장은 대대에서 제일 젊은, 성인 같기도 하고 소년같기도 한 대위의 침울해보이는 회색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있다가 물었다.

《어떻소? 대답해보오.》

노비꼬브는 대답하지 않았다.

《로씨야가 어디라고 그럽니까? 뽈스까너머에 있는데요. 수십키로메터 떨어진 곳에말입니다.》 보가쩬꼬브가 외투를 머리우로 잡아당겨쓰면서 말했다.

노비꼬브는 일어서서 습관된 동작으로 허리에 매달린 권총을 옮겨놓으며 전화있는데로 갔다. 통신병 끌로끌리치꼬브는 여전히 전화기를 끌어안고 수화기에 부산스레 볼을 비벼대는가 하면 피곤이 실린 지친 눈시울을 꿈속에서 바르르 떨며 웅얼거렸다.

《우물로 가시오, 우물로… 물이 찹니다.》

《바로 이게 로씨야요.》 하고 노비꼬브는 조용히 엄숙하게 뇌이였다. 그는 통신병의 후더운 볼밑에서 수화기를 조심히 뽑아내여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찾았다. 손바닥에 될수록 편안하게 얼굴을 파묻으려고 비벼대며 중얼거리는 끌로끌리치꼬브앞에 선 그는 한동안 기다리고있다가 지뢰마당에 대한 오브친니꼬브의 대답을 듣고 명백히 찍어서 말했다.

《통로를 굴설 못하면 재판에 회부하겠소.》 그리고는 수화기를 놓았다.

《노비꼬브, 듣소.》 굴꼬소좌가 부피가 큰 도이췰란드잡지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말했다. 《도대체 동무는 몇살이요? 전쟁전에 무엇을 했소? 중학생이였소, 대학생이였소?》

《그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노비꼬브가 대답했다. 《알고싶으면 련대참모부에 있는 개인문건철을 보시지요.》

《자, 시간이 흘러서 난 가야겠소.》 굴끄가 말했다. 《뻬찐, 말!》

그는 발이 조이는지 앞코숭이가 뾰족한 군화를 쭉 뻗쳐 절거덕소리를 내면서 애수에 잠긴 시선을 손목시계에 준채 이렇게 말했다.

《대위동무, 정황이 어떻게 조성되든 동무네 중대는 익측의 맨 끝이요. 싸움이 쉬울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오.》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좌동지.》 노비꼬브는 이렇게 대답하고 침묵했다. 굴끄는 그가 모르고있는것도 알고있는듯 했다.

《이 쓸모없는 전리품을 될수록 적게 마시기를 바라오.》 굴끄는 이렇게 충고하고나서 대위의 손목을 잡고 문가로 끌고가 노비꼬브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알레쉰이 듣지 못하도록 귀속말로 말했다. 《전쟁에서 동무가 많은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사실 동무는 아직 소년이나 다름없소. 동무의 앞길은 구만리같소. 젊었을 때 사람들을 선량하게 대하오. 청춘시절에는 선에 대한 감각이 특별히 민감하지 않소. 철학을 픈걸 용서하오. 전쟁은 끝날게요. 동무의 생은 앞에 놓여있소. 물론 살아남는 경우에말이요. 살아남는 경우에…》

그는 노비꼬브의 팔굽을 꽉 쥐더니 키낮은 토굴에서 나올 때처럼 여윈 등을 기계적으로 구부리며 걸어나갔다. 계단에서 필요없이 멋을 부리는 박차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하여 아래층에서 조용해졌다.

노비꼬브는 두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불안감과 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싸여 방안을 이리저리 오갔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 나이문제를 건드려 자신이 고이 숨겨오던 요진통을 찔러준 일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제일 첫째가는 약점으로 부끄럽게 여겨오던 문제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년령이 배로 우였

으나 그는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경험있는 인간의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여기에 습관되여있었다.

《이게 뭐요?》노비꼬브는 발밑에 놓인 낯선 배낭들을 보고 물었다. 《어디서 난 누데기들이요?》

《그건 그… 군의소 추물들의겁니다.》 알레쉰이 대답했다.

《그렇소?…》노비꼬브는 애매하게 말꼬리를 흐리며 입속말로 뇌여보이는것이였다. 《할수 없지. 전쟁에도 선은 있으니까. 선과 악, 동무는 철학을 배우지 못했소, 위짜?》

알레쉰소위는 책상에 가슴을 기대고 도이췰란드잡지의 알락달락한 삽화들을 아이들처럼 열심히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인가 하고있었다. 아늑한 등잔불빛이 알레쉰의 희고 깨끗한 이마와 밋밋한 눈섭, 시원한 파란눈을 비쳐주었다. 그 눈은 맑고 생기가 돌았다.

《대위동지의 일은 다 잘될겁니다.》알레쉰은 유쾌하게 지어는 환희에 넘쳐서 소리쳤다. 《기막히게 운수가 트일겝니다.》

노비꼬브는 장화를 벗지 않은채 쏘파에 누워서 외투로 가슴을 덮으며 말했다.

《생각이 그럴뿐이지. 위짜, 불을 끄지 마오. 왜 운수가 트일것 같소?》

알레쉰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힘껏 기지개를 켜더니 달려나가다가 자맥질하듯 등받이없는 쏘파에 벌렁 엎드렸다. 용수철이 삐걱거렸다. 그는 누운채로 군복저고리를 벗으며 한쪽으로는 구두앞코숭이로 뒤축을 눌러 장화를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산뜻한 베개잇을 씌운 부풀은 베개를 주먹으로 치면서 명상에 잠겨 말했다.

《아니요. 정말입니다. 대위동지는 행운아입니다. 운수가 트일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훈장을 주런이 달고 칭호도 높아지고… 군사아까데미야에 보낼겁니다. 그런데 난 제길!》그는 한숨을 쉬고 몸을 반쯤 일으켜 엎드리더니 아이처럼 주먹으로 턱을 고였다. 보동보동한 흰목이 드러나고 밤색머리칼이 천진하게 이마에 내리드리웠다. 《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위동지, 정말입니다. 붉은별훈장은 받았는데 용감성메달은 어쩐지 받게 되지 않는군요.》 이어서 그는 속마음을 마저 실토했다. 《나에게는 모든 훈장중에서 용감성메달이 제일 귀중합니다. 진짜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그 메달도 받게 될거요. 그거야 그리 힘든 일이 아니지 않소.》 하고나서 노비꼬브는 이렇게 물었다. 《동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어머니, 누이, 애인?》

《어머니… 그리고 위까… 그 녀자를 윅또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례쉰은 동안이 지나서 대답했다. 노비꼬브는 그가 지금 얼굴을 붉히고있는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 했다.

《참 좋은 일이지.》 노비꼬브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잠시후 다시 물었다. 《로씨야가 그립지, 위쨔?》

안개덮인 뽈스까의 평원너머 저멀리 뒤쪽에 기쁨과 함께 아픔으로 가슴설레게 하는 로씨야땅이 남아있었다.

제 6 장

《대위동지! 대위동지!…》

노비꼬브는 가슴에서 외투를 홱 잡아제꼈다. 잠결에도 유리깨지는 소리와 지붕우로 포탄이 날아가 터지는 소리

가 의식속에 파고들었다. 벽너머에서 울려오는 핑음들과 떨리는 바닥, 자기한테 머리를 수그린 레메슈꼬브의 놀란 얼굴은 그를 자리에서 펄쩍 뛰쳐일어나게 했다.
《뭐요?》
《대위동지… 대위동지!》
《뭐요?》
《중대장동지… 포좌지로 빨리!》 레메슈꼬브는 헐떡거리며 말하고나서 발작적으로 침을 꿀꺽 삼키였다. 《시작되였습니다!… 보이질 않아서…》
《무엇이 보이질 않는단말이요?》 노비꼬브는 안락의자에서 혁띠와 권총집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들었다. 《이건 안보이는데 저건 보일수 있소? 알레쉰은 어디에 있소? 어째서 인차 깨우지 않았소?》
《소위동지가 알아보고 올테니 그동안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포좌지로 나갔습니다.…》
《풋내기같은것들! 명령을 하려든다니까!》 노비꼬브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레메슈꼬브가 하는 말을 이미 듣지 않았다. 외투에 혁띠를 띠고 지도가방을 메면서 잠이 채 깨지 않은 눈으로 잠자리를 거두지 못한 텅빈 방안을 둘러보았다. 창가림의 틈사리를 통하여 불타는 아침노을이 비쳐들었다. 책상우에는 빈병들과 함께 통졸임통들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맥없이 타오르고있었다.
지도첩은 흔들흔들 하다가 탁상보에서 미끄러져 주단우에 떨어졌다.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한쪽구석에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만이 노비꼬브의 시선과 마주치자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대위동지를… 알레쉰이 포좌지로 부릅니다! 전 어디로?》
《포좌지로 가시오!》

노비꼬브는 걸어가면서 모자를 쓰고 문을 발길로 차서 연 다음 계단을 달려내려가 차거운 노을빛에 활짝 물들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반쯤 깨여져나간 창유리들이 호박색으로 물들어있었고 새벽바람에 아래층 문들이 삐거덕거리고 창가림이 펄럭거렸다.

잠을 설친 늙수그레한 경리소대의 마사병 두 사람이 카텐에 발을 걸채이며 허둥지둥 무엇인가 찾고있다가 노비꼬브를 보자 머뭇거리며 그에게로 돌아섰으나 굳어져서 규정대로 경례를 붙이지 못했다.

《왜 서성거리는거요?》 노비꼬브가 물었다. 《모두 제자리로 가시오!》 그는 깨진 유리를 밟으면서 테라스를 건너 이슬에 젖은 공원으로 뛰쳐나왔다.

방수포를 덮은 경리소대의 수레들이 앙상한 보리수나무 밑에 서있었다. 방수포에 낀 이슬이 반짝거리고 폭풍에 수레주변으로 몰려든 나무잎사귀들이 누렇게 보였다. 보라빛 연기는 습한 대기중에 스며들지 못하고 가로수길과 련못의 적자색 수면우에 서려있었다.

노비꼬브는 걸음을 재촉하여 큰길로 나와 정문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나무가지를 헤치고 고지를 올려다보았다. 땅크들이 내쏘는 불줄기들이 고지우로 날아가고 쉼없이 터지는 박격포탄의 불꽃이 산등성이를 뒤덮고 있었다.

도시의 왼쪽켠에서 짜르릉거리는 집중사격소리가 원거리포사격소리를 압도하며 점점 커지더니 미구에 콩볶듯 자지러지게 울려왔다. 탄력있는 땅크포소리가 그에 합류하였다.

노비꼬브는 시작되였다는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어차피 시작되고야 말 일이였다.

지내 일찌기 시작되였다는 생각과 자기는 무슨 일인가 채 끝맺지 못하고 무슨 사색인가 채 무르익히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속을 스치고 지났건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였던가는 아무리해도 생각해낼수 없었다.

아침노을에 물들어 주황색으로 된 풀들을 밟고 노비꼬브가 언덕을 치달아오를 때 오른쪽에서는 기관총탄이 벙끗벙끗 가슴을 스치며 날아갔다. 놀란 노비꼬브는 저 멀리 골짜기 오른쪽 소나무숲속에 황금빛 연기에 휘감겨 마치 불타는듯한 석대의 검은 땅크의 형체를 보았다.

(저건 뭔가? 골짜기에서 나왔을가?) 노비꼬브의 머리에 피끗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레메슈꼬브는 숨을 헐떡이며 땅에 얼굴을 박고 기여왔는데 배낭은 또다시 혹처럼 그의 잔등에서 데룽거렸다. 레메슈꼬브가 넘어져 네발걸음을 해서가 아니라 빽빽이 처넣은 그의 배낭이 갑자기 노비꼬브의 부아를 돋구었다.

《또 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오? 그놈의 배낭은 또 메고?》

레메슈꼬브는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를 중얼대며 노비꼬브를 뒤따라 고지로 달렸다. 젖은 풀잎에 미끄러지며 개활지대에 이른 레메슈꼬브는 자기 몸뚱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좌지에 올라서서야 동지들의 얼굴과 포탄들, 포판사이에 쌓아놓은 포탄상자들 그리고 노비꼬브의 형체를 어렴풋이 분간해보며 털썩 땅에 주저앉았다.

《쓸데없이 나를 다시한번 걱정해주는 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치 않겠소.》 레메슈꼬브는 노비꼬브의 웨침소리를 들었다. 그의 곁에 알레쉰소위의 죄송스러워하는 얼굴이 보였다.

《대위동지! 오브친니꼬브가 전화로 명령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준비는 갖추고있되 발사는 하지 말라고 이르시오!》

노비꼬브는 이렇게 명령하고 교통호에서 약간 허리를 구부려 감시소엄페호로 뛰여내렸다.
엄페호에 있던 정찰병들과 통신병들은 잠에 설친 어설픈 얼굴로 두툼한 도이췰란드제 종이자루주위에 쪼그리고 둘러앉아 웃으며 건빵을 씹고있었다. 노비꼬브를 본 그들은 서둘러 외투주머니에서 빵부스레기들을 털어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장난질을 그만하게, 보가쩬꼬브!》
제1포 장탄수 보가쩬꼬브는 흉장우에 노비꼬브와 등을 지고 뛰르끼예식으로 올방자를 틀고앉아 건빵을 씹으며 얼굴을 돌리지 않은채 희떱게 뇌까렸다.
《고르바쵸브, 난 말이야 한알의 총알도 뚫지 못해. 난 광부이니까 땅이 나를 보호해줄거네. 그리고 자넨 어부니까 물이 도와줄게고… 전쟁 전기간을 일선에서 지냈어도 별일 없었으니 마감에 죽지야 않겠지. 그렇지 않나?》
《어서 내려오라구, 대위동지가 오셨네. 들었나, 광부?》
정찰조장 고르바쵸브상사는 손바닥에 놓인 희한한 핀란드제 장도칼을 올려던지면서 노비꼬브에게 술진 속눈섭을 끔뻑하고 정중히 미소를 보낸 다음 보가쩬꼬브를 어깨로 툭 쳤다.
《내려오라는데두.》 하고 그는 롱조로 말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십시오. 죽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군요. 그리고 체스꼬보병들이 도착했습니다. 대위동지, 우리앞에서 전호를 파고있습니다. 보입니까?》
군복저고리 앞섶을 활짝 제쳐놓은 날렵하게 생긴 고르바쵸브는 포탄상자앞에 서있었는데 상자판대기우에 깊은 칼자국이 난것으로 보아 까스삐해어부인 그가 금방 손가락을 벌려짚고 그 짬에 칼을 재빨리

박아나가는 재능을 보여준듯 싶었다.

《손재주를 보여주었소?》뽐내기 좋아하는 고르바쵸브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노비꼬브가 엄하게 물었다. 《보가쪤꼬브동무, 뭐요? 목숨을 시험해보자는거요? 썩 내려오시오! 더구나 지금 정황은 아주 불리하오!》

보가쪤꼬브는 갈색눈의 거무스레하고 애티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돌리고 노비꼬브가 보는데서 죽는 시늉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서둘러 엄페호로 기여내려왔다. 그는 탄탄한 자기 가슴을 덮고있는 군복저고리를 잡아당기며 웅얼거렸다.

《말이야 아무렇게나 할수 있지요. 좌지로 갈만합니까, 대위동지?》

《가보시오!》

고르바쵸브상사는 혁띠에 달린 칼집에 칼을 꽂고나서 어기죽거리며 감시소흉장에 설치된 두대의 기관총에로 다가갔다. 그는 원형탄창에서 흙을 털어내며 유감스러운듯 말했다.

《대위동지, 어쩌면 오브친니꼬브가 기관총을 잊고 갔을가요? 보내줘야 할텐데요.》

《자기 위치로!》 노비꼬브가 구령을 주었다.

노비꼬브는 포대경으로 적정을 살피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명백히 가늠할수 없었다. 호수의 전체 기슭과 고지 안쪽과 왼쪽의 벌판은 벙끗벙끗 땅크가 내쏘는 불기둥에 뒤덮였고 그우로는 빨간 불줄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날아다녔다. 경기관총들은 대기를 뒤흔들며 짖어댔고 도이췰란드반땅크포들은 짜르릉짜르릉 사격을 가해왔다.

노비꼬브는 호수맞은편 기슭의 숲속 오브친니꼬브포좌지 이백메터앞에 도이췰란드반땅크포들이 있는것을 보았다. 반땅크포들은 대대장이 알려준 우측 린접부대

5군단의 아군땅크방어지대인 고지 오른쪽을 향해 사격하고있었다.

처음 노비꼬브는 아군땅크들이 반땅크포를 마주 쏘지 않고 금방 자기네를 사격하던 석대의 도이췰란드땅크방향의 소나무숲속으로 화력을 집중하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지금은 적땅크들이 보이질 않았다. 숲속으로 들어가버렸다. 그제서야 노비꼬브는 사태를 명백히 깨달을수 있었다. 산을 깎아내여 만든듯 어둑시근한 숲 왼쪽의 안개낀 골짜기에서부터 대도로를 따라 땅크와 주둥이가 뭉툭한 화물차들, 유리에서 보라빛 반사광을 내뿜는 승용차들, 장갑수송차, 사람들의 빽빽한 대렬이 개미떼마냥 밀려오고있었다. 이 흐름은 가위처럼 천천히 벌어져서 석대의 선두땅크가 향한 숲쪽과 다리와 삼백메터 상거한 지뢰원쪽 즉 오브친니꼬브포좌지가 자리잡은 호수 북쪽 변두리쪽으로 가고있었다.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적보병종대가 담벽처럼 둘러싼 땅크들의 엄호하에 신작로로 곧장 밀려드는것은 호수를 도하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로 들어가자고 하는것임을 노비꼬브는 간파했다. 그러나 오른쪽의 종대가 골짜기로부터 직접 릉선을 타고 아군땅크와 포부대가 차단하고있는 도시 동쪽 변두리방향의 숲으로 구부러든것은 리해되지 않았다. 전혀 예견치 못한 현상이였다.

노비꼬브는 포대경에서 잠시 눈을 떼고 주위를 살폈다. 포연이 까스노시가의 서쪽변두리를 온통 뒤덮고있었다. 재가루날리는 암흑천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치솟는 불꼬리만이 벌겋게 날름거릴뿐이였다. 거기서는 쾅르릉 쾅르릉 포소리가 련속 울려왔다. 놈들은 그쪽에서도 공격하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적들이 서쪽으로부터 도시를 다시 점령함으로써 리브늬의 포위를 뚫고 살아남은 일부 력량과 전체 군

집단이 북쪽의 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지대로 쉽사리 돌파할수 있게 하자는 기도임을 간파했다.

(응, 그랬댔구나 !) 적들의 기도를 알아차렸다는 신심과 더불어 그 어떤 달콤한 안도감을 느끼며 노비꼬브는 구령을 하달했다.

《준비 ! 오브친니꼬브를 전화로 찾으시오 !》

원거리류산탄이 마치 고지상공에서 멎은듯 웅글은 소리를 내며 터졌다. 포우에 생겨난 쪼각구름같은데서 파편들이 튀여나 엄페호앞에 쏟아져내렸다. 땅크의 호위를 받은 왼쪽의 적종대의 행동을 주시하던 고르바쵸브상사는 살눈섭을 바르르 떨며 쓰거운 미소를 지었다.

《인젠 그만 들어가 있게.》 그는 건빵자루를 발로 밀어 벽호에 던져넣고 노비꼬브의 눈치를 보았다.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는 전화기에 몸을 수그리고 석쉼한 목소리로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쉬임없이 호출하고있었다. 포는 대답이 없었다.

《자, 아직 안됐소?》 노비꼬브는 통신병을 재촉했다.

《련결하시오 !》

그는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가 자리잡은 갈색으로 보이는 지역과 심하게 파헤쳐진 좌지 바로곁의 숲속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 숲에서 사람의 형체가 갈지자로 달리다가 넘어지고 기다가 다시 일어나 자기네 고지로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적의 종대는 지금도 골짜기로부터 대도로로 쓸어나와 대형을 넓게 지으며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향해 물밀듯이 달려들고있었다. 종대 첫머리의 선두땅크들이 벌거우리한 빛을 벙끗벙끗 내뿜으며 외로이 달리는 사람을 향해 기관총을 란사하고있었다. 불줄기는 부채살모양으로 그의 주변에 가서 박히였다.

《아직 안됐소?》 노비꼬브는 포대경에서 몸을 홱 돌이

켰다. 《거기선 왜 그러오, 꼴로꼴리치꼬브? 빨리 !…》
그는 난처한 기색으로 눈을 슴뻑거리더니 소곤거렸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였습니다. 파괴되였습니다. 제가 인제… 제가 인제… 련결하렵…》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왜서인지 외투소매에서 흙먼지를 털어냈다.
《옷치장은 그만하오!》 노비꼬브는 소리지르며 리성을 잃고 벌판을 가리켰다. 《저기 오브친니꼬브한테서 련락이 오고있소 ! 보이오? 전선을 따라 마주가오 ! 뭘 꾸물거리오?》
《허락해주십시오, 대위동지 ! 전 여길 손바닥처럼 압니다. 기관총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르바쵸브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면서 그에게로 다가왔다. 고르바쵸브의 타는듯한 황금빛 눈동자는 조금도 더듬지 않고 조용히 노비꼬브의 얼굴을 지켜보고있었다. 《동무는 전화기를 지키라구.》 그는 통신병을 엄페호로 밀어보냈다. 《저 사람이 지뢰원을 어떻게 헤쳐가겠습니까? 전 여기를 다섯손가락처럼 환히 꿰뚫고있으니…》
《레메슈꼬브를 함께 데리고 가시오.》 노비꼬브가 명령했다. 《그 동무를 데리고 가오.》
꼴로꼴리치꼬브는 다리가 부러진듯 전화기옆의 엄페호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쓸데없이 수화기에 입김을 불어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였다. 고지에서 오브친니꼬브의 포까지의 거리를 한순간에 달려갔다오기나 한듯.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의 포와 밀려드는 적종대사이의 거리를 가늠해보고 오브친니꼬브가 사격을 개시할 때가 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사격할 때다. 그는 선두도이췰란드땅크들이 아군포와 지뢰원에 걸려들어 맞불질을 당한 다음에 자기는 고지에서 알레쉰의 제2포로 그놈들의 익측을 측면사격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고르바쵸브의 부름을 받은 레메슈꼬브가 등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경기관총을 끌며 고르바쵸브가 몸통을 구부리고 날렵하게 전호에서 뛰여올랐다. 그뒤를 따라 입을 쩍 벌린 레메슈꼬브가 군화를 질질 끌며 흉장을 굴러내리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한테서 달려오던 사람을 눈으로 찾았다. 조그마한 형체는 헤염치듯 머리는 땅에 구겨박고 다리는 벌린채 네활개를 펴고 누워있었다. 총알이 아직도 거기로 날아가 박히며 땅에서 먼지를 일으키고있었다.

《어서 사격하시오, 사격! 거기선 왜 꾸물거리고 있소? 발사시각이요! 발사하시오! 오브친니꼬브!》 거기서 왜 늦장을 부리는지 알수 없었던 노비꼬브는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이때가 최고절정이였다. 이때를 놓치면 파멸이 있을것이였다.

거의 이 찰나에 어둠에 잠겼던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에서 번쩍— 하고 불길이 솟아올라 파란 점선을 그으면서 거밋한 적종대에 가서 들이박혔다. 거기서는 마그네시움의 짧은 점화처럼 칙—칙—하고 불꽃이 튕겼다.

오브친니꼬브의 포들에 합세하여 왼쪽에서 입따뽑스끼의 포중대들과 땅속에 숨어있던 땅크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시작했네!》 누군가 등뒤의 전호속에서 소리쳤다.

《시작했습니다! 오브친니꼬브가 시작했습니다. 대위동지! 린접부대들도 시작했습니다!》

(속사로 쏘아주었으면, 속사로, 한순간도 지체말고! 한순간도! 어서 쏘라, 오브친니꼬브!) 열광적인 흥분과 안도감에 휩싸인 노비꼬브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오브친니꼬브의 좌지에서 또다시 세찬 불길이 땅우를 낮게 날아

가는 모양과 화점에 나타난 사람들이 연기속에서 붐비는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목이 간질거렸다. 전투가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느끼는 흥분이였다.

《대위동지 ! 시작하랍니까? 대위동지, 시작하랍니까?》

노비꼬브는 알레쉰소위의 쟁쟁한 목소리를 들었건만 돌아서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향해 달려오던 거대한 형체의 적 종대는 잠시 멈춰섰다. 순간 뒤쪽의 엄호땅크들이 새된 소리를 지르며 급회전했다. 땅크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개간하지 않은 풀밭으로 들어서서 육중한 몸뚱이를 기우뚱거리며 속도를 높여 종대의 앞으로 달려갔다. 거기서는 석대의 선두땅크가 휘발유연기에 뒤덮여 불타고있었다. 불길은 뱀마냥 우불구불하면서 꿈틀거리고있었다.

쇠긁는 소리를 지르며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가로질러가던 땅크들이 멀리에서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갈겨댔다.

진지주위에서 흙기둥들이 하늘높이 치솟았다. 노비꼬브는 포대경에 눈을 가져다댔다. 암흑천지로 화한 좌지에서 포들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길다란 불길들이 혀바닥처럼 날름거리며 미친듯이 수평으로 날아가고있었다. 오브친니꼬브는 사격을 계속하고있었던것이다.

납작하고 반들거리는 두대의 누런 승용차가 넉대의 장갑수송차의 호위를 받으면서 종대복판에서 가고있었다. 그차의 창유리에서 장미빛 반사광이 반짝 하더니 도로 한옆으로 딱정벌레마냥 기여나와 거꾸로 돌아섰다. 승용차들이 홈타기를 따라 들썩거리며 종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골짜기쪽의 소나무숲으로 내뺐다.

종대중심의 풍차에서는 도이췰란드병사들이 헤덤비며 뛰여내려 사방으로 내뺐다. 어떤놈들은 껑충껑충 뛰여서 땅크뒤에 가 숨었다. 온 분지가 자동차불줄기로 번뜩거렸다.

노비꼬브는 장교들의 승용차들이 포화를 뚫고 교묘하게

내빼는 꼴과 적중땅크들이 련속 불을 토하면서 오브친니꼬브의 좌지를 검질기게 공격하는 광경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다가 (바로 이때다!) 하고 결심을 내렸다. 엉거주춤 서있는 알레쉰의 포성원들을 돌아보았다.

《포 주의!》 그는 특별히 힘을 주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부동목표, 선두땅크를 향해 철갑탄으로!》 그는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쏴—앗!》 하고 구령했다.

귀청을 찢는듯한 요란한 소리가 고지의 대기를 뒤흔들며 고막을 아프게 때렸다. 노비꼬브는 좌지에 있는 알레쉰의 구령소리를 듣지 못했다. 요란한 그 소리가 모든 음향을 삼켜버렸던것이다.

날아가는 철갑탄은 고지에서부터 오브친니꼬브의 포들을 뒤덮고있는 짙은 포연속 분지안에 들어선 적종대선두의 땅크들을 향해 날아갔다. 포연은 뿌연 적자색호수가로 밀려가 움직일줄 몰랐다. 그것은 마치 접시에 놓인것처럼 나무들사이에 둥둥 떠있었다. 그아래에 키낮은 검실한 땅크의 동체들이 드러나보였다. 땅크들은 철갑탄불줄기를 피해 몸을 숨기는듯싶었다. 노비꼬브는 지금 땅크의 철갑속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 자기가 기어이 죽여야 할 그놈들을 복수할 단호한 결심과 함께 명중탄을 안겨 복수하지 못한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쳤다.

《정확히 조준할것! 더 정확히! 제기랄, 어디를 쏘고 있소?》

그리고는 감시소엄페호에서 뛰여나와 좌지로 달려갔다.

그는 포결에서 오락가락하는 알레쉰과 긴장하게 움직이는 조준수 쓰쩨빠노브의 팔굽, 보가쩬꼬브의 광대뼈에 뒤발리운 화약검댕이를 보았다. 그의 겨드랑이에 난 커다란 기미가 눈에 띠우고 분주히 오르내리는 그의 커다란 손이

연기를 토하는 장탄실에 불이 번쩍나게 포탄을 던져넣는 모습이 보였다. 몇차례 사격하자 포가 뒤로 물러났고 고정톱밑의 받침대가 삐여져나왔다.

《그만!》 노비꼬비는 구령을 치고 한숨을 쉬였다.

《알레쉬소위! 제2포로 달려가 거기에 남을것! 조준정형을 직접 감시할것! 구보로! 그리고 쓰쩨빠노브동무는 조준경에서 물러나시오!》 그는 땀에 축축해진 얼굴을 치켜들고 무엇인가 예고하려는 조준수에게 소리쳤다. 《빨리!》 그는 조준수의 어깨를 불들어 조준기에서 밀어치운 다음 기계손잡이를 돌리면서 보안경에 눈을 가져다댔다.

조준기의 십자표식은 마구 엇갈리는 탄도들과 오렌지색의 흰 불길, 포연에 덮인 검은 들판을 살같이 지나가다가 드디여 시커먼 땅크옆구리에 가 멎었다. 땅크는 포연속에서 한순간 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노비꼬브는 손에 땀이 배도록 손잡이를 힘껏 틀어쥐고 십자를 낮추었다.

《쏫!》 그는 구령과 함께 격동장치를 눌렀다.

포탄은 번개처럼 땅크쪽으로 날아갔으나 탄도의 길이가 짧아진듯 무한궤도 왼쪽의 흙바닥에 박혔다. 불덩이로 화한 포탄알이 땅에 박히는것을 똑똑히 가려본 그는 손잡이를 제자리로 돌려 십자표식을 우로 올리였다. 당장에 땀줄기가 얼굴로 흘러내려 눈알이 쓰려났다.

《쏫!》

가느다란 번개불이 땅크의 몸체에 맞아 불꽃을 일으키더니 적자색불덩이가 사라졌다. 노비꼬브는 그것을 보았다기보다 륙감으로 느꼈을뿐이였다. 그는 그 땅크를 더는 돌아보지 않은채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씻을념도 않고 또다시 조준기를 손더듬하여 성급히 돌리였다.

연기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다른 땅크의 몸체가 다시금 눈안에 들어왔다. 고지로 기여오르는 그 땅크의 탑은 기울사하게 놓이고 길다란 포신 역시 목표물을 찾아 부

르르 떨다가 조준하고 멈추어서는 순간이였다. 정확하게 묘준되여 둥그렇고 텅빈 시꺼먼 감시창이 포대경을 거쳐 노비끄브의 눈동자를 날카롭게 쏘아보는듯싶었다. 몇초를 헤아리는 그 찰나에 그는 격동장치를 눌렀다. 파란빛을 띠도록 작열된 포탄이 전선줄마냥 탄도를 그으며 자기를 마주하여 오는 원형감시창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그러자 귀청을 찢는듯한 둔탁한 폭음이 일었다. 파편들이 포신에 날아들어 쇠를 긁는 아츠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포판에서는 연소된 가스의 새노란 연기가 쓸어나오며 숨을 막히게 했다. 귀가 멍멍해진 노비끄브는 포 왼쪽바퀴에서 네메터쯤 되는 곳에서 새로 패운 구뎅이를 발견했다. 그 포탄이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노비끄브는 포성원들이 모두 무사한가를 둘러보았다.

장탄수 보가쩬끄브는 고개를 치켜든채 포탄을 안고 탄피무지 한가운데 우뚝 서서 좀전 흉장우에서처럼 목숨을 내대고 적땅크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왜 서있소? 무릎을 꿇고 장탄하시오!》 노비끄브는 소리를 지르고나서 조준기에 얼굴을 댔다. 그는 이발을 뿌드득 갈았다. 자기의 대안렌즈를 묘준한 적땅크의 감시창이 포연속에서 똑똑히 보였던것이다.

(저 땅크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그의 의식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지났다. (저 땅크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저 땅크가 이길수는 없어! 저 땅크가…)

노비끄브는 격동장치를 눌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적땅크에서 내쏜 2개의 포탄이 흉장앞에 떨어지면서 흙덩이가 휘뿌려지고 가스냄새가 숨막히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끄떡하지 않았으며 포대경의 땀배인 렌즈에 나타난 화면을 놓치지 않고 살폈다. 정신적흥분때문에 그의 몸안의 모든것이 징징 소리를 내는듯싶었다. 그에게는 자

기가 조준하면서 움직이는 포손잡이의 민활한 움직임과 적땅크, 그속의 땅크병놈밖에 세상엔 아무것도 존재치 않았으며 보이지도 않았다. (저 땅크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저 땅크인가 아니면…)

적땅크는 두차례 눈부신 화염을 내뿜었다.

노비꼬브도 포탄 두발을 련발로 내쏘았다. 두갈래의 불줄기가 아래로 날아가며 포연속에서 적자색을 띠였다.

이번에도 노비꼬브는 빗맞지 않았음을 눈으로 보았다기보다 륙감으로 느꼈다. 조준기의 손잡이를 잡고있던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이마와 눈섭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닦아낸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것이 대안렌즈에 집착된듯 줄어든것 같던 부자연스러운 정신적긴장에서 벗어났다.

《중대장동지 ! 중대장동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중대장동지…》

《엎드렷 !》

다른 모든 음향과 구별되는 이 부름이 노비꼬브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했다. 저 앞쪽의 찌프린 하늘에서 살별의 꼬리들이 호를 그리며 떨어지고 6신박격포의 우둔한 울부짖음은 대기를 찢으며 고지우에서 파렬되였다. 경련을 일으키는 포를 무엇인가 엄청나고 숨막히는것이 덮쳐누르고 짓뭉갰다.

귀가 멍멍해진 노비꼬브는 입에 들어간 흙을 뱉으며 근심어린 눈길로 포성원들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포가들사이의 연기속에 엎드려있었다. 처음에는 목구멍이 터져왔다. 포좌지가 직탄을 맞은것 같았다. 흉장에 어깨를 기대인 보가쩬꼬브의 움직이지 않는 형체가 노비꼬브한테서 한메터쯤 되는 연기속에 우렷이 나타났다. 눈은 감겨있고 눈섭은 의혹을 품은듯 찌프러져 있었으며 한손은 무릎에 놓인 포탄을 안고있었다.

《보가쩬꼬브 !…》

보가쩬꼬브는 특별히 정기가 도는 무엇인가 놀란듯한 갈색눈을 뜨더니 믿지 못하겠다는듯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것이였다. 그는 노비꼬브의 부름에는 대답 않고 포탄을 쥐고있던 손을 천천히 뺀 다음 고개를 숙여 슬며시 배를 쓸어만졌다. 손을 가까스로 끌어당겨 손바닥의 피를 보게 된 그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놈이 공연히 나를…》

그는 아까와 같은 놀란 표정을 지은채 옆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슬며시 땅에 볼을 대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들을수 없게 된 그 말을 엿듣기라도 하려는듯 뭐라고 땅과 속삭이는것이였다.

보가쩬꼬브의 마지막동작으로 그의 다리에서 미끄러져내린 포탄은 굴러오다가 노비꼬브의 군화에 걸렸다.

노비꼬브는 순간 소스라쳐 놀랐다.

(이건 어찌된건가? 그가 부상당하는걸 난 보지 못했단말인가. 저 사람이 나를 《대위동지》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저 사람의 목소리였지? 저 사람보다 잘 싸우지도 못했고 한일도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저 사람을 죽일수 있을가. …) 이미 숨이 끊어져 넘치던 힘도 검실검실한 미모의 얼굴도 사라져버린것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보가쩬꼬브라고 불리운 사람은 그가 아니며 지금 여기 흉장결에는 무엇인가 리해할수 없는 생소한것이 땅에 엎드려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가 사람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갔지만 그 누구도 아직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왜 저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있지 않았을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믿었댔을가?)

《빨리, 붕대 !…》

노비꼬브는 붕대가 필요 없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웨쳤다. 그리고 련이어 새로이 다른 구령을 내렸

다. 《포 앞으로 !》 그러나 또다시 고지를 뒤덮으며 울부짖는 새된 폭음과 퉁탕거리는 소리는 그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다. 머리를 치켜들었던 병사들은 다시금 땅에 엎드렸다. 포좌지주위에 박격포탄들이 쏟아져내렸다. 그러나 노비꼬브의 두번째 구령을 받은 병사들은 모두가 일제히 뛰쳐일어났다. 노비꼬브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좌지에 서있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던것이다.

《포 앞으로 ! 쓰쩨빠노브, 장탄하시오 !》

그제서야 모두는 어째서 쓰쩨빠노브가 장탄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사람좋아보이는 쓰쩨빠노브의 너부죽한 얼굴이 경련이 인듯 푸들거렸다. 그는 불편한 자세로 조용히 굳어진 보가쩬꼬브를 넘겨다보았다. 포탄을 쥔 그는 그것을 장탄실에 무자비하게 밀어넣은 다음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웨쳤다.

《결사전에로 ! 중대장동지, 6신박격포가 우릴 사격해오고있습니다. 이건 6신박격포입니다.》

(중대장동지… 이것은 보가쩬꼬브가 부른 소리였다. …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을가?)

《그 말이였구나!…》 노비꼬브는 한숨을 지은 다음 이발을 사려물고 붐비는 적종대의 한복판에서 쇠소리를 내며 기다란 불꼬리를 사방으로 날려보내는 장소를 조준경으로 찾았다. 6신박격포는 직접 종대에서 고지와 오브친니꼬브네 포좌지가 있던 호수가를 향해 사격하고 있었다.

《파편탄으로 종대를 향해 쏴 !…》

그는 적종대를 향해 쉰발이상의 파편탄을 날려보냈다. 그쪽에서 흙기둥이 솟구쳐오르고 갈기갈기 찢긴 쪼각들이 날아났으며 여기저기 폭발의 불기둥이 일었다.

몇대의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방수포에서 연기를 내뿜다

가 검붉은 불기둥을 일으키며 길섶에서 구겨박혔다. 도이췰란드병정들은 도로에서 갈팡질팡 뛰여다니고 벌판을 기여다니기도 하면서 총질을 해댔다. 구겨박힌 석대의 화물차적재함에서 가느다란 딸기빛 불줄기들이 뿜어나오고 무질서한 사격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탕탕 튀는 소리가 산만하게 울려왔다. 전투기재들이 폭발하는것 같았다.

《포탄! 포탄!…》어딘가 노비꼬브의 등뒤 한쪽구석에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의 의식을 스쳐지났을뿐이다. 전투기재들이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두가지 둔탁한 음향이 전투의 소음에 섞여들어 고지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시커먼 원추형연기기둥이 오브친니꼬브네 포가 있던곳에서 솟구쳐올랐다.

(저건 뭔가? 그 동무인가?)

노비꼬브는 조준경을 황급히 돌려 폭발이 일어난쪽으로 가져갔다. 그는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찾으려고 땀이 습배인 따끔거리는 눈으로 애써 들여다보았다. 돌파한 적땅크들에 포위된 오브친니꼬브가 포를 폭파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노비꼬브의 축축한 잔등에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는 없어!) 저쪽에서는 이미 병사들이 전사하고 포는 파괴되였으리라는 예측을 현실로 받아들일수 없었던 그는 오브친니꼬브 포좌지가까이의 어둑시근한 연기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땅크의 형체를 포착했다. 급해맞은듯한 무서운 땅크의 형체가 술에 취한것처럼 비칠거리며 돌아섰다.

《포탄! 장탄하시오!》

땀에 젖고 검댕이가 게발리운 쓰쩨빠노브는 웃소매를 팔굽까지 걷어올리고 탄피무지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있었다. 그의 넙적한 얼굴은 얼이 나가있었고 화약에 화상을 입어 부풀어오른 두툼한 입술은 노비꼬브에게 웃어보

이려 했으나 입귀에 경련이 일어 이그러졌을뿐이였다.

《대위동지!…포탄이…》 쓰쩨빠노브는 거쉰소리를 질렀다.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포차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겸사해서 보가쩬꼬브도 실어갔습니다.》

《어째서… 포차가 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러오? 거기엔 포탄 스무발밖에 없소.》 노비꼬브는 욕설을 했다.

《병기공급소대로 보내시오! 거기 있는 포탄을 전부 가져오란다고 나의 명령을 전달하시오. 당장 떠나시오! 잠간, 물이 좀 있소?》

그는 땀이 나서 껍적거리는 군복웃저고리의 목깃을 제끼며 껄껄한 입술을 혀끝으로 핥았다. 갈증이 나서 목이 타는듯했다.

쓰쩨빠노브는 서둘러 혁띠에서 물병을 풀어낸 다음 물병주둥이를 뻑 문대고 그것을 정성껏 노비꼬브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물이 뜨뜨미지근해서…》 그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히 물었다. 《담배를 피울만합니까?》

《피우시오!》

포탄을 줄곧 장탄실에 밀어넣느라 피로했다가 단번에 긴장이 풀린 쓰쩨빠노브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여 두 포가사이의 탄피무지우에 털썩 주저앉아 잘 놀려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마라초를 말기 시작하였다. 잘 말아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던것이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게걸스레 물을 마시는 중대장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그의 얼굴에 어딘가 수집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끝내 담배를 말지 못했다. 땅크에서 날아온 포탄이 흉장을 파헤치면서 쓰쩨빠노브가 쥐고있던 담배가 흩어져 내렸다.

《제가 가겠습니다.》 쓰쩨빠노브는 벌떡 일어나서 박격포탄에 맞아 분수처럼 끓어번지는 호수를 불안하게 내려

다보며 말했다. 《저런 고기들이 다 죽겠구만. 끔찍한 일이지…》 그는 이렇게 뇌이며 기병총을 잡은 다음 허리를 구부리고 포탄이 작렬하는, 어둡고 가파로운 경사지로 천천히 내려갔다.

노비꼬브는 물맛도 모르고 물병의 물을 마셨다. 차거운 물이 목구멍을 통해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었으나 조금도 몸을 식혀주지 못했고 갈증을 덜어주지도 못했다.

(폭발이 몇차례 일어났댔지… 오브친니꼬브가 정말 포를 파괴했을가? 거기에 적땅크가 들어왔을가?) 중대가 처한 형편을 돌이켜보자니 이것이 가슴아프게 안겨왔다.

(저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였을가? 모두가 전사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고르바쵸브는 어디 있는가? 레메슈꼬브는?)

《언제 전화가 련결되오? 어째서 그리 오래 걸리오?》

《대위동지, 전화로 오십시오!》

《오브친니꼬브와 련결되였소?》

노비꼬브는 흉장을 훌쩍 뛰여넘어 엄폐호로 들어가 통신병의 손에서 거의 빼앗다싶이 수화기를 잡아쥐였다.

《오브친니꼬브요?》 순간 군관들은 번호로 부르게 되여있다는것도 잊고 기대어린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찌르륵거리는 전화선에서 중대의 인원손실에 대해 묻고있는 굴꼬대대장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돌연히 말투를 바꾸어 침착하고 랭담하게 보고를 했다. 《오이를 주십시오. 마지막오이를 식찬거리로 씁니다. 1번동지, 오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탁할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있는만큼 보내주겠소. 오이를 주겠소.》 대대장은 또박또박 찍어 말하고나서 노비꼬브와 혈육지간이나 되듯이 특별히 타일렀다. 《오브친니꼬브와 도하장에 주의를 돌려달라구.》

그는 또다시 인테리적인 상냥함을 쓸데없이 보임으로써

예견치 않게 노비꼬브의 신경을 건드린듯싶었다.

노비꼬브는 어둠이 층층이 뒤덮고있는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를 오래동안 내려다보았다. 폭발의 섬광이 번뜩이는 암흑속에서 땅크들은 그림자마냥 호수가로 접근해가고있었다. 얼이 나가게 하는 땅크들의 동음과 급작스레 부르릉거리는 화물자동차들의 소리는 노비꼬브로 하여금 거기에 적종대의 주타격력량이 집중된듯한 인상을 받게 했다. 호수지역에 들어서지 못한 종대의 나머지 력량인 개별적으로 삐여져나갔던 자동차들과 포를 메운 말들, 박격포련결차들, 사람무리들이 길가에 늘어선 불타는 화물차들과 땅크들을 에돌아 숲속의 골짜기쪽으로 황황히 물러갔다. 갑자기 명령이 하달된듯 종대의 오른쪽대렬이 멈춰섰다. (땅속에 대피했던 오른쪽의 아군땅크들이 불타는 모습이 보였다.) 종대의 왼쪽대렬만이 입을 다물고있는 오브친니꼬브의 포방향인 호수쪽으로 움직이고있었다. (호수가로 돌파했는가? 오브친니꼬브네 포는 격파되고?) 라는 생각이 노비꼬브의 뇌리를 스쳐지났다. 그는 초조감에 안절부절하며 포 있는쪽으로 돌아섰다.

《포탄이 어디에 있소? 포탄이 인차 오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세차례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고지가 뒤흔들렸다. 모자같이 생긴 시꺼먼 연기기둥이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곁에서 풀썩풀썩 일어났다. 뒤이어 수평으로 날아가는 발사섬광이 번끗했다.

그리고 또다시 번끗했다. 노비꼬브는 호수가로 돌입하던 땅크들이 지뢰원에 걸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거기서 땅크들이 폭파되고있었다. 또한 살아있는 오브친니꼬브소대도 그 땅크들에 대고 포를 갈겨대고있었다.

(장해, 오브친니꼬브 ! 장해 !) 노비꼬브는 웨쳐대고싶었다. (장해 !)

그 순간 연기뭉치가 호수우로 떠오르면서 생겨난 공간

에 희슥하게 수면이 드러나보였다.

호수의 왼쪽과 오른쪽기슭에서부터 부교가 검은 줄띠마냥 호수의 절반가까이 설치되였다. 도이췰란드병사들이 호수가에 다달은 자동차주변에서 뛰여다니며 둥글게 생긴 부교들을 내리우고있었다. 놈들이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에돌아 호수가로 돌입했다는것이 이제야 명백해졌다.

《제 2 포! 알레쉰!》 노비꼬브는 명령했다기보다 눈으로 지시했다.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가 제 2 포를 호출했을 때 수화기에서 《대위동지! 땅크 넉대를 우리가 해치웠습니다!》라는 알레쉰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왔다. 노비꼬브는 그의 말을 중도에서 가로챘다.

《남은 포탄이 얼마나 되오?》

《열한발입니다! 이제 또 가져옵니다!》

《호수가를 유심히 보시오. 도하시설이 보이오?》

《대위동지, 보입니다!》 알레쉰은 이렇게 대답하고 재빨리 물었다. 《오브친니꼬브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정확히 조준하여 열한발을 전부 도하시설에 대고 쏘시오!》

알레쉰이 쏘아보낸 포탄들은 부교옆에 불기둥을 일으켰다. 무엇인가 희끗희끗하고 길다란 물체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화염속으로 떨어져내렸다. 했으나 납작한 두대의 화물자동차는 까딱 않고 서있었고 도이췰란드놈들의 형체는 여전히 그 곁에서 붐비면서 무거워보이는 부교시설물들을 완강히 끌어내리고있었다.

(저놈들에겐 출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돌입할것이다. 출로는 하나니까.) 노비꼬브는 이렇게 생각하며 통신병에게 소리쳤다.

《아직도 오래 조종해야겠소? 언제 오브친니꼬브와 련결시켜주겠소? 언제?》

머리칼이 희슥희슥하고 약골인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

의 들창코끝에 땀방울이 맺혀 반짝거리였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입김을 불어보기도 하고 모를 일이라는듯 접지선을 건드려보기도 했다. 상관이 지켜서있는 조건에서 통신련결이 되지 않을 때 할수 있는 대책은 모두 취해보았다.

《하는수 없지. 공중에 선을 늘이겠으면 늘이고 어떻게 해서든 련결해놓소. 하지만 5분 지나서도 오브친니끄브와 련결시켜놓지 못하면 동무는 더는 통신병이 아니요.》

노비끄브는 가혹하게 말했다.

《나한텐 통신이 필요하오. 저기서는 사람이 죽는데 여기선 접지선이나 더듬자면야 동무가 뭣때문에 필요하겠소.》

전쟁에 참가한 인간들의 생명을 꾀를 쓰거나 몸빼기를 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지켜냈을 때 큰 가치를 가지는것이다.

애젊은 꼴로꼴리치끄브도 꾀를 부리지 않았으며 오브친니끄브의 교환수가 통신을 결속시켜주기만을 믿고 기다렸건만 그의 생명은 노비끄브의 립장으로 볼 때 자기의 참된 가치를 상실하고있었다. 꼴로꼴리치끄브도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 한마디없이 전화기결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북쪽의 산정기와 끝없이 푸르른 호수와 봄하늘의 광채를 담고있는 언제보나 아름다운 눈을 묻는듯 크게 뜨고 땀방울이 맺힌 코잔등에 손을 가져갔다.

적땅크들이 고지를 향하여 몇개의 방향에서 일시에 사격해왔다. 뒤이어 골짜기 오른쪽 어딘가 숲속에서 눈을 부시게 하는 짧은 섬광이 수직으로 날아왔다. 6신박격포들이 숨이 가빠 씨근덕거리는듯 씩씩거리며 날아왔다.

모든것은 마치 귀청을 찢는 굉음속에 용해되여버린듯싶었고 고지는 신음하고 찢기우고 뒤흔들리였다. 엄페호도 산 몸뚱이마냥 떨면서 찌그러져 한옆으로 기울어졌다.

시커먼 암흑이 괴성을 지르며 그에게 덮쳐들었다. 노비꼬브와 통신병은 전호바닥에 나란히 엎드렸다.
그들이 엎드린 바닥이 부르르 떨렸다. 귀는 불같이 뜨거운 솜으로 틀어막은듯싶었으며 머리는 쇠물가마를 뒤집어쓴것 같았다. 포화에 가열된 공기가 그들을 덮어눌렀다.
(인젠 죽었구나.…) 생명이 질기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린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요, 중대장동지? 예?… 이렇게 죽어야 해요?》 노비꼬브는 꼴로꼴리치꼬브의 이 말을 귀로 들은것이 아니라 흙빛이 된 그의 입술을 보고 알아맞혔다. 그의 앞에는 애수와 공포가 가득한 둥그런 소년의 눈이 있었다. 그 공포는 살아났다꺼졌다하는지 먼지낀 그의 흰 살눈섭이 마주 붙었다떨어졌다 했다.
귀가 멍멍해진 노비꼬브는 호화로운 별장에서 밤을 지내던 때의 굴꼬대대장과 잠든 병사들, 단추를 달던 보가쩬꼬브 그리고 전화기를 불편하게 그러안고 그 무슨 우물에 대하여 잠꼬대를 하던 이 애어린 꼴로꼴리치꼬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 통신병은 전쟁이 끝날무렵에 우물을 꿈에 본것이다.…
그 밤을 생각하고 련민의 정을 이기지 못한 노비꼬브는 그의 어깨를 붙들고 세게 흔들면서 음페호에 차고 넘친 소음을 누르며 소리질렀다.
《난 오브친니꼬브와 통신결속을 해야겠소. 알겠소? 통신결속말이요. 다르게 할 도리가 없소. 알겠소? 나는 정황을 알아야겠소.》
《가만 계십시오.… 가만… 눈에 재티가 앉아서…》통신병은 간신히 입술을 놀려 말했다. 애티나는 그의 얼굴은 먼지에 온통 범벅이 되여 볼품없이 보였다. 그는 주먹으로 성급하게 눈을 문지르고나서 슴벅거리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았다. 통신병은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연약했다.

그는 팔소매로 예비전화기에 앉은 먼지를 문대기고 풀어놓았던 혁띠를 어깨너머로 던져 띤 다음 흐느끼듯 한숨을 내쉬였다. 하고는 어줍게 말했다.

《중대장동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어머니가 안계시고 … 누이가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주머니에 있습니다.》

애숭이고 약골인 통신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전호를 뛰여넘어 자취를 감추었다. 무엇인가 정결하고 봄처럼 청신한(눈때문인지?) 인상을 남기고 땅속으로 잦아들었다. 그가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나가 사라진지 1분쯤 있다가 전화기에서 마치 작은 틈바귀에서 새여나오는듯한 약한 소리가 폭음을 뚫고 간신히 들려왔다. 전화기가 호출하고있었다. 노비꼬브는 흙덩이들이 올라앉은 수화기를 잡았다. 그의 귀에는 오한에 떠는듯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3번과 4번이 말합니다.》 순간 노비꼬브는 그것이 3포와 4포를 의미한다는것 즉 오브친니꼬브와 련결되였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손에서 수화기를 놓지 않은채 꼴로꼴리치꼬브를 멈춰세우려고 키돋움하며 전호벽께로 달려갔다.

《꼴로꼴리치꼬브!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그러나 그의 구령소리는 아츠럽게 귀청을 긁어대는 파편 날아다니는 소리와 박격포탄 터지는 소리가 삼켜버렸다. 고지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목소리는 통신병을 돌려세울수 없을것이였다. 노비꼬브는 전신이 천근으로 무거워지며 꼴로꼴리치꼬브의 파리한 어깨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전화기옆에 털썩 주저앉아 수화기에 대고 후후 입김을 불었다.

《오브친니꼬브요? 오브친니꼬브요? 제기랄 왜 거기선 소식이 없었소? 왜 가만히 있었는가말이요? 대답하오!》

《오브친니꼬브는 없습니다. 2번동지.》 진동판에서 낮

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4포는 파괴되고 거기 사람들도 다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였습니다. 싸뽀르낀이 부상당하고 저, 통신병 구쎄브도 부상당했습니다. 또 한사람 랴갈로브도 부상입니다. 우리와 같이 위생지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통신병 구쎄브입니다.…》

《오브친니꼬브는 어디 있소?》 소음속에서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겨우 가려들으며 노비꼬브가 소리쳤다. 《오브친니꼬브를 찾소! 들리오?》

《오브친니꼬브는 없습니다. 거기 동무들한테로 갔습니다. 여기엔 부상당한 중사 싸뽀르낀과 랴갈로브, 통신병 구쎄브가 있습니다. 위생지도원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서없이 엮어나가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포탄은 한개도 없다고 합니다. …중기 한문이 남았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저는 통신병 구쎄브…》

(《오브친니꼬브는 없습니다. 거기 동무들한테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로 오고있단말인가? 혼자서? 누가 그렇게 명령했는가? 그 사람은 포를 버렸단말인가?) 노비꼬브는 생각했다. (오브친니꼬브의 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대장동지, 보병참호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좀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달아나는걸가요?》

(누가 말했는가? 경기당직을 서는 정찰수인가? 응, 그 사람이다. 엄폐호끝의 흉장에 팔굽을 짚고 저쪽을 보고 있구나.)

《중대장동지, 보입니까? 우리 사람들이지요?》

노비꼬브는 아무리 해도 오브친니꼬브가 좌지를 버렸다고는 믿어지지 않았으며 믿을수도 없었다.

《중대장동지, 포탄입니다!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을 가져왔습니다!》 전호속으로 달려들어오는 쓰쩨빠노브가 더러워진 얼굴에서 땀을 훔쳐내며 소리질렀다. 《포탄을 날라오는데 놈들이 우리를 검질기게 사격해왔습니다. 에이

구, 포대경이 불쌍하군.》 그는 이렇게 말하며 땅바닥에 넘어간 포대경을 일으켜세워 주인답게 그것을 조심히 흉장에 올려놓은 다음 물었다. 《저쪽에선 어떻게 되였습니까? 살아들 있습니까?》

《포탄을 포에 날라가시오!》 노비꼬브는 대답했다.

제 7 장

《오브친니꼬브! 중대장동지, 오브친니꼬브입니다!…》 등뒤에서 누구의 목소리인가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그때 고지경사지에 외투도 입지 않고 모자도 안쓰고 기관단총을 가슴앞에 비껴든 세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포에서 열다섯메터가량되는 거리에서 허둥지둥 고지로 기여오르고있었다. 모두가 기운이 빠진듯했다.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를 보았다. 불에 탄 그의 솜저고리는 앞섶이 헤쳐져있었고 얼굴은 흙빛이였다. 머리칼은 이마에 달라붙어있었다. 그는 악에 받쳐 권총을 휘두르며 소리질렀다.

《포를 향해 날따라 구보로!》

오브친니꼬브가 포좌지 몇메터앞에 와서 친 불필요한 구령, 명령조의 그의 목소리는 노비꼬브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목구멍이 막히고 쇠비린내가 올라왔다.

오브친니꼬브중위와 쁘로혼꼬, 레메슈꼬브는 흉장을 뛰여넘어와서는 숨을 헐떡이고 기침을 하며 불안에 싸인 눈알만 굴릴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쁘로혼꼬는 땅에 털썩 주저앉더니 검댕이가 발린 입술을 감빨면서 석쉼한 소리를 질렀다.

《마실걸, 형제들, 물 한모금만!…》 그는 델 정도로 열이 난 기관단총을 손에서 놓지 않은채 줄곧 물통을 찾았다.

레메슈끄브는 포가에 앉았는데 어깨가 우아래로 들먹이고있었다. 그는 땀에 푹 배인 어지러워진 군복저고리밑에 뭔가 싸쥐고있었다. 툭 불거진 광대뼈에 금방 생긴듯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는 숨이 차하며 웅얼거렸다.

《아, 고르바쵸브, 고르바쵸브가 어디 있소? 우리 뒤에서 오고있었는데… 우리를 엄호했댔는데… 그 동무가 어디에 있소?》

오브친니끄브는 땅에 앉지 않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힘겹게 서있었다. 몇시간사이에 털이 푸시시해진 그의 볼은 푹 꺼져들어갔고 근육이 발달한 미끈한 그의 체격은 후줄근해졌었다. 눈은 매정하고 야생적인 빛을 뿜고있었다.

《조준기!》 그는 거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뻣뻣한 손가락에 틀어쥔 권총으로 레메슈끄브의 가슴을 쿡 찔렀다. 그리고는 포가에 털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였다.

《라지야의 포는 포성원들과 함께 끝장났습니다. 땅크들이…》 그는 번뇌에 찬 눈길을 땅에 박고 조용히 말했다. 《땅크, 장갑차들이 무리지어 몰려들어 벽체마냥…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싸뽀르낀의 포성원들은 마지막포탄까지 사격했습니다. 4명은 희생되고 3명은 부상당했는데…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그는 이렇게 곱씹어 말했다. 그는 몸을 옹송그리고 시퍼렇게 된 눈시울을 신경질적으로 찌프렸다. 그는 미친듯이 소래기를 질렀다.

《조준기! 조준기를 여기에 가져오시오. 레메슈끄브!》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에게 마주 걸어가 그의 멱살을 붙들고 천천히 말했다.

《나에겐 동무의 조준기가 필요없소.》그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없이 물었다. 《타박상을 입었소?》

《바로 여기요.》 오브친니꼬브는 눈을 감고 총알이 몇군데 구멍을 뚫은 솜저고리밑의 가슴왼쪽을 손으로 쓸면서 대답했다. 《바로 여기가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고 살을 막 허벼내는것 같소. 피를 많이… 나는 할수 있는껏 다했소. 다… 알겠소, 지마?》

그는 노비꼬브를 이름만으로 불렀다.

《아니.》 노비꼬브는 믿지 못하겠다는듯 이렇게 대답했다. 《리해안되오. 사람들은 어디에 있소?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말이요, 오브친니꼬브중위?》

그는 자신에 대해 동정하지 않듯이 오브친니꼬브도 동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보통병사에게 허용되는것이 지휘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것이다. 오브친니꼬브가 아직은 숨이 채 끊기지 않은 자기 동료들을 붕괴된 진지에 내버려두고 포를 떠나왔다는 사실은 아무리해도 용납되지 않았다.

티끌만한 동정이나 용서도 찾을길 없는 노비꼬브의 날카로운 눈길과 정면으로 마주친 오브친니꼬브는 꺼져들어가는 소리로 《아니, 왜 그러오?》하고 대들었다. 《왜 그러냐 말이요? 그래 체포하겠소? 재판에 넘기겠소? 어서 그렇게 하오! 난 준비됐소! 난 아무렇게 한대도 개의치 않겠소. 내가 땅크 열대를 까부신건 계산에 넣지 않는군. 왜 계산에 넣지 않소?》

얼굴을 일그러뜨린 그는 권총을 내동댕이치고 군관혁띠를 풀며 소리질렀다.

《어서 재판에 넘기시오! 어서!》

《히스테리를 그만 부리시오! 일어섯!》 노비꼬브가 조용

히 명령하자 오브친니꼬브는 무의미하게 열을 올렸던 자신이 멋적어진듯 기가 죽어 일어섰다. 노비꼬브는 계속하여 《권총을 집으시오. 저기 엄페호뒤에 토굴이 있소. 시간을 줄테니 푹 자고 정신을 차리시오. 앞으로!》하고 명령했다.

《중대장동지, 저기를 보십시오. 저게 뭘가요, 예?》 뒤에서 쓰쩨빠노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게 뭐요?》

그리 따가울것 같지 않은 가을해가 까르바트산줄기우에 서린 안개속으로 떠올랐다. 진한 빛줄기가 전투가 한창인 분지로 엇비슷이 비쳐들고있었다. 분지는 연방 쏘아대는 보총의 불줄기와 포탄이 터지는 섬광, 땅크들이 불타는 진한 불기둥으로 하여 환히 밝았다.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와 놈들이 도하장을 설치하는 호수가에도 불기둥이 벽체마냥 련이어 일어났다. 지뢰원을 에돌아 숲골짜기로 물러가고있는 네모진 땅크들의 형체에 대고 시내의 아군포가 집중사격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노비꼬브중대장은 놈들이 퇴각하고있음을 확인했다. 날이 밝았으니 불리했던것이다. 그런데 돌연히 오브친니꼬브 포쪽에서 적 땅크방향으로 두차례 불길이 번끗번끗했다. 노비꼬브는 이것은 살아있는 어느 포에서 쏘았을것이라고 확신하고 오브친니꼬브를 힐끗 쳐다보았다. 경련이 일어 일그러진 오브친니꼬브의 얼굴은 흙빛이 되여있었다.

《고르바쵸브가?!》하고 오브친니꼬브는 중얼거렸다.《그가 되돌아갔단말인가?》

노비꼬브를 무서운 눈길로 노려보던 오브친니꼬브는 급기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순간 그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흉장을 뛰여넘더니 초인간적인 힘으로 포가 있는 벼랑아래로 내달렸다. 바람을 헤가르며 달리는 그의 풀어헤친

솜저고리자락이 마구 펄럭이였다.

노비꼬브는 흥장으로 달려나가며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하고 소리쳤다. 《돌아오시오! 오브친니꼬브!》

오브친니꼬브는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꿋꿋이 편채 벌판을 달려 보병참호들을 지나쳤다. 그는 한번 넘어졌다 일어서더니 다시 포를 향해 껑충껑충 뛰여갔다.

자동총련발사격이 처음에는 옆에서부터 그를 향해 날아가더니 다음에는 앞에서와 왼쪽에서도 날아갔다. 하였건만 그는 달리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머리를 꿋꿋이 쳐들고 달렸다. 모름지기 그는 나무숲까지 달려가 거기에 의지하여 분지경사면을 따라 둔덕으로 오르려고 타산한듯싶었다. 어스름한 새벽어둠속에 땅크의 형체들이 거기서 얼른거리고있었다.

한순간 둔덕에 오른 그의 자태가 미툿한 공지에 환히 드러나보였다. 뒤이어 지뢰원앞, 땅크들이 붐비는 오른쪽 연기속에서 긴 련발사격소리가 울려왔다. 또 다른데서는 오브친니꼬브의 발치에 대고 사격해왔다.

두발자국 더 앞으로 내디딘 오브친니꼬브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려는듯 천천히 권총을 머리로 가져갔다. 그는 방금 총알이 날아와 박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려 두팔을 앞으로 뻗쳤다. 피나도록 이발을 악물고있던 노비꼬브는 척 늘어졌던 오브친니꼬브의 몸뚱이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금방 사격을 개시했던 포 방향의 둔덕을 향해 기여가는것을 보았다.

오른켠 숲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두사람이 나타나더니 허리를 굽히고 오브친니꼬브에게 다가갔다. 잠시후 거기에서 벙끗 하고 불꽃이 튕기였다. 권총사격이였다. 순간 푸른 옷을 입은 두사람이 한꺼번에 엎드렸다. 그중 한사람이 일어나서 오브친니꼬브의 머리우로 공포를 쏘았다. 한놈이 헤덤비며 세차례 공포질을 했다.

《경기를 향해 앞으롯!》 노비꼬브는 정신없이 엄페호로 달려가 정찰병이 당직을 서고있는 경기관총으로 갔다.
노비꼬브는 정찰병옆의 흉장에 엎드리며 서둘러 소리쳤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보이지? 그놈들을 갈기시오! 련발로 쐇!》
《생포하려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찰병이 이새로 내뱉았다. 련발사격을 들이대는 정찰병의 어깨가 부르르 떨리였다.
흙먼지는 도이췰란드병사들의 오른쪽과 앞쪽에서 일어나더니 점차 이동하면서 오브친니꼬브와 놈들을 갈라놓은 좁은 공간사이에서 춤을 추며 오르내렸다. 정찰병의 긴장한 구리빛얼굴에서 굵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한탄창이 다 풀렸다. 정찰병은 탄창을 탁 쳐서 물개에서 뽑아낸 다음 새것을 집어들어 성급히 끼우려 했으나 잘되질 않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러다가 중위동지를 죽이면… 대위동지, 중위동지를 죽이면…》
《저리 비키시오!》 노비꼬브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정찰병의 손온기가 느껴지고 땀에 젖은 총탁에 자신이 달라붙었다. 그는 탄창을 쳐서 맞춘 다음 숲으로 도망가는 도이췰란드놈들을 향해 점발로 두차례 갈겼다. 노비꼬브는 자기가 본 광경을 믿을수가 없었다.
목숨이란 검질긴것이여서인지 오브친니꼬브는 권총으로 땅을 짚고 비칠거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솜옷저고리를 풀어헤친 그는 고개를 떨구고 손에 쥔 권총을 늘어뜨린채 포있는 왼쪽 숲가로 휘청휘청 걸어갔다. 그런데 적병사 두놈이 숲에서 뛰여나오며 그를 막아섰다. 몸을 힘겹게 움직이며 대항해나서는 오브친니꼬브를 놈들은 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가 걸려든 곳이 어딜가? 어찌된 일이야?)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뗀 노비꼬브의 의식속에 이런

생각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이와 동시에 (어째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오브친니꼬브를 사격하지 않았을가? 그래 생포하려고 그러겠지. 놈들에겐 〈혀〉가 필요할테니까.) 하고 생각한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가도 리해못한채 방아쇠를 눌러댔다. 한탄창의 총알이 긴 점선을 그으며 날아갔다.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눈앞에 가물거리는 동그라미를 헤치고 사물을 판단해볼수 있게 되였을 때 이미 숲결에는 도이췰란드놈들도 오브친니꼬브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왜서인지 팔목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자기를 말없이 지켜보는 통신병곁의 참호바닥으로 내려섰다. 그는 통신병의 팔소매로 기여가는 뭔가 길고 시허연 구역질나는 물건을 어렴풋이 가려보았으나 그것이 무엇이였던지 기억할수 없었다. (저게 뭐드라? 쥐며느리인가?) 그는 통신병에게 그놈을 털어버리고 오브친니꼬브의 포를 호출하라고 말하고싶었으나 그의 목에서는 갑자르는 이상한 소리만이 튀여나올뿐이였다.

포좌지와 잇대여 판 토굴까지 다가간 그는 입구앞에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애원하듯 말을 꺼냈다.

《목구멍에 뭔가 걸렸소. 물이 좀 없을가? 포를 호출하시오!》

그리고는 토굴속으로 들어갔다.

2분쯤 지나서 노비꼬브가 다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태연했다. 세수를 한 얼굴은 창백하고 해쓱해졌었다. 그는 통신병이 전화기옆에 앉아 내미는 수화기를 잡고 거쉰소리로 말했다.

《구쎄브요? 정황을 보고하시오!》

《구쎄브가 아닙니다. 접니다. 2번동지…》

대답한 사람은 구쎄브가 아니라 고르바쵸브상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와 같이 확신성이 있었고 언제나와 같이 비웃는듯한 억양이 비껴있었다. 그렇다. 그는 거기 있었다. 고르바쵸브는 몸성히 있고 팔다리도 무사했다. 그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그의 옆에는 곱살한 위생지도원이 앉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경에 처해있다. 결국 령 대 령이다. 적땅크들이 모조리 깔아뭉개기는 했으나 그래도 다섯발의 포탄이 남아있으니까 인제라도 포신을 올리고 놈들을 족칠수 있다. 오브친니꼬브중위에게 우리가 해제낄수 있다고 전해달라.

비록 그가 롱담으로 넘겨서는 안될것을 두고 롱담하기는 했으나 노비꼬브는 그를 탓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 포를 사수하면서 비관하지 않고 싸우는 그에 대한 련정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현재 처한 정황에서 고르바쵸브가 해낸 일은 목마를 때의 물 한모금과 같이 귀중한것이였다.

《저녁까지만 견지하시오!》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에 대해서는 한마디없이 조용히 말했다. 《견디여내오! 저녁에 가겠소.》

(내가 오브친니꼬브를 죽였다고 해야 하지 않을가?) 노비꼬브는 다시금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만일 내가 죽였다면 과연 나에게 그의 생명을 롱락할 권한이 있었던가. 누가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던가. 만일 내가 오브친니꼬브의 립장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쏠 권한을 주었겠는가.) 그리고는 자기절로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주었을것이다.)

병사들은 그를 쳐다보고 말이 없었다. 정찰병은 시무룩해서 경기탄창에 총알을 재우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자신이나 함께 싸우는 대원들이나 모두가 공동의 대업을 위해 중대원들의 목숨과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고있지만 방금 저지른 일이 대원들과 자기사이를 벌

어지게 하고있음을 어쩔수 없이 절감하는것이였다.

노비꼬브는 말없이 포있는쪽으로 갔다.

쓰쩨빠노브는 그를 보고 선량하게 생긴 너부죽한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는 입에 물었던 담배를 뽑다가 무릎에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어색하게 털어냈다.

쁘로혼꼬는 기다랗게 생긴 몸뚱이를 쭉 뻗치고 화점에 엎드려있었다. 그의 군복저고리에 슴배인 땀은 허연 소금버캐로 되여 잔등을 얼룩지게 했다. 그는 잊어버리고 두고간 후줄근한 오브친니꼬브의 군관지도가방을 명상에 잠겨 들여다보면서 불에 끄슬린 눈섭을 소경마냥 슴벅거렸다.

《그거 참…》하고 그는 말했다.

《까르바트에까지 와서…》

레메슈꼬브는 자기가 건사했던 두개의 조준경이 놓인 포탄상자에 앉아있었다. 더러운 손수건으로 볼에 생긴 상처를 찍어내던 그는 리해안된다는 표정을 짓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가슴아프게 하소연했다.

《아, 글쎄 내가 달려오다가 고지앞에서 그 통신병 꼴로꼴리치꼬브가 모로 엎어져있는걸 보지 않았겠나. 가락지모양으로 무릎을 꼬부렸더군. 자는것 같은데 끝장이 났더구만. 죽었더란말일세. 두손안에 전화선을 꼭 쥐고말이네. 애티나는 젊은이였지… 눈은 또 얼마나 파랬다구. 그 동무를 누가 사랑했다면 아마 그 눈을 우선… 에이, 모를 일이야. 어떤 동무들은 죽었는데 우린 아직 이렇게 살아있으니…》

《랴갈로브의 눈도 파랗지 않나.》 쁘로혼꼬가 속삭이였다.

《일어나시오!》노비꼬브가 쁘로혼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감기들겠소.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겠소?》

제 8 장

놈들은 불타버린 숲가의 땅크를 지나 폭탄구뎅이들이 널려있는 들판으로 오브친니꼬브를 끌고갔다. 그는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파편에 상한 다리를 비칠거렸다. 아픔은 어깨로부터 뻣뻣해진 손가락끝까지 쭉 뻗치면서 온몸을 싸늘하게 얼어들게 했다가는 금시 화끈 달아오르게 했다. 그는 왼쪽 손목을 붙들고 있었다. 입안에 찝절한 액체가 차오르는듯하여 발을 옮길 때마다 걸쭉한 피를 뱉았다. 그는 놈들이 자기를 무엇때문에 어디로 끌고가는지 왜 그리 서두르는지 알지 못한채 끌려갔다.

그는 자기가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한가지만을 인식하고있었다. 이전에는 수천가지 출로를 가졌던 자기 생명이 인젠 죽음의 길 하나를 남겨두고 다 닫겨버렸다.

그는 자기 포를 향해 달려나갈 때도 적땅크들앞에 엎드려있을 때도 그리고 놈들이 숲속에서 자동총을 옆구리에 붙이고 나왔을 때에도 놈들을 향해 자기가 권총을 발사했을 때에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지어 권총탄환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 돌이킬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이르리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그때는 그래도 왼쪽과 앞뒤에 자기 사람들과 자기 포가 있는 자기 땅이 있었다. 그는 놈들이 자기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머리와 가슴, 온몸이 아프고 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다.

《할트, 루쓰, 이완! 할트! (서라, 로씨야 이완! 서라!)》

자동총의 총신이 왼쪽켠의 잔등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이 새로운 아픔은 목구멍에서 불이 일게 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에 매달리면서 아픔에 항거해 나섰다. (이놈, 상처를 겨냥해 찔러? 상처를… 상처가 없는 곳을 찌르면 안돼? 하기야 난 포로가 아닌가.…) 그러자 자기는 자기 생명과 아픔, 자기 고통의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었다. (그래 너는 동정을 바라는가? 살뜰히 대해줄걸 바라? 어떤 동정을?)

《섯!》

자동총 총구가 잔등의 상처를 다시 찌르자 벌겋게 단 드릴로 뼈를 뚫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였다. 오브친니꼬브는 붙들고있던 뻣뻣해진 손목을 꽉 잡고 멈춰서서 피가 흐르고 부풀어오른 입술을 삐죽하고 일그러뜨리며 호송병을 바라보았다. 호송병은 호리호리한 키에 얼굴이 창백한 스물안팎의 애숭이였다. 오브친니꼬브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호송병의 팽팽한 볼따귀 근육이 푸들푸들 떨리였다. 놈은 푸른색 점박이 위장용겉옷을 입고 바지가랭이를 장화목에 밀어넣었다. 장화목에는 자동총탄창들이 뿔처럼 삐죽이 내밀고있었고 어깨에는 오브친니꼬브의 가방이 메워져있었다. 그놈은 얼굴을 이그러뜨리더니 총을 쥐지 않은 왼손을 공중으로 쳐들고 위협하는 시늉을 했다. 그렇게 하여 오브친니꼬브의 입술에 비낀 비웃음을 지워버리려는듯싶었다.

호송병은 오브친니꼬브를 곁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벌려짚고 약간 옆으로 돌아서더니 위장옷의 단추를 벗기기 시작했다. 오브친니꼬브는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돌아섰다. 오줌방울이 튀여나 그의 장화에 날아떨어졌다. 오브친니꼬브는 한발자국 옮겨짚으려다가 아픈 발을 욱질리웠다. (내가 무엇때문에 그랬을가? 아무려면 뭐라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섯!》뒤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놈이 웃었다는것을 오브친니꼬브는 인차 간파하지 못했다.
위장복단추를 채우면서 다가온 호송병놈은 더러운것이 튀여난 오브친니꼬브의 장화를 보고 크게 웃으며 별일이 아니라는듯 손을 획 내젓고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베는 시늉을 했다.
《끝장이야. 중위! 끝장!》
호송병이 이 말을 악의없이 평범하게 한것이라든가 소변을 보면서도 그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것 그리고 자기가 피하는것을 보고 웃었다는 사실 등은 오브친니꼬브의 속생각이 옳았음을 확증해주었다.
(내가 한두시간 지나서 죽을수는 없다. 내가 아주 없어지다니…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간단히?)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또다시 발이 아파났다. 그는 돌연히 이것이 자기가 땅을 짚고가는 마지막걸음이며 마지막사색, 마지막아픔, 입으로 토하는 마지막피라고 생각되였다. 왜서인지 그는 자기의 스물여섯살 나이가 스물일곱살로 결코 바뀌우지 못할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웃고 녀성들을 포옹하고 숨쉴 때 자기 쎄르게이 오브친니꼬브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전쟁에서 죽는것처럼 죽지 못하리라는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죽었는가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리라는것은 눈물이 나도록 그를 괴롭혔다. 자기 운명은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인지 저 연기너머쪽에 남은 수천사람들의 운명에서 갑자기 동떨어져나오게 될것이다. 참말로 자기, 오브친니꼬브는 죽어야만 하는가.
《빨리!》
자동총 총신이 상처입은 어깨죽지를 드릴처럼 허비며

파고들었다. 그는 아픔과 더불어 놈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자기 처지로 하여 신음소리를 냈다. 《빨리》라는 명령은 죽음에로 가는 길을 더욱 재촉해줄것이다. 그는 돌연히 광란하는 불도가니를 뒤집어쓴듯 남의 목소리에 순종한 자신을 타매하며 당장 호송병놈에게 달려들어 놈의 자동총을 빼앗아낼듯 기가 올라 놈을 맹수처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네가 나를 붙잡아? 이 풋내기야! 스무살도 안된 풋내기야.) 이가 뿌드득 갈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려 했다. 피를 뱉았다. 상한 다리를 자신있게 내디디고 팔을 들어올릴 힘조차 없었다. 그의 몸뚱이는 날렵하면서도 근육이 불거졌던 종래의 무게를 상실하고 거뿐해진듯 싶었다.

(정말 빼앗아낼수 없을가? 정말?) 오브친니꼬브는 잠꼬대하듯이 자문하고 치미는 분통을 이기지 못해 이사이로 신음소리를 냈다. (정말 못할가, 정말? 그러니 마지막이란말이지?)

그는 병적인 섬광이 번뜩이는 메마른 눈길로 호송병을 쏘아보고 뻿뻿해진 입술로 걸쭉한 피를 배앝았다. 그는 앉아서 지친 몸을 쭉 펴고 쉬고싶었다.

총신이 다시금 그를 떠박지르더니 등뒤에서 웨침소리가 들렸다.

《빨리! 빨리!》

그들은 중유연기를 뿜으며 불타고있는 땅크와 길가에 널려진 파괴된 화물자동차의 잔해들을 지나 산림속으로 들어갔다. 시들한 풀잎이 발밑에서 서걱거렸는데 휘발유에 젖어 냄새를 풍기였다. 오브친니꼬브는 사람들과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꽉 들어찬 숲을 눈앞에 보았다. 그것은 해가 내려쪼이고 거미줄에 감기운 전나무가지에 가리워 숨답답하고 메마른, 유년시절 우랄에서 보던 그런 정결한 나무숲이 아니였다. 그것은 전혀 다른곳—포탄파편

에 찢긴 시들은 나무잎새들이 소나무쪼각들과 함께 나딩굴고 숲변두리에는 구뎅이들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있는 락엽진 죽어가는 숲이였다. 그런 산림을 그는 백번도 더 보았지만 어째서인지 그 표상이 그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숲기슭에는 어디나 할것없이 군복저고리를 풀어헤친 도이췰란드놈들이 전호를 파느라 구뎅이속에서 흙을 내던지고 있었고 알지 못할 낯선 구령소리들만이 들려왔다. 땅크들은 무한궤도를 무겁게 덜커덩거리며 숲속의 나무그림자밑으로 기여들었고 탑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지친 땅크병들이 기여나와 땅크모를 벗어들었다. 그리고 주둥이가 뭉툭한 장갑수송차들은 바퀴자리에 잎사귀들을 몰아넣으며 숲기슭을 지나갔다. 기진맥진하고 얼굴이 창백한 도이췰란드병사들이 어떤 사람은 악에 받친 시선으로 어떤 사람은 무심히 오브친니꼬브를 쳐다보았다. 군턱이 늘어지고 피부색이 벌거우리한 중년의 병사 하나가 담배를 게걸스레 빨다가 비대한 몸을 적재함 밖으로 서둘러 내밀더니 입에 문 권연을 뽑아내여 오브친니꼬브에게 던지며 서투른 로어로 《로씨야놈 이완, 포로놈아!》하고 수다스럽게 지껄였다.

척척한 담배꽁초가 오브친니꼬브의 볼에 와 맞았으나 데지는 않고 그저 재가 뿌려졌을뿐이였다.

오브친니꼬브는 몸을 부르르 떨고 볼을 문대였다. 그는 자기의 무력함과 모욕감으로 하여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려는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머리를 치켜들었다. 한시간전만 하더라도 가치를 가졌던 그의 생명이 지금은 땅에 밟히는 나무잎신세보다 나을바없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숲속으로 쫓기고 전투는 일단 조용해졌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 단 한사람 포로된 자기는 보통 병사도 아니고 군관

이였다. 자기 포결에 있을 때는 모름지기 놈들이 무서워했을 자기가 지금은 천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놈들의 눈길을 받으며 남의 숲을 가고있지 않는가. 자기가 그토록 증오한 놈들의 눈에 하찮은 존재가 되여…

《어디로 가는거야?》

그는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호송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시선과 부딪친 호송병놈은 희스그레한 눈섭을 치켜들고 놀라서 《아!》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파리하고 소년처럼 창백하고 하관이 빠른 호송병의 얼굴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를 무자비한 얼굴로 변했다. 오브친니꼬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놈은 그를 향해 걸어오더니 자동총구로 그의 볼을 면바로 찔러 머리를 뒤로 젖혀뜨리게 하고는 호된 구령을 내렸다.

《앞으로!》

오브친니꼬브는 무기력한 자신을 두고 전률하면서 까닥않고 서있었다. 그는 입안에 꽉 찬 피를 뱉지 않고 힘겹게 삼킨 다음 거쉰 소리로 내뱉았다.

《내 손만 이렇지 않다면 네놈의 도이췰란드돼지놈을 그저 단매에 거꾸러뜨리겠다. 손만 이렇지 않다면말이다.》

그리고는 건 상욕을 퍼부었다.

《〈네 어미〉라는게 무슨 말이야? 》하고 놈은 소눈알같은 눈을 데굴데굴 굴리였다. 그리고 울대뼈가 뚝 삐여져나온 해맑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앞으로 갓!》그리고는 악에 받쳐 자동총을 휘둘러댔다.

《할수 없지 가자, 이 개자식아.》 오브친니꼬브는 순종하는듯 이렇게 뇌까리고 가을락엽을 밟으며 자기의 최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를 숲속의 공지로 끌어갔다. 장갑수송차와 얼룩덜룩

한 위장도색을 한 참모부차들이 소나무밑에 비낀 자그마한 그늘속에 서있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놈들이 소리없이 그곳을 왔다갔다했다. 공지 한가운데 뽀얗게 먼지오른 납작한 록색승용차 한대가 문이 열린채 서있었다. 그 주변에는 누런 풀이 덮인 경사진 땅이 해빛을 받으며 누워있었고 풀, 자동차, 소나무할것없이 모든것이 한낮의 따뜻한 온기에 덮여있었다. 류다른 평화로운 온기와 고요는 오브친니꼬브의 신경을 도리여 더 오싹하게 만드는것이였다.

검은 만또를 걸친 강마르고 키가 작은 놈이 운두높은 모자를 쓰고 승용차 가까이의 접이의자에 앉아있었다. 놈은 새하얀 손을 마주앉은 접이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안으로 몹시 휘여든 모자채양은 해빛을 받아 따가운 열기를 뿜었다. 그리고 얼굴은 그늘속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놈은 자기 옆에 서서 섬세하게 생긴 아름다운 얼굴을 다소곳하고 말을 주어섬기는 날씬한 군인에게 정신을 팔고있었다.

오브친니꼬브의 판단에는 검은 제복을 입은 놈들이 도이췰란드호송병－정찰병을 공지 한끝으로 부른듯싶었다. 차렷자세를 한 호송병은 팔굽이 모양새없이 뒤로 내밀리게 손을 허벅다리에 붙이고 그 두놈에게 뭐라고 보고했다. 오브친니꼬브는 《중위》라는 말만을 가려들었을뿐이였다. 검은 제복을 입은 놈들중에 녀자처럼 몸매가 날씬한 미모의 바로 그 군인이 호송병에게서 오브친니꼬브의 가방을 나꿔챈 다음《그로쓰!》(돌아갓!)라고 명령했다. 이 구령이 내려지자 호송병－정찰병은 얼굴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구두뒤축을 딱 소리나게 마주댔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들이 걸어온 숲속길로 돌아갔다.

오브친니꼬브는 자기가 인젠 다른 권력, 검은 제복을 입

은 놈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도이췰란드군인 두놈이 그를 승용차에로 끌어갔다. 그제서야 그는 어째서 자기를 여기로 끌어왔으며 어째서 정찰병이 자기를 이미전에 죽이지 않았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도전적으로 다리를 벌려짚고 비웃음이 담긴 얼굴표정으로 멈추어섰다. 상한 손을 붙들지도 않고 입안에 들어찬 피를 내뱉지도 않았다.

그는 차례질 멸시와 아픔, 고통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자신을 지켜낼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비웃음뿐이였다.

녀자처럼 허리가 날씬한 도이췰란드놈은 오브친니꼬브쪽을 가볍게 턱질하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검은 만또를 걸친 강마른놈이 몸을 꿈지락거렸다. 그러자 오브친니꼬브에게는 휘여든 모자채양밑으로 빼빼마른 그자의 얼굴과 바로 입귀로 지나간 깊은 주름살, 로인처럼 정기가 없는 눈이 드러나보였다. 놈은 조소로 이그러진 그의 입술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유심히, 지친듯 자기만을 지켜보았다. 오브친니꼬브는 온몸에 식은땀이 내배는것을 느꼈다.

이 강마른놈은 오브친니꼬브의 가방을 받쳐들고있는 곱게 생긴 날씬한자에게 피곤한듯 뭐라고 뇌까렸다. 그러자 곱게 생긴자는 공손히 응대하고 가방을 열더니 역시 랭정하게, 마치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듯이 그속에 있는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 순간 오브친니꼬브는 마치 자기를 알몸으로 벌거벗기는듯한 감을 느끼였다.

(저속엔 지도가 있다. 포좌지가 표시된 지도가!)

날씬한 미모의 장교놈은 모서리가 구겨진 지도를 꺼낸다음 상우에 놓인 물병과 잔을 옆으로 조심스레 밀어놓고 거기에 펼쳐놓았다. 그 다음엔 밖에까지 땀이 내배이고

해빛에 퇴색된 여름모자(그 모자속에 실을 감은 바늘이 있었지—하고 오브친니꼬브는 생각했다.)를 손가락끝으로 집어서 끄집어냈다. 도이췰란드놈은 더러운듯 모자를 땅에 내동댕이쳤다. 그는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만을 놀려 보꾸레미를 풀었다. 그것은 금속박판으로 만든 열병식때 달 중위령장과 니켈칠을 한 예비별표식들(그는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그 옆의 시계수리소에서 손수 칠했었다.)을 허름한 손수건에 싼것이였다. 도이췰란드놈은 이 꾸레미도 역시 땅에 내던졌다. 가방속에서 군관신분증과 3각으로 접은 닳아떨어진 편지(스웨르들롭스크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편지였다.)를 꺼내여 상우에 놓았다. 그다음엔 못쓰게 된 도이췰란드제라이타를 끄집어냈다. 놈은 그 제품의 상표라도 찾는듯 흥미있게 들여다보더니 검은 만또를 걸친 강마른 도이췰란드놈에게 뭐라고 주절거렸다. 만또를 입은놈은 깐깐히 손질했으나 늙은 티가 완연한 손을 책상에 그냥 올려놓은채 오브친니꼬브의 지도를 무표정하게 들여다보았다.

오브친니꼬브는 가슴이 철렁하고 귀가 멍멍해지는것이 당장 쓰러질것 같았다. 어째서 자기가 지도를 지도가방이 아니라 꾸레미에 넣었드랬는지 알수 없었다. (난 이렇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았어. 바라지 않아! 어떻게 할것인가? 와락 달려들어 지도에 표시된 부분을 찢어내여 입안에 쓸어넣을가.… 조심히, 조심히, 아니 … 상앞으로 좀더 가까이! 조심히…)

판자노리의 피줄뛰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그는 상쪽으로 한발자국 내디디였다. 그 순간 누군가 즉시 그의 뒤덜미를 꽉 움켜잡았다. 검은 만또를 걸친 강마른 장교놈은 피가 부글거리는 그의 입술을 다시금 여겨보았다.

중키에 몸매가 깨끗하고 푸른 옷을 입은 놈이 군복상의를 단정히 하고 빠라벨룸권총을 옆구리로 가져가면서 그

들을 향해 탄력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상앞에 이른놈은 모자채양에 손을 가져다붙이고 도이췰란드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검은 만또를 걸친 강마른 장교놈은 모자를 벗어 희끗희끗한 설핀 머리를 드러내고 오브친니꼬브의 지도를 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피곤한듯 짧게 중얼댔다. 그러자 새로 도착한 놈이 오브친니꼬브의 증명서를 펼쳐 한장한장 넘기기 시작했다. 이놈은 검실검실한 얼굴에 코수염을 가느다랗게 길렀다.

권투선수처럼 오그러든 귀엽으로는 구레나룻이 돋아있었다. 팽팽한 군복상의에 가리운 가슴팍에는 에나멜칠을 한것처럼 해빛에 번쩍이는 이름모를 도이췰란드훈장이 달려있었다. 영채도는 그의 까만 눈이 오브친니꼬브를 쭉 내리훑더니 경계하는듯도 하고 반기는듯도 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상우에 증명서를 내놓은 다음 가느다란 코수염밑의 입술에 아리숭한 미소를 담고 로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중위, 오브친니꼬브 쎄르게이 미하일로위치, 295포련대 1중대 화력소대장?》

도이췰란드놈으로서는 도저히 소유할수 없는 순수한 로씨야 발음을 들은 오브친니꼬브는 용수철에 튕겨난듯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오브친니꼬브는 혈색이 좋고 깨끗이 면도한 그자의 상판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 통역원이 어떤자인가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조소로 얼굴표정이 이그러진 오브친니꼬브는 목구멍에서 피를 가르릉거리며 물었다.

《너도 로씨야사람이야? 로씨야사람인가말이다?》

《오브친니꼬브중위, 나는 당신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오. 문제는 당신이 몇마디만 하면 생명을 구원할수 있다는데 있소. 내 말뜻을 알아들었소?》

멀리서부터 무엇인가 쉭쉭하며 무겁게 날아오는 소리가

소나무우듬지우에서 들려왔다.

원거리포탄이 공기를 헤가르며 숨가쁜 소리를 내는것이였다. 포탄은 귀가 메일듯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숲속을 들이쳤다. 포탄은 공지너머의 숲속에서 터졌다.

오브친니꼬브는 환희에 넘쳐 몸을 부르르 떨며 포성이 울린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대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여기, 여기를 쏘시오! 형제들, 조척 둘, 아래로! 어서, 어서 형제들! 여기를 쏘시오!)

모두가 검은 만또를 걸친 도이췰란드놈에게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다. 놈은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 없이 흰 손수건으로 머리칼이 다문다문 돋은 정수리를 훔친 다음 못마땅한 표정으로 통역원에게 몇마디 던졌다. 그리고는 부관인듯한 녀자몸매의 장교놈에게 랭담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부관인듯한 그자는 탁상우의 병을 기울여 고뿌에 약수를 따랐다. 만또를 걸친 늙은놈은 그 고뿌의 물을 몇모금 마신 다음 통역원에게 열기띤 눈길을 던졌다. 놈은 무엇인가 찾는듯 눈알을 부라리며 성급히 날치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나 오브친니꼬브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눈도 깜박하지 않고 사기마개를 막은 물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뾜스까에서 포로수용소를 해방시키던 일이 놀랄만치 생동하게 머리속에 떠올랐다. 목덜미에 구멍이 뚫린 절반 타버린 남녀의 시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녀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저쪽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이췰란드놈들이 쫓겨가면서 그들을 총살했다고 한다. 놈들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엎드리라고 명령하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우에 공손히 엎드렸다. 남녀를 각각 다른쪽에 분리해놓았다.

도이췰란드의 도덕은 남녀를 한데 놓게 되여있지 않다고 한다.

례절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된다는것이다. 시간의 정확성을 귀중히 여기는 도이췰란드놈들은 총살집행을 시간적으로 가장 리상적인 45분간에 정확히 진행하고는 땀을 들이고 피로를 풀기 위해 풀밭에 앉아 약수를 마시였다 한다. 시체더미옆에 남아있는 빈병들이 담긴 초물광주리를 오브친니꼬브는 제눈으로 직접 보았었다. 그때 그를 심히 놀라게 한것은 어째서 사람들이 그리도 공손히 엎드려 총알을 받았는가 하는것이였다. 고통을 참을수 없어 죽으려고 했을가?

놈들이 약수를 마시는동안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묵묵히 서있었다. 거무스레한 통역원의 얼굴과 뾰족한 코수염, 그 아래의 흰 이발들이 어슴푸레 가려보일뿐이였다. 비웃어보려고 해도 기력이 모자라서 비웃을수 없었다. 그는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몸안에서 뭔가 뭉클하고 올라오더니 숨이 꺽 막히였다. 마치 증오의 웨침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듯 그 웨침을 그는 피를 삼키듯 삼켜버렸다. (저놈이 무엇을 물으려나. 저놈들이 뭐라고들 저렇게 지껄일가. 지뢰원에 대해서 지껄일가 아니면 포에 대해서일가. 지도는 저 상우에 있다. 어째서 내가 지도를 지도가방에 넣지 않았댔을가. 어째서 우리의 원거리포는 침묵을 지키고있는가? 그러니 끝장이란 말인가. 끝장?…정말로 놈들이 체스꼬슬로벤스꼬로 돌파해 들어가게 될가. 지도는 상우에 있다.…언제보나 나에게는 뭔가 부족점이 있었지…생활에서의 나의 부족점은 무엇이였더라? 무엇이였더라?…)

《난 다 말하겠소. 다 말하겠단말이요. 나를 총살하지 마오. 난 다 말하겠소.》

그러나 그는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헛김이 흘러나왔을뿐이였다. 그는 상으로 다가갔다.

코수염을 기른 통역원이 요염한 웃음을 짓고 성급히 무슨 신호인가를 보냈다. 빼빼 마른 장교놈은 다리를 꼬고앉아 눈섭을 쫑긋거렸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우악스런 손이 그를 붙들어세우지 않았다. 상우에 놓인 지도의 파란 4각표식이 그의 눈앞으로 점점 확대되여왔다.

그는 곱씹어말했다.

《내가 다 말하겠다… 다 말하겠어…》

그는 상쪽으로 몸을 굽히고 손을 뻗쳤다. 지도가 자기 손가락밑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는 판자노리에 된 타격을 받고 땅에 쓰러졌다. 귀가 윙윙거렸다. 뭔가 무서운것이 그에게 덮쳐들어 목을 조였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암흑속의 번개마냥 새여나왔다. 《윌리! 윌리!》 그러더니 머리에 걸죽하고 선뜩한것이 흘러내렸다. 그를 바로 눕혔다.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검은 장막은 걷히고 쓸쓸한 푸른 하늘이 눈앞에 나타났다. 푸른 바탕의 한가운데 허리를 굽힌 부관의 날카로운 얼굴과 찌프린 눈시울이 보였다. 부관이 그의 머리에 물병의 약수를 부으며 성급히 《윌리! 윌리!》 하고 부르고있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이 오브친니꼬브의 뇌리를 스쳐지났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누군가 그의 상한 팔을 틀어잡고 힘껏 땅에서 일으켜세웠다. 찌르는듯한 아픔으로 하여 흐리마리해졌던 의식이 맑아졌다. 그는 입술을 감빨고 경련을 일으키듯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목숨은 모진것이여서 그에게 땅을 짚고 설 힘을 주었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버린 통역원의 검은 눈동자가 예리한 바늘처럼 찌를듯이 그의 눈에 가까이 다가왔다. 코날이 곧은 통역원놈의 코구멍이 쉼없이 벌름거렸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중위 오브친니꼬브, 마지막으로… 들었는가?》

그 다음에 통역원의 얼굴옆에 다른 얼굴, 살이 피둥피둥지고 넙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새로 나타난 얼굴은 오브친니꼬브에게 눈을 끔벅해보인듯싶었다. 부드러운 입술은 뿌연 금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있었고 커다란 손바닥에는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그자는 권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있었다. (새로 온 저자가 나를 죽이겠구나.) 오브친니꼬브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자는 윌리라고 불리운자일것이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듣는가?》

(인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 오브친니꼬브는 폭소를 터뜨렸다.

《넌 매춘부야. 개자식! 담배 석대에 조국을 팔다니!》

웃음을 그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성한 손으로 통역원의 턱을 힘껏 쳤다. 《매춘부! 나한테서 가죽을 벗겨보렴. 네놈들에게 한마딘들 부는가! 안불테다! 한마디도…》 그는 놈들쪽으로 한발자국 내디디며 거쉰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체스꼬슬로벤스꼬로 뚫고나갈줄 알았는가? 안돼! 네놈들은 끝장이야! 네놈들은 모두 끝장이란말이다!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해! 한놈도…네놈들은 쥐새끼처럼 눌러죽여야 돼. 쥐새끼처럼!… 난 내 손으로 네놈들의 땅크 열대를 불태웠다! 지뢰원에서 불타고있는것들이 안보이는가! 만일…》

그는 숨이 꺽 막혔다. 호흡이 모자랐다. 손수건으로 볼을 문대기며 상을 찌프리고 앉아있는 늙은 장교놈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수그린 통역놈은 변명하려는듯 웃음을 짓더니 뭐라고 청을 들고 권총집에서 총을 뽑아들었다.

살찐 뚱뚱한 얼굴도 역시 시무룩해서 기다리고있었다.

안전고리를 풀어놓은 통역원놈은 오브친니꼬브에게 다가와 반짝거리는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노려보더니 그의 등뒤에 선 두놈의 호위병에게 가련한 모습으로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를 끌어갔다.
《아첨해서 신망을 얻고싶어, 개자식?》 오브친니꼬브가 소리쳤다. 《매춘부같은자식, 오브친니꼬브중위가 어떻게 죽는가를 봐라!》
도이췰란드어로 웨치는 짤막한 구령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몸이 갑삭하고 홀가분해졌다. 그의 아픈 손목을 틀어쥐는 사람은 없었건만 그는 자기 등뒤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뒤돌아보려 하면서 목 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얼굴을 쏘아라, 이 매춘부같은 변절자야!》
그는 채 돌아서지 못했다. 등뒤에서 땅 총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가슴을 땅에 부딪치며 모로 넘어갔다. 그는 자기 볼이 굳은 땅바닥에 부딪쳤다는것을 느꼈다. 그것을 의식한 그는 언제인가 자기 생활에 있었고 또 있어야 할 무엇인가 명백하고 깨끗한것을 기억하려 하였으나 기억해낼수 없었다. 그는 이 순간에 윌리라고 불리운 그자가 깨고소한 미소를 머금고 기우뚱거리며 그에게로 다가와 허리를 굽힌 다음 경멸하는 표정으로 통역원놈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놈은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오브친니꼬브의 면상에 대고 신중한 자세로 절도있게 세방을 더 쏘았다.

제 9 장

까스노시 동서방향에서의 전투는 점차 뜸해졌다. 노비꼬브가 예상했던바대로 포위된 도이췰란드군집단의 주공부대는 리브늬부근의 포위환을 뚫고나온 이후 체스꼬슬로

벤스끄국경에로 나갈 돌파구를 대번에 열지 못했다. 포병의 강대한 포화력과 지뢰원에 걸려 공격력량을 상실했다. 도이췰란드군은 력량을 보존하면서 골짜기왼쪽의 산림속으로 물러가더니 숲가에 전호를 팠다. 고지앞에서 불타는 땅크들과 대도로에 너부러진 장갑수송차와 파괴된 자동차들은 대낮까지 연기를 뿜으며 시름시름 불탔다. 눈앞의 전투가 잠잠해지기 시작하자 까스노시쪽에서 둔탁한 포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흙먼지는 하늘을 덮으며 도시상공으로 떠올랐다.

아군습격기편대가 이 흙먼지를 뚫고 동쪽으로부터 삼십분간격으로 날아들어 배회하다가는 시가지로 내리꼰지며 중심지인듯 느껴지는 고장을 오래동안 기총소사하고 폭탄을 퍼부었다.

노비꼬브는 지휘소전화로 대대장을 찾았으나 통화가 되질 않았다. 극도로 흥분했던 병사들은 무겁게 내리드리우는 졸음에 몰려 포진지 여기저기에 꼼짝않고 누워버렸다. 해가 내리쪼였다. 입안이 말라들어 꿈속에서조차 물을 마시고싶었다.

낮에 보온통에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병사들은 술렁이였다. 신경질적으로 기지개를 하는가 하면 물병에서 숟갈로 달그닥거리며 흙을 긁어냈다. 지칠대로 지친 병사들은 달갑지 않게 밀죽을 먹으며 떫은 전리품 포도주를 마시였다. 뉘라 할것없이 모두가 불타는 도시를 곁눈질해보고는 의아한 눈길로 놀랄만치 깨끗하고 해빛이 내리비치는 까르빠트산줄기의 청청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수정마냥 차거운 가을철 산고지에는 여름철인양 햇솜같은 흰 구름들이 떠있고 그 아래엔 누런 소나무들이 조으는듯 조용히 서있었다. 눈앞에는 가을철치고는 믿기 어려울만큼 따스한 해빛에 덥혀진 호수가 반짝거리고있었다.

호수우를 감도는 안개뭉치들이 숲언저리와 뾰족한 까르

바트산정우에 몰켜있었다.
도이췰란드군이 물러간 조용한 숲가에서는 총 한방 울려오지 않고 두둥실 떠있는 따뜻한 날씨가 찾아든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웠다. 도시쪽에서 간단없이 들려오는 전투음향과 동음을 울리며 나타나군하는 비행기편대만이 잔등을 지꿎게 노리는 창끝처럼 불안을 안아다주었다.
이런 감정을 노비꼬브도 느끼고있었다. 다섯시간동안에 중대는 열두명의 인원손실과 포 두문을 잃었다. 그밖에 그는 도시 서남부전선의 전투성과여부에 따라 도이췰란드군이 북부전선에서 재삼 타격해올수 있으며 이것은 량쪽전선에 꼭같이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리라는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아니 꼭 그렇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전투를 또다시 벌리게 된것이 그를 불안하게 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대대장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포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탄도 오지 않고 대대와의 통신도 좌절되고보니 도이췰란드군이 도시중심에 돌입하여 아군통신설비를 파괴한 결과에 빚어진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불안감에서 헤여날수 없었다.
《어찌겠소, 모두 아침식사를 합시다. 제정된 량대로말이요. 배불리 잔뜩 먹읍시다!》노비꼬브자신도 자기 말투에 슴배인 허세를 느끼였다. 《3년이라도 버티고 방어해낼만큼 든든히 먹어둡시다.》
눈을 내리깐 레메슈꼬브는 중대장앞에 죽이 찰찰 넘치는 군용밥통을 가져다놓고 구수한 호밀빵을 엷게 저며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깨끗한 행주로 숟가락을 오래동안 깐깐히 씻어냈다. 포판에 자리를 잡은 노비꼬브중대장은 밥통에서 죽을 퍼내여 입으로 가져가며 우스개소리를 늘어놓았다.
《레메슈꼬브동무는 모범군인이 되여가는데 식탁보 하나가 없네그려. 안그렇소? 원, 저런 …빵을 얼마나 멋지

게 썰었는가 보오. 제 빵토막은 또 얼마나 볼만하게 썰어놓구… 동무는 나를 어떻게 아오, 아릿다운 아가씨로나 아는 모양이지? 소위동무, 동문 식욕이 안당기오?》
이렇게 말한 중대장은 레메슈꼬브가 자기 몫으로 비옷우에 따로 썰어놓은 큰 빵덩어리에 손을 뻗쳤다.
이럭저럭 식사를 하고있던 알레쉰소위는 돌연히 영채도는 파란눈을 들어올려 시무룩해진 레메슈꼬브의 얼굴을 쳐다보고 숟가락꼭지로 뒤덜미까지 군모를 제껴올리면서 《레메슈꼬브, 동문 자기 배낭을 어디 건사했나?》하고 놀려주려다가 그만두고 당황하여 말을 삼켜버렸다.
헛기침을 하여 자기 표정을 숨긴 그는 노비꼬브중대장을 향하여 물었다.
《마실가요, 대위동지? 제가 람술을 건사해두었습니다.》그는 술취한 사람의 흉내를 내며 허리띠에서 물병을 풀어냈다.
《난 술마시는걸 반대하오.》노비꼬브가 대답했다. 《래일아침까지는 마시지 않겠소.》
《공연히 그러십니다.》알레쉰은 물병을 들여다보면서 어리둥절한척 한숨을 지었다. 《이런 전투를 치르고는 마셔야 합니다. 죽이야 어디 목구멍으로 넘어가야지요. 아니요, 전 어쨌든 마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땅크를 까부신걸 축하해서, 중대장동지!》머리를 잡아젖히고 물통주둥이에서 몇모금 들이킨 알레쉰소위는 기분이 좋아져서 홍이 오른 파랑눈을 반짝이며 병사들에게 술을 권했다. 《누가 마시겠소, 동무들? 자, 용사들, 왜 죽은것처럼 가만히 있소? 땅크를 까부신걸 두고말이요. 모두가 한모금씩!》
누구 하나 그의 생각을 좇지 않았다. 모두가 군용밥통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죽을 먹었다.
《에이, 사람들두 괴짜들이구만. 땅크를 까부신걸 축하

해서 마시자는데… 그럼 울잔말이요?》 알레쉰은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이어 밥통에 숟가락을 가져다대는 소리가 들렸다. 노비꼬브는 빙그레 웃었다.

알레쉰소위는 얼마전에 있은 전투와 땅크를 까부신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흥분해있었다. 그는 자기가 금방 체험한 감정을 병사들앞에 쏟아놓고싶은 불같은 충동을 이길수가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런 대화에 이끌릴 형편에 있지 못했다.

쁘로혼꼬는 먹지도 않고 지어 군용밥통앞에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는 두팔을 뒤통수에 고이고 충혈된 눈으로 하늘가를 더듬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턱에는 수염이 어설피게 돋아있었고 긴 다리를 감싸고있는 승마바지의 무릎은 찢어져있었다. 그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깨박죽을 흔들며 땅이 떨리고있네. 땅크들이 시내로 돌입하고있어. 놈들이 돌파했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노비꼬브에게 침울한 시선을 던졌다. 《타향에 뼈를 묻게 되였군요. 놈들이 밀려들었으니 우린 끝장입니다.… 잠간 제가 산을 내려 포있는쪽으로 가만히 기여가서 부상병들을 날라올가요. 예, 중대장동지?》 노비꼬브는 침묵을 지켰다.

레메슈꼬브는 빈 군용밥통을 깔고앉아 빵을 조금씩 뜯어내여 입안에 던져넣고 우물우물 씹고있었다.

비록 오브친니꼬브로부터 포를 버리고 달아나라는 명령이 떨어져 그것을 집행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더라도 부상당한 동지들을 남겨두고 온 레메슈꼬브네는 중대장에게나 다른 동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기 체면을 상실했음을 자각하고있었지만 누구하나 그 두사람을 알은체 하지 않았다.

중대에서 옹근 한해를 싸우고있는 조준수 쁘로혼꼬는

쥐또미르주를 해방했을 때 보충병으로 왔었다. 키가 특별히 크고 팔다리가 긴 그는 농촌학교 산수교원이였는데 강점당한 주들에서 온 다른 병사들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실천력이 강하고 조용하면서도 자존심이 센 그와 다투기를 꺼려들 했다. 강점당시에 그의 신변에서는 무슨 일인가 일어났었지만 그는 전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쁘로혼꼬의 사격술은 정확하고도 자신만만했다. 그는 언제나 포차에 백색안료가 담긴 통 하나를 매달고 다니였는데 적땅크를 격파했을 때마다 포신에 동그라미를 그려넣군 했다. 그는 콤파스처럼 다리를 쩍 벌리고 오래동안 그 동그라미를 들여다보다가 흡족해서 동무들에게 말했다. 《축은 이렇게 돼야 해! 명백하고 정확하게! 축이란 산수에 필요한거지. 집시청년 뻬뜨로 만세! 그 사람의 메달이야!》

그러나 집시청년 뻬뜨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대에서는 알지 못했다. 벌써 두차례 수훈을 받은 쁘로혼꼬는 훈장을 달고다니지 않았으며 그것을 깨끗한 손수건에 차곡차곡 싸서는 큰 보물이나 되듯이 군복상의 안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니였다.

《아니, 못기다리겠어!》 쁘로혼꼬는 이렇게 뇌이고 좁은 가슴을 두드렸다. 《중대장동지, 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참을수가 없습니다. 랴갈로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레메슈꼬브동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만하시오, 쁘로혼꼬!》 노비꼬브가 드디여 입을 열었다. 《죽이나 드오! 난 그걸 믿지 않소.》

쁘로혼꼬는 얼굴이 해쓱해졌다. 그의 볼과 턱에 검은 반점들이 내돋았다. 그는 떠듬거리며 간신히 물었다.

《믿지 않는다구요? 그럼 훈장은 공짜로 준것이겠군요? 그렇다면 가져가십시오. 저야 강점구역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랍니까?》

그는 성이 나서 군복저고리주머니에서 훈장꾸레미를 꺼내여 손바닥우에 놓았다. 길쑴하게 생긴 침울한 얼굴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가져가십시오. 대위동지!》

《훈장을 주시오.》 노비꼬브는 조용히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동물 잘못 보았던것 같소.》

중대장은 전쟁에서 절망상태에 빠진 경우를 수다히 보아왔지만 나약해져서 갈길을 몰라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지금 알레쉰소위의 눈빛에서 당황함과 질책함을 보았으나 랭정하게 되뇌였다.

《훈장을 주시오. 나도 동무를 잘못 보았고 동무도 그것을 깨달은 이상 우린 한중대에서 같이 싸울수 없다고 보오. 전투가 끝난 후 동무를 다른 중대로 보내겠소. 레메슈꼬브, 동무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오?》

군용밥통을 씻으려고 소리없이 밥통을 모으던 레메슈꼬브는 의혹을 지우지 못한채 눈섭이 흰 얼굴을 노비꼬브쪽으로 돌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브친니꼬브중위와 함께 달려올 때 그가 저에게 명령하기를 만일 자기가 죽으면 중대장동지에게 우리가 열대의 땅크를 까부셨다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쁘로혼꼬동무는 넉대라더군요.》 레메슈꼬브는 침을 꿀꺽 삼키고 쁘로혼꼬쪽을 바라보았다. 《조준경은 중대장동지에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까부신 땅크가 아니지요. 그건 집시청년 뻬뜨로의것입니다. 훈장도 그의것입니다.》 쁘로혼꼬는 줌안에 놓인 훈장을 매만지며 화약에 끄슬린 살눈섭을 슴벅거리고 노비꼬브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모르게 웅얼거렸다. 《어떻게 할가요, 중대장동지?》

《내 생각이 달라지기전에 훈장을 치우시오.》 노비꼬브

는 차겁게 내쏘았다. 《중대는 몇시간동안에 열두명을 잃었소. 난 그 수자가 스무명으로 될것을 바라지 않소. 알레쉰소위, 엄페부로 들어갑시다.》

그들은 습한 흙냄새가 풍기는 토굴안으로 들어갔다. 노비꼬브는 알레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흥분으로 하여 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인가 하고싶어하는것 같은데 어서 말하오.》

《중대장동지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중대장동지는 그 동무를 모욕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훌륭한 조준수가 아닙니까.》 알레쉰은 열이 나서 주어섬겼다. 《전 그 동무를 담보합니다. 중대장동지, 전 그 동무를 믿습니다. 그 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정말 기다릴수 있습니까? 참을수 있는가 말입니다? 중대장동지, 우리가 어찌 부상병들만 남겨둘수 있겠습니까?》

노비꼬브가 말했다.

《위쨔, 내가 죽더라도 쁘로혼꼬와 같은 경우는 신경발작이라는것을 알아두오. 문제는 오브친니꼬브로부터 시작되였소. 난 필요한 때 자신을 억제했어야 하는건데 그렇게 못했소. 내 말을 알겠소, 위쨔?》

《중대장동지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알레쉰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제 눈으로 목격했는걸요.》

《죽은걸 보지는 못했소.》 노비꼬브는 머리를 흔들었다. 《난 놈들이 그를 생포하려고 한다고 느꼈소. 만일 그가 놈들의 손에 걸려들었더라면 난 그를 쏴버리려고 했던거요.》

《그를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게 아니요.》

《중대장동지는 조준수를 제껴놓고 자신이 쏘았지요. 그도 역시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요. 위쨔, 전쟁에서는 많은

것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할 때가 있는것이요.》

말문이 막힌 알레쉰은 눈섭을 찡그렸다. 뒤로 제껴쓴 모자밑으로 드러난 밤빛 머리칼이 매끈한 이마우에 드리워 천진한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거동은 그의 포성원들이 넉대의 적땅크를 까부셨던 그 전투를 마치고 희열에 넘쳐 포결을 떠날 때와 같이 무사태평한 기분이 아니였다. 노비꼬브는 자기들이 년령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무엇인가 자기들을 예리하게 갈라놓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알레쉰보다 훨씬 손우이라고 느껴오던 중대장의 마음속에는 련민의 정 비슷한 이상한 감정이 피여올랐다. (알레쉰은 어떻게 자기가 보고 느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간직하고있을가? 난 벌써 그걸 다 잊은지가 오랜데. 젊음의 표징이야. 나보다 한살이 어려서 그럴가?) 노비꼬브는 생각했다. (정말 그럴가?)

《거기 동무들한테는 포탄마저 없지 않습니까, 중대장동지!》 침묵을 지키고있던 알레쉰이 대꾸했다. 《다섯발의 포탄을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레나가 있습니다. 부상병들과 함께말입니다. 놈들이 골짜기에서 들이치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레나를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전 리해가 안됩니다. 리해가 안돼요. 어째서 중대장동지는 꾸물거리고있는지, 어째서 부상병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붙여문 담배연기사이로 알레쉰을 쳐다보는 노비꼬브는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저 동무는 나와 달리 순수한 의미에서만 해석하고있구나.) 노비꼬브는 얼마전에 있은 대대장과의 담화를 상기하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저 동무는 때로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것도 끄집어낸다니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때로 선을 지향하는 행동이, 고통당하는 몇사람을 당장 구원하려는 소원이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는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2년전만 해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우린 그걸 알아야 하오.》 노비꼬브는 설명했다.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파괴되였다는것을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단말이요. 만일 부상병들을 지금 대낮에 후송하게 되면 그것을 알려주는것으로 될것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포가 살아있다는것을 의미하오. 다섯발의 포탄—그것은 도하장에 대고 다섯번 사격한다는것을 의미하오. 땅크를 향해서도 그렇고. 위쨔, 우리는 이 뽈스까도시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될것이라고 느껴지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소? 그런데 놈들이 체스꼬 슬로벤스꼬땅으로 돌파해들어가면 전쟁은 총적으로 2시간, 3시간 아니 1주야간이라도 더 지속될수 있소. 알만하오? 포에 가는 문제는 저녁에 결정합시다. 포진지로 가보시오. 난 여기서 눈을 좀 붙이겠소.》

노비꼬브는 군복저고리의 단추를 벗기고 혁띠를 푼 다음 짚우에 드러누웠다. 알레쉰이 난처한 기색으로 토굴에서 걸어나가는것을 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전신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며 피로가 몰려오는것을 느끼였다. 초긴장속에서 지낸 몇시간은 그의 눈을 몹시 아프게 하고 근육이 쑤셔났다. 장화속의 발은 홧홧 달아올랐다. 그래도 몸을 꼼짝하고싶지 않아 조여드는 발을 쭉 뻗치려고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사격의 불꽃이 떠다니고 숨막히는 공기가 느껴지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어슴푸레 들려왔다. (저기 포결에 부상병들이 있습니다. 오브친니꼬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브친니꼬브는 죽었습니까? 보가쩬꼬브도 죽고 꼴로꼴리치꼬브도 죽었습니까? 그럼 레나는? 레나도 죽었습니까? 그럴수 없

습니다.…)

수천수만의 아물거리는 불꽃과 그 알지 못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몰려드는 졸음을 고통스럽게 쫓아내는 한편 생시의 레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상기하려고 애썼다. 이건 뭘가? 어째서 레나가 여기에 있을가? 레나는 어딘가 울타리결의 등불아래 서있었다. 눈이 내렸다. 결심이 확고한듯한 레나가 날씬한 몸매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종종걸음으로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레나가 발자국을 옮겨놓을 때마다 그의 외투자락이 흔들거렸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가? 유년시절에? 무슨 황당한 소릴,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녀동무의 마지막편지가 떠올랐다.

《동무는 이미 살아있지 않아요. 동무는 죽었어요. 우리는 세해동안을 5호강의실 한책상에 앉았던걸 기억하세요? 우린 함께 시험준비를 하군 했지요. 난 동무에게 정이 들었어요. 지마, 이걸 전 서슴없이 말해야겠어요. 동무는 믿겠지요.…》

(참 용해! 대번에 직통으로 이야기했거든. 명백한게 좋지… 고맙소, 레나… 레나가 죽었다고? 그럴수 없어! 이걸 누가 말했어? 알레쉰소위가? 그러나 알레쉰은 그 레나, 그 등불과 그 눈을 모르지 않는가. 내가 그걸 말한적이 없는데. 그가 어디서 알았을가?)

불꽃들이 사라지고 뭔가 귀가 메이게 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가슴을 내리누르면서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노비꼬브는 숨을 헐떡이면서 꿈속에서 마음의 불안과 가셔지지 않고 지꿎게 달라붙는 고통을 느끼였다. 그는 해빛이 내리쪼이는 자루속에 든것처럼 땀을 흠뻑 흘리면서 불편한듯 신음소리를 내며 모로 돌아누웠다. 순간 검질기게 달라붙는 졸음에서 소스라쳐 깨여난 그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불편을 느꼈던가를 깨달았다. 장화가 발을 압박하여 따끔거렸던것이다. 그는 혼탕이 되여버린 꿈을 기억에 되

살려보려고 애쓰면서 한쪽 장화코숭이를 다른쪽 장화뒤축에 대고 잡아뽑으면서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히 휴식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꿈에 본 불안이 아직도 희미한 흔적으로 의식속에 남아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토굴옆에서 크게 울리는 목소리와 발자국소리에 노비꼬브는 눈을 떴다.

그는 일어나 앉아 습관적으로 권총이 매달린 허리띠를 띠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에 토굴이 지진을 만난듯 드르르 떨리군 했다.

《누구요?》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허리띠를 띠고 권총집을 바로하면서 물었다. 그는 뛰쳐일어나 방수포비옷을 늘인 입구로 달려나가면서 그것을 잡아제꼈다. 저쪽 포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레나한테… 이런 예감에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문턱에는 알레쉰소위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서있었다. 그는 포진지에서 달려오는 길인듯 했다.

《무슨 일이요? 포가 어떻게 되였소? 레나가?》 노비꼬브는 왜서인지 이것들을 하나로 련결시키면서 성급히 물었다.

알레쉰은 흥분을 억제하며 보고했다.

《뻬찐이… 중대장동지… 대대장동지한테서 왔습니다.… 거긴 제기랄… 적땅크들이 돌파했답니다. 시가지중심에 말입니다. 자동차는 사격을 받아 한대는 불탔답니다.》

《무슨 자동차말이요?》

《뻬찐이 저기 진지에 있습니다. 중대장동지… 자동차 한대는 끌고왔습니다. 중대장동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적 자동총수들과 저격수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에 대고 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같은놈들!》

《갑시다.》

노비꼬브는 어둑시근한 토굴속에서 나와 투명한 가을 해빛이 내리쪼이는 교통호로 나섰다. 여기서 알레쉰이 그를 멈춰세웠다.

《중대장동지, 허리를 굽히십시오! 놈들이 여기로 사격해왔습니다. 나한테 대고 쏘더군요. 모자가 벗겨질번했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그리고는 턱진 교통호 모서리에 난 들쑹날쑹한 총탄자국들을 가리켰다.

《어디서 쏘았소?》

《제발 허리를 굽히십시오. 중대장동지!》 그러나 노비꼬브는 허리를 굽히기에 앞서 해가 내리비치는 잔잔한 호수와 고지앞의 지뢰원을 둘러보았다. 우묵하게 들어앉은 골짜기에서는 완전히 타버린 석탄덩이같은 땅크몸체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나무숲과 오브친니꼬브네 포진지 둔덕이 해빛을 받아 누르스름하게 보였다.

사위는 다치면 금방 터질듯한 팽팽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시가지가 자리잡은 등뒤에서만 전투의 음향이 소란하게 들려왔다. 음침한 연기가 서리운 도시상공에는 번뜻거리는 고사포탄우를 헤가르며 아군습격기편대가 내리꼰지고 뒤이어 폭탄터지는 소리가 모든 음향을 짓누르며 땅을 뒤흔들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부탁입니다. 중대장동지…》 알레쉰은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교통호모서리에서 튀여난 나무쪼각이 노비꼬브의 머리우에서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쳐다보니 총탄이 맞은 곳에 또 다른 총탄이 덧맞았다. 그는 정적을 깨치며 또 한방의 총성이 울려온 고지앞쪽을 바라보았다. 총성이 울린 곳은 흔적없이 자취를 감추었건만 노비꼬브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쏜것이라고 느껴졌다.

《어디서 쏜것인지 감시할걸 그랬소.》노비꼬브는 여전히 머리를 수그린채 교통호를 따라나왔다.《위쨔, 몸을 조심하오. 놈들이 한사람씩 대상하고있소. 들리오?》

《여기엔 한놈만이 아닙니다.》알레쉰이 교통호모서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퀴새끼들처럼 기여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조겨댑니다.》

포진지에서는 굴끄대대장 련락병 뻬찐이 넙적한 잔등을 흉장에 기대인채 앉아있었다. 우람하게 생긴 그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길다란 장화를 신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서 군용밥통을 두손으로 붙들고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게걸스럽게 물을 마시고있었다. 구멍이 난 군복상의와 더러운 메달략장판으로 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노비꼬브를 본 그는 물을 쏟으며 군용밥통을 땅에 내려놓고나서 일어서려고 다리를 구부리였다. 그러는것을 노비꼬브가 제지시켰다.

《앉아있소. 도시형편은 어떻소? 말하오. 구체적으로… 눈이 왜 그렇게 됐소?》

뻬찐의 너부죽한 얼굴 오른쪽 절반이 몰라보게 부어있었고 마구 베여져서 피가 흘렀다. 한쪽 눈은 타박상을 입었는지 새빨갛게 피가 지고 부은데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뻬찐은 눈물을 훔치고나서 굵다란 손가락으로 아픈 눈을 지그시 누르고 다른쪽 성한 눈으로 조용히 병사들을 휘둘러보았다. 노비꼬브는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재촉했다.

《저 동무들이 있는데서 말하시오. 저 동무들도 모두 알아야 하니까. 왜 땅크들이 도시로 들어왔소?》

《놈들이 돌파해들어왔습니다. 시내중심지까지요.》뻬찐은 고함을 치듯이 큰소리를 지르고나서 군용밥통의 물을 몇모금 연거퍼 들이키고 입술을 씻었다.

《통신이 두절되는바람에… 대대장동지는 여기로 오

는 길을 가리켜주면서 저더러 탄약공급소에 가라더군요. 우리는 포탄을 두 자동차에 실었습니다. 시내중심에 있는 광장거리까지 나와보니 글쎄 교회당옆에 무슨 땅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아군땅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마구 포를 쏘아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 운전사와 함께 앉아있었는데 파편들이 유리를 뚫고들어왔습니다. 뭔가 한쪽눈으로 날아들지 않았겠습니까. 아프지는 않습니다. 눈물이 나올뿐이지요.》

뻬찐은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눈을 비비였다. 구멍난 군복상의를 아쉽게 쓸어만졌다.

《이건 운전대에 걸려 이렇게 되였습니다. 자동차 한대는 폭격을 맞았습니다. 차바퀴 두개가 단번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차는 요행 골목길로 접어들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중대장동지, 대대장동지가 보내는 겁니다. 회답을 쓰십시오.》

뻬찐은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끄집어내더니 거기서 깐깐히 접은 쪽지편지를 끄집어냈다. 편지에서 담배가루를 불어버린 그는 그것을 노비꼬브에게 넘겨주었다. 노비꼬브는 펼쳐들고 깨알같은 필체로 고르롭게 써나간 몇개문장을 훑어보았다.

《뻬찐을 통해 동무에게 약속했던 포탄을 보내오. 동무네와의 통신이 두절되였소. 원형방어에 관심을 돌리시오. 사람들을 아끼시오. 총각동무, 견디여내오, 일이 다 제대로 될거요. 대대장 굴끄》

(지금 이런 허식이 무엇때문에 필요할가?) 노비꼬브는 이렇게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쪽지편지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말했다.

《편지 쓸 사이가 없소. 중대는 열두명의 인원과 포 두문을 보존하고있다고 전해주오. 오브친니꼬브는 행방불명

되였소. 원형방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겠소. 포탄을 실어다주어 감사하오. 자동차는 어디 있소?》

《저 아래 고지밑에 있습니다.》 뻬찐은 모욕당한듯 빨갛게 충혈된 눈알을 슴벅거렸다. 그러더니 당황함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회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대장동지? 쓰십시오. 저에게 연필꽁다리가 있을텐데…》

노비꼬브는 뻬찐을 쳐다보지 않았다.

《모두 자동차를 향해 포복전진 앞으로! 개활지대에서는 엇갈아 달리시오. 그리고 포탄을 포결으로 날라오시오!》 그는 조바심에 차있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명령했다. 《그리고 뻬찐동무는 병원에 가야겠소. 눈에 손을 대지 마오. 동무의 눈엔 티가 들어간게 아니요. 우리 위생지도원이 없는게 유감이요. 동무에게 붕대를 감아주어야겠는데.》

이 말을 하고나자 뜻밖에도 레나가 옆에 바투 서있는듯이, 그의 그윽한 검은 눈동자와 미소를 머금고 바르르 떨리던 살눈섭, 자기 이마에 와닿던 레나의 산뜩한 손가락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입술은 보지 말아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눈을 보세요! 어서요!》

언젠가 한달쯤 전에 그는 포사격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레나가 티를 뽑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레나는 이 일을 솜씨있게 해냈었다.

허지만 그 녀자의 불손하고 당돌한 태도는 그때 그를 몹시 자극했었다.

《개인붕대가 없소? 이리 주오. 그리고 모자를 벗소.》

노비꼬브는 뻬찐에게 명령했다.

노비꼬브는 뻬찐이 주머니속을 뒤적거리며 찾다가 담배가루가 뒤발린 붕대를 꺼낼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그는 붕대를 터쳐가지고 서툰 동작으로 뻬찐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어쨌든 바람에 튼 병사의 커다란

얼굴에는 깨끗하고 신선한 흰 붕대가 재빨리 감겨지기 시작했다.

뻬찐은 머리를 수긋하고 땀을 뽑으며 씨근덕거리고있었다. 그의 한쪽 눈만이 노비꼬브의 얼굴을 향해 깜박이고있었다.

《병원은 무슨 병원입니까. 중대장동지?》 그는 웃으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별치 않은 상처인데 뭘 이다지야 이러십니까. 전 대대장동지에게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동지! 예상치 않게 그만…》

《죽음이나 부상은 언제나 예상치 않게 당하는 법이요.》

노비꼬브는 이렇게 말하면서 붕대오리를 맞잡아매고 뻬찐을 가볍게 밀어냈다. 《인젠 대대장동지에게 가보오. 몸을 수그리고 달려가야 하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동무의 커다란 몸집은 저격수들의 좋은 목표물로 될수가 있소. 자 달려가오!》

《잘 계십시오.》

뻬찐은 둔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면구스러운듯 군복저고리를 매만지더니 흉장을 뛰여넘었다. 그는 돌연히 몸을 구붓하고 손으로 가슴의 훈장들을 거머쥔채 포탄을 가지러 가는 마지막병사가 금방 사라진 고지경사면을 따라 둔하게 굴러내렸다.

《포복전진하시오!》 노비꼬브가 소리쳤다. 《군복저고리가 아까와 그러오? 엎드리시오!》

땅크들이 진한 연기를 뿜어대고 해가 내리비치고있는 불타는 고지 앞공지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려오고 날아가는 탄알의 파란 불줄기가 뻬찐의 발치를 누비고 지나갔다.

몹시 놀란듯 뻬찐은 우람찬 몸집을 한껏 편 다음 머리에 처맨 흰 붕대를 유난히 드러내면서 총성이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시답지 않게 손을 홱 내젓고나서 경

사면을 굴러내렸다.

(저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가? 아니, 그렇지 않았을거야. 다치지 않았어.) 전쟁에서는 두번 련이어 부상을 입는 일이 없으며 벌써 두번째는 죽게 된다고 오래전부터 확신하고있는 노비꼬브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때 소리쳐 부르는 알레쉰소위의 야무진 목소리가 그를 뒤돌아보게 했다.

《중대장동지, 파괴된 땅크밑에서 쏘아대는것 같습니다. 안보입니까?》

모자를 쓰지 않은 알레쉰이 밤빛머리카락을 해빛에 반짝이며 흉장에 엎드려 고지앞의 지뢰원에서 꿈틀거리며 헤염쳐가는 허여스레한 연기를 지켜보고있었다.

《경기로 갈겨서 본때를 보여주오.》노비꼬브가 말했다.

졸고있는 통신병들을 뛰여넘어 감시초소안으로 들어간 노비꼬브는 경기옆에서 당직근무를 서고있는 정찰병에게 물었다.

《저격수들이 어디서 사격해오는지 모르겠소?》그는 절반 잠에 취한 당직병의 대답을 들을념도 않고 《해가 눈을 내리비치누만.》하면서 경기를 흉장에서 끌어내려 저쪽 교통호끝으로 끌어갔다.

전호벽에 가슴을 기대인 알레쉰이 속삭였다.

《오브친니꼬브네 오른쪽 지뢰원에 파괴된 땅크가 있습니다. 대포가 우리를 향하고있는것이 보이지요? 거기서 사격해옵니다.》

거기는 오브친니꼬브를 부상시킨 곳이였다.

《알아봅시다.》노비꼬브의 대답이였다.

짧은 련발사격을 두차례 들이대자 파괴된 땅크의 무한궤도앞에서 먼지가 일었다. 그러자 땅크밑바닥에서 두차례 울려오는 약한 총성을 제꺽 포착했다. 그는 재빨리 빼찐을 사격하던 고지쪽을 돌아다보았다. 크지 않은 키

에 뚱뚱하고 다리가 짧은 사람 하나가 눈에 띄웠다. 군화로 푸실푸실 흙을 부스러뜨리며 포진지쪽을 향해 달려오는것이 망원경을 통해 보듯이 똑똑히 보였다. 그 사람을 쏘고있었다.
노비꼬브는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빼지 않은채 알레쉰에게 소리쳤다.
《웬 사람이… 저기서 빈둥거리고있어? 저게 누구야? 질서가 없구만. 또 대대장한테서 올수도 있지.》
그는 팔굽을 편안하게 의지하고 총탁판을 어깨에 붙인 다음 또다시 땅크바닥을 향해 짧은 점발로 두차례 쏴갈겼다. 《엎드리시오! 포복전진! 어디서 오우?》 웨침소리가 흐리마리 그에게 들려왔다. 몇발의 탄알이 뿡뿡 귀전을 스치였다.
이번 사격은 경기를 겨눈것임을 알아차린 그는 총탁에 더 든든히 몸을 붙이고 두번째로 겨냥했다. 도이췰란드저격수의 총성이 울린 곳으로 옹근 탄창 하나를 더 쏴보낸 다음에야 노비꼬브는 경기를 전호뚝에서 끌어내려 다른 장소에 옮겨놓으며 정찰병에게 툭 내쏘았다.
《새 탄창을 내오! 빨리!》
포좌지에서 교통호를 따라 알레쉰소위와 함께 절구통같이 몸이 뚱뚱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웬 사람이 받으려드는 황소처럼 머리를 수굿하고 오고있었다. 고집스럽게 뻗친 그의 눈섭과 뚱뚱하고 벌거우리한 얼굴을 보고 노비꼬브는 그가 별장에서 충돌했던 그 후방부대위라는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아, 후방부대위!》 노비꼬브는 환성을 질렀다. 《무슨 귀신에 홀려서 이렇게 포진지까지 왕림하셨소? 팔자점을 쳐보자는거요. 아니면 도이췰란드저격수들이 걱정돼서 왔소?》 찌뿌둥하고있는 알레쉰에게 씩— 하고 웃음을 던진 다음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끝내 알아냈군 그래.

위짜?》

후방부대위는 조급해서 말을 먹으며 겨우 말을 꺼냈다. 《대위동무, 난… 내 무기를 찾으러 왔소. 제발… 무기를 돌려주오. 그건 등록되여있는 무기란말이요.》 그는 노비꼬브의 가슴을 쳐다보며 말했다.

《몸을 굽히시오.》 노비꼬브가 충고했다.

후방부일군은 앉아서 숨을 돌리며 손수건으로 굵은 목과 확확 달아오른 얼굴과 턱을 문질렀다. 그러느라 한팔을 들어올렸을 때 팽팽한 군복상의가 겨드랑이밑에 비좁게 끼인것을 보면서 노비꼬브는 롱삼아 말을 건늬였다.

《하는수 없군, 사죄합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별장에서 당신네 위생중대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모두 가져가오. 하불, 내의, 포도주, 식료품 할것없이. 잘 가시오! 여기서부터 포복전진해가시오. 그렇지 않았다간 당신들이 우리를 위생중대로 후송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후송하게 될테니까. 그럼 잘 가시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후방부대위의 얼굴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굵은 목살에 파묻힌 군복깃은 거멓게 젖어있었고 눈시울은 내려덮였다.

《동무네한데… 내 총이 있지 않소. 군관은 총을 못가지면 안되오.… 그 총은 등록된거요. 문건에…》

《알레쉰소위, 총을 돌려주시오!》 하고 노비꼬브는 말하였다. 《나간권총을 주오! 아무 권총이나. 하다못해 빠라벨룸(도이췰란드권총의 이름—역자주)이라도 구할것이지. 알레쉰동무, 왜 꾸물거리고있소. 무기를 돌려주시오.》

알레쉰은 밉살스러운듯 후방부대위를 흘겨보더니 마지못해 가방에서 육중한 나간권총을 꺼내여 공중으로 올리띄웠다가 잡으며 붉어진 얼굴로 쓰겁게 내

뱉았다.

《중대장동무, 만일 경리군관들이 다…》

《돌려주시오!》 노비꼬브는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감사하오. 내가 그만 격해서…》 후방부대위는 가까스로 분을 누르며 빌붙었다. 《동무들과 알게 되여 기쁘오. 대위, 무엇이든 필요한것이 있으면…》

《난 상냥하게 말할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노비꼬브는 점잖게 대꾸했다.

《암, 그렇겠지. 우리 또 만납시다.》

총을 권총집에 집어넣은 후방부대위는 살진 등허리를 구붓하고 전호를 따라가며 연기가 서린 전장의 왼쪽켠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고지를 내릴 때에는 포복전진하시오! 포복전진!》 알레쉰이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빨리 가시오! 어쩌면 중대장동지가 저런 뚝바우를 곰살궂게 대할가.》 하고 그는 빈정댔다.

《후방부 넝마장사같은것!》

그럴즈음에 노비꼬브는 만탄창한 탄창을 물개에 콱 쳐서 끼워넣은 다음 도시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그쪽에서 무거운 핑음이 련이어 울리더니 시커먼 먼지구름이 피여올랐다. 그것은 하늘을 덮으며 여기까지 밀려와 바로 고지우에 걸려있었다. (몇분전만 하더라도 저만한 먼지구름은 우리 상공에 피여오른것과는 상대도 안되게 보잘것없는 작은것으로 보였댔지.) 이제 와서야 그것을 노비꼬브는 생각했다.

《중대장동지, 체스꼬병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 자기네 보병들한테 가던것 같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저격수놈이 그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그 병사가 어디에 있소?》

《진지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포옆에 젊은 체스꼬사람이 금방 타입은듯한 새 군복차림으로 앉아있었다. 축축히 젖은 놀란 눈이 노비꼬브에게 애써 웃어보이려 하고있었고 웃입술을 덮고있는 허여스레한 솜털에는 땀방울들이 맺혀있었다. 아직 채 자라지 못한 연약한 손은 뭔가 쥐고 놓지 않으려는듯한 자세로 가슴우에 얹혀있었다. 그리고 발치에는 보온병이 놓여있었다.

그의 옆에 쭈그리고앉은 레메슈꼬브는 병사의 애티나는 얼굴을 측은하게 들여다보며 아낙네들처럼 한숨을 내쉬고 물었다.

《자넨 어딜 가댔나, 어딜? 에이구 총각두, 놈들이 계속 쏘아대는데 조심하질 않구. 자기네 보병들을 찾아가댔나? 로씨야말을 알어?》

《도브늬 젠(로어로 안녕하십니까—역자주)…》 체스꼬병사는 이렇게 속삭이고 고개를 재빨리 주억거렸다. 그는 두손을 가슴에서 내리우더니 기도드릴 때처럼 포개였다. 《중대… 점심… 난 뜨르르 권선, 통신병… 6중대…》

그는 자기 말을 알아듣기를 바라는듯 레메슈꼬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군복상의에 생긴 검은 반점이 차츰 번져나가며 그의 파리한 손가락들을 물들였다.

《군복저고리를 벗기시오! 빨리!》노비꼬브는 레메슈꼬브에게 명령하고 그에게서 개인붕대를 받아쥔 후 말없이 그 병사를 지켜보고있는 스쩨빠노브에게 돌아섰다. 《보온병을 체스꼬인들의 6중대에 가져다주시오. 그리고 통신병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달하시오.》

노비꼬브가 레메슈꼬브의 도움을 받아 체스꼬병사에게 붕대를 감아주기 시작하였을 때 그 병사는 《마리쩨, 마리쩨, 폭동을… 》하고 되뇌이며 호수 건너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제 10 장

저녁에는 도이칠란드군이 시가지중심을 차지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대대에서는 노비꼬브에게 시가전이 벌어지고있다는 통보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 통신이 두절되였었다.

통신병들은 벌써 여덟차례나 전선을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해질녘에 눈이 푹 꺼져돌아온 통신병들은 흥분하여 도이칠란드땅크들과 조우했다고 보고했다. 도시는 불타고 뭐가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전화선을 복구할 가능성이 없다는것이 보고되여왔다. 2시간 지나서 경리소대가 자리잡았던 별장공원에서 마사병이 전신을 덜덜 떨며 달려와 별장과 공원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저격수들에 의해 사격을 받았으며 말 한필이 죽고 마사병 한사람이 부상당했다고 보고했다. 이러더니 《다른곳으로 더 멀리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을가요?》 하고 풀이 죽어 묻는것이였다.

지금으로서는 후방부위치가 보다 더 안전한곳이 없다는것을 알고있는 노비꼬브는 마사병으로부터 료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별장공원의 서남쪽 변두리에 전호를 파라고 명령했다.

갈기갈기 찢기운 화광이 두키로메터가량의 도시상공을 뒤덮고있었다. 그쪽의 작열된 안개속으로 자동총 련발사격이 점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무쇠땅크들은 쿵쿵 기염을 토하며 도시변두리를 갈겨대고있었다. 귀를 메이게 하는 요란한 폭탄터지는 소리가 때로 이 모든 음향을 삼켜버리

군했다. 하늘 어딘가에 아군 중폭격기들이 나타나 낮추 떠다니고있었다. 쓸모가 없이 된 《조명등》들이 어두운 고지들에서 불타는 시가지를 향하여 누런 해파리처럼 출렁출렁 춤추며 둥둥 떠내려가고있었다. 화염의 반사광은 어제밤이나 다름없이 포들이 설치된 고지우와 호수변두리의 나무숲 그리고 지뢰원에서 불타버린 시커먼 땅크잔해들을 비쳐주고있었다. 저 앞쪽 체스꼬슬로벤스꼬인들의 보병참호에서는 련이어 조명탄들이 날아올라 분지의 지뢰원을 비치였다. 그 너머 숲속의 도이췰란드놈들은 죽은듯 숨을 죽이고있었다. 사그러지기 시작한 조명탄불빛은 진기가 빠진듯 화염의 반사광속에서 희미한 빛을 뿜고있었다.

까르빠트산정우에 솟아오른 빨건 달도 화염속에서 빛을 잃고있었다. 불길이 충천하는 도시쪽에서 매캐한 타는 냄새와 후끈한 공기가 풍겨왔다. 노비꼬브는 입술에서 달아오른 쇠비린내를 느꼈다.

저녁 9시에 노비꼬브는 포진지에 병사들을 모여놓고 불도 붙이지 않은 마라초를 손가락짬에 끼운채 포판에 앉았다. 담배를 피워물면 안되였던것이다. 불빛이 보이면 적의 저격수들이 대번에 사격해왔다. 목소리가 좀 커져도 사격해왔다. 그는 화광에 비치여 구리빛으로 물든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노비꼬브의 명령을 기다리며 말없이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더는 기다릴수 없게 됐소. 오브친니꼬브의 포로 떠납시다.》 그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저쪽 포에 가서 사람들을 날라옵시다. 거기 세동무가 있는데 상사 싸뽀르낀은 제발로 걸을수 있을게고 두 사람은 날라와야 하오.》 그는 불을 붙이지 않은 마라초를 한모금 빨더니 입술에 붙은 담배부스레기를 뱉아버렸다. 《때를 기

다리던 도이췰란드놈들은 모름지기 오늘밤에 최후의 공격을 해올것이요. 그건 명백하오. 다들 알겠소? 》그는 목청을 약간 돋구었다가 다시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그렇기때문에 이 작전에서 우리에게 차례질 시간은 고작 한시간뿐이요. 될수록 예비탄창을 많이 가지고 갑시다. 여기에 남는 동무들의것까지 가지고 갑시다. 쁘로혼끄와 레메슈끄브동무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되오. 우리는 호수기슭의 지뢰원통로를 따라가게 되오. 오브친니끄브네 포주변에 도이췰란드놈들이 있을수 있소. 우린 어떤 정황에 부딪치더라도 한방의 포성이나 총성도 울려서는 안되오. 체스끄슬로벤스끄 보병부대에는 내가 예고했소. 이게 다요.》 노비끄브는 타지 않은 마라초를 발치에 던지고 쓰쩨빠노브에게 말을 건넸다. 《중사동무, 동무의 기관단총을 나에게 주시오!》

말수더구가 적은 쓰쩨빠노브는 명상에 잠겨있다가 증기빵처럼 둥그렇고 선량하게 생긴 얼굴을 돌려 황급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기관단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총신강을 면밀히 검사한 다음 먼지를 씻어내듯 커다란 손바닥으로 총신을 빽 문대였다. 그는 아무말없이 총을 중대장에게 넘겨주었다.

화광에 비치인 포성원들은 말 한마디없이 장미빛에 물든 지뢰원을 내려다볼뿐이였다.

노비끄브는 몸을 일으켜 기관단총을 앞에총 하여 메였다. 자기 노비끄브와 쁘로혼끄, 레메슈끄브를 여기에 남는 다른 동무들과 갈라놓게 하는듯한 그의 동작은 모두로 하여금 은연중에 가볍게 자리를 차고 일어서게 하였다.

쁘로혼끄는 탄창을 혁띠에 매달면서 노비끄브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동자는 취했을 때처럼 빨갛게 충혈되여있었다. 그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에 여한으로 남지 않도록 길떠나기전에 한대 피웁시다. 누구한테 말아놓은 담배가 없소? 그러면 그대신 마라초를 주지.》 그러더니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노비꼬브에게 물었다. 《담배를 피울만합니까. 중대장동지?》

노비꼬브는 그것을 승낙했다. 누군가 정찰병 한사람이 외투팔소매에 가리고 몰래 피우던 담배를 쁘로혼꼬에게 찔러주었다. 쁘로혼꼬는 좋아서 환성을 올리더니 흙장벽에 붙어서서 성급히 몇모금 깊이 들이빨고 꽁초를 발로 비벼끄고는 허리를 펴며 이렇게 말했다.

《한대 피우니 축이 확실히 잘 돌아가는군.》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나서 레메슈꼬브를 흘겨보며 쯧쯧 혀를 찼다.

《동무 뭘 그리 꾸물거려. 호물때기령감이 해바라기씨라도 까는가? 자넨 담배를 안피우나?》

《난 안… 난 안피워. 난 피우질 않아.》 하고 레메슈꼬브는 낑낑 갑자르며 웅얼거렸다.

레메슈꼬브는 부산을 피우며 기관단총에 탄창을 끼워넣었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뻣뻣해진 목이 아래로 숙어져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노비꼬브에게는 불현듯 그의 잔등에 혹처럼 불거져 나와있던 배낭과 그의 눈에 어려있던 공포심, 아픈 다리를 두고 투덜거리던 그의 푸념이 상기되면서 자기가 하루동안에 레메슈꼬브로 하여금 죽음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무자비한 모험을 당하게 함으로써 여섯달동안의 후방생활에서 잊어버렸던 전쟁의 가혹한 시련을 단번에 체득하게 했다고 생각하였다. 노비꼬브 자기라도 그동안이면 잊어버렸으리라. 그러자 노비꼬브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련민의 정이 불끈 솟아났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다리가 아프지 않소?》

레메슈꼬브는 기관단총을 앞에총 하여 메고 여전히 떨

리는 손가락들을 허우적거려 외투를 잡아당긴 다음 땅크 포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도시쪽을 흘끔흘끔 곁눈질해보는것이였다. 그는 이런 정황에서 다리에 무슨 고장이 생겼든 전번처럼 아무런 구실로도 되지 못하리란것을 지금은 깨닫고있었기때문에 자기가 단 하루동안에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본, 앞에 기다리고있을 그 무서운것을 향해 무작정 서두르고있었던것이다.

노비꼬브는 조용히 구령을 주었다.

《전체 자기 위치로! 쁘로혼꼬와 레메슈꼬브동무는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는 교통호를 따라 내달렸다.

《중대장동지 !… 》

주저주저하는 알레쉰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병사들을 자기앞으로 통과시키고 멈춰선 노비꼬브는 어둠속에서 왜서인지 활기를 띤 소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였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평온한체 하려했다.

《저기서는 배들이 고플겁니다. 레나와 부상병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전리품에서 남겨두었던겁니다. 물론 저 개인이 아니라 저… 우리모두의 이름으로… 전해주십시오. … 》그는 주머니에 오래 넣어두어서 찌그러지고 따끈따끈한 쵸콜레트 세개를 노비꼬브에게 내놓으며《몸성히 갔다오십시오.》하고 단숨에 말해치우고는 참호벽에 기대여 입을 다물었다.

《난 아무것도 보낼게 없는데. 동문 참 좋은 동무구만. 위쨔, 여기 일을 맡아주게. 나를 대신해서… 》

(나는 레나에게 보내는 저 동무의 쵸콜레트를 두 차례나 전하고있구나.) 노비꼬브는 전호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그 두 사람사이에는 자기가 이전까지 감촉하지 못했던 숨은 관계가 있으리란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이였다. (십중팔구 그렇게 됐을테지. 허지만 어째서 내가 그것을 몰랐을가. 전쟁에서는 일개인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일가.)

그들은 한사람씩 따로 떨어져서 고지경사면을 타고 호수가로 내려갔다.

노비끄브는 검은 띠처럼 늘어선 나무숲앞에 이르렀을 때 대원들을 멈춰세웠다.

《체스끄슬로벤스끄동무들한테 갔다올테니 여기서 기다리오.》하고 그는 소곤소곤 말하고나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여기로 내려올 때 그들의 귀전에 마른풀 설레는 소리, 군화코숭이에 채운 조약돌소리, 옷스치는 소리가 별스레 크게 들려왔었다. 지금 쁘로혼끄와 레메슈끄브는 쭈그리고앉아 기관단총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툭툭 뛰는 소리를 엿듣고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호수와 고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호수는 맞은쪽 강안에 이르기까지 온통 보라빛 반사광을 뿜고있었다. 그리고 등뒤의 고지는 피빛노을을 배경으로 둥실한 검은 그림자로 보였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보였던지 화점흉장우의 풀대마저 보일 정도였다.

도시의 폭격소리는 여기까지 웅글게 들려왔다.

오른쪽 보병참호에서 탄환이 날아가는 소리가 귀가 메일듯 들려오고 신호탄들이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날아올랐다. 공중에 걸린 신호탄은 파아란 불빛으로 만물을 환히 비쳤다. 몸을 옹송그린 레메슈끄브는 후들후들 떨리는 몸을 겨우 가늠하고 이를 떡떡 마주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속살거렸다.

《이봐, 저기… 저 옆… 나무뒤에… 죽은 꼴로꼴치끄브가, 그 통신병말이네… 누워있어. 난 그 사람과 마주쳤댔네. … 》

《자넨 왜 그리 이를 떡떡 마주치나? 무서워서 그러나?》 쁘로혼끄가 레메슈끄브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뭘하러 거긴 갔댔나? 뒤를 보자구? 입을 닥치게! 누가 오네.》

쁘로혼꼬의 동공에서는 독을 발산하며 불꽃이 튕기였다. 레메슈꼬브는 더는 말을 꺼낼 엄두를 못냈다. 그는 목을 쭉 빼들고 고지경사면을 둘러보면서 두리번거리고있었다. 저쪽에서 들릴듯말듯 풀잎 밟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다가오고있었다. 더는 참아낼수 없게 된 레메슈꼬브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불렀다.

《중대장동진가요?》 그는 아무 대답이 없자 속살거렸다. 《저것 보지. 통신병과 마주쳤구만. 죽은 그 사람과… 》

《쉬! 상관없는 일엔 참견말고 입을 닥치라구.》 쁘로혼꼬는 레메슈꼬브의 떨리는 무릎을 쿡 찌르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노비꼬브중대장이 체스꼬슬로벤스꼬병사들의 교통호에 들어섰을 때 어둠속에서 웬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게 누구요?》

까르빠트산정우에 달이 떠올라 참호남쪽켠에 비낀 그림자속에 병사들이 기관총옆에서 직일을 서고있는것이 보였다.

그들은 탄약상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는데 담배를 빨 때마다 기계적으로 전호바닥에 허리를 굽히군했다. 발밑에서 빈 탄피무지가 빛을 뿌리였다. 노비꼬브를 본 한 병사가 뛰쳐일어나 오랜 친구를 만난듯 환히 웃으며 권연을 들고있던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러자 두번째 기관총수도 뒤따라 뛰쳐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반시간전에 여기에 왔었던 노비꼬브를 알아보았던것이다. 호기심이 동한 두사람은 노비꼬브를 반겨맞으며 독특한 억양으로 말했다.

《대위동지… 오, 루쓰끼…좋아, 리해되는가요?》

《리해되오.》노비꼬브의 대답이였다. 《대대장이 있소?》
《예, 예, 대위동지, 대위동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
그들은 노비꼬브를 토굴까지 안내해가서 친절히 문을 열어주었다. 노비꼬브는 토굴로 들어갔다.
키가 크고 몸매가 곧은 대대장이 어깨에 군복저고리를 걸치고 책상에 마주 앉아있었다. 그는 《박쥐등잔》에 비쳐진 지도를 들여다보며 뾰족이 깎은 연필로 거기에 표식을 해나가고있었다. 다른 두명의 군관은 외투로 다리를 감싸고 침상에서 자고있었다. 컴컴하여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군모와 야전가방, 손전지와 새 혁띠들이 빈 탄약상자에 놓여있었다.
《아, 대위동지요?》대대장은 입속말로 말하고나서 군사규정대로 웃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면서 일어섰다. 《이웃의 대위동지시군요. 로어로 이웃이란 말이 〈쏘쎄드〉가 옳지요?》
그는 노비꼬브의 손을 꽉 잡고 두차례나 힘껏 흔든 다음 아래로 잡아당겼다. 앉으라는 동작이였다. 대대장의 얼굴은 젊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수도 없는 나이를 가늠키 어려운 얼굴이였다.
반반히 면도한 볼에 얼기설기 주름살이 지고 훤칠한 이마도 반반하지는 못했지만 벌거우리했다. 눈섭밑에서는 갈색눈이 생기를 뿜었다. 그는 억지로 노비꼬브를 상자에 앉힌 다음 아까와 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있는 동료들을 깨우지 않으려는듯싶었다.
《담배를 피우시지요! 전 저… 포에 살아남은 사람이 … 있는가를 몹시 알고싶었습니다. 그들과 련계가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비꼬브는 담배를 붙여물고 대답했다.
《전 우리가 중간지대로 나간다는것을 다시한번 알려드

립니다. 포진지로 갑니다. 거기에 한시간가량 있겠습니다. 지도를 좀 볼수 있습니까?》

《예, 예, 어서 보십시오.》 체스꼬사람은 지도를 밀어놓았다.

《우리는 바로 여기로 갑니다. 부상병들을 데리려고. 당신들은 이 위치를 아시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사격을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지뢰원에 조명탄을 비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요. 잘 알았습니다.》 체스꼬사람은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부상병들이 많습니까? 제가 우리 병사들을 보내주겠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노비꼬브는 지도상에 표시된 까르바트산줄기와 호수, 우불구불 지나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국경선과 그리고 그뒤의 골짜기에 검은 선으로 표시된 리브늬― 까쓰노대도로, 빨간 연필로 굵은 줄을 그은 마리쩨시와 그옆에 동쪽으로부터의 진격을 기다리며 빨찌산들이 폭동을 일으킨 동그라미안의 다른 도시들을 굽어보았다.

그의 시선을 뒤따르던 체스꼬사람은 지도의 구김살들을 편다음 새끼손가락으로 골짜기로부터 리브늬―까스노―마리쩨대도로를 가리켰다.

《마리쩨, 큰 전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대위, 슬로벤스꼬의 빨찌산들이 로씨야병사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힘껏 싸웁시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마리쩨브로 뚫고들어가지 못할것입니다.》 노비꼬브는 지도를 밀어놓으며 장담했다. 《우리함께 마리쩨빨찌산들한테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롱을 했다. 《엎드리면 코닿을곳인걸요. 자,

다시 만납시다.》
재털이를 대용하는 통졸임통에 담배불을 비벼끈 그는 작별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성공을 바랍니다.》 체스꼬사람이 말했다.
《살피고있다가 우리가 도우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격도 하지 말고 조명탄도 올리지 말고 한시간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대장은 그를 참호끝까지 배웅해주었다.
체스꼬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노비꼬브는 참호에서 스무메터쯤 떨어진 곳에서 시체와 맞다들게 되였다.
불의에 죽음을 당한듯한 웬 사람이 불편한 자세로 모로 누워있었다. 군복저고리 팔소매에서 삐여져나온 파리하고 새하얀 손은 고지쪽을 향해있었고 머리는 피곤한듯 잠에 든 새마냥 천진스레 자기 팔에 놓여있었다. 해빛에 색이 바랜 여름군모가 반짝이는 밤이슬에 젖어 거기에 나딩굴고있었다. 죽은 사람의 두다리는 마치 그가 체험했을 죽음의 랭기를 막고 마지막체온을 보존하기나 하려는듯 배 있는쪽으로 가드라뜨려있었다.
노비꼬브는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파리한 손과 자세(밤에 별장에서 그가 잠들었을 때에도 그는 머리를 그렇게 다가붙이고 잤었다.)를 보고 그가 자기네 통신병임을 알아차렸다.
노비꼬브는 꼴로꼴치꼬브를 얼굴이 우로 오게 돌려눕히고 이윽토록 들여다보았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백묵처럼 희디흰 그의 얼굴은 아이들처럼 놀란 표정이였다.
가느다랗고 연약한 목에 매여달린 머리는 뒤로 젖혀있었고 지내 파래서 언제나 노비꼬브를 놀라게 하던 반쯤 잠긴 그 파란눈에는 어둑시근한 퍼런 달빛이 차겁게 얼어붙

어있었다.

노비꼬브는 몸을 수그리고 이슬에 척척해진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며 끈으로 꽁꽁 동인 해진 쌈지를 꺼냈다. 쌈지속에는 증명서들이 들어있었다. 노비꼬브는 죽은 사람에게서 두개의 《용감성》훈장과 지난해에 수여받은 메달들도 떼여냈다.

그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겐 중대장동지, 어머니는 안계시고… 누이 한분이 계시는데 주소는 여기 주머니속에 있습니다.)고 하던 꼴로꼴치꼬브의 말이 생각키웠다. 그러자 그는 만일 자기가 그때 꼴로꼴치꼬브를 파견하지 않았더라면 (전투정황으로 보아 부득불 파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죽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뜰 놀랐다. 준엄한 전투환경에서 그는 몇차례나 병사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보냈던가.

그는 보낸 사람들이 죽었다는것을 알고 몇밤을 지새우며 혼자서 속을 태우고 울었던가.

그는 레메슈꼬브가 자기를 부르는 속삭임소리를 들었다. 머리를 쳐들어 빨간 화광의 한복판에 그려진 반원의 고지와 까딱않고 앉아있는 병사들의 형체를 보게 되자 제꺽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는 침울한 기색으로 병사들에게로 다가가며 명령했다.

《앞으롯!》

쁘로혼꼬는 기관단총을 가슴앞으로 가져오며 선참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뒤로 앙바틈한 레메슈꼬브가 노비꼬브의 눈치를 살피면서 허겁지겁 따라나섰다. 노비꼬브는 레메슈꼬브가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보병들한테로 간 중대장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 자기네들이 미지의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줄곧 바라고있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그래, 아직 휴가갔던 기분에서 헤여나지 못했소, 레메

슈끄브?》
《진짜죽음에 익숙해질수 있을가요, 중대장동지?》 하고 레메슈끄브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걸 모르기야 합니까. 허지만 거기에 익숙되질 않는군요.》
《오브친니끄브동무에게도 그것이 부족했소.》 노비끄브가 말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를 따르시오!》
《쉬, 풋강아지같은게!》 쁘로혼끄가 악에 받쳐 레메슈끄브의 허리띠를 힘껏 잡아당겼다. 《죽음이 그다지도 무서워 ! 자기 할 일이나 생각해!》
그들이 숲속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어둠이 대번에 그들을 삼켜버렸다. 연기를 뿜는듯한 달빛은 시들은 나무잎사귀들을 퍼렇게 물들이였다. 소리없는 달의 움직임과 퍼렇게 물든 나무잎사귀들이 참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독감을 불러일으켰다. 보병참호들우에는 조명탄이 더는 날아오르지 않고 비밀을 품고있는듯한 정적이 고지앞을 맴돌고 있었다. 멀리 시내쪽에서 솟아오른 조명탄들만이 여기로 헤염쳐왔다.
노비끄브는 차겁고 미끈거리는 나무가지들을 헤치며 앞에서 걸었다. 그의 머리우에서 잎사귀들이 설레이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끊어지군했다. 이따금 나무가지에서 이슬이 떨어져 얼굴에 튕겨나고 눈에 뛰여들어 앞을 가려볼수 없게 하였다. 외투팔소매가 젖어들고 총신이 나무가지들에 걸려들군했다.
노비끄브는 이곳의 지뢰들이 철저히 해제됐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아군과 적군의 지뢰밭이 나무숲뒤로부터 시작될것이라는것만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척척한 풀밭을 가로질러 곧추 걸어갔다. 그는 지나치게 조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군했다.

그러나 사람이 땅우를 걸어다니지 않을수 없는 리유때문에 지뢰폭발로 인한 우연한 죽음을 당하게 됨은 굴욕적이고 무맥하며 어리석은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리하여 발밑에서 이제나저제나 지뢰가 폭발할수 있다는 조바심은 혐오감을 자아냈다.

(도이췰란드지뢰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가?) 그는 생각했다.

이 중간지대에서는 나무숲이 몸을 가리워주어 그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갔다. 차겁고 어스름한 밤과 쇠붙이마냥 반짝거리는 풀대와 나무잎사귀들에 맺힌 이슬을 긴장하게 살펴보며 노비꼬브는 자기의 두다리와 온몸이 긴장해옴을 느꼈다. 그것은 누가 먼저 사격하는가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는 최후의 순간에 기관단총을 내두르려는 익숙된 긴장이였다. 그는 걸음을 다그치면서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았다. 시계유리에 비낀 달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도이췰란드측의 공격이 이 밤중으로 즉 2시간이나 한시간 아니면 30분 지나서 반드시 다시 있을것이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기전에 포진지에 가닿아야 한다는 생각이 줄곧 그를 괴롭혔다.

《뒤떨어지지 말고 따라올것!》하고 노비꼬브는 소곤소곤 말하였다. 《정확히 나의 뒤를 따라 걸을것, 한메터도 옆으로 삐여지지 말것!》

그가 구령을 내리고 멈춰서서 나무가지를 조심히 잡아 뒤로 젖히자 뒤사람들에게 이슬떨어지는 소리가 당장에 들려왔다. 정적속에서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노비꼬브와 마주칠번하며 멈추어선 쁘로혼꼬는 대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머리를 수긋하고 걸어오는 레메슈꼬브쪽을 성이 나서 돌아보았다.

《서라구 !》하고 그는 이새로 투덜댔다.

그러자 레메슈꼬브는 하얗게 질린 파아란 얼굴을 부르르 떨면서 굳어진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엇인가 물으려고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으나 묻지 않고 침을 꿀꺽 삼키였다.

노비꼬브와 쁘로혼꼬는 그앞에 서있었다.

레메슈꼬브는 교교한 달빛아래 개구리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호수 왼쪽켠의 황량한 공지에서 숲이 끝나고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있을 둔덕밑까지 밋밋한 공지가 펼쳐졌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아침까지만 해도 도이췰란드놈들이 있다가 얼마전에 철수한곳이였다.

레메슈꼬브는 공포심에 몸을 떨며 나무들사이로 움직여가는 노비꼬브와 쁘로혼꼬의 잔등을 기대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무가지사이로 파아랗게 비친 공지를 말없이 내다보고있었다.

레메슈꼬브는 이가 덜덜 떨리는것을 가까스로 참고있었다. 《앞으롯!》 하고 당장 날카로운 구령을 내릴것이라는것을 생각만해도 명치끝이 찌르르해왔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당장에 《돌격 앞으로 !》구령이 내리면 귀를 메일듯한 경기의 련발사격소리가 마주 울려오고 총알들이 점선을 그으며 날아들것이다. 놈들이 여기에 있었다. 놈들은 바로 여기에서 땅크로 사방을 포위했으며 그자신이 오브친니꼬브와 퇴각하면서 놈들을 직접 보았었다.

(주여, 나를 보살펴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살펴주옵소서. 난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살펴주옵소서.) 레메슈꼬브는 자기가 신을 믿은적은 결코 없지만 인간의 생명, 자기 생명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누구에겐가 열렬히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싶었다. (그대 신령이 있거들랑 모진 나의 운명을 보살펴주

십사. 소인은 죽고싶지 않나이다. 아직은 이르나이다. 비록 꼴로꼴치꼬브는 죽였지만 나를 구원해주옵소서.)

《조용하시오!》 노비꼬브가 겨우 가려들을수 있는 소리로 명령했다. 《왜 그러오, 레메슈꼬브동무? 조용하시오! 준비하오. 돌진해나갑시다!》

한편 레메슈꼬브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채 털썩 땅에 주저앉아 나무가지를 붙들었다. 다리가 매시시해왔다.

그러나 이 순간 노비꼬브나 쁘로혼꼬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무가지를 잡아젖히고 무엇인가 살피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둔덕쪽으로 뻗어간 스산하고 황량한 공간을 처량히 비치고있었다. 그곳은 이슬을 머금은듯 반짝거렸다. 그리고 공지 왼쪽에 자리잡은 호수의 수면을 따라 뻗어간 분지에서는 어렴풋하게 무슨 금속성의 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오다가 사라지군했다. 오른쪽의 앙상하게 불타버린 땅크들의 한가운데서 이름모를 새 한마리가 쉽없이 구성진 소리로 울어대고 그 오른쪽 지뢰밭에서 다른 새가 구성진 소리로 이에 화답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요? 들리오? 새들이요. 어째서 이런데 새가 있을가?》 노비꼬브는 빛을 반사하는 지뢰원에서 긴장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속삭였다. 그는 금속성의 울림비슷한 그 소리가 어디서 울려오는지 알수 없었고 두루미의 울음소리 비슷한 새의 울음소리가 무엇때문에 어디서 울려오는지 알수 없었다.

《주의하십시오.》 쁘로혼꼬가 중대장의 팔굽을 집게마냥 꽉 틀어잡고 담배내를 입에서 확 풍기면서 속삭였다. 《보입니까? 저기 두 사람이 가는게 환영일가요? 아니지요?》

두사람의 시커먼 그림자가 나무숲에서 마흔메터쯤 되는 분지를 따라 소리없이 지나갔다. 그중 한사람은 무엇인가

들고있었다. 두사람은 허리를 굽히더니 사라져버렸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던 노비꼬브는 이어서 또 세사람을 보았다. 사실은 처음에 나무숲 오른쪽에서 무엇이라 가늠하기 어려운 쟁그렁소리를 포착하였을 때 어둑시근한 분지에서 세 사람이 불쑥 나타나 무엇인가 기다리며 서있었다. 바닥에 누워있은듯 땅에서 불끈 솟아난 또 한사람이 그들과 합세한듯이 보였다. 그 사람은 순간 달빛을 마주하고 일어섰는데 키가 크고 철갑모도 쓰지 않은, 머리가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였다. 앞가슴엔 자동총이 건들거리였다.

노비꼬브는 그자를 잘 가려보았는데 땅에 납작 달라붙더니 땅속에 잦아든듯 사라지고말았다.

(지뢰를 해제하는가? 저건 도이췰란드공병들일게다.) 노비꼬브는 자기가 빗보지 않았으며 또 빗볼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음, 그래서 놈들이 공격을 중지했드랬군!)

《어떻게 할가요?》 또다시 입에서 담배내를 풍기면서 쁘로혼꼬가 속삭였다. 《중대장동지, 저놈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가요. 네? 뚫고나갈가요?》

노비꼬브는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전방분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했다.

《기다릴수는 없소. 포진지를 뚫고나갑시다. 총탄을 앞질러 한달음에 달려나갑시다. 뚫고나갑시다!》

그는 어깨에서 기관단총을 벗겨 련발장치를 한 다음 살며시 격발기상태를 검사했다.

그는 레메슈꼬브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레메슈꼬브는 땅에서 후닥닥 뛰쳐일어나며 외투깃과 귀에 총끈을 걸채이며 기관단총을 벗겨들고 솜같이 노그라드는 다리를 놀려 노비꼬브앞에 섰다.

(전쟁도 다 끝나가는데 팔자두 참 어쩌면 이리두 기구할가.) 레메슈꼬브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났다.

대기를 찢어발기는듯하는 총성이 뢰성처럼 고요를 깨뜨리고 찬연한 불빛이 레메슈꼬브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몸을 옹송그리고 푸른색유리를 통해 보듯이 자기앞에서 움직이는 노비꼬브를 겨우 알아보았다. 중대장은 기관단총을 휘둘러 련발사격의 불줄기를 내뿜으며 분지를 향하여 껑충껑충 뛰여갔다. 그와 몇메터 떨어져서는 다리도 팔도 없는 쁘로혼꼬의 잔등이 땅우를 날듯 시뻘건 불줄기를 토하며 내닫고있었다. 잔등이 한찰나 레메슈꼬브에게 돌아섰는데 입을 벌리고 뭐라고 소리치는것이 보였다. 뒤이어 경기관총 불줄기가 그의 곁을 가로 지나가고 불의적인 긴 련발사격이 회오리바람처럼 노비꼬브의 어깨를 스쳐지나갔다.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총탄이 울부짖었다. 모든것이 미칠듯이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마구 휘돌고 흔들리였다. 레메슈꼬브는 그제서야 자기가 나무숲이 아니라 아래쪽 분지를 향해 달리고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둥글면서 폭신한 물체에 발이 걸채였다. 무엇인가 뾰족하고 번쩍거리는 것이 갑자기 그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얼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꺽꺽 찌르는 풀포기를 손더듬해보고서야 자기가 이 폭신한 풀포기에 발이 걸채여 넘어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옆에서 씨근덕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어둠속에서 희멀끔하고 둥그런 얼굴이 다가오면서 시커먼 동공이 확대되고 탐욕스레 공기를 들이키는 입이 불쑥 나타났다.

그 얼굴은 가까이 다가들며 땀배인 두손으로 그의 턱을 어루만지고 레메슈꼬브의 숨통을 누르려고 손톱으로 피부를 허비였다. 레메슈꼬브는 몸을 뒤로 젖히며 돼지멱따는 소리를 질렀다.

《아-아, 더러운 자식!》살아야겠다는 충격이 그에게 힘을 주어 그는 순식간에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총, 총

을 빨리!》그는 서둘러 방아쇠를 찾아 놀란 토끼소리를 지르며 물러가는 얼굴을 향해 한탄창의 탄환을 다 쏘아버렸다.

(난 그놈을 죽였어.) 그의 의식속에 이런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개자식, 내 목에 달라붙다니… 너절한 자식! 목엘 달라붙어…)

레메슈끄브는 자기를 죽이려 했으며 자기 생명을 서푼짜리로밖에 여기지 않은 그놈에 대한 증오심에 온몸이 타올랐다. 그는 분노에 떨며 자신을 보호할 태세로 사격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그는 노비끄브를 찾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중대장동지가 어디 계실가?)

혼잡한 사격의 불줄기들이 휘파람소리를 내다가 인젠 분지 맞은쪽 경사지에서 찾지 못하게 되자 총을 앞가슴에 꽉 틀어쥐고 그쪽 경사면을 향해 마구 달리였다.

그는 앞에서 톱날같은 불길이 벙끗거리며 튀여나는것을 보았다. 그 불꽃은 껌뻑거리며 점선이 되여 경사지로 날아갔다. 열에 들뜬 레메슈끄브는 방금전에 자기 목을 누르려던 손과 이그러진 상판대기를 상기하고 땀을 쭉 뽑으며 련발사격을 들이댔다. 온몸으로 쾌락을 느끼며 방아쇠를 눌러대던 그는 풀포기에 들이박히던 사격이 뚝 끊어지던 순간을 상기했다.

(개자식, 그래 내 숨통을 눌러죽이겠어? 숨통을… 흥!)

그의 발길은 자연히 불줄기들이 마구 엇갈리며 뒤번져지는 경사지쪽으로 가게 되였다. 탄도의 불줄기들은 서로 맞부딪치여 우로 말려올라갔다. 그런 불의 혼잡속에서 기관단총의 울부짖음을 뚫고 귀에 익은 웨침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인차 대답을 할수 없었으며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가려낼수도 없었다.

《레메슈끄브! 서시오! 나한테로 오시오!》
(이건 노비끄브중대장이다. 그의 목소리다. 그가 소리친다. 내가 왜 입을 다물고있을가? 중대장이 부상당하지 않았을가.)
그는 가만히 소리내여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총알이 벙끗거리는 불빛에 비쳐진 이상하게 껑충한 중대장의 형체를 보았다. 중대장은 왜서인지 경사지로 올리닫지 않고 술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분지로 내려오고있었다. 뻘겋게 단 총신과 모자가 없어진 중대장의 머리가 선명하게 눈앞에 안겨왔다. 불줄기는 연송 그의 머리우로 날아갔다. 분지로 내려올수록 그의 키는 줄어들었다.
《레메슈끄브요? 빨리!》 노비끄브는 기쁨 절반 물음 절반 섞인 목소리로 웨쳤다. 《내 뒤를 따르시오! 레메슈끄브!》
이렇게 웨친 그는 한순간 멈춰서서 작열된 총을 번개처럼 들어올려 달려오는 레메슈끄브를 화력으로 엄호했다. 오른쪽 어딘가를 사격하며 또다시 날카롭게 물었다.
《부상을 입었소?》
《아니요.》 레메슈끄브는 웅얼웅얼 대답했다.
《앞으로! 쁘로혼끄를 향해 우로! 앞으로!》
(중대장동지가 나를 데리러 돌아왔었구나. 나를 데리러…) 레메슈끄브의 뇌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노비끄브가 자동총으로 불을 뿜어대며 또 한차례 누벼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대장을 향해 엎어질듯 마주 달려갔다. 숨이 막혀왔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웨쳤다.
《중대장동지… 가십시오.… 전 여기서, 중대장동지를 엄호하겠습니다.… 가십시오.…》
독을 뿜는 탄도의 불줄기들은 서로 뒤쫓고 새된 소리를

지르며 노비꼬브의 머리우로 날아가고있었다.
《앞으롯!》
《중대장동지!》
《앞으롯!》 노비꼬브는 소리치며 엄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레메슈꼬브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물을 삼키면서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따라 올리달렸다.

제 11 장

골짜기와 산림으로부터 알레쉰의 포진지가 있는 고지까지 넓은 공간에 깃들어있는 숨막힐듯한 불안의 정적은 오브친니꼬브의 포진지를 죽음의 지역마냥 에워싸고있었다. 그 진지는 이미 진지라고 할것이 못되였다. 거기서는 사람의 목소리하나 들려오지 않았고 외투자락으로 가리우고 켜는 라이타의 불길조차 볼수 없었으며 교통호에 울리는 발자국소리도 안들리고 보초교대도 하지 않았다. 엄페부앞의 쉰메터쯤 되는곳에는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면 즐겨 화답하고 라이타를 잘칵거렸으며 산사람의 숨결과 지독한 담배내와 군복냄새를 풍기면서 교통호를 걸어다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기에 누워있었다.
그들은 땅크의 첫 타격을 받고 전사했었다.
그러나 엄페부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땀내와 상처냄새가 푹 배인 훈훈한 공기속에서 도이췰란드제등잔불은 고요히 타오르면서 토굴안을 희미하게 비쳐주었다.
밤은 소리없이 포진지를 향해 기여들고있었다. 엄페부

에서는 모두가 귀를 도사리고 포탄이 날아와 터져 등잔불이 떨릴 때를 기다리며 거기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이 심지의 떨림이 그들이 서로 볼수 있는 마지막기회임을 알고 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은 엄페부우의 한 인간밖에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엄페부에서 네발자국 되는 곳에 정찰조장 고르바쵸브가 기관총직일을 서고있었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라이타를 잘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침을 퉤 뱉으며 욕지거리를 했다. 《뒈질것들, 무슨 생각을 해냈담. 모두 어디로들 사라졌어?》아니면 쩝쩝 소리를 내며 건빵을 씹다가 악의없이《에이 사기군같은것들, 이것도 담배라고 만들었어!》하고 소리쳤다. 또 어떤 때는 구두뒤축을 떡떡 마주치면서 중얼중얼 길고 소리없는 노래를 불러 레나에게 공허감과 최후의 운명을 통감하게 했다.

그대 험한 벼랑엘랑
서있지 마오, 서있지 말아다오
무뢰한같은이여
나의 님이여, 그대는 바보
나를 입맞추지 말아다오
에이, 라라라라 에이 라라라

고르바쵸브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노래마저 그치고 담배도 집어치우고 침을 뱉아가며 욕지거리하던것도 그칠라치면 교통호안에는 괴로운 공허가 깃들고 그것이 포진지와 엄페부까지 무섭게 뒤덮는것이였다. 이렇게 조용해졌을 때는 허벅다리를 부상당한 통신병 구쎄브가 신음소리를 그치고 머리를 돌려 헛소리를 치며 흐느끼는 랴갈로브를 놀랍게 쳐다보군했다.

《레나, 왜 이리 조용하오?》

가슴에서 배있는데까지 온통 붕대를 감고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해쓱해진 싸뽀르낀상사는 두손을 짚고 몸을 일으켜 등잔불심지에서부터 포탄상자에 앉아있는 레나에게 눈길을 돌렸다가 우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잠들었나? 노래를 부르던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잠이라도 들면 우릴 닭잡듯 끌어갈테니… 에그, 젊은이가 가엾구만.》

그는 구쎄브쪽을 향하여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사동지, 근심말고 누워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레나는 조용히 타일러 그를 안심시켰다. 《일이 다 잘될거예요.》

그렇지만 레나는 자기가 한 말대로 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포탄예비가 떨어지고 포위되였으니 자기나 고르바쵸브가 여기를 오래 지탱해내지 못하리란것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엄페부에 깃든 이러한 고요는 왜서인지 불쑥 흉장에 나타날 도이췰란드놈들과 자꾸만 련결시켜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고르바쵸브도 총을 쏘거나 소리칠수 없을게 아닌가.

권총집에서 뽑아놓은 조그마한 권총이 책상우에 놓인채 광채를 뿜고있었다. 오브친니꼬브중위가 우정 남겨놓았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갔는지 모를 일이였다. 오브친니꼬브중위가 일으킨 일이라든가 그가 떠나간 뒤에 벌어졌던 일들은 오래전 일처럼 희미해졌다. 이 모든걸 되새길 힘도 없었다. 귀속이 멍멍하도록 련속 울려오는 포탄터지는 소리와 매캐한 화약냄새, 땀냄새, 피냄새, 젖은 붕대냄새뿐이였다. 참기 어려운 갈증과 고요한 정적은 뭔가 알수 없는 고통스러운 불안을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겸질기게 파고들게 했다.

《레나, 물 한모금만 주오. 목구멍이 막 타드는것 갈

구만.》
레나는 일어나서 누워있는 사람의 옆으로 다가갔다.
랴갈로브는 이미 흐느끼지도 헛소리도 치지 않았다.
그는 동통이 와서 허연 눈을 멍하니 뜨고있었다. 잘 생기지 못한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래졌고 벌써 죽음이 깃들기 시작한 입술은 시커멓게 색이 변하여 유표하게 두드러져보였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물을 좀 주오. 레나… 찬물을…》 그리고는 죄송스러운 표정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아니면 감주를… 얼음을 두었던 감주말이요.》
《조금만 참으세요. … 마시면 안돼요. 안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몇분만, 몇분만요. 곧 위생중대에로 가게 돼요. 거기엔 의사도 있구 모든게 다 있어요.》 레나는 화약내가 나는 구겨진 외투를 고쳐 베여주면서 곱씹어 말했다.
《물을 마시면 안돼요.》
랴갈로브는 수그린 레나의 얼굴에 애원의 눈길을 박은채 입술을 감빨았다. 그는 자신을 극복해내려는듯 레나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뒤에서 들려온듯한 자기만이 들을수 있는 다른 목소리, 레나의 등뒤에서 일어났을듯싶은 그 무엇인가에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있었다. 그는 외투를 베개삼아 벤 머리를 시키는대로 공손하게 옮겨놓더니 천정을 올려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냈다.
《난 위생중대에 갈 때까지 견디여내지 못할것 같애…》
《죽지 않아요. 의사들이 수술을 해줄거예요. 꼭 해줘요. 그때까지 견디여내야 해요. 견디여내야…》
레나는 왜서인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낼 기대를 안고 입버릇처럼 말해주군하는 그 위안의 거짓말을 속살거리였다. 그는 이 거짓말이 운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통으로 되리라고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번 그렇게 말했었다. 그렇다고 레나는 결코 다르

게 말해줄수 없었던것이다.

랴갈로브는 파편에 복부를 중상당했었다. 레나는 그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무서운 상처를 보고 붕대도 필요없고 위생중대나 훌륭한 병원도 그를 도울수 없음을 알고있었다. 랴갈로브는 자기 상처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모름지기 어쩔 도리가 없는 치명적인 상처라는것을 레나나 그리고 아직 크게 기대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강하게 느끼고있을것이였다. 그에게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

레나도 그것을 알고있었다.

랴갈로브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도 않았고 레나나 그 주위사람들이 알수도 느낄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레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시울이 애원하듯 슬프게 바르르 떨렸을뿐이였다.

《레나, 물 좀… 찬물을 주오. 서둘러 주오. 난 얼마가지 못할것 같소.》

《좋아요.》 레나는 입속말로 대답했다. 《좋아요.》

레나는 그의 끈적거리는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인차 떼고나서 랴갈로브와 등을 지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눈을 감고 포탄상자옆에 서있었다. 그는 랴갈로브가 참을성있게 기다리고있다는 감촉을 받고서야 주저하며 주머니에서 차숟가락을 꺼내들었다. 레나는 이것이 랴갈로브를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마지막일임을 알았다.

(전쟁마당에 녀인들이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몇백번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여있다고 했던것이 저 아바이였지.) 왜서인지 레나는 물병마개를 뽑으면서 생각했다. (어느날 밤인가 저 아바이가 이야기했어.)

《천천히 넘기세요.… 움직이지 말고 삼키세요.》 레나는 랴갈로브의 머리맡에 앉으며 상냥하게 말하고 차숟가락에 물을 부었다. 《인젠 목이 타들어오지 않을거예요. 갈증

이 없어질거예요.… 없어질거예요.…》
랴갈로브는 아이처럼 숟가락에 매여달려 흐느끼며 물을 넘기였다.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돋은 이마를 조용히 들여다보던 레나는 이 물이 한모금한모금 그에게 죽음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복부에 부상을 당했을 때의 갈증은 무서운것이며 그런 환자인 경우 물생각에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힘겹게 운명한다는 것을 아는 레나는 또 한숟가락을 따랐다.
네숟가락을 떠넣어준 레나는 옆에 앉아 그의 축축한 이마를 손으로 짚어 식혀주었다. 레나는 자기 손이 뜨거워나고 떨리는것을 감촉하고 손을 내리웠다. 랴갈로브는 희미한 사색의 그림자가 자기 얼굴을 헤매이는듯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냈다.
《난 알고있었소.》하고 그는 속삭였다.
《뭣을요?》 레나는 되물었다. 《뭣을요?》
《내가 알고있었던것 같소.》그는 피기없는 손을 맥없이 얹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여기에… 심장속에 있었소.…》
《무엇이 있었단말이예요? 무엇이?》
《꿈을 꾸었어… 어제…》그는 눈물이 글썽한 눈을 뜨고 말했다. 《난 집에 갔댔소.…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들은 나를 빙 둘러섰는데 안해는 외면하지 않겠소.… 포옹하려 하지도 않고… 내가 몹시 사랑해주었는데도말이요. 안해는 곱게 생기기는 했지만 신체가 불구여서 나한테 시집왔댔소… 나한테는 아이들이 넷이요. 그 아이들을 다 어찌겠소, 응? 내가 죽는게 그래 내… 죄란말이요? 나의 죄일가?…》
랴갈로브는 소리없이 흐느끼며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그러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흐느낌소리를 그치고 담벽쪽으로 돌아눕더니 눈물을 삼키고 울음을 뚝 그

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다.

《이건 내가 그저 그래본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난 쁘로혼꼬를 만나봐야 하겠소.… 난 그 사람을 사랑했고… 또 존경하오.…》

레나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뾜스까백작부인을 빗대고 놀려주었는데두.》 싸뽀르낀이 신음소리를 내다가 한 말이였다.

팔굽을 짚고 엎드려 랴갈로브의 말을 귀담아 듣고있던 싸뽀르낀의 회색눈에 등잔불빛이 비쳐들었다. 참고참다가 터져나온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붕대를 감은 몸으로 짚우에 편히 누으며 위안의 말을 던졌다.

《쁘로혼꼬도 역시 동무를 사랑했네, 랴갈로브… 그 사람은 그저 입살이 세게 흠이였지.… 참 선량한 사람이야.》 그는 시무룩이 구쎄브쪽을 곁눈질해보다가 《구쎄브동무가 뭐라고 말하는것 같구만. 그 동무가 어딘가 불편해서 그러지 않소, 레나? 뭐라고 젊은이가 중얼거리는것같애.》 하고 말했다.

구쎄브는 턱밑까지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워있었다. 어린애같이 애티가 나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쪽저쪽으로 태질을 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웅얼거렸다.

《전 통신병 구쎄브입니다. 나머지 동무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브친니꼬브중위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뿐입니다.… 포탄은 다섯발… 이불을 쏘파에 깔아주세요. 어머니… 장안에 홑이불이 있어요.… 장안에…》

레나는 물통과 숟가락을 책상우에 조심히 놓고 구쎄브의 턱에까지 덮씌운 외투깃을 젖혀준 다음 얼마동안 명상에 잠겨 구쎄브와 모든것을 헤아려볼줄 아는 조용한 로병사 싸뽀르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싸뽀르낀은 동정심과

피곤이 실린 눈길로 레나를 지켜보았다.

레나는 그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의미심장한것을 찾아내였다. 사위는 조용했다. 엄페부에는 정적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이 정적을 뚫고 입구에서 엄페부안으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레나! 나한테로 오오! 여기로!》

레나는 결단성있게 책상우의 권총을 잡고 말했다.

《절 찾아요. 여기 일을 봐주세요.》

싸뽀르낀이 일어나앉았다.

《레나동무, 우선 나에게 기관단총을 좀 쥐여주시오.》하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여기 내 손밑에 놓이게 해주오.》 등잔불빛에 찡그린 그의 얼굴이 보였다. 《난 살만큼 살았소. 전번 전쟁에서 쏘베트정권을 사수했고 이번 전쟁에도 나왔소. 아들두 름름한게 둘이나 되오.》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헛살진 않았지. 그러니 인젠…》 그는 한숨을 짓고 문쪽을 바라보았다. 정적속에서 두번째 고르바쵸브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레나, 이리로 오오!》

레나는 장난감같이 작은 권총집을 혁띠에 채우면서 권총을 만져보자 불현듯 얼마전에 오브친니꼬브가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수는 없소. 부상이나 입힐수 있소.》라고 하던 말이 생각키웠다. 레나는 재빨리 혁띠를 채우고 권총집이 불편하게 허벅다리에 스치는것을 느끼면서 싸뽀르낀과 눈길을 맞추려고 했다. (어서 이야기하세요.) 레나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싸뽀르낀은 두팔에 의지하여 힘겹게 일어나앉아 붕대가 감긴 가슴을 들먹거렸다. 그의 머리카락속에서 흰오리들이 반짝이였다.

《레나동무, 내 말을 명심하고 량심껏 받아주오. 나와 저

사람들은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구쎄브와 랴갈로브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내가 책임지겠소. 나의 병사들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저 세상에 가서 계산은 합시다.… 산채로는 넘겨주지 않겠소. 그렇게는 안되지! 저기 우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였을 땐 알리라구. 례하면 싸뽀르낀, 시작하시오라든가 저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총소리를 울리시오라든가… 자, 이젠 가보라구, 가!… 동무자신과 고르바쵸브에 대해 무관심하지 마오. 동무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할테니까. 전쟁도 이젠 끝나가고있는데 … 아이두 낳아야지…》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팔을 조금씩조금씩 굽히면서 자리에 누웠다. 험상궂은 그의 얼굴이 대번에 축축히 젖어들었다. 그는 울퉁불퉁한 앞이발들을 드러내며 갑자기 웃어보였다. 레나는 싸뽀르낀이 그렇게 웃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이런 이발도 본 일이 없었다.

《아이를 낳아야지.》그는 이렇게 곱씹어 말하고 맥없이 얼굴을 돌리였다. 《내 말을 거역하지 말라구. 제발… 가보라구!…》

레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수도 없었다. 싸뽀르낀은 정적이 깃든 최후의 이 시각 레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가 알고있었다. 정찰구분대에 있을 때부터 레나는 중간지대에서 중상을 당한 병사들이 포로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두해에 걸쳐 그렇게 익숙되였지만 싸뽀르낀이나 랴갈로브, 구쎄브는 정찰병이 아니였다. 엄폐부계단을 오르면서 레나는 자기가 간호원으로서 고통에 시달려 연약해진 싸뽀르낀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문결에서 돌아섰으나 왕청같은 말을 해버렸다.

《우리에겐 아직 포탄 다섯발이 있어요. 기관총도 있고. 저도 사격할줄 알아요.》
레나는 단호하게 무릎으로 문을 열고 달빛밝은 신선한 밖으로 나갔다.
고르바쵸브는 포 오른쪽에 방수포를 깔고 엎드려있었다. 뭔가 앞을 눈여겨보면서 경기를 마주하고 엎드려있던 그는 머리를 돌리지 않은채 속삭였다.
《레나, 여기로 오오. 어쩐지 내 다리가 뻣뻣하구만.》그는 자리를 내려고 탄창들을 밀어놓았다. 《사양하지 말고 엎드리오. …》
레나는 차겁고 축축한 방수포에 나란히 엎드려서 달빛에 비친 고르바쵸브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피곤하세요? 제가 근무를 서겠어요. 토굴에 들어가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담하게 방아쇠고리를 붙들고있는 그의 손을 다쳤다.
고르바쵸브는 몸을 움직였으나 방아쇠에 가있는 손을 걷어들이지는 않았다. 그는 레나에게 다정히 눈을 꿈쩍해보였다. 허나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파리스레하고 볼은 푹 꺼져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새까만 눈에 내리드리워있었다. 활짝 열어제낀 옷깃안으로는 힘이 넘쳐나게 생긴 쇄골이 드러나보였다. 그는 반롱담으로 이렇게 말했다.
《난 간호원들의 그런 동정이 질색이요. 레노치까, 알겠소? 내 그대와 아저씨벌이 된대도 이 손을 보고서는 목숨바쳐서라도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딜것 같소. 혹 내가 그러려니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눈엔 피에 뒤발린 땅크들만이 어른거리누만. 동문 눈이 좋소? 청각은?》
《걷어치워요.》 레나는 반롱담조의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나서 말했다.

《알겠소. 저기 앞을 좀 보오.》하고 고르바쵸브는 속삭였다. 《저기 땅크들이 있는곳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소? 가까이 와서 엎드리오. 저쪽이 보이게.》

레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의 체소한 어깨가 돌덩이처럼 움쩍도 않는 고르바쵸브의 어깨에 닿도록 가까이 엎드렸다. 조그마한 나무권총집은 허리띠에서 미끄러져내려 옆구리를 아프게 찔렀다. 검은 자기 눈으로 쏠려드는 까르바트산정우의 환한 달빛처럼 그를 불안하게 했다. 주위에는 어스름한 달빛이 파르스름히 비치고있었다. 진지주변의 벌판에는 불타버린 땅크의 쭈그러진 검은 형체들이 가득 널려있었다. 불에 탄 땅크들의 냄새가 속을 메슥메슥하게 했다. 전방 쉰메터구간에는 드문드문 나무숲이 펼쳐지고 오른쪽에 얼어붙은듯 땅크 두대가 시커먼 점으로 드러나보였다. 땅크들은 자기앞에 짙은 그림자를 비스듬히 던지고있었고 그 그림자들사이로는 달빛에 비친 풀밭이 복도처럼 길게 뻗어있었다. 그 훤한 복도를 가로 질로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것이 어렴풋이 보이였다. 땅크부근에서 호젓하게 울고있는 새소리가 들려오더니 사라졌다. 뒤이어 땅크 오른쪽의 지뢰원에서 다른 웨침소리가 띠염띠염 울려오더니 그 소리도 역시 사라졌다. 어렴풋하게 움직이던 물체가 달빛에 훤히 비친 땅크그림자사이에서 똑똑히 보였다. 검은 형체의 두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 움직였다. 풀밭에 비낀 두 그림자는 허리를 낮추고 경사지를 따라 몇메터 달려가다가 어둑시그레한 분지에 녹아들었다.

《저건 도이췰란드놈이예요.》레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볼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추슬러올렸다. 《방금전의 그 새소리는 신호예요. 전 정찰구분대에 있을 때부터 알아요. 고르바쵸브동무, 왜 보고만 계세요? 탄환이 없는가요?》

레나가 재빨리 물었다. 《저놈들이 통로를 따라 지뢰밭으로 가고있지 않아요. 통로를 찾아냈어요.… 동무는 보지 못하세요?》

고르바쵸브는 머리를 수그려 기관총 총탁판에 량미간을 대인채 고통스럽게 몇초간 침묵하고있더니 갑자기 소스라쳐 깨여나며 레나의 가냘픈 옆모습을 쏘아보았다.

(레나는 고르바쵸브의 눈길을 감촉했을뿐이다.)

《난 환각인가 생각했댔소. 머리가 막 숨박곡질을 하거든. 독사같은 놈들! 정찰을 하는걸가 지뢰를 해제하는걸가? 그렇지, 준비를 하는거겠지.》 그러더니 당장에 열을 올리면서 《정찰병들이 아니면 공병들이야!》 하고 결론을 지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될수 있어요.》 레나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기다릴것없이 사격하세요. 놈들이 통로를 통과하면 벌써 늦을거예요. 그땐 늦어요.》

《처녀가 참 령리한데, 령리해!》 고르바쵸브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놈의 전쟁만 아니였다면 덫이라도 놓아서 동무를 쟁취하여 실컷 입도 맞추고 사랑도 하련만! 동무곁에서 죽기는 무섭구만. 누가 동무를 입맞추게 될가, 나일가, 다른 사람일가?》

《걱정마세요. 누구도 못맞출테니…》

《동무대상자는 누구요, 레노치까? 알레쉰이요? 중대장이요? 도무지 모르겠다니…》

고르바쵸브는 정색해서 말하고나서 팔굽을 옮겨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는 쇄골에 총탁판을 의거한 다음 정확히 조준하고 퍼그나 오래 기다렸다. 레나가 땅크그림자들사이의 훤한 지대에서 소리없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본 찰나에 고요를 깨뜨리며 련발사격이 날아갔다. 그 소리는 요란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분지쪽으로 퍼져갔다. 기관총 불길이 바로 얼굴옆에서 부르르 떨며 튀여나갔다. 불길이

벙긋거릴 때마다 이를 앙다문 고르바쵸브의 얼굴모습이 끼끗끼끗 나타나고 이마에 드리운 검은 머리카락이 춤을 추었다. 그러더니 모든게 아까처럼 갑자기 멎어버렸다. 고르바쵸브는 땅크들사이의 훤한 지대에 눈길을 떼지 않은채 사격이 멎어 다시 정적이 깃든것을 의식못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토굴로 들어가오! 인제 놈들이 시작할게요!》그는 뜻밖에 성을 내며 말을 이었다. 《난 녀인이 옆에 있는걸 보지 못하겠소. 동무를 못보겠단말이요! 난 짐승처럼 상욕을 해대겠소. 냉큼 들어가오!》

레나는 물러가지 않고 알만하다는듯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볼에 흘러내린 밝은색 머리카락사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기관단총에 손을 뻗쳐 격발기를 우로 당기며 물었다.

《만란창되였는가요?》이러며 레나는 볼에서 머리카락을 추슬러올렸다. 《저도 총을 쏠줄 알아요.》

레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어버린 불타는 땅크들사이의 훤한 구간에 두차례 긴 련발사격을 쏘아보냈다. 그리고는 볼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다시 추슬러올렸다. 레나는 여전히 말이 없이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보일뿐이였다.

레나를 응시하던 고르바쵸브는 이상하게 눈을 쪼프리고 처녀의 동그스름한 목과 턱, 입술, 이마, 짧은 머리칼을 또다시 훑어보고나서 바투 다가들며 단언하는것이였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레노치까, 난 동무를 입맞추겠소. 그대로는 난 세상을 하직하지 않겠소!》

《머저리!》레나는 너그럽게 말했다. 《그땐 내가 동무를 입맞춰주겠어요.》

그들은 둘이 다 말이 없었다. 다만 달빛에 비친 땅크들

사이의 길만을 지켜볼뿐이였다. 도이췰란드놈들도 침묵하고있었다. 어째서 놈들이 마치 아무도 없는듯 총 한방 쏘지 않는지 모를 일이였다. 인제는 새의 울음소리가 저 멀리 밑에서 들려왔건만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잠잠했다. 이 침묵속에 무엇인가 비상하고 짐작키 어려운 비밀이 숨어있는듯 가슴은 불안하게 두근거리였다.

《들리세요?》하고 레나는 속삭였다.

알릴듯말듯 가느다란 목소리가 호수 저쪽의 등뒤에서 울려왔다. 그 소리는 투명한 구름쪼각처럼 밀려와 푸르른 밤하늘가에서 한들한들 흐느끼는듯하였다. 그 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 이루어질수 없는 희망을 속삭이고 있었다. 쌕스폰은 셀르로이드판이 진동하듯이 울려오고 손풍금과 녀자의 목소리는 미지의 아름다운 세상에 현혹되라고 어딘가 멀고먼곳에서 전기불과 번쩍거리는 거울과 산데리야, 식당들과 고급포도주,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녀자의 향수냄새, 깨끗한 내의와 쾌락이 있다고 렴치없이 설교하고있었다. 《병사여, 이겨내라. 불편과 불결한 내의를, 피를 헤치고 나가라. 그러면 그대에게 이 모든것이 차례지리라.》

《자기를 위안하고있군요.》레나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그러겠지. 심리전을 하고있소.》고르바쵸브는 이렇게 대꾸하고나서 총탁에 대고 량미간을 긁었다. 《소리판이 돌아가고있소. 어제밤처럼말이요. 저건 쟈즈야. 에이, 이전처럼 나더러 배를 몰라고 했으면!》 고르바쵸브는 한숨을 지었다. 《난 식당에 다니기를 즐겨했소. 음악과 처녀도 좋아했소. 난 생활을 마음껏 즐겼댔소. 생활도 나를 즐겨했구… 우리 어부들은 돈을 망탕 썼소. 주머니마다에 돈이 가득가득 했으니까. 아스뜨라한의 모든 접대원들치고 그리고리 고르바쵸브가 작업반원들과 놀러다니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소. 그 일때문에 회의때마다 혼쌀을 나군했으나 난 작업반을 책임지고있었소. 사내대장부들과 예쁘게 생긴 처녀들이였소. 우린 계획을 2백, 3백프로씩 해제꼈소. 게시판에 우리의 사진이 나붙고 영예가 차례졌소! 그 다음엔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소. 이런 우스개를 기억하오? 노래를 아느냐말이요?

어머니 어머니 전주에
우리는 이불을 깔았댔어요
이번주에 우리는
외투를 깔겠어요》

기관단총을 쥐고 엎드린 레나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웃음을 짓고있었다. 도이칠란드병사들의 전호에서 울려오던 죽음기소리도 조용해졌다. 호수우를 떠돌던 쌕스폰소리—멀리서 비쳐오는 색다른 환상적인 생활의 반사광도 인젠 사라졌다. 달도 자리를 바꾸어 복도처럼 늘어섰던 달빛 비낀 길이 인젠 땅크 한 모퉁이로 밀려가 좁다란 틈새기를 남겼을뿐이였다. 지금은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지에는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다만 분지너머 오른켠 고지우 화광이 비낀쪽에서만 전투의 음향이 들려올뿐이였다. 레나는 묻는듯한 투로 말했다.

《놈들이 지뢰원에 통로를 개척하게 되면 여기로 지나가게 되겠군요. 다른 통로는 없지 않아요?》

《없소.》

《그렇다면 탄알을 아낄 필요가 없지요.》

레나는 채 말을 끝내지 않고 흉장에 총을 놓은 다음 땅크들사이의 달빛비낀 좁다란 길에 몇차례 련발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대응사격이 있을것을 기다리며 한참씩

기다렸다. 레나는 볼에 드리운 머리칼을 밀어제끼며 흥분하여 말했다.

《저놈들이 정찰병이라면 많지 않을거예요. 벌써 통과했을거예요.》

이때 느닷없이 기관단총 련발사격소리가 나면서 포 오른쪽 공기가 몸부림을 쳤다. 이어 그쪽에서 토끼울음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를 같이하여 도이췰란드자동총도 촘촘히 누벼댔다. 얼핏 들어도 그 소리를 짐작할수 있었다. 분지에서는 여러개의 툭한 불줄기들이 날아올라 고지와 화광이 비낀 쪽으로 퍼져나갔다. 레나는 일어나앉아 권총집을 바로했다.

《그놈들이 통과했어요!》 레나가 말했다. 《저건 그놈들이예요.》

고르바쵸브는 떨쳐일어나 흉장에서 기관총을 걷어가지고 진지오른쪽으로 뛰여가며 소리쳤다.

《탄창들을 날라오오! 시작됐소! 빨리!…》

그는 분지에서 벙끗거리는 탄도의 불띠를 눈여겨보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관총다리를 힘껏 땅에 박았다. 한편 탄환이 날아가는 시작점을 찾았다. 총탄은 진지가까이에서 분지 저쪽의 나무숲으로 날아가며 부채살처럼 펼쳐지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쏘고있었던것이다.

《개자식들!》

그는 자기들을 찾아오는 중대장과 동지들이 지뢰원을 거쳐 분지로 나가는 도이췰란드놈들과 조우했다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레나가 예비탄창들을 날라왔을 때 총탁에 볼을 대고있는 고르바쵸브의 악에 받쳐 일그러진 얼굴은 마구 떨리고있었다.

《개자식들! 기어이 통과했단말이지, 통과했어!》 그는 재빨리 고개를 치켜들고 묘준하여 총신을 쳐든 레나에게 소리쳤다. 《토굴로 가시오! 부상병들에게로! 동문 지쳤소! 놈들이 공연히 덤벼치는거요!》

그는 때리다싶이 처녀의 잔등을 콱 밀어쳤다. 레나는 기관총옆에 엎어졌다. 하나… 레나는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몸을 움직여 기관총을 잡고 묘준했다. 레나는 풀포기우에 쏟아지는 도이췰란드자동총탄의 방향을 찾아내여 긴 련발로 쏘아댔다. 떨리는 총탁이 산 물체마냥 레나의 어깨를 찌르던것도 멎고 풀대에 쏟아지던 도이췰란드측의 불줄기도 사그라졌건만 처녀의 어깨는 여전히 뻐근하게 아파났다. 탄창은 비여있었다. 흉장우에 총을 내려놓은 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가다듬어 웨쳤다.

《우린 모두해서 둘이예요. 들어요? 전 사격할줄 알아요. 동무는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는 토굴로 들어갔다.

레나는 매사에 침착하려 애쓰면서 교통호입구에 멈추어섰다. 아까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어깨가 활활 달고 뭔가 뜨겁고 날카로운것이 목구멍에 걸려 숨쉬기 어려웠던 자신을 돌이켜본 레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레나는 《저 세상에서 울리는 총소리…》라는 말을 상기하며 서둘러 토굴문을 닫고 손더듬하여 세단의 흙계단을 내려섰다. 훈훈한 공기와 상처냄새가 풍기였다.

구쎄브는 흐느끼며 조용히 신음하고있었고 랴갈로브는 벽쪽으로 얼굴을 돌린채 까딱않고 누워있었다. 등잔불은 꿈틀거리며 타올랐다. 싸뽀르낀은 누워있지 않고 외투를 바닥으로 밀어낸 다음 무릎에 총을 잡고 앉아서 구불구불 타오르는 등잔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레나의 발자국소리를 들은 그는 흠칫 머리를 떨더니 꿰뚫어보는듯한 령리한 눈길을 모았다. 애틋한 미소가 가늘게 떨리는 그의 입술을 스쳐지났다.

《시작되였소?》하고 그는 물었다.

《모든게 곧 결정될거예요.》하고 레나는 대답했다.

《싸뽀르낀동무, 누우세요. 총을 세우세요. 안심하세요. 랴갈로브동무는 어떻습니까? 뭘 청하진 않던가요?》

《잠들었소. 연송 아이들과 처에 대해서 헛소리를 치더군.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더니 그다음엔 잠이 들었소.》

《불쌍한분이예요.》 레나는 련민의 정을 담아 말했다.

레나는 머리를 숙여 랴갈로브를 들여다보다가 인차 몸을 도로 일으켰다. 그는 눈섭을 떨며 문가로 다가갔다가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또다시 문가로 갔다가 다시 책상가로 왔다. 책상우에서는 은숟가락이 평화롭고 단란한 생활을 상기시키며 등잔불빛에 반사되여 조용히 빛을 뿌리고있었다. 레나는 랭담해진 눈을 쳐들고 포탄상자에 걸터앉았다.

《왜 그러오?》 싸뽀르낀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자오? 왜 가만히 있소, 레나?》

레나는 고뇌의 빛이 어린 눈을 감으며 도리를 저었다. 파아란 그림자가 처녀의 눈언저리에 비껴있었다.

제 12 장

엄폐부문을 잡아젖히고 훌쩍 뛰여든 노비꼬브는 아직 식지 않은 기관단총을 가슴팍에 걸고 비칠비칠 계단을 뛰여내리며 팔소매로 얼굴의 땀을 씻어냈다. 우에서는 촘촘히 누벼대는 기관단총의 울부짖음이 잦아들지 않고 련속 들려오는데 엄페부안에서는 깜빡이는 등잔불이 침상들을 희미하게 비쳐주고있었다. 그는 어둑시근한곳을 여겨보며 고르롭지 못한 석쉼한 소리로 다우쳐 말했다.

《레나!…》

레나는 그를 인차 알아보지 못했다.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했고 얼굴도 볼수 없었다. 상자에서 몸을 일으킨 레나

는 두손을 늘어뜨린채 머리를 흔들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추슬러올린 다음 멍청히 서있었다. 처녀는 의혹과 놀람을 감추지 못한채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한편 노비꼬브는 그와 몇발자국밖에 안되는 그늘속에 까딱 않고 서있었다. 레나는 《중대장동지예요?》라고 말하고싶었으나 그럴수 없었으며 그가 왜 여기에 와있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레나, 다 살아있소? 부상병들이 여기에 있소?》이미 그때는 노비꼬브가 천연스레 물었다. 이건 그이, 노비꼬브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늘진데서 레나가 있는 책상가로 곧장 걸어나왔다. 그제서야 레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살이 빠져서 알아보기 힘들게 수척해진 얼굴에서 땀이 볼을 타고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고 관자노리와 축축히 젖은 머리카락에는 검실하게 피가 엉겨붙어있었다. 맨머리를 드러낸 그의 목에는 보충띠가 걸려있었다. 외투는 여느때없이 활짝 젖혀있었고 단추가 실채 뭉텅 떨어진 군복저고리의 목깃은 헤쳐져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변모시켜 레나로 하여금 잘 알아볼수 없게 하면서도 친근감을 주었다. 레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의 이마를 쳐다볼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레나! 정말 레나가 옳소?》그는 레나의 어깨를 붙들고 가볍게 흔들면서 이번에도 레나가 그렇듯 바랐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라 무뚝뚝하게 말했다. 북받치는 서러움으로 하여 입귀가 바르르 떨고 눈섭이 이그러진 레나의 창백한 얼굴은 미워지고 의지가지없이 보였다. 자신을 애써 자제하며 그에게 몸을 던진 레나는 노비꼬브의 손이 자기의 잔등과 목을 쓰다듬으며 머리를 껴안는것을 감촉했다. 처녀는 화약내와 땀내에 젖은 척척하고 뜨거운 그의 목에 이마를 힘껏 눌러댔다. 총이 레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 아픔

이 레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다. 처녀는 드디여 말했다.
《랴갈로브동무는 전사했어요.… 그리고 구쎄브동무는 서둘러야겠어요. 시급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시급히…》
처녀의 어깨를 그냥 붙들고있던 노비꼬브는 어색해져서 얼굴을 찡그리고 황황히 물었다.
《왜 눈물을 흘리오?》
《아니예요. 이건 눈물이 아니예요. 전 울줄을 몰라요!》 레나는 메마른 눈을 그에게로 들어올리며 성이 나서 속삭였다.
레나는 힘껏 키돋움하여 그의 관자노리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들을 제쳐주고 위생가방에서 약솜을 꺼내며 책상가로 성급히 물러갔다.
《부상당했어요. 네? 좀 계세요. 봅시다.》
《좀 할퀴웠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엄폐부안을 훑어보았다. 《자, 부상병들을 시급히 포진지로 날라갑시다. 쁘로혼꼬와 레메슈꼬브동무들은 방수포비옷들로 담가를 만들고있소. 차비하는데 5분을 주겠소. 자, 붕대는 다음에 감읍시다. 싸뽀르낀!》 그는 싸뽀르낀을 보자 어색하게 조용히 불렀다. 《동무는 왜 그러오. 중사동무, 어떻소? 걸어가겠소, 아니면 담가에 실려가겠소? 견디여낼만하오?》 그리고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잇달았다. 《에이, 비서동무, 비서동무. 어쩌자고 동무는 오브친니꼬브중위를 눌러앉히지 못했소? 동무야 포를 뜨라는 명령이 없다는걸 알지 않소.》
극도로 쇠약해진 싸뽀르낀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붕대를 감은 그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그는 아파서 새말개진 눈에 천연스런 표정을 짓느라 무진 애를 쓰며 대답했다.
《저지른 일을 돌려세울수는 없지요. 그때 벌써 전 제구

실을 못하게 되였드랬지요. 어찌겠습니까. 거기엔 제 잘못도 있을수 있지요. 이젠 어쩔수 없게 되였습니다. 저에 대해선 념려하지 마십시오. 저 젊은이나 실어가십시오.》

노비끄브가 말했다.

《인차 돌아올테니 차비를 하시오.》

《어딜 가세요? 왜요?》레나는 알콜이 담긴 병에서 솜뭉치의 물기를 털어내며 물었다.

《라지야의 포로 가오. 가보아야 하겠소.》

《거기 동무들은 모두가 희생됐어요. 중대장동지.》레나는 그를 멈춰세웠다. 《모두가… 제가 아침에 거기에 갔댔어요. 붕대감을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래 믿지 못하시겠나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소.》노비끄브는 대답했다. 《직접말이요.》

그는 밖으로 나섰다. 조용했다. 기관단총사격소리는 멎었다. 대기가 연록색을 띠면서 탁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중천에 뜬 달은 화광너머의 삐쭉삐쭉한 까르빠트산정우를 멀리까지 비쳐주고있었다. 진지에서는 쁘로혼끄와 레메슈끄브의 검은 형체가 욕지거리를 해가며 방수포비옷으로 담가를 만드느라 씨근덕거리고있었다.

고르바쵸브는 흉장너머로 퉤퉤 침을 뱉으며 엎드려 기관총직일을 서고있었다. 그는 태연하고 무사태평해보였다. 노비끄브를 보자 그는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다.

《이 길로 해서 돌파하잡니까? 놈들은 이 분지를 빈대처럼 기여다니고있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노비끄브는 여기로 돌파해올 때 벗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모자를 꺼내여쓰며 대답했다.

《이 길로 가겠소. 동무들은 이렇게 해주오. 극단한 경우에는 화력으로 나를 엄호해주오. 제4포에 가겠소.》

상사 라지야의 포는 싸뽀르낀의 포 왼쪽 마흔메터 되는 곳에 있었다. 텅비고 인기척이 없다는것을 느끼며 그는 파편과 뒤범벅이 되여있는 흉장을 넘어들어갔다. 그의 앞에는 달빛에 훤히 드러난 무섭게 파헤쳐진 포탄구뎅이가 나타났다. 그 구뎅이속에 포가 모로 나자빠져있고 포판은 쭈그러들었으며 복좌기는 공중 들리여있었다. 페쇄기는 열린채 하늘을 향하고있었다. 약통실의 둥그런 구멍은 구원을 청하며 소리치는 아가리처럼 쩍 벌려있었다. 하루 낮과 밤이 지났건만 도이췰란드제 화약냄새는 고뿌에 담겨진양 아직도 짙게 슴배여있었다.

노비꼬브는 이 포의 성원들이였던 자기 사람들을 보자고 찾아왔건만 그들은 찾을길 없고 눈앞엔 피에 젖고 마구 뒤범벅이 된 끔찍스런 광경이 펼쳐졌을뿐이였다. 그는 얼굴과 옷을 보고 그가 누구였던가를 분간할수도 알아볼수도 없었다. 빈 포탄상자쪼각들이 외투와 권선, 휘뿌려져 땅에 박힌 탄피들과 뒤섞여 널려있었다. 그는 이 상자쪼각들과 탄피들을 한옆으로 밀어놓으며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해줄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내려했다.

벽호들에마저 성한 포탄은 한발도 없었다. 그들이 포탄을 다 쏘았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다음엔 고정톱이 있는곳으로 다가갔다. 거기 포탄구뎅이속에서는 무엇인가 달빛을 받아 차겁게 알른거리는것이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이슬에 젖은 군복저고리쪼박을 집어들었다. 오그라들어 에나멜칠이 벗겨진 붉은훈장이 손에 찔리웠다. 그는 훈장을 들여다보았으나 누구의것이였던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종시 생각해내지 못한 그는 외투주머니에 넣었다.

자기는 모든걸 알고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격지심이 그를 여기로 오게 하였건만 막상 여기서 떠날 힘이 생기

지 않았다.그는 자기가 가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포앞에 패워진 몇개의 포탄구뎅이들을 살피면서 진지의 흉장주위를 한바퀴 돌았다. 왼쪽으로 서너발자국되는 엄페호에 뭔가 둥그스름한것이 까딱않고 흉장에 기대있었다. 그는 조그마한 포탄구뎅이에 뛰여들어서야 흉장에 가슴을 기대고 엎어져있는 사람을 가려보게 되였다. 군복저고리바람의 그 사람은 꼭 부르쥔 두주먹에 이마를 대이고 무슨 생각에 잠긴듯 꼬부장하고 엎드려 있었다. 기름에 찐 거무스레한 견장이 수직으로 들리워 있었는데 거기엔 통졸임통을 오려서 붙인 포신이 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전투를 앞두고 새로 단듯한 목달개가 단정하게 일직선으로 드러나보였다. 쌍안경은 옆에 휘뿌려져있었다. 그는 상사 라지야였다.

노비꼬브는 라지야를 조심스럽게 구뎅이에 눕혔다. 어깨가 가드라든것이 아주 조그매진것 같았다. 라지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어리여 있었다. 그의 좁은 가슴에 달려있는 6개의 훈장이 무엇인가 시커먼것에 젖어있었다. 최후의 순간에 내린 그의 마지막구령이 포에까지 가닿지 못한듯했다. 그땐 이미 아무도 살아있지 못했을것이니까.

그는 절망상태에서 얼굴을 손안에 파묻고 죽었다.

그제서야 노비꼬브는 라지야와 그의 포성원들이 어떻게 전사했는가를 알게 되였다.

모름지기 그들에게 포탄이 다 떨어졌을 순간에 석대의 땅크가 왼쪽에서 기여들어 직접조준으로 쏘아댔을수 있다. 그 땅크들은 지금도 검은 형체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하건만 그것들을 누가 까부시고 불살랐는지 자기, 노비꼬브였는지 알레쉰이였는지 혹은 싸뽀르낀이였는지를 라지야나 그의 포성원들은 이야기할수 없게 되였다.

노비끄브는 자신의 한부분을 떼여놓고가는듯한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섰다. 거칠고 침울한 이 까르빠트땅이 아니라 제 땅에서 싸울 때나 전쟁의 종말이 가까왔다는 예감이 없을적엔 한번도 이런 쓰라린 감정을 그렇듯 뼈저리게 느껴본 일이 없었다.

《누구요?》 어둠속에서 속삭임소리가 들렸다.

《자기 사람이요.》

포진지에서는 모두가 떠날 준비를 갖추고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소리없이 포로 다가가던 노비끄브는 애써 자제하는 흐느낌소리와 포가들사이에 있는 쁘로혼끄를 보았다. 그는 상자에서 포탄을 꺼내고있었는데 얼굴을 돌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있었다. 레메슈끄브는 무릎을 꿇고앉아 안절부절해하며 놀라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왜 그러오?》 노비끄브가 물었다.

《모른척하세요.》 그들을 안심시키는 조용한 레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랴갈로브동무를 묻어주었어요.》

구쎄브는 열에 들떠 불안하게 뒤채기며 방수포비옷우에 누워있었다. 레나는 그의 다리곁에서 무엇인가를 소리없이 하고있었다. 붕대가 오르내렸다. 외투까지 다 입은 싸뽀르낀이 포탄상자에 앉아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고르바쵸브는 그를 옆으로 껴안았다. 특무상사의 넓은 어깨에는 경기가 삐죽이 내밀려있었고 목에는 기관단총이 메워져있었다. 그는 싸뽀르낀의 팔굽을 살뜰히 두드려주면서 자신있는 어조로 말을 건넸다.

《비서동무, 나에게, 나에게, 몸을 기대십시오. 끌배에 붙듯이 꼭 달라붙으십시오. 아바이의 몸무게도 무겁겠지만 난 아바이보다 더 무겁습니다. 일이 다 잘될겁니다.》

《뽈스까 백작부인정부라… 친구를 잃었지.》 싸뽀르낀이 신음소리를 삼키며 한 말이였다. 《뭘 그리 괴로와하나,

쁘로혼끄. 죽은 사람을 살려낼수야 없지 않나.》
《떠납시다!》 노비꼬브는 이렇게 명령하고나서 다시 물었다.
《포탄이 몇발이나 남았소, 싸뽀르낀동무?》
《다섯발입니다.》 싸뽀르낀은 일어서려고 몸을 앞으로 수그렸다. 《두발은 장갑탄이고 세발은 파렬탄입니다. 제가 세여보았습니다.》
《쁘로혼끄와 레메슈꼬브, 내앞으로 오시오!》 노비꼬브가 불렀다. 《포탄이 준비되였소? 장탄하시오! 그리고 명심해서 들을것. 사격한 직후에 고르바쵸브상사동무와 싸뽀르낀, 레나동무들은 떠나시오!》 병사들의 면전에서 레나를 이름으로 부르기는 처음이였다. 《기관단총이 있소? 고르바쵸브, 저 동무에게 동무의 총을 넘겨주시오. 그뒤를 따라서 쁘로혼끄와 레메슈꼬브가 구쎄브를 들고가시오. 내가 뒤처리를 하겠소. 방향을 잃지 마오. 분지를 통과하여 나무숲으로 돌파했다가 고지로!》
…다섯발의 포탄을 쏴버린 뒤라 아직도 여음이 쟁쟁한 대기속에 노비꼬브는 한참 그대로 서있었다. 그는 페쇄기를 뽑아 서둘러 은페호에 내동댕이친 다음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는 수류탄안전고리를 획 잡아뽑아 아직도 연기를 뿜는 포신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엔 총을 가슴앞으로 돌려쥐고 흉장을 뛰여넘었다. 수류탄 폭풍이 파도쳐와서 그를 등뒤에서 밀어던졌다. 대원들은 경사지를 내려 걸채이며 분지로 향하고있었다. 포사격으로 눈이 부셨던 뒤라 대원들이 잘 보이질 않았다. 곧 움직이는 쁘로혼끄와 레메슈꼬브의 구부린 잔등이 거밋거밋 눈앞에 안겨왔다. 그들은 곧 촘촘한 화력권내에 빠져들었다. 호수가에서 련이어 짖어대는 도이췰란드대구경기관총화력이 분지에 집중되고 있었던것이다. 탄환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땅우에 두메터 높이로 련속 날아왔다.

《분지를 향해 포복전진!》하고 노비꼬브는 웨쳤다.
《레나, 고르바쵸브, 앞으로!》
그는 머리를 호수쪽으로 돌리고 경사지에 엎드렸다. 불을 뿜어대는 기관총이 잘 보였다. (음, 저놈들이 기다리고있었구나! 눈치를 챘던게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손가락누름정도로 탄환수를 계산하며 그쪽으로 련발사격을 들이댔다. 그보다 세발자욱쯤뒤에서 누군가 탄환을 아끼느라 짧은 점발로 쏘고있었다. 그는 (고르바쵸브인게다!)고 생각했다. 한순간 우연히 머리를 돌렸던 그는 거기서 오랜지빛화광속에 친근한 레나의 얼굴을 보게 되였다. 무릎을 꿇고앉은 레나는 기관단총을 조준하고 자기와 같은 목표의 호수가를 향해 쏘고있었다. 그는 몇분전에 레나가 얼결에 자기 목에 이마를 꾹 가져다대였던 일과 자기 몸에서 세게 풍길 땀내와 화약내로 하여 자신이 얼마나 당황했던가를 상기했다. 그것을 상기하자 처녀가 뜻밖에 로출시킨 그에 대한 순정과 자기가 아무리 배척해도 막무가내로 마음속을 아프게 파고들어 안정을 주지 않던 그 녀성이 지금 바로 자기곁에서 사격하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숨이 막혀왔다. 그는 레나에게 다가가 힘겹게 말했다.
《포복전진으로 앞으롯! 앞으로, 레나동무, 안들리오?》
레나는 그를 쳐다보더니 공손히 자동총을 내리우고 한마디의 대답없이 경사지를 따라 분지바닥으로 내려갔다. 환한 불줄기가 레나의 머리우로 씽씽 날아갔다. 그는 레나의 모자를 보았다. (놈들이 레나를 죽일수 있어. 죽일수 있어!) 노비꼬브의 의식에 미쳐온 생각이였다. (아니, 아니, 레나는 죽이지 못해!)
노비꼬브는 자리를 뜨지 않고 대구경기관총을 향해 련발로 사격하고있었다. 련발사격을 끝낸 사이마다 그는 레나가 가고있는쪽, 뽀로혼꼬와 레메슈꼬브가 구쎄브를

담가에 싣고 허리굽혀 달리는쪽을 바라보군했다. 기관총이 숨을 죽이였다. 왼쪽에서 또 다른 도이췰란드자동총들이 분지바닥을 핥으며 짖어댔다.
저앞 맞은편 비탈에서 고르바쵸브의 경기가 맹렬한 대응사격을 하다가 그것도 멎어버렸다. 고르바쵸브의 경기가 사격하던 풀밭에 파아란 불줄기가 쏟아져내렸다. 탄환들이 벼랑을 훑으며 쏟아져내렸다.
(고르바쵸브가 왜 조용해졌을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가? 레나는 어디 있을가?) 노비꼬브는 궁금하여 뛰쳐일어나 분지쪽으로 내리달렸다. 그가 분지바닥을 달려서 맞은편 경사지로 오르는데 누런빛을 뿜는 조명탄이 피시식거리며 호수의 강안우로 날아올라 자그마한 둔덕과 오래전에 파헤쳐진 구뎅이안의 푸실푸실한 흙덩이까지 경사지전체를 환히 비치였다. 조명탄은 머리우에서 넓게 퍼져나갔다. 이 빛과 더불어 하늘에는 땅바닥에서부터 다른 빛이 비쳐들며 탄환의 불줄기가 띠를 이루고 경사지를 날아갔다. 대구경기관총이 또다시 면밀한 사격을 해온것이다. 그 뒤를 이어 둔중한 박격포탄들이 정확히 정방형안에서 쏟아져내렸다.
떨어져내리는 조명탄불빛에 노비꼬브는 경사지에 있는 레나와 고르바쵸브를 가려보았다. 레나는 펄썩 주저앉아 싸뽀르낀에게 몸을 수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모자를 벗으면서 고르바쵸브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성급히 기관총탄창을 두드리고있었다.
《왜들 그러오? 어째서 멎었소?》 노비꼬브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어째서 멎었소?》
《빌어먹을것, 탄창이 물리웠습니다.》 고르바쵸브는 열이 올라 욕설하며 탄창을 힘껏 쳤다. 《휘여들었군. 참 잘

됐어. 제기랄!》
《나무숲을 향해 앞으로!》하고 노비꼬브는 명령을 내렸다. 《최후의 돌진이요! 경기는 어찌겠소. 그걸 던지시오! 싸뽀르낀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시오! 나무숲을 향해!》
레나는 싸뽀르낀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기며 노비꼬브에게 돌아서서 겨우 들리게 말했다.
《싸뽀르낀은 숨이 졌습니다.》
《앞으로 가라고 하지 않소! 싸뽀르낀을 함께 데리고 가시오! 버리지 마시오!》노비꼬브는 이렇게 곱씹고 기관단총을 흔들었다. 《나무숲을 향해 어서!》
고르바쵸브는 상욕을 해대며 멀리 한옆으로 경기를 집어던진 다음에 레나를 밀어내며 싸뽀르낀의 얼굴에 머리를 가까이하고 결단성있게 말했다.
《내가 아바이를 업고가겠소. 비서동무가 끝내 도중에 잘못됐군! 걸어오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더니 입술에 온통 피로구만. 깨물어서…》
《제가 도와드리겠어요.》레나는 거역할수 없는 담찬 소리로 말했다.
레나는 척 늘어진 싸뽀르낀의 무거운 몸뚱이를 들어올리도록 도와주면서 몸을 일으켰다. 새로 띄워올린 조명탄빛에 레나의 얼굴과 외투를 입은 형체가 나타나고 옆구리에 찬 조그마한 권총집이 비쳐왔다. 그 순간 날아오는 웬 불길이 그들 세 사람을 눈부시게 하며 화끈한 공기를 들씌웠다. 노비꼬브는 날아오는 총알소리를 듣지 못했고 옆에서 박격포탄이 튀는것도 제꺽 알아차리지 못했다. 머나먼 나라에서 들려오는듯한 가냘프고 놀란 《에그머니!》하는 소리가 자기 귀전에 들려왔을 때에야 그는 뽀얀 연기속에서처럼 레나가 머리를 수그리고 가슴을 문지르며 조심히 땅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레나! 무슨 일이요?》 노비꼬브는 레나에게 기여오며 통탄하듯 소리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레나의 어깨를 붙들었다.

왜서인지 그 순간 그에게는 자기가 바라지 않았으며 또 일어나서는 안될 뜻밖의 무서운 일이 바로 자기곁에서 벌어지고야말았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레나!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하오!… 다쳤소? 어딜?》

그는 말을 한것이 아니라 소리쳤으며 강요하다싶이 레나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벌어진 일앞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며 레나의 머리와 얼굴에 흩어져내린 그의 머리칼이 흔들리는것을 보았다.

《어디? 어딜 다쳤소?…》

《저… 저… 다리같애요.》

죄송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창백한 레나의 입술에서 튀여나온 속삭임소리를 겨우 가려들은 그는 다소 안심이 되였다. 그의 전신에 땀이 내배며 순간 군복웃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었다. 그는 기관단총을 등뒤로 획 잡아돌리고 아주 딴 사람같은 목소리로《내 목을 잡소.》하며 레나를 손에 안고갔다. 경사지를 따라 올라가며 그는 일생에 처음으로 녀성의 몸이 가까이 와닿는 감촉을 받았다.

그의 목을 안은 레나는 공손히 부탁했다.

《저를 병원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전 얼마동안 참아내겠어요. 참을수 있어요.》

나무숲에 이르러 그는 쁘로혼꼬와 레메슈꼬브, 고르바쵸브를 모여놓고 구뎅이를 찾아내여 거기에 싸뽀르낀을 묻으라고 명령했다.

제 13 장

《진지로 나가지 말고 좀 계세요. 필요하면 알려주겠지요뭐. 래일이면 절 위생대대에 보내겠지요. 허지만 위생대대야 시내에 있는데 시내는 포위된것 같애요. 전 전쟁이 끝나갈무렵에 포위에 들게 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지 못했댔어요.》

《동쪽으로 나가는 길은 벌써 차단되였소. 하지만 그게 크게 문제될건 없소. 구쎄브와 함께 동무도 후송하겠소. 고르바쵸브동무가 후송할거요. 그 동무는 해낼테니까.》

《래일 그러세요. 상처가 아주 경한거니까 아무 일도 없을거예요. 전 다 알아요. 좀 앉으세요. 좋아요? 저와 함께 앉지요?》

그는 침상곁에 놓인 포탄상자에 앉아 담배가 있는가 오래동안 주머니마다 뒤지였다. 엄페부는 가까이에서 울리는 폭발때문에 자주 몸을 떠는가 하면 쥐가 장난하는듯 구석마다에서 흙이 부실부실 떨어져내렸다.

《일은 잘됐다.》하고 노비꼬브는 말했다. 《권연이 떨어졌으니 마라초라도 피우는수밖에.》

그는 서운한 마음으로 담배갑에서 부스레기들을 털어내며 우습강스럽게 코잔등을 긁더니 아이들처럼 웃었다. (레나는 이런 노비꼬브를 본 일이 거의나 없었다.) 노비꼬브는 전투가방에 손을 넣어 피우다 남은 잎담배를 꺼냈다. 그는 피곤이 어린 얼굴에서 아이들같은 그 웃음기를 삽시에 지워버리고 당황한 빛을 띠우며 알레쉰소위가 얼마전에

레나에게 전달해달라고 주었던 세개의 쵸콜레트를 꺼냈다.

《참 내가 잊어버렸댔군.》하고 그는 웅얼거렸다. 《동무한테 알레쉰이 주는거요. 줄곧 생각하고있었댔는데 잊어버렸소. 이 혼잡속에서 그만 깡그리 잊어버렸댔소. 용서하오.》

《알레쉰이라구요?》 레나는 약간 놀라는 기색으로 물었다. 《저한테요? 쵸콜레트를요?》

《그렇소. 좋은 동무요. 그런데 동무한테 반한것 같소. 틀림없소.》 노비꼬브는 될수록 침착하게 말했다.

《저한테요?》 침상에 앉은 레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깔깔 웃어댔다. 《그 동무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동문 제가 쵸콜레트를 좋아하는가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오브친니꼬브는 제가 향수나 연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판인지 원!》

노비꼬브의 거동을 세심하게 살피던 레나의 눈언저리에 미소가 피여났다. 처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했다.

《저에게 신문지, 잎담배를 주세요. 제가 마라초를 말아드리겠어요. 전 부상병들에게 천번은 말아주었을거예요. 중대장동진 피로했어요. 그것 보세요. 손이 떨리는걸, 피로하시지요?》

레나는 신문지 한쪽 귀퉁이를 찢어내여 서두르지 않고 잎담배를 놓은 다음 솜씨있게 말아서 그에게 내밀었다.

노비꼬브는 수집어하는 처녀의 기대어린 미소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침을 바르세요. 그러면 다 돼요.》하고 레나는 말했다.

《마저 해주지.》 노비꼬브의 대답이였다.

《동무가 더 잘할터인데…》

그는 무엇인가 이름하기 어려운 정겹고 쓰라린것이 마음속에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감정은 레나가 엄페부에서 그의 목에 이마를 꼭 가져다대였을 때에도 박격포탄이 터진 다음 레나가 조심히 풀밭에 주저앉아 가슴을 가볍게 문지르고있을 때에도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었다. 이 알지 못할 쓰라린 애정은 레나가 귀염상스런 웃음을 지을 때도 자기를 위해 마라초를 솜씨있게 말때에도 또 처녀의 볼에 흘러내려 방해하는 짧게 다스린 밝은색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에도 억제할수없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지내 일찌기 군관으로 제발되여 3년전부터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한 그는 자기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했으며 남을 위해 살았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겐 허용되는것도 자신에겐 금지되여있었으며 누구든 자기를 내놓고 관심해주는것에 익숙되지 않았을뿐더러 바라지도 않았었다.

그는 레나가 좁다란 혀끝으로 마라초종이의 가장자리에 천천히 침을 발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레나는 입술에서 마라초를 떼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예요. 손수 하세요.》

그가 담배를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으로 떨리는 레나의 손가락이 미끄러져내렸다. 그는 놀라서 레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레나의 눈길에서 불안에 떠는 검은 동자와 감각을 잃은 검은 살눈섭을 보았다. 그는 어색하게 물었다.

《왜 그러오, 레나?》

《인제 중대장동지의 담배를 말아주었지만… 중대장동지야 부상을 입진 않지 않았나요. 전 중대장동지가 부상을

입었다고는 상상할수 없어요.》 레나는 그가 습관대로 손바닥으로 라이타의 불길을 막고 담배불을 붙이는 모양을 재빨리 훔쳐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고 부상당하는걸 봤어요. 왜 그럴가요? 어째서 젊은이들이 더 그럴가요? 경험과 조심성이 적기때문일가요? 중대장동지도 조심성이 없는걸 봤어요.… 그래 중대장동지는 진실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난 참되게 살지 못했소.》 노비꼬브는 실토했다. 《아니, 공연히 총알을 맞받아나서진 않소. 다르게는 할수 없을 때에만 나서오. 때로는 내가 일생을 싸우기만 한것처럼 느껴지오. 광산대학의 전교정과 책, 탁상등은 어딘가 저먼 옛날에 잠간 있었던것 같소. 과거란 한줄이면 옮겨쓸수 있소. 지금은 난 땅크를 까부실 생각뿐이요. 옹근 한 페지에 쓰려고 해도 다 옮기지 못할것 같소. 내 관점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건지…》 노비꼬브는 레나로서는 뜻밖으로 아까처럼 솔직하게 자기 말을 정정하는것이였다.

《하기야 다르게 될수도 있겠지.》

《어째서 다르게란 말이예요?》

《1941년도에 난 예비역군인으로 나갔댔소. 스몰렌스크부근에서 우리는 포위되였댔소. 1만명의 병사들이 대도로로 내밀렸댔소. 우리 어린 대학생들과 함께 늙수그레한 교수들도 있었댔는데 일부 교수들은 원쑤의 잔인성을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하요 하이네요 하면서 도이췰란드문화를 찬양했댔소. 그런데 도이췰란드놈들은 땅크를 대도로로 몰고나와 길섶에서 고사기관총을 쏘아댔소. 우리들을 질서있게 정렬시켜놓고… 아마 절반인원은 쏘아죽였을거요. 나머지 5천명은 종대를 지어 스몰렌스크옆으로 해서 서쪽으로 몰아갔댔소.》

《그래서 어떻게 되였어요?》

《스몰렌스크에서 난 세명의 한학급동무들과 도망쳐서

전선을 넘었소. 허지만 난 놈들의 이 〈인도주의〉에 대하여 잊을수 없으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있소.》

《저도 그놈들을 알아요.》 레나는 증오심에 눈을 쪼프리면서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지가 놈들을 알고있는것처럼 저도 그놈들을 알아요. 놈들이 우리 생활에 끼여들었지요. 중대장동지는 몸을 조심하세요.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할순… 없을가요?》

《보호하겠소.》 하고 말하며 그는 웃었다. 《알고있소.》

그들이 함께 있는동안에 레나는 중대장이 웃는것을 몇차례 보았다. 그 웃음은 한찰나에 스쳐지난 웃음이였지만 그 순간만은 그의 얼굴을 떠나지 않던 신중한 표정이 사라지고 기다렸던듯 선량하고 유쾌한 얼굴로 변하였었다. 그때의 노비꼬브는 레나에게 전혀 생소한 사람, 과거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알아낼바 없는 사람으로 불현듯 나타나는것이였다. 한순간 피여난 그의 웃음속에는 레나로서는 알수 없는 그의 전쟁전 중학교시절의 과거가 비껴있었던것이다.

엄폐부결에서 두차례의 폭발이 일어나며 토굴속의 후더운 공기가 무겁게 뒤흔들리였다. 구석구석에서 흙덩이들이 짚우로 떨어져내리고 책상우에 놓인 탄피들이 요란스레 모재비를 하며 바닥에 곤두박혔다.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입으로 불어끄듯이 등잔불이 껌벅 하고 죽었다. 캄캄해졌다. 흙이 부스럭거렸다. 고지 뒤쪽에서 기관총이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땅크들이요.》 노비꼬브는 몸을 일으켰다.

《중대장동지!》 레나는 얼어드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등잔에 불을 켜지 말고 대답해주세요.… 제가 중대에 왔을때 중대장동지가 저를 싫어했다는걸 전 알아요. 또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다는것도 알고요. 들어보세요.… 85련대의 씬꼬브부관을 아실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자

는 자기 힘을 행사하려 했어요. 그자가 저를 때렸기때문에 저도 그자를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정찰구분대에서 나와버렸지요. 그런 후로 저에 대한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중대장동진 그 풍문을 믿었어요?》 레나는 까딱 않고 이렇게 물었다.

어둠속이여서 노비꼬브는 레나의 얼굴도 눈섭과 입술도 보지 못했다. 다만 소곤거리며 흘러나오는 말소리만을 들었다. 련정의 뻐근한 아픔으로 하여 가슴이 저려났다.

단번에 포탄 두발이 명중하자 통나무들이 움씰거리고 흙덩이들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또다시 꼭대기에서 기관총련발사격이 울렸다.

노비꼬브는 머리를 쳐들었다.

《초소들을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겠소.》 노비꼬브는 전혀 딴 사람같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해 쉰소리로 말을 맺었다. 《다리가 아프지 않소? 내가 붕대를 감아줄수 있소. 불을 켤가요?》

《아니예요.》 레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울기 시작했다. 《켜지 마세요. 필요없어요. 가보세요.… 기다리겠어요.》

캄캄하던 엄폐부에서 교통호로 나오니 주위가 훤했다. 화광은 세키로메터의 넓은 폭으로 높이 솟아올라 고지너머의 도시상공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지금 노비꼬브에게는 모든 자기 구역과 그 변두리가 모두 불타고있는듯이 느껴졌다. 한데 어울린 갖가지 전투음향이 점점 더 또렷해지며 가까이 접근해왔다. 서쪽으로부터 고지방향으로 접근해왔다. 로케트박격포탄은 붕어가 꼬리를 젓듯이 불바다 한가운데를 헤염쳐가고 하나둘

뒤를 이어 잇달아터지는 폭발소리는 점점 더 크고 웅글게 들려왔다.

호수가를 내리비치는 신호탄의 밝은 불빛과 변두리를 날아다니는 땅크포탄의 키낮은 불줄기들을 오래동안 내려다보던 노비꼬브는 언뜻 멀리서 들려오는 땅크발동기의 동음을 포착했다.

그는 참호를 따라 걸었다. 포진지결에 가서 가만히 보초를 불렀다.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흉장을 넘어서자 보초인 레메슈꼬브와 전체 성원들이 보이였다. 포판사이에 방수포를 깔아놓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소곤소곤 이야기들을 하고있었다. 고르바쵸브 한사람만이 자고있었다. 그는 포탄상자들을 맞대놓고 누워서 방수포비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자고있었는데 드렁드렁 코를 고는가하면 잠꼬대를 하며 발길질을 한듯 장화목에서 탄창이 삐죽이 내밀려있었다.

노비꼬브의 발자국소리를 듣자 모두는 일제히 머리를 돌리고 기다렸다는듯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레메슈꼬브는 손바닥으로 입을 썩 문대기고 결눈을 한번 주었다. 젊은이의 튼튼한 근육이 화광에 장미빛으로 물들었다.

《왜들 자지 않소?》 노비꼬브가 물었다. 《전투가 시작된 다음에 끄떡끄떡 졸겠소?》

그리고는 흉장에 기대앉았다. 쁘로혼꼬는 담배꽁초를 흙에 비벼끄고 시무룩하여 연송 한숨을 쉬였다. 두팔로 무릎을 싸쥔 그는 거기에 면도를 하지 않아 거무스레해진 턱을 고이였다. 명상에 잠긴 갸름한 얼굴이 미소로 하여 일그러졌다.

《저, 중대장동지…》

《땅크들이 잠들수 없게 합니다.》조준수 스쩨빠노브가 웅얼거렸다. 키가 앙바틈하고 다부지게 생긴 스쩨빠노브

는 각반을 촘촘히 둘러감은 다리를 벌려짚고 수집은듯 몸을 옹송그리고 포판에 앉아있었다. 그는 기침을 짖고 나서 마치 세수를 하는듯 손으로 너부죽한 얼굴을 문지른 다음 왜서인지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가락들이 떨리였다.

《땅크들이 도시변두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직접 조준으로 고지를 쏘아댑니다.》 그는 미안쩍어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시가지에서 우리 사람들이 되게 얻어맞은거지요? 놈들이 족쳐대는것 같습니다. 우리 익측이 겨우 지탱하고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얻어맞았단말이요?》 하고 노비꼬브는 되물었다.

《우리 목숨은 이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장동지?》

스쩨빠노브는 또다시 자기의 넙적한 볼을 문다지며 소심하게 말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동무들의 결혼식에서 축배를 듭시다.》 노비꼬브는 확신성있게 말했다. 《동무한테 약혼녀가 있소? 기다리고있겠구만.》

스쩨빠노브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다.

《중대장동지, 전 장가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습니다.》

《참을성이 없었던게지.》 여전히 턱을 무릎에 고이고있던 쁘로흔꼬가 뒤틀린 심사로 끼여들었다. 《적은이, 자네가 만일 우리 중학교에 다녔더라면 난 자네 어머니앞에서 임자의 바지를 벗겨 적은이를 톡톡히 혼내워주었을거네. 녀편네와 함께 자는건 까다로운 일이 아니지.》 늘 그렇듯이 그는 노비꼬브에게 자기 독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중대장동지?》

그러나 약삭바르지는 못하나 선량하고 수집음을 잘 타는 스쩨빠노브가 장가를 들었다는 사실은 노비꼬브를 놀

라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이 젊은이는 노비꼬브로서는 체험할수 없었던것을 체험한 선배인셈이였다.

《스쩨빠노브동무, 동문 참 잘했소.》노비꼬브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아이들이 있소?》

《미처 생기질 못했습니다.》 스쩨빠노브는 웅얼거렸다.

《참 안됐는데…》 노비꼬브는 마치 자기는 가정을 가지고나 있는듯이 말했다.《전쟁이 끝나면 아이들이 병사로 자라야 하는데…》

전투음향을 뚫고 강한 폭음이 울리더니 그 소리는 시가지쪽에서 고지방향으로 날아들었다. 포 오른쪽 삼십보가량 되는곳에 포탄이 떨어졌다. 흙덩이들이 날아오르고 파편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진지우로 날아넘어 흉장옆에 툭탁툭탁 떨어졌다. 뒤를 이어 고지너머에서 기관총이 자지러지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탄환이 포 왼켠으로 날아들었다.

모두가 도시쪽을 바라보았다.

《굉장한 두꺼비가 달려드는 모양이군. 정말 땅크들이 도시변두리로 돌파해들어왔을가?》레메슈꼬브는 파편이 떨어져내린곳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러나 머리를 구겨박지는 않고 그저 약간 아래로 숙이고있을뿐이였다.

《중대장동지,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디쯤 왔는지 모르시겠나요?》스쩨빠노브가 활기를 띠고 갈린 소리로 물었다. 《코밑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선 지탱해내지 못했는데 우린 이렇게 버티고있으니…》

그러자 모두는 묻는듯 노비꼬브를 쳐다보았다. 병사들은 도이췰란드놈들이 도시변두리로 돌파해왔고 그 변두리와 고지사이의 공간에는 모름지기 보병들이 적거나 전혀 없다는것을 노비꼬브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듯 했다.

노비꼬브는 자기가 다르게 대답할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아무리 기대어린 말로 원기를 돋구어주고 안심시킨대도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수는 없다는것을 알고있었으며 병사들을 안심시키는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사정없이 찍어 말했다.

《도이칠란드놈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을 돌파할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제일 쉬울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놈들이 돌파한다면 다시말해서 우리가 놈들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를 헛되이 흘린것으로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난 싫습니다. 우리가 놈들을 통과시킨다면 놈들은 전투를 하지 않고 지나갈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서 전쟁을 지속할수 있도록 슬로벤스꼬사람들의 폭동을 진압할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자면야 무엇때문에 여기에 중대의 절반 인원을 묻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된것이 우리들뿐인가요? 스쩨빠노브동무, 왜 말이 없습니까?》

《중대장동지, 왜 그러십니까? 전 그저…》

그는 어쩔바를 몰라하며 웅얼거리고 살집 좋은 볼편을 문다졌다.

《됐소, 그럴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걸로 칩시다.》 노비꼬브는 어느덧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빙그레 미소를 지어보였다. 《레메슈꼬브동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있었소? 비밀이 아니면 나도 듣고 비밀이면 물러가겠소.》

《어떤 로파에 대한 허튼소리를 지껄이던 중입니다.》

쁘로혼꼬는 비웃으며 손을 획 내저었다. 《랴갈로브가 여기 있었더라면 재미나는 이야기를 지어냈을거야. 마치 책에서 읽기나 한듯이 꾸며냈을거야. 달리는 말이상으로

척척 주어섬겼을테지…》
레메슈꼬브의 얼굴이 흐려지더니 시허연 살눈섭을 슴벅거렸다.
《아니, 롱이 아니요, 속인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중대장동지.》 그는 떠듬거리며 마치 변명하듯 말했다. 《로파가 딸기를 따러 산으로 갔는데, 아니, 쁘로혼꼬, 손을 내젓지 말게. 이건 사실이네. 맹세하네. 그래 산으로 갔네. 그러다 넘어졌지. 우리 고장엔 산림속에 말라버린 우물이 많네. 거기엔 갖가지 뱀들이 가득했네. 한 닷새쯤 있다가 이웃마을의 꼴호즈원들이 전신에 뱀이 욱실거리는 죽은 그 로파를 발견했드랬네.》
레메슈꼬브는 신비롭게 눈을 쪼프리고 번쩍이는 화광속으로 날아가는 로케트포탄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더 자상히 이야기해달라는 동지들의 권고를 기대하고있는듯 싶었으나 병사들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뱀이라고?》고르바쵸브상사는 방수포비옷밑에서 버스럭거리며 거쉰 소리로 물었다. 그는 금방 깨여난듯 싶었다.
레메슈꼬브는 포탄상자들이 있는쪽을 넘겨다보고 다짐했다.
《그래, 거기엔 독사와 별의별것들이 다 있었어.》
《암,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말고!》 고르바쵸브는 방수포비옷밑에서 잠기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는 달게 하품을 하고나서 에헴 하고 큰기침을 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말이요?》 레메슈꼬브는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모조리 목을 눌러죽였으면!》 고르바쵸브는 포탄상자우에서 돌아누우며 말했다. 《놀래울줄을 안단말이야.》
《뱀이 많단말이네. 그래도 인젠 그 말을 걷어치워!》
《아니! 무슨 어리석은 말을 해! 모조리 눌러죽였으면! 무

엇을 걸어치우란 말인가? 모조리 뒈졌으면 해. 동무 생각은 안그래?》

《나를 두고 생각해보진 않았어.》 레메슈꼬브는 노여워하며 대답했다.

《누가 동물 그렇게 교양했나? 어느 학교에서?》

고르바쵸브는 잠에 취하여 코를 쿵쿵거리며 장화를 서로 맞대고 비벼 그속의 발을 약간 뽑아내더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모로 누워 조용해졌다. 고르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이렇게 잘수 있었다.

《괴이한 일이로군.》 노비꼬브는 웃지 않고 말했다. 그는 레메슈꼬브와 함께 오브친니꼬브의 포진지로 돌파해가던 일을 상기하고 그를 섭섭하게 해주고싶지 않았다. 《아주 괴이쩍고도 꽤 재미난 이야기군.》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며 덧붙여 말했다. 《통신련결이 되면 부르시오. 난, 난 제2포에 가겠소.》

오른쪽에서 땅크가 고지에 대고 사격해왔다.

자기 혼자서 알레쉰의 포를 향해 걸어가게 된 지금에야 노비꼬브는 조성된 정세의 심각성을 똑똑히 가늠할수 있었다.

2주야동안 계속된 시가전은 도이췰란드측의 력량이 조금만 우세해도 도시가 함락될 운명을 지니고있었다. 그런데 력량상 우세는 도이췰란드측이 지니고있었다. 리브늬시에서 돌파해온 도이췰란드군집단은 아침전투에서 땅크들을 아끼면서 숲속으로 후퇴했으며 고지앞의 분지공격을 단념함으로써 력량을 보존했던것이다.

노비꼬브가 오브친니꼬브네 포진지로 가면서 분지에서 목격한 모든것은 도이췰란드놈들이 호수가의 도하장으로 나가는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뢰를 해제하였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그러나 놈들의 완만한 행동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면서 다는 리해되지 않았다. 그는 이 밤중

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1분 또는 한시간 지나서 아니면 아침녘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가늠하려 했으나 정확히 알수가 없었다. 그 누구도 이 도시가 함락되여 놈들이 국경을 넘어 체스꼬슬로벤스꼬로 건너가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노비꼬브와 그가 까르빠트까지 함께 이끌고 온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더 상상키 어려운 일이였다.

제2포는 고지 오른쪽끝에 있었다.

《섯! 누구야?》

《노비꼬브요.》

방수포비옷을 쓴 사람이 나지막한 포판결에서 움씰거렸다. 달빛이 보초의 어깨를 내리비치고있었다. 보초는 노비꼬브를 마주하여 걸어오는데 노비꼬브는 놀라서 물었다.

《이게 누구요. 알레쉰이요? 새 소식은 없소? 동무가 보초요?》

《전, 중대장동지.》 알레쉰이 흥분하여 대답했다. 《토굴속에 잠자러 가라고 대원들을 쫓았습니다. 계속 진지에 나와있으면 영향이 나쁠게거든요. 안심시켜야지요.》 노비꼬브는 부지중에 씩 웃었다.

《오늘은 위쨔, 잠들것인가 아닌가를 자신들이 결정할게요. 만일 지휘관이 보초를 서게 되면 그것으로도 안심을 못하게 될거요. 알겠소. 위쨔? 병사를 세우시오.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고.》

《알았습니다.》 알레쉰은 쾌활하게 대답하고 이마에서 모자채양을 올리밀었다 놓았다. 무더운지 그는 방수포비옷을 벗어던지고 활기있게 말했다. 《어째서 저놈들이 조용할가요? 기다리기 싫증이 난 모양이지요. 빨리 시작되였으면, 중대장동지!》

전방 보병참호쪽대기에서 신호탄이 올랐다. 파아란 대

기중에 걸려있던 신호탄은 점점 꺼지면서 지뢰밭으로 내려꼰졌다. 노비꼬브와 알레쉰은 포판에 앉았다. 도이췰란드군과 아군의 기관총들은 침묵하고있었다. 장미빛화광을 통하여 노비꼬브는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지켜보는 알레쉰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주근깨들은 보이지 않았다. 알레쉰에게서는 외투냄새도 담배냄새도 아닌 그 무슨 상쾌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쵸콜레트냄새도 건빵냄새도 총각의 들크무레한 땀냄새도 아니였다. 그 냄새는 상쾌하고 가정적분위기를 돋구어주었으며 금방 여기로 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것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였다. 언뜻 레나가 떠오르면서 얼마전에 자기 몸에 와닿았던 처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생동하게 감촉되였다.

알레쉰은 서운해하며 말을 꺼냈다.

《신호탄만 띄워올리니 기다리기에 싫증이 났습니다. 전투가 개시되면 또 다섯대의 땅크를 나의 이름으로 등록해주십시오. 믿어집니까?》

《믿지 않구… 믿소.》

노비꼬브는 그에 대한 기특한 생각과 더불어 유감스러운 감정이 솟구치는것을 막을길이 없었다. 청춘시절의 천진성을 그대로 잃지 않고있는 알레쉰은 노비꼬브가 깨닫지 못했거나 리기심에서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것들을 서둘러 체험하는것이였다. 노비꼬브는 자신이나 중대원들, 레나에게서 일어날수 있는 일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가늠할수 없었다.

《참, 그렇지. 위쨔, 동무의 쵸콜레트를 전달했소.》 하고 노비꼬브는 말했다. 《레나가 동무에게 감사를 전하더구만. 그는 자기가 쵸콜레트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했소.》

《그렇습니까? 나에게 고맙다고요? 레나가요?》 알레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되묻고나서 기뻐서 큰소리로 웃었다. 《레나는 어떻습니까, 중대장동지? 좀 나았는

가요? 대대군의소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지요? 참 용한데요!》

《그렇소. 그러나 래일은 어쨌든 그 동무를 대대군의소로 보내겠소. 아니면 정황을 보고 오늘밤에 보내던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휘원상공에는 창백한 빛을 반사하며 또다시 조명탄이 올랐다. 그것은 천천히 사그라지며 알레쉰의 볼과 긴장한 입술에 그림자를 던지였다.

《보내지 마십시오, 중대장동지! 경한 상처라면 보내지 마십시오! 레나는 의사못지 않습니다. 그는 의학대학에서 공부하여 붕대도 감을줄 알고 또 다른 모든것도…》 알레쉰은 갑자르며 간청하듯 노비꼬브에게 다가섰다. 《레나가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을겁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부대로 보낼겁니다. 용서하십시오만 중대장동지, 제가 뭐 저때문에 쵸콜레트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나는 친구지간… 혹은 뭐라고 할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자기 속을 터놓군 했습니다. 전 중대장동지를 위해 보내주었습니다. 레나는 중대장동지를 증오하게 되든가 중대를 떠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증오하게 된다는건 물론 그저 그렇게 말한것이겠지요. 그건 성풀이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중대장동지는 그때 그 동무와 말도 건늬지 않을 때였습니다.》

《보초를 세우고 토굴로 가시오!》 노비꼬브는 능숙한 동작으로 권총집을 바로하면서 종전의 그 엄격한 태도로 말했다. 《보초들은 두시간에 한번씩 교대하도록 하시오.》

《잘 알았습니다.》 알레쉰은 잦아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노비꼬브가 한것과 같은 동작으로 권총을 바로하면서 역시 성급히 일어서다. 노비꼬브는 이전에 알레쉰의 구령소리에서 자기의 억양을 발견했던것처럼 이번에

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노비꼬브는 돌연 거북함을 느꼈다. 그는 알레쉰의 눈에 휼쩍 띄우는 표면상의 자기 언행에 어린이마냥 현혹돼버렸다고 생각했다. 왜서인지는 모르나 이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렸듯이 지금은 동무들이 자기에게 끌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것이다. 그는 알레쉰이 아무것도 모르고있을 때 벌써 일찌기 지휘관의 위치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던것이다.

(알레쉰은 년령과 경험이 더 많은 나에게서 지휘관의 리상을 발견했다.) 노비꼬브는 정겨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허지만 저 동무는 내가 자기와 동년배나 다름없다는것을 알지 못한다. 저 동무는 나도 자기와 꼭 같은 것을 생각하며 군사경험밖에 다른 아무 경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도 쵸콜레트를 먹고싶으며 보초를 서고싶으며 까부신 땅크자랑을 하고싶다는것을 알지 못한다. 허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모름지기 저 동무에겐 나의 용감성이 그 어떤 특유의 용감성으로 생각될것이다. 에이 위쨔, 위쨔, 언제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게 되면 동무에게 모조리 말해주리라. 그러면 동무는 놀라며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하겠지. 허지만 나타난 사실은 그럴수 있었다. 동무는 그저 나보다 젊고 나는 사람들을 책임졌다는 그것이다.)

《잘 자오, 위쨔.》 노비꼬브는 이렇게 말하고 여느때없이 알레쉰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아마 편안히 자지 못할게요. 어떻게 되겠는지… 두고봅시다.》

《젠장, 어떻게든 되겠지요!》 알레쉰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그는 이마에서 밀리여 올라간 모자채양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방어하기가 제일 싫습니다. 레나동

무에게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제1포로 돌아온 노비꼬브는 고르바쵸브를 깨워서 그에게 도시로 뚫고들어가 사단과 련계를 맺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의 정황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주었다. 병사들은 여전히 자지 않고있었다. 한마디 말없이 포가사이의 방수포우에 누워서 자기의 명령을 듣고있었다. 시가지쪽에서는 오렌지색 줄띠들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 고지와 얼굴들, 무기와 포탄상자들을 비치였다. 적후에서는 이따금 흉장의 흙더미가 부르르 몸을 떨게 하며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각양각색의 신호탄들이 화광한복판에 날아올라 비밀의 자기 암호를 표식하고있었다. 한편 중대의 전방인 지뢰원너머의 적군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고지가 촘촘히 포위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쪽은 화광이고 앞쪽은 기회를 노리는 정적이 지배하고있었다. 그곳에는 도이췰란드놈들과 땅크들이 숨어있을것이고 노비꼬브로서는 알수 없는 공격시간을 정해놓았을것이다.

《가서 좀 쉬겠소.》 그는 진지에 서린 긴장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늦춰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레메슈꼬브에게로 향했다. 《무슨 변동이 있으면 깨워주시오.》

《알았습니다.》 레메슈꼬브는 큰소리로 대답하고 몸을 일으키며 눈을 슴벅거렸다. 《과연 이런데서 잠들수 있습니까?》

짚냄새가 확 풍기는 엄페부는 얼마나 어두웠던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을 꽉 감았을 때처럼 어둠이 줄기줄기 층을 이루면서 그의 앞을 에워쌌다. 그는 자기 숨소리와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소리에 귀기울이며 입구에 한참 서있다가야 가만히 불렀다.

《레나, 자오?》

《동무를 기다려요. …이리루 오세요. 거기 우엔 어때요?》

엄페부 깊은곳에서 겨우 가려들을수 있는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솔솔 불어오는 훈풍을 맞받아가듯이 그 속삭임을 마주하여 걸어갔다.

《포위되였지요, 네? 등잔은 켜지 마세요.…》

《레나, 동무는 여기에 있으면 안되겠소.》 노비꼬브가 말했다. 《동무를 어딘가 조용한곳으로 보내야겠소. 고지아래 별장으로라도 내가 동무를 데려다주겠소.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소.》

《목소리를 듣고 짐작컨대 얼굴을 찡그리신것 같군요. 저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동무곁에만 있게 되면 난 마음이 편할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반대요.》

《이상하군요. 허지만 리해는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서계세요? 전 우리가 정거장에 서있는거나 다름없다는걸 알아요. 그렇단들 뭐래요? 할수 없지요. …외투를 벗으세요. 동무는 몹시 피로했을테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거예요. 전 동무가 떠나간 다음에 동무가 아주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오던가 아주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댔어요. 그러나 오신 이상은 절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는걸 의미해요.》

레나는 행복에 겨운 웃음을 지었다. 이전같으면 불결하고 화약내와 피, 땀냄새가 차고 넘친곳에서 웃는 레나의 웃음이 노비꼬브에게는 부당하고 꾸며낸듯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테지만 지금은 다르게 감수되는것이였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불손하게 대하던 레나가 난데없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귀염상스런 웃음을 지었다든가 그 자신도 못견디게 그 처녀에게 끌린것(오래전부터였을수도 있다.)은 머나먼 옛날 그에게 비쳐왔던 사랑과는 달랐다. 문화공원의 축축한 가로수길에서 풍기는 냄새, 맨발밑의 누런 모래, 나무들사이로 얼씬거리는 해별에 탄 다리들, 울타리에 기대여놓은 자전거,

탄산수매대결에서의 예견치 않은 상봉, 거품이는 탄산수를 마시며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눈, 가로등주위를 소리없이 내리는 눈…

희미해진 유년시절에서 남은것이란 그의 군복저고리 안주머니에 모두 있었다. 그것은 네통의 편지였다. 사진은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으면서 주머니속에서 편지가 벌거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순간 주춤하고 멈추어섰었다. 유년시절의것을 배반하고 파괴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현재의것이 자기에겐 더 중하고 강하며 더 필요한것임을, 더없이 소중하고 성숙된것임을 느끼는것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체험했다.

《나는 한번도… 동무에게 느끼는것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소.》 그는 이렇게 웅글은 소리로 말하고 처녀가 누워있는 침상에 걸터앉았다.

처녀는 가까이 누워있었으나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내 말을 믿소?… 단 한번도!…》

그는 처녀를 포옹했다. 처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두팔을 들어올려 그의 목을 휘감은 다음 자기쪽으로 끌어당겼다.

《인젠 저를 병원으로 후송시켜도 좋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무는 제 사람이예요!…》

노비꼬브는 어둠속에서 처녀의 얼굴을 가려보려 애쓰며 침묵속에서 처녀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는 생활의 부당한 요구로 하여 불의에 들씌워진 리별의 슬픔을 여적 느껴본 일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처녀의 입술과 보드라운 눈섭과 꼭꼭 찌르는 살눈섭에 입맞추기 시작했다. 노비꼬브는 결심한듯 짐짓 용기를 돋구어 말했다.

《동문, 아무 병원에도 가지 않을거요. 난 동무를 멀리 보내지 않겠소. 위생대대에 가는것만 허용하겠소. 동무가

사단에 남도록 하겠소. 난 힘들게 만나서 함께 싸우던 중대동무들을 다 잃었소. 소대장들도 말이요. 쓰딸린그라드로부터 함께 오는 사람들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소.》

레나는 대답이 없었다.

《왜 말이 없소, 레나? 동무 생각을 알만하오.》

《모든게 달라질수 있어요. 저를 리해해주세요!》 레나는 심각해서 정열적으로 대답했다. 《모든것이… 동무와 이렇게 된것이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공연한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라던 일이 성사되였을 때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동무와 나자신때문에 겁이 나요. 알겠어요?》

노비꼬브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여 레나를 포옹했다.

《그건 공연한 소리요, 레나.》 노비꼬브는 조용히 말했다. 《난 별일 없을게요. 그 문제는 생각지 마오. 난 절대로 죽지 않소. 전쟁초기부터 난 그걸 확신하고있었소.》

엄페부천정우에서 들려오는 우당탕소리와 짤막한 웨침소리, 뛰여다니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노비꼬브는 벌떡 일어나 어둠속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외투를 입었다. 그는 묵직한 권총이 달려있는 혁띠를 솜씨있게 외투에 두르면서 련이어 터지는 폭음을 들었다. 고지를 마구 흔들어대는 폭발소리에 흙이 부스러져 내려오면서 소나기처럼 그의 어깨에 쏟아졌다.

레메슈꼬브의 목소리인지 스쩨빠노브의 목소리인지 똑똑치 않은 목소리가 엄페부끌에서 들려왔다.

《중대장동지! 도이췰란드놈들입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란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랭담해졌었으나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말없이 침상우에 일어나 앉은 레나에게 재빨리 다가가 포옹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시작됐소! 가보겠소!…》

그리고는 외투를 여미며 엄폐부밖으로 나갔다.

날이 밝아 희끄무레해진 화광과 안개속을 뚫고 들쑹날쑹한 까르빠트산봉우리우로 동터오는 차거운 연보라빛 동켠하늘, 대지에 차고넘친 신선한 새벽공기, 이슬에 축축해진 견장들과 잠이 채 깨지 않은 누렇고 둥그스름한 스째빠노브의 얼굴, 푸름푸름 밝아오는 하늘가에 투명한 얼음인양 사라져가는 달 등 어느것 하나 노비꼬브의 의식에 또렷하게 안겨오질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현실적으로 맞다든 한가지 사실이외에는 모든것이 아무런 흥미도 주의도 끌지 않았다.

아직 밤이 채 물러가지 않아 어둠침침한 그늘속, 낮에 적들이 물러간 소나무숲언저리는 마치 불을 토하며 움직이는것 같았다. 검실검실한 땅크몸체들은 도랑을 넘느라 무겁게 뚱기적거리며 두갈래로 갈라져 기여나왔다. 한갈래는 종전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있던 진지옆을 지나 남빛으로 번뜩이는 호수방향으로 향하였고 지뢰원을 통과해가는 또 한갈래는 노비꼬브의 포가 있는 고지방향으로 향하고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첫순간 노비꼬브를 놀라게 한것은 공격개시가 지연된것이 아니라 놈들의 공격태세에 뭔가 해득하기 어려운 새로운것이 숨어있는것이였다.

아침노을이 금방 비끼기 시작한 때여서 고지는 아직 밤어둠을 깨끗이 털어내지 못하고있었고 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한 땅크들의 움직임을 친절히 감싸주고있었다. 웅글은 쇠소리, 배기관에서 길게 뿜어대는 불꽃, 불을 토하는 아가리, 용수철이 힘껏 딸리웠다가 급회전하면서 긁어대는 쇠소리를 듣고 노비꼬브는 땅크들이 고지를 향해 오고있다는것을 확정할수 있었다.

량쪽 숲가에서 두방의 신호탄이 날아올라 사방을 현란

하게 비쳤다. 이 신호탄의 반사광인양 불타는 시가지의 변두리, 어제밤 시내를 돌파하고 고지뒤켠에서 땅크들이 진지를 사격하던 바로 그곳에서는 응답신호탄들이 높이높이 날아올랐다. 노비끄브는 그것이 《우리는 돌파해간다. 도시에서 합류하자.》라는 신호임을 알아차렸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크들은 전선을 우회하여 관목숲을 짓뭉개며 고지전방 지뢰원구역으로 막 들어서고있었다. 지금에 와서 어제밤 놈들이 오지의 지뢰를 해제했음이 명백해졌다.

《스쩨빠노브동무, 왜 그러고 서있소? 포를 향해 구보로!》살집좋은 볼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뜯고있는 스쩨빠노브를 발견한 노비끄브가 명령했다.

스쩨빠노브는 자기 곁의 교통호바닥에 엉거주춤 앉아 사방에서 폭발의 불기둥이 일어나는 고지를 바라보고있었다. 부르르 떨리던 그의 두툼한 입술이 무슨 말인가 하려고 움지락거렸으나 노비끄브는 분간해 들을수 없었다.

《구보롯!》

뚱뚱한 스쩨빠노브가 달려가다가 포탄이 터질 때마다 커다란 머리를 땅에 구겨박는 모습을 본 노비끄브는 놀라서 (저 사람이 왜 저럴가? 침착한 젊은이였는데… 신경이 위축된 모양인가?)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스쩨빠노브의 뒤를 따라 포를 향해 달리던 노비끄브는 두차례나 몸을 수그렸다. 듣기에도 모서리에 날이 섰을듯한 날카로운 파편들은 흉장우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윙윙 소리를 냈다. 이 죽음의 음향은 그를 새삼스럽게 자극하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병사들은 포주위에서 정신없이 덤벼치며 잠을 못자 흙빛이 된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받침대를 고정톱쪽

으로 황급히 넘겨보내군 했다.

외투를 벗어버린 쁘로혼꼬는 도끼를 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포판끝의 홈타기를 있는 힘껏 내려치고있었다. 그는 성난 입술을 재빨리 놀려 고정톱쪽으로 받침대를 밀어보내는 레메슈꼬브에게 뭐라고 소리쳤다. 얼굴을 돌린 쁘로혼꼬의 예리한 눈동자는 복수의 일념으로 번뜩이였다. 그의 눈길이 노비꼬브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쳤다.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여 맞다들렸다는 기세였다. 이 눈길을 포착한 순간 노비꼬브의 가슴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무겁게 느껴지는 외투를 벗어 흉장에 획 내던진 다음 《자기 위치로! 장탄!》하고 소리질렀다.

약통실쪽으로 달려가는 레메슈꼬브의 면도하지 않은 광대뼈와 턱에는 포탄기름흔적이 찍히고 반쯤 벌린 입술에는 몹시 서두르는 기색이 엿보였다. 매끄러운 포탄이 그의 손안에서 빠져나와 약통실에 살짝 들어갔다. 순간 폐쇄기가 절컥 닫기였다. 레메슈꼬브는 팽이처럼 돌아 구원의 포탄상자로 되짚어 달려갔다. 포탄을 꺼내쥔 그는 그것을 가슴에 살뜰히 안아쥐고 마치 누군가 자기를 밀어내기라도 하는듯 발을 든든히 벋디디고 섰다.

노비꼬브는 (이전의 레메슈꼬브가 아닌데. 참된 병사로 자랐구나 !) 하고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는 며칠동안 자기가 레메슈꼬브를 가혹하게 대한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조준경은 누가 담당할가요? 중대장동지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가요? 쁘로혼꼬를 시킬가요? 말씀하십시오, 중대장동지!…》 스쩨빠노브는 조준경쪽으로 뒤걸음질해가면서 소리쳐 애원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리고 당황해져서 종전의 실무적인 침착성은 찾아볼수 없었다. 마치 기가 꺾이고 상심한듯 해보였다. 그의 흐리멍텅한 눈길은 노비꼬브를 맞갖지 않게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종전의 세심한 주의력은 자취를 감추고 부질없이 눈알이 데룩거리고있었다. 노비꼬브는 이것이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머지 그에게 병마처럼 엄습해온 보신감으로 하여 생긴 공포심이란것을 알아차렸다.

《동무는 왜 그리 시무룩했소?》 노비꼬브는 스쩨빠노브의 어깨를 붙들어 자기켠으로 돌려세우며 물었다. 《정신을 바싹 차리시오! 머리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시오! 어리석은 생각을 먹게 되면 단발에 거꾸러지오. 조준경앞으로!》

그는 조준수 스쩨빠노브에게 반박할 여유를 주지 않고 포판으로 밀어보냈다.

스쩨빠노브는 조준경에 무릎을 꿇고앉아 조절장치손잡이에 떨리는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손잡이가 미끄러져 달아났다. 그는 다시 그걸 붙들었다. 구불사하고 넙적한 그의 잔등이 팽팽해졌다.

노비꼬브는 그 잔등을 보고 그가 최대로 긴장했으며 조척도 부정확하게 움직이리라는것을 몸으로 느꼈다.

《제가 조준경을 보겠습니다. 중대장동지! 허락하십니까?》 등뒤에서 쁘로혼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땅크에서 쏘아대는 포사격소리가 그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반달형으로 움직여오던 땅크대형은 점점 넓혀지고 전선방향으로 더 휘여들면서 고지를 포위하였다. 반달대형의 좌익은 호수쪽으로 향했으나 어제 적들이 도하장을 조준하던곳이 아니라 종전의 오브친니꼬브포진지옆으로 하여 밤에 노비꼬브가 부상병들을 데리러 갈 때 적들과 조우했던 분지방향이였다.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지금은 중간지대에 들어선 땅크들을 저지시키지 않았다. 반달대형의 중심은 접근해오면서 고지를 향해 늘어섰다. 한편 대형의 우익은 도로를 직선으로 차단하였다. 땅크들이 침침한 검은 그림자처럼 도로를 넘어갔다가 다시 익측으

로 우회하여 도시쪽으로 움직여가는것이 보이였다.

땅크대형의 량끝에서 서로 신호하며 신호탄이 타올랐다 꺼졌다 했다. 분지는 점차 커지는 굉음으로 꽉 차고넘치였으나 희미하게 가려보이는 정방형의 땅크들은 아직 본격적인 사격을 해오지 않았다. 아직 목표를 찾지 못했는지 익측만을 갈겨댔다. 이것 또한 노비꼬브에게는 비정상적인것으로 느껴졌다.

《알레쉰을 전화로 찾으시오. 빨리!》 그는 통신병에게 명령하고 엄페호로 뛰여들었다. 통신병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전화기옆에서 덤벼쳤다.

그 순간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를 조금도 용서하고싶지 않은 심정으로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있었더라면…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했다. (저기 호수결에는 아무 방비도 없는 빈 통로가…)

《알레쉰이요?》 그는 수화기에 대고 불렀다.

《알레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즉시에 엄페호안으로 포사격의 굉음이 덮쳐들었다. 놈들이 련이어 사격을 가해왔다. 노비꼬브는 머리를 치켜들었다. 고지 오른쪽에서 화염이 솟아올랐다가 사그라졌다. 시뻘건 불덩이가 거기에 비발치듯 쏟아져내렸다. 이웃중대들이 땅크를 향해 사격을 개시하였다. 땅속에 들어앉은 중자동포들이 지척에서 숨가삐 우르릉댔다. 노비꼬브는 이웃부대와 련계가 없었다. 그는 아침전투에서 그들의 손실정형을 모르고있었다. 이웃의 포들이 살아있다는 급작스런 소식은 그를 기쁨에 취하게 했다. 그가 얼마나 통쾌하게 웃었던지 통신병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수화기를 가리웠던 손바닥을 떼고 소리쳤다.

《보이오, 알레쉰? 오른쪽에서 사격하는게 보이나말이요? 이웃들이 살아있소! 우측 땅크들은 사격하지 마오. 왼

쪽을 사격하오. 호수가로 접근시키지 마오. 포탄을 아끼지 마오. 다 말했소.》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던지고 포있는쪽으로 돌아서서 높고 쨍쨍한 목소리로 구령을 쳤다.

《주의! 왼쪽땅크를 조준할것. 선두땅크를!》

신호탄들이 더는 날아오르지 않았다. 숲에서 나온 땅크들이 집결되더니 반달대형전반에서 동시에 공격이 개시되였다. 노비꼬브는 쌍안경이 없이도 이것이 보이였다.

반달대형의 왼쪽끄트머리가 둥글게 휘여들었다. 맨끝의 땅크석대가 발동기소리를 부르릉 대며 앞으로 삐여져나와 낮은 둔덕마냥 서있는 오브친니꼬브의 포진지를 향해 돌진했다. 맨 선두땅크가 넙적한 무한궤도로 기여들어 발동기에서 빠그그 쇠소리를 지르며 몇바퀴 돌아치더니 포의 잔해를 짓이겼다. 아침노을을 받아 그 땅크의 옆구리가 피빛으로 번쩍하는 순간 노비꼬브는 첫 구령을 내렸다.

《왼쪽땅크를 향해… 쏴!》

구령이 떨어지자 포탄이 고지상공의 대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그 뒤를 이어 거의 동시에 알레쉰의 포도 쏘았다. 뭔가 높이 뜬 불덩어리같은것이 노비꼬브의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발밑의 땅이 뒤집히고 폭음이 귀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전호바닥에 나가떨어졌다. 화끈 단 폭풍에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칼이 눈을 가리웠다. 노비꼬브는 모자를 집어들지 않고(얼굴이 흙빛이 된 통신병이 전호바닥에 떨어진 모자에 추위에 얼어들었을 때처럼 곱은 손가락을 뻗치는것을 본듯하였기때문이였다.) 금방 앓고난것같은 멍한 머리를 흔들어 털고 일어섰다. 흉장에 패인 구뎅이들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 귀가 윙윙거렸다. 가까이 다가드는 땅크대형안으로 쉬임없이 올리뻗는 불꽃들이 노비꼬브의 눈안에 비쳐왔다. 땅크들이 쏘고있

었다.

고지는 이미 높은 둔덕이 아니였다. 고지우에 서린 연기는 고지를 반반한 평지로 보이게 했다. 희미한 포의 륜곽이 사라지며 즉시에 어둠속에 녹아들었다. 노비꼬브는 거기서 분주히 돌아치는 병사들의 형체도 조준기결에 있던 스찌빠노브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호를 지으며 줄지어 쏟아져내린 포탄으로 하여 누리는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흙먼지가 타래쳐올랐다.

《스찌빠노브!》 노비꼬브는 관자노리가 쩌릿하도록 성급하게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포가까이로 다가갔다. 거기서 그는 한손으로 가슴에 포탄을 안고 포가들사이로 기여오는 레메슈꼬브의 헐떡이는 흐리멍텅하고 놀란 눈과 마주쳤다. 화약내때문에 숨을 헐떡이는 레메슈꼬브는 포판앞에 무릎을 꼬부리고앉은 스찌빠노브를 눈짓하여 가리켰다. 전신이 연기에 끄슬린 쁘로혼꼬가 스찌빠노브를 건드리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뭐라고 소리쳤다.

《왜 그러오? 어째서 사격을 중지했소?》 노비꼬브가 소리쳤다. 《스찌빠노브!…》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허리를 굽힌 그는 포판에 이마를 대이고 어깨를 움츠리고앉은 스찌빠노브를 발견했다. 모자는 포판에 이마를 짓쪼은 그의 커다란 머리에 붙어있었고 재티가 그대로 앉아있는 목주름들은 산사람마냥 여전히 목달개가 달린 깃밖에 나있었다. 그러나 여름군모에 뚫린 구멍에서 흘러나온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피가 그의 몸자세와 벌어진 사태와의 이상한 불일치를 설명해주고있었다. 스찌빠노브의 바로 뒤로 구뎅이들이 새로 생겨났다. 흉장에는 그를 죽인 포탄흔적들이 있었다.

《벽호로 옮겨가시오. 시체는 후에 묻읍시다.》 노비꼬브

는 거의나 자기 목소리를 의식하지 못한채 말하였다. 숨을 돌려쉰 그는 왜서인지 자기가 조금전까지 스쩨빠노브와 지금처럼 말하지 않았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점에서 옳았고 글렀는지 기억에 되새겨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노비끄브는 현훈증이 일며 구역질이 올라오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엄폐호안에서 타박상을 입은듯 했다.

《벽호에 옮겨놓았다가 차후에 묻읍시다.》 노비끄브는 웅글은 목소리로 이렇게 뇌이고나서 명령조로 크게 웨쳤다. 《자기 위치로!》

몇초전에 있었던 일들은 씻은듯이 머리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번에도 전번처럼 명중하리라고 믿으면서 조준경과 마주앉아 대안렌즈의 고무판에 눈을 가져다댔다. 그 고무판은 아직도 스쩨빠노브의 체온과 땀기를 보존하고있었다.

그는 대안렌즈에서 반달대형이 아니라 두토막으로 갈라진 공격대형을 보았다. 뚱기적거리는 땅크들은 포를 쏘아대면서 전진했으며 대형복판에서부터 우익과 좌익으로 기여나가 말떼마냥 뭉쳐돌아갔다. 처음의 땅크 석대는 오브친니끄브의 포좌지를 지나 대가리를 틀어박을듯 분지로 굴러들어갔다.

《아니 저런.》 하고 입속말로 소리치며 노비끄브는 수동격발장치에 어느새 손을 가져갔다. 초조와 격정, 분격이 치밀어올라 그의 손과 눈이 하는 일은 마치 의식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듯 싶었다. 리성은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넌 서둔적이 없지 않는가.)라고 타일렀으나 모든것은 순간에 사라졌다. 조준기의 십자표식에는 분지에서 올라오는 경사진 넙적한 땅크이마가 마주 움직여왔다. 땅크의 커다란 포신이 흔들리며 떨었다. 그 괴물은 불을 토하면서 조준을 할수 없게 만들고는 십자표식에서 빠져

나갔다. 노비꼬브의 왼쪽에서 굉음이 일며 땅이 흔들렸다. 노비꼬브는 꽉 깨문 입술에서 찝찔한 피맛을 느낀 순간 그놈의 땅크를 다시금 포착했다. 그땐 사격하면서도 어디를 쏘는가 하는것은 상관도 하지 않았다. 땅크의 넙적한 배때기에서 성냥을 켤 때처럼 파란 불띠가 튕겨나왔다.

《중대장동지! 빨리! 빨리!… 〈메쎄르〉들이 옵니다! 중대장동지, 어서!… 빨리!…》

(이게 누구의 목소리던가, 레메슈꼬브? 그가 어디서 소리치는가? 소리치지 말고 조용하오. 레메슈꼬브! 아무 소리도 내지 마오. 난 서두르지 않소. 그건 그렇게 해야 하며 그래야 정확하기때문이요.…

내가 몇발 쏘았던가? 여섯발? 열발? 스무발? 아니, 아홉발뿐이다.… 그랬건만 대형변동은 여전하지 않는가. 어디에 명중했을가?… 땅크들은 여전히 가고있다.…) 그의 등뒤에서 또다시 미칠듯한 희열에 넘친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짐승의 울부짖음같았다. 레메슈꼬브의 그렇듯 야생적이고 그렇듯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그는 처음 들어본다.

《열석대가 불탑니다! 불타요! 아니, 열넉대입니다! 알레쉰소위가 석대를 까부셨습니다! 우리가 여섯대를 까부시고!…》 그 웨침이 뚝 그치더니 《적기가 급강하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중대장동지!…》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하늘에서 무엇을 째는듯한 가느다란 휘파람소리가 들려왔다. 포탄이 터지는 요란한 굉음속에도 휘파람소리는 바로 머리꼭대기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좁다랗고 길쭉한 추격기 《메쎄르슈미트》의 몸체가 대가리를 낮추더니 연기속을 미끄러져내려 지상으로 향했다. 적기는 기관총련발사격의 날카로운 불줄기를 내뿜으며 곧장

고지로 급강하해 내려왔다. 폭탄이 땅에 떨어지자 보병참호가 있던곳에서 흙기둥이 높이 솟구쳐오르고 그 폭풍이 고지에까지 밀려와 포가 움씰거렸다. 급강하에서 벗어져나온 추격기들은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연기속을 자맥질해나와서는 반원을 그리며 고공으로 날아올라 아득히에서 은빛날개를 번뜩이였다. 그런데 동체를 모로세운 추격기들은 다시금 고지로 내려꼰지며 기관총의 검은 독침을 삐죽이 뽑아드는것이였다.

길죽한 비행기동체에 그려진 검은 만자표식이 또렷이 안겨오고 기관총탄환의 불꽃도 눈앞에서 벙끗거렸다. 비발치듯 쏟아지는 기관총련발사격은 그 쇠붙이에서 일으키는 바람을 노비꼬브의 얼굴에까지 끼치면서 흉장에 박히였고 빈 탄피들은 쟁그렁쟁그렁 소리를 냈다. 폭탄이 포주위에 와 떨어지며 화끈한 폭풍이 잔등과 목덜미로 밀려들었다. 노비꼬브는 뜨거운 폭풍을 잔등에 감촉하고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며 엎드리지도 않고 그저 본능적으로 대안렌즈의 머리를 손으로 가리웠을뿐이다. 꺽꺽거리는 레메슈꼬브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중대장동지, 엎드리십시오! … 엎드리십시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사나와졌습니다. 머리우로 날아다닙니다. 중대장동지를 죽일겁니다. … 중대장동지가 없으면 우린 큰일입니다.…》

그러나 노비꼬브는 이런 말들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향방없이 밀려가는 폭풍처럼 한쪽 귀로 흘려보냈다. 그는 자기가 든든히 짚고있는 땅을 믿었으며 직탄이야 떨어지랴 하고있었다. 그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추격기의 가느다란 몸체들이 포를 겨냥하고 고지우의 연기속으로 내려오는것을 살피였다.

진지주위에서 울리는 굉음을 뚫고 등뒤에서 예리한 음향이 집요하게 련속 울려왔다. 전화기가 짜르릉거리는것

같았다.

《전화요?》 연기속이여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노비꼬브는 이렇게 웨쳤다. 그러자 즉시에 흥분으로 하여 떨리는 통신병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중대장동지, 알레쉰소위입니다. 보고합니다! 오른쪽에서 땅크들이 지뢰원을 통과했답니다.》

《어디를 통과했소? 어디를?》

노비꼬브는 약통실에 의지하여 포판우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보병척후가 있던 고지앞 전방과 오른쪽에 땅크들이 나타난것이 보이였다. 병사 몇명이 기관단총으로 엄호하며 땅크앞의 고지를 향하여 갈지자로 달리다가 엎드렸다가 다시 뛰여가더니 어두운 그림자속에 잦아들었다.

이 순간 노비꼬브는 보병척후가 격퇴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통신병! 알레쉰이 이 땅크들을 똑똑히 보고있소? 똑똑히 보고있나말이요? 나의 명령을 알레쉰에게 전달하시오!…》 노비꼬브는 점점 커가는 발동기소리와 기관총의 울부짖음을 압도하며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왼쪽땅크는 쏘지 마시오! 보병들을 지원하시오! 그쪽으로 쏘시오! 그쪽으로! 처음에는 지뢰탄을 몇발 쏘시오!》

명령을 준 그는 닥쳐온 난관을 예감하면서 체스꼬부대참호로 몇사람이 맹렬히 달려가는 고지앞을 내려다보았다. 알레쉰의 포탄들이 달리는 사람들의 등뒤에서 터지자 땅크앞에 흙기둥이 담벽처럼 막아섰다. 사람들은 흠칫 멈춰서는듯 하더니 척후참호가 있는 뒤쪽으로 주춤주춤 돌아섰다.

《중대장동지! 왜 그러십니까? 엎드리십시오!》 레메슈꼬브의 애원의 웨침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적기가 급강하합니다!》

누구인가 노비꼬브의 군복저고리 팔소매를 콱 잡아당겼다. 전신에 흙을 뒤집어쓴 레메슈꼬브가 숨을 헐떡거리며 재빛이 된 얼굴을 우로 젖히고 맞은쪽에 앉아있었다. 다가오는 위험때문에 꿋꿋해진 그의 눈에 화광이 어리여 번뜩이였다. 이 빛은 하늘에서 비쳐오는것이였다. 금속성의 울부짖음은 노비꼬브의 귀를 멍멍하게 했고 따르륵따르륵 총알들이 소리를 내며 포진지를 지나쳐 먼지를 일으키며 흉장에 가박혔다. 낮게 드리운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우로 날아지났다. 추격기꼬리가 고지상공에서 곤두서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부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중대장동지! 다치지 않았습니까?》 레메슈꼬브는 얼굴의 땀을 씻어내며 열에 들떠서 물었다. 《왜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중대장동지!…》

노비꼬브는 레메슈꼬브의 말을 들을념도 않고 포판결에 서서 연기에 휩싸인 자동차결을 지나 서서히 분지로 기여가는 땅크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땅크들은 호수가로 몰려가고 비행기들은 그들의 공격을 엄호하고있었다. 노비꼬브의 긴장한 눈섭이 이상하게 꿈틀거렸다. 이 땅크들을 보지 못한 레메슈꼬브는 노비꼬브가 느끼는 감정을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피기없는 얼굴을 쳐들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며 물었다.

《어디가 말쨉니까, 중대장동지? 다쳤습니까, 예?》

《포앞으로!》 노비꼬브는 이새로 내밸듯 명령했다. 《장탄하시오. 레메슈꼬브, 쁘로혼꼬가 어디 있소? 장탄하시오!》 그리고는 조준기앞에 앉으며 몸을 돌리였다.

《쁘로혼꼬가 살았소?》

포가사이에 누운 쁘로혼꼬는 호기심과 비웃음이 어린 눈으로 추격기의 움직임을 쓰겁게 살피면서 든든하게 생긴 이발로 짚오래기를 잘근잘근 씹고있었다.

《쏴!》 노비꼬브가 구령을 내렸다.
어제 아침처럼 짙은 연기가 고지앞의 벌판을 덮고있었다. 노비꼬브는 번개불마냥 벙끗거리는 발사의 섬광과 무쇠땅크들의 절그럭소리, 발동기의 동음을 듣고서 짐작으로 왼쪽의 땅크들이 호수가로 이동해가고있음을 짐작했다.
귀청을 째는 아군추격기소리가 고지우에서 들려오고 기관총이 대기를 찢으며 울부짖었으나 노비꼬브에겐 그 모든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듯이 느껴졌다. 격발장치를 누르던 그는 포에 도장한 칠감이 타는 냄새때문에 지금 자기 목이 막 타는듯이 느껴졌다. 가열된 포신이 파아란 색으로 변하여 작은 불꽃들을 튕기고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땅크들이 도시로 뚫고들어가기 위해 고지를 우회했다는것밖에 다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땅크들이 호수가로 돌파해들어갔다는것외에 그 어느것도 론리적타당성을 갖지 못하였다.
《달아난다!》 등뒤에서 웨침소리가 들렸다. 노비꼬브는 하늘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고공에서 라선비행하는 비행기들이 뭉게구름이 남긴 해빛에 번뜩이며 고지우에 떠있었다. 불줄기들이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교차되며 사선으로 땅을 향해 내려오든가 아침하늘의 고공으로 날아올랐다. 흰구름뭉치는 점점 더 낮게 서쪽으로 날아갔다. 노비꼬브는 반짝하고 비친 그것과 아군습격기에서 물러가는 도이췰란드추격기의 가냘픈 동체에서 흘러나온 줄연기를 보고 지금 저기서는 공중전이 벌어지고있구나 하고 짐작했다.
《장탄하시오!》
그는 분지 한끝에서 붐비는 땅크무리들을 또다시 묘준하고 두차례 사격한 다음 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기계적으로 맥없이 씻어냈다. 이 순간 웅글은 발동기소리가 대

기에 차고넘치며 머리가 땡하고 귀를 멍멍하게 했다. 그러나 새로 들려온 이 굉음은 고르롭게 하늘로 퍼져가는 폭격기의 무거운 음향이였다. 욕을 퍼부으려던 노비꼬브의 웨침소리가 모든걸 삼켜버렸다.

《〈일〉비행기들입니다! 중대장동지! 우리 습격기들이예요! 한대, 두대… 저것 보십시오! 나란히 렬을 지었군요! 기특한데!》

땀에 푹 젖은 레메슈꼬브는 포탄을 가슴에 안고 포가사이의 탄피무지를 달리면서 고개를 추켜들고 통쾌하게 웃었다. 헝클어진 맨머리바람의 쁘로혼꼬가 눈을 쪼프리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짚오래기를 찾으며 땅바닥을 두리번거리였다. 왜서인지 검댕이칠을 한 입이 의심스럽다는듯 쓴웃음을 짓고있었다.

《일》비행기의 대편대가 전투서렬을 짓고 태양을 가리우며 까르빠트산을 지나 서쪽으로 날아갔다.

왼쪽의 보병참호들우에서 도이췰란드군쪽으로 붉은 신호탄들이 사격신호를 했다.

습격기들이 방향을 바꾸어 원을 그리며 돌게 되자 전투는 즉시에 숨을 멈추고 땅속에 잦아들었다.

(이건 잠간동안의 휴전이다. 잠시의 휴전일따름이다. 더는 이런 휴전이 있을수 없다.) 노비꼬브는 첫번째 습격기가 공중에서 모재비로 땅크들우로 내리꼰지는것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레나는 여기서 열발자국밖에 안되는 곳에 있다. 지금 레나를 조용한 별장에 옮겨놓을수 있다. 나를 기다릴가? 나는 레나를 잊을 권리가 없다.… 아니, 난 그를 잊지 않을것이다.)

《나를 대리하시오!》그는 쁘로혼꼬를 향해 웨쳤다.《인차 돌아오겠소.》

그는 파편을 밟으며 토굴로 갔다. 따가운 안개속을 가듯이 비칠거리며 걸었다. 이전의 포진지와 교통호는 전혀

알아볼수가 없었다. 엄폐호는 있지도 않았다. 모든게 땅크가 내쏜 포탄에 파헤쳐졌고 깊이 패워 뒤집혀진 구뎅이들이 마마자국마냥 군데군데 널려있었다. 흉장은 커다란 삽이 잘라내고 쇠비로 쓸어낸듯 절반이 뭉청 잘리워나갔다.

그는 토굴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온통 검댕이를 칠하고 땀에 젖고 몸이 화끈 달아오른 그는 문을 열어젖히고 문턱에 섰으나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숨이 차서 목구멍이 막혀왔던것이다.

레나는 옷을 입고 침상에 일어나 앉아있었다. 조그마한 권총집이 달린 허리띠가 그의 허리에 늘어져있었고 새로 붕대한 다리는 일어서려고 준비하고있는듯 침상에서 내리드리워있었다. 밝은색 머리칼은 볼에 흘러내려있었다.

《레나… 난 동무를 데리러 왔소.…》 그는 쉰소리로 웅글게 말하고 레나에게 다가갔다. 《레나, 가야겠소.…》

레나는 놀라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미소를 짓고 노비꼬브를 아래우로 오래동안 훑어보았다. 레나는 화약내 풍기는 껄껄한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맞추고 속삭였다.

《됐어요. 인젠 전 인차 상처가 회복될수 있는 위생대대로 가요. 좀 계세요. 온통 땀에 젖었군요. 무더웠어요?》

레나는 위생가방에서 솜뭉치를 꺼내들고 병사들에게 하듯이 그의 이마와 턱과 목을 가만가만 찍어주었다. 어제 탄환이 스치고 지나간 오른쪽눈섭우도 씻어주었다.

노비꼬브는 자기를 정성스레 돌봐주는 친근한 손길과 가까이 있는 레나를 느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을가 두려웠다.

그는 자기 목소리가 구령치느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쉬여버렸으므로 그런 목소리로는 처녀에게 느낀 소감을 설명해내지 못하리라는 이상한 예감, 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제 14 장

별장에서 노비꼬브는 마사병을 불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생대대를 찾아내라고 말을 태워보냈다. 그리고는 이슬에 젖은 나무잎사귀무지에 펼쳐놓은 방수포비옷우에 레나와 함께 앉았다. 이것이 자기들이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는것을 알고있은것이다.

두사람 다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점점 더 세게 퍼붓는 폭탄소리와 고지너머에서 맹렬한 기관총소리가 거기까지 들려왔다. 기체를 한옆으로 기울인 습격기들은 순차로 별장우로 내리꼰져서는 나무잎에 덮인 공원의 소로길을 요란한 폭음으로 꽉 채우고 마구 흔들어놓으며 몇차례 원을 그렸다.

노비꼬브는 앙상한 피나무가지사이로 멀지 않은 고지우의 포진지를 생각에 잠겨 올려다보고있었다. 거기에는 그가 공손히 자기 목을 그러안은 레나를 팔에 안고 지나올 때 자기들을 지켜보던 그 병사들이 남아있었다.

《완쾌하십시오. 간호원동무. 우린 동무를 존경했습니다.》라는 레메슈꼬브의 인사말에 뒤이어 쁘로훈꼬가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라고 덧붙였을 때 노비꼬브는 인제야 알았다는듯한 그들의 놀란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물론 누구도 노비꼬브와 레나를 시비할 권리도 없었지

만 또 두사람을 그릇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선량한 마음들이였다. 그것은 노비꼬브가 레메슈꼬브나 쁘로혼꼬 그리고 그가 귀중히 대해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가슴속에 품고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같은것이였다. 그는 일부러 꾸며내여 베푸는 친절성따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나 젊었고 또 전쟁에서 거칠어지고 자기 세대에 운명적으로 지어진 인간의 고통을 지내 많이 보아왔던것이다. 그는 병사들이 자기를 좋아하는가 좋아 안하는가 하는 따위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으며 때로는 그들이나 자신에 대해 불친절했다. 평화로운 생활에서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는 모든것 즉 선의와 사랑, 친절은 전쟁이 끝난 후에로, 반드시 있을 미래에로 미루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우연히 얻은듯 갑자기 이루어진 사랑ㅡ레나를 위생대대에 보내지 않고 곁에 둘 방도를 찾을 힘이 없이 된것이 변명할 여지없는 가혹성으로 느껴졌다. 그는 레나의 상처가 중하지 않다는것을 알지만 그를 다문 몇시간이라도 포가까이 둘수 없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날지 누가 알겠는가.

《난 동무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노비꼬브는 자기 말이 꼭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지니고 말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내겠소. 병원, 후방에 있더라도 난 동무를 찾아내겠소. 내 말을 믿소? 우린 일시 헤여진다는걸 동문 믿어야 하오.》

《아니예요.》 레나는 이렇게 말하고 구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몸을 기대였다. 《아니예요.… 동무는 나를 찾지 못해요. 지마.》

《난 동무를 찾겠소.… 난 동무를 사랑하오. 난 이걸 늦게야 깨달았소.…》

처녀는 생각에 잠겨 조심스럽게 노비꼬브의 눈섭과 이

마를 쓰다듬다가 돌연히 고개를 숙이며 흐려진 얼굴로 량 입귀와 보드라운 아래턱이 바르르 떨리고 코구멍이 알릴듯말듯 벌름거렸다. 그러나 그는 터져나오려는 흐느낌과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어깨를 애써 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동무에겐 앞으로 많은 녀자들이 있을거예요.》

《나한테야 동무가 있지 않소. 동무가 있는데 또 무슨 녀자들이겠소.》 이렇게 말한 노비꼬브는 처녀를 힘껏 포옹했다.

《난 가야겠소. 들리지?》 그는 처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주었다. 《잘 있소! 난 가야겠소. 들리지? 난 동물 찾아내겠소.… 난 동물 찾아내겠소.…》

노비꼬브는 일어섰다. 레나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차마 당장 돌아설수 없었다. 군복저고리의 목깃에 싸인 처녀의 목과 머리칼, 좁은 어깨에 놓인 견장, 볼의 한쪽끝이 아침노을을 받아 온통 장미빛으로 물들어있었다. 의지가지없이 외로이 된 레나를 둘러싼 모든것은 신선한 가을아침공기에 꽉 얼어붙은듯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마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는 전쟁이 없었으며 총성이나 고지너머의 땅크소리도 없이 그저 가을과 차거운 장미빛공간뿐이라고 느껴졌다.

수백년 묵은 피나무들이 둘러선 정원길은 빨간 띠마냥 노을에 물들어있었고 척척한 나무잎사귀무지들도 노을빛을 띠고있었다. 성한채 보존된 별장유리들은 황금빛으로 불타고있었다.

그들앞의 고요한 늪수면에서는 차거운 김이 오르고있었다. 여기에 있는 안정과 가을습기, 이슬에 젖은 잎사귀냄새, 차겁고 정결한 짙은 노을은 자연스럽고도 영원한 평화에 대하여 말해주고있었다.

《레나, 난 가겠소. 레나, 난 가겠소.》 노비꼬브는 자기

가 당장 떠나리라는것을 알았으나 자기와는 동떨어진 이 세계에 레나 혼자 남게 되리란것을 믿지 않은채 자꾸만 되뇌였다.

《가만 계세요.》 레나는 담차게 말했다. 《가만 계세요. 동무의 팔소매가 떨어졌어요. 인제 곧… 왜 이렇게 됐어요? 파편이예요. 총알이예요? 제가 꿰매드리겠어요. 벗으세요.… 1분이면 돼요. 제꺽 할테예요.…》 처녀는 바르르 몸을 떨더니 눈을 크게 뜨고 고지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동무를 부르는거예요. 동무를 불러요.… 제가 꿰매드려요. 지마. 마사병을 통해 동무에게 전하겠어요. 제가 꿰매드려요.… 지마. 제가 꿰매드려요.…》

사람 하나가 포 있는쪽에서 달려오며 모자를 머리우로 흔들면서 뭐라고 소리쳤다. 고지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폭발때문에 그의 웨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포를 가리운 연기가 경사지를 따라 기여내리고있었다.

《이건 날 부르는거요!》

그는 팔굽이 찢어진 군복저고리를 어떻게 벗었는지, 레나가 그것을 어떻게 자기 손아래에 놓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자기는 아무 이야기도 할 경황에 있지 못하며 또다시 작별의 포옹을 해줄수 없다는것(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하나만을 알고있었다.

노비꼬브는 몇발자국을 뒤걸음쳐가다가 휙 돌아서서 버석거리는 잎사귀들을 밟으며 정원길을 내달렸다. 그는 목구멍에 걸린 뜨거운것을 삼키려고 애썼으나 넘어가질 않았다.

고지에서 노비꼬브에게 소리친 그 사람은 알레쉰소위였다. 노비꼬브가 숨을 헐떡거리며 경사지를 톺아오를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듯 했다. 온통 땀에 젖고 얼굴색이 창백해진 소위는 아래단이 불에 끄슬린 외투를 입고있었다. 알레쉰은 마주 달려오면서 청높은 소리로

웨쳤다.

《조준기가 파괴됐습니다. 중대장동지! 우리 포말입니다. 두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땅크들이 또다시 지뢰밭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하고있습니다. 장갑수송차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조준기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동지! 일부러 파괴한것 같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오브친니꼬브의 조준경을 가지러 갔댔는데 다 깨졌습니다.》

애들처럼 울상을 하고 이발을 앙다문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여 당장 울음을 터뜨릴것 같은 인상이였다. 외투소매로 눈을 뻑 문대긴 그는 크롬가죽장화를 신은 가느다란 다리를 비칠거렸다.

《포신으로 조준하오. 위쨔! 포신을 통해 조준하란말이요! 조준기가 없이! 포앞으로! 자, 위쨔, 그렇게 하오!》 노비꼬브는 이렇게 소리치고 알레쉰의 어깨를 콱 떠밀었다. 《자 위쨔, 빨리 그렇게 해봅시다!》

자동총련발사격이 그물처럼 엇갈리며 고지로 몰려갔다.

그는 흉장을 훌쩍 뛰여넘어들어갔다. 포가사이의 연기속에 무릎을 꿇고앉아 손에 포탄을 안고있는 믿음직한 쁘로혼꼬의 영상과 경기를 틀어쥐고 흉장에 엎드려있는 레메슈꼬브의 무섭게 앙다문 이발이 피끗 눈에 띄였다. 경기를 쏘아대는 그의 머리와 어깨는 부르르 떨리고 뒤통수로 미끄러져내리는 모자도 흔들리고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통이 터져서 우는것 같기도 하고 웃는것 같기도 했다.

《안될걸! 안돼!…》

고지앞에서는 모든것이 불타고있었다. 줄포탄이 터지면서 짙은 화염이 뒤덮였다. 고지 바로 아래분지에는 몇대의 땅크가 딩굴고있었다. 폭탄에 맞은듯한 이미 불타버린

땅크들이였다. 서로 맞부딪쳐 무한궤도가 엉켜돌아가며 그렇게 불탄것이였다. 반달대형은 붕괴되여 없어지고 분지는 불기둥과 타래쳐오르는 연기로 꽉 차있었다. 오른쪽에서만이 몇대의 땅크가 고지를 우회하여 덜컹거리며 가고있었다. 왼쪽에서는 주둥이가 뭉툭하고 얼룩점들이 박힌 장갑수송차들이 분지를 향하여 굴러왔고 도이췰란드놈들은 련발사격을 계속 들이대며 꼿꼿이 서서 관목숲속으로 기여들어갔다. 놈들은 목숨이 두려웠다. 그래서 장갑수송차와 땅크속에 들어박혀 사격하는 놈들이나 들판을 달려가는 놈들이나 할것없이 지체시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도시로 뚫고들어가 불가능한것(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였다.)을 가능한것으로 역전시키려 했다. 노비꼬브는 왜서인지 그 불가능한것이란 고지에 남은 자기와 자기 대원들이라고 생각했다.

《안되지! 안돼! 아, 안돼!》

…고지너머에서 들리는 땅크와 자동총사격소리와 고지우에서 더욱 잦아지는 포사격소리, 노비꼬브의 포진지주위에서 솟아오르는 벽체같은 폭발기둥, 사선으로 하늘을 날으는 탄환들을 보고 레나는 습격기가 날아왔다 간 이후로 전투는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고 도리여 고조되였다는것, 하늘과 태양은 보이지 않고 다만 디디고 서있는 땅만이 느껴지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지마, 지마, 지마… 그인 어떻게 하고있을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가?… 그이는 죽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죽일수 없어… 그인 죽지 않는다는걸 난 알어. 그인 다른 사람들이 쏠수 없는것도 쏠줄 알어… 이건 뭘가? 또?)

바늘이 레나의 손가락짬에서 바르르 떨렸다. 레나는 꿰

매던 군복저고리를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면서 하염없이 고지를 올려다보며 흙기둥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암흑속에 잠겼을 포를 애타게 찾았다. 뭔가 희끄무레한것이 연기속에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군했다. 아니면 그저 그렇게 생각되였을뿐인지…

(저건 그이야, 그인 포결에 있어. 그이야… 난 그이를 보고있어… 빨리, 빨리, 빨리 전투가 끝나주었으면!… 빨리만 끝나주려무나. 전투가 인차 끝날게야!… 끝날게야… 빨리, 빨리!)

꺼멓고 커다란 쇠덩이가 쉭—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뿌연 하늘에서 고지로 떨어져내렸다. 고지는 삽시에 눈을 부시게 하는 오렌지빛 원추형화염에 뒤덮여버렸다. 고지는 녹아내려 자취를 감춘듯해보였다. 기둥처럼 솟구쳐올라 고지전체를 뒤덮었던 연기는 움직이며 경사지로 흘러내리더니 아침바람에 씻기워 인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숨을 답답하게 하는 순간적인 오한에 몸을 떨면서 레나는 흉장에 엎어져있는 뭔가 희슥거리는것을 희미하게 가려보았다.

(저건 뭔가? 저건 뭔가?) 레나의 머리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번개쳤다. 그때 레나는 사태를 식별하고 감각할 처지에 있지 못했다. 레나는 그것이 노비꼬브가 부상을 입었거나 죽은것이라고 생각할수 없었을뿐만아니라 반대로 저건 그이가 아니라고 단정하는것이였다.

새되게 울부짖는 귀에 선 새로운 음향이 일어나며 점점 커졌다. 그 소리는 도시가 있는 왼쪽에서 퍼져올라 피나무꼭대기에서 울부짖는 순간 시퍼런 불꼬리가 번쩍하고 땅을 뒤흔들며 고지에 들이박혔다. 뜨거운 불꼬리들이 고지전역을 우불구불 감돌더니 또다시 연기가 하늘과 고지 그리고 흉장우에 시허연것을 가리워버렸다.

(이건 뭔가? 우리 까쮸샤포일가? 까쮸샤들이 어째서 사격할가? 그이가 전사한줄 알고있다. 그인 죽을수 없어. 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있을가? 그이를 사격하다니! 땅크들이 여기로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인 살아있다! 그인 살아있어! 그렇지 않다면 난 어떻게 하라는걸가? 나 혼자란말인가? 아니, 그인 죽지 않았어.… 그렇지 않다면 난 어떻게 해?)

연기는 또다시 바람에 흩어지고 허여스레한 그것은 여전히 흉장우에 까딱않고 엎드려있었다. 그때 자기 발치에 헛되이 놓여있는 아직 꿰매지 못한 군복저고리에 눈길을 돌린 레나는 순간 모든것을 깨달았다. 노비꼬브의 체취가 풍기는 군복저고리를 움켜쥔 레나는 그것을 얼굴에 대고 마구 비비면서 섧게섧게 울었다. 온몸을 떨며 뭐라고 소리치며 불공정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굴꼬대대장이 노비꼬브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는 땅크의 무한궤도에 짓이겨지고 깨진 유리들이 한벌 깔린 시가지 돌다리에 따겁지 않은 태양이 내리비치는 포근한 가을 한낮이였다. 쇠울타리너머에서는 집들이 조용히 연기를 뿜으며 불타고있었다. 가장자리들이 불에 끄슬린 정원들은 검실검실하게 보였으며 그 우로는 해빛을 받은 가을구름들이 둥둥 떠가고있었다. 굴꼬대대장이 군복저고리도 입지 않고 실내화바람에 감시소에 앉아있는것이라든가 통신병들이 전화기옆에서 자고있는것 등은 모두가 변함없는 평범한 하루의 생활이 흘러가고있음을 말해주었으나 알레쉰소위는 울고싶었다.

알레쉰소위는 면도를 했는지 목욕을 했는지 깨끗한 목달개와 새 군복외투를 입고 대대장앞에 서있었다. 파리하고 해쓱해진 알레쉰의 얼굴에선 주근깨가 유별나게 두드러져보였다. 그는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지도 않고 고르로운 목소리로 노비꼬브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팔소매로 볼을 문대였다. 그의 깨끗한 목달개와 어른스러운 얼굴에 돋은 아이들같은 주근깨를 보는것이 이상스러웠으며 그의 눈물과 그것을 닦아내는 어린애같은 동작을 보는것이 이상스러웠다.

《노비꼬브대위말이요? 노비꼬브!… 그 소년말이요? 믿어지지 않소! 믿어 안져! 그럴수 없어!》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그바람에 지도우에 놓여있던 연필이 뛰여올랐다 떨어졌다. 대대장은 빨갛게 충혈된 눈을 슴벅이며 벽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목구멍에서 기침소리가 튀여나왔다. 그의 길다란 코가 보기 흉하게 불룩하니 부풀어올랐다. 대대장은 침을 꿀꺽 삼키고 목을 문지르며 석쉼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서 중대를 인계받으시오. 가보오.… 반시간후에 떠납시다. 아군땅크들은 벌써 마리쩨에 가있소. 알겠소. 마리쩨에 말이요.》

알레쉰소위는 그곳을 나와 위생대대를 찾아 시내로 향했다. 모퉁이에서 고르바쵸브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도시는 정적속에 잠겼다. 포신씌우개를 씌운 《까쮸샤》들이 성한채 서있는 건물밑에 서있는것이라든가 해가 조용히 내려비치는 유보도 단풍나무밑에 세워놓은 위생차들, 옆마당에서 연기를 피워올리는 가마마차, 그 주위에 둘러선 병사들의 목소리 등 모든것은 변함없는 평범한 생활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하건만 알레쉰소위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이 큰 도시에서 그렇듯 크나큰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는것이였다.

마사병들이 레나를 위생대대로 이송해왔다. 위생수레와 담가들을 세워놓은 마당과 정원으로 들어가면서 알레쉰은 인차 레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을해빛처럼 갸냘프고 해맑은 레나는 머리밑에 받쳐놓은 구겨진 외투에 볼을 대고 담가에 누워있었다. 고통스럽게 일그러뜨린

곧은 눈섭은 흰 이마의 경계선을 뚜렷이 해주었다. 그 눈섭은 마음속고통을 말해주듯 가끔 가다 바르르 떨군 했다.

레나는 알레쉰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레나에게는 아주 가깝고 귀익은 소리였던것이다. 눈을 떴다. 그러나 인사말 한마디없이 그저 손가락만 움직여 잘 가라는 시늉을 했을뿐이였다.

《레나… 잘 있소.… 레나, 우린 동무를 잊지 않겠소.… 레나, 잘 있소.…》

레나는 알레쉰과 고르바쵸브가 가는것을 알지 못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잠겨들면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말아주기만을 바라듯이 무거운 망각속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외부세계의 소리는 레나에게 잘 들리지 않았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 외투가 스적대는 소리, 위생병들의 그림자가 옆을 지날 때 풀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을뿐이다. 마른 잎사귀들이 사과나무에서 날아내려 레나의 가슴에 가볍게 떨어졌다. 누군가 곁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물을 청하고 마디마디 끊어지는 소리로 누군가를 찾았다.

(누가 신음할가? 저 사람은 정말로 아픔을 참을수 없을가? 저 사람은 진짜 아픔이란게 어떤건지 알기나 할가?) 하고 레나는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경련이 일고 눈섭이 떨리였다. 레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옹송그리며 살아있을 때의 노비꼬브의 목소리와 권총집을 바로하던 습관, 그의 시선과 미소가 어떠했는가를 기억에 되살리려고 애썼다.

눈을 피끗 떴다. 벌거숭이 사과나무가지들이 구름이 분주히 떠다니는 낮은 하늘가로 뻗어있었다. 거기서는 알수 없는 포근한 자색빛광채가 줄띠마냥 엇갈리며 차거

운 가을태양밑에서 타오르고있었다. (어디서 비치는 빛일가? 저 빛은 왜 비칠가?) 레나는 생각했다. (이건 무엇때문에 있는것일가? 그이가 없는데 이 하늘, 이 공기는 무엇때문에 있는것일가?)

《저 해를 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 이런 정적이 깃들다니 믿어지지 않네.》 담배에 쩐 고집스런 목소리가 레나한테까지 들려왔다. 이 인간세상의 목소리가 레나로 하여금 망각의 세계에서 완전히 깨여나게 했다. 의식의 한 귀퉁이로나마 알지 못할 미지의 그 사람이 멋지게 표현한 그 말뜻을 알아듣게 했다. 레나는 고개를 돌리고 병원층계에 서있는 흰 위생복을 입고 팔소매에는 검은 피자욱이 듬성듬성 나있는 중년의 사나이를 증오심에 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문설주에 등을 기대고 피로한 표정으로 천천히 담배를 피우다가 정원우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자리로 돌아누운 레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듯 꾹꾹 찌르는 외투털에 볼을 꼭 대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던 곁의 담가를 쳐다보았다. 금발머리의 애어린 체스꼬청년이 고통스럽게 헛소리를 치며 가슴을 동인 붕대를 잡아뜯고있었다. 솜털이 보르르한 그의 웃입술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아있었다. 젊은이는 성급히 뭐라고 알지 못할 말을 중얼댔다. 레나는 힘들여 그 말을 알아차렸다.

《물… 물…》

몸을 일으켜세우고 손더듬으로 물통을 찾아쥔 레나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을 놀려 마개를 오래도록 서툴게 잡아뽑았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으며 그 병사의 입술에 물통을 기울이였다. 레나는 눈물어린 시선으로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모양을 바라보고나서 이렇게 속삭였다.

《아픔이 나아질거예요. 아픔이 나아질거예요.…》

슬픔에 저려나는 왼쪽가슴을 바닥에 꼭 대고 옆으로 돌아누운 레나는 꼭꼭 찌르는 외투에 다시금 얼굴을 파묻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게 입을 외투자락에 묻고서…

1959년작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

(제 2 판)

저　자　　유리 본다레브　역 자　리인주

편　집　　리영옥, 리도현

그림 및 장정　동영철, 황기호　교 정　전혜경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 쇄 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 판발행 주체 79(1990)년　9 월　5 일

2 판인쇄 주체 94(2005)년　1 월　5 일

2 판발행 주체 94(2005)년　1 월 10 일

ㄱ — 06223